

2012년 서희선양 한-중 국제학술회의

중국에서 바라본 제1차 여·요전쟁(992~993)과 서희
中国如何看待第一次丽辽战争(992~993)与徐熙

일시

2012년 2월 9일(목) 오후1시~오후6시

장소

경기도 이천시 이천아트홀

후원

이천시씨대종회

주최

이천시

주관

이천시서희선생선양사업추진위원회 · 한국중세사학회



2012년 서희선양 한-중 국제학술회의

중국에서 바라본 제1차 여·요전쟁(992~993)과 서희

中国如何看待第一次丽辽战争(992~993)与徐熙

일시: 2012년 2월 9일(목) 오후1시~오후6시

장소: 경기도 이천시 이천아트홀

진행 순서 및 시간표

13:00 ~ 13:30	대회 전 참가등록	
	식전행사 : 서희선양 전국대학(원)생 UCC공모전 수상식	
13:30 ~ 14:00	개회	개회식 사회 : (서희선생선양사업추진위원회 실무위원장)
	국민의례	
	내빈소개	
	대회사 : 이천시서희선생선양사업추진위원장 축사 : 이천시의회의장 환영사 : 이천시씨대종회장 축사 : 중국담강사범대학 법정대학 학장 축사 : 한국중세사학회장	
14:00 ~ 17:00	제1부 : 논문 발표	사회 : 홍영의 교수(숙명여자대학교)
14:00 ~ 14:40	1. 徐熙(942~998)의 외교담판에 담긴 의미와 그 영향 - 현대 韓中關係에 가로놓인 '歷史論爭'의 극복과 관련하여 - 발표 : 이춘호(李椿浩) 교수(담강사범대학) 토론 : 장동익 교수(경북대학교)	
14:40 ~ 15:20	2. 10~12세기 東北亞 정세와 宋麗·遼麗 관계에 대한 중국학자들의 연구 동향 (中國學者論10~12世紀東北亞局勢與宋麗、遼麗關係) 발표 : 곽천상(郭天祥) 교수(담강사범대학) 토론 : 이감한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15:20 ~ 16:00	3. 고려왕조와 요의 제1차 전쟁 연구 (遼與高麗王朝的第一次戰爭研究) 발표 : 신우람(申友良) 교수(담강사범대학) 토론 : 이재범 교수(경기대학교)	
16:00 ~ 16:15	시사회(휴식)	Tea Break / UCC 입상작 시사회
16:15 ~ 16:55	4. 고려에 대한 서희의 공헌 연구 - 고려와 고구려의 관계를 함께 논함 (論徐熙對於高麗國家的貢獻-兼論高麗與高句麗的關係) 발표 : 방천우(龐天佑) 교수(담강사범대학) 토론 : 김인호 교수(광운대학교)	
16:55 ~ 17:00	장내 정리	
17:00 ~ 18:00	제2부 : 종합 토론	사회 : 박종기 교수(국민대학교)
18:00 ~	폐회	

차례

1. 徐熙(942~998)의 외교담판에 담긴 의미와 그 영향 현대 [韓中關係에 가로놓인 '歷史論爭'의 극복과 관련하여] - 이춘호(李椿浩) 담길사범대학 교수	7
2. 10~12세기 東北亞 정세와 宋麗·遼麗 관계에 대한 중국학자들의 연구 동향 (中国学者论10~12世纪东北亚局势与宋丽、辽丽关系) - 곽천상(郭天祥) 담길사범대학 교수	53
3. 고려왕조와 요의 제1차 전쟁 연구 (辽与高丽王朝的第一次战争研究) - 신우량(申友良) 담길사범대학 교수	97
4. 고려에 대한 서희의 공헌 연구 - 고려와 고구려의 관계를 함께 논함 (论徐熙对于高丽国家的贡献-兼论高丽与高句丽的关系) - 방천우(庞天佑) 담길사범대학 교수	145

1

徐熙(942~998)의 외교담판에 담긴 의미와 그 영향
- 현대 韓中關係에 가로놓인 '歷史論爭'의 극복과 관련하여 -

이춘호(李椿浩)
(담강사범대학 교수)

徐熙(942~998)의 외교담판에 담긴 의미와 그 영향

- 현대 韓中關係에 가로놓인 '歷史論爭'의 극복과 관련하여 -

이준호

I. 머리말

II. 10세기 중·후반 東北亞 국제정세와 契丹의 침략

III. 徐熙의 외교담판 속에 담긴 고려의 名分과 實利

IV. 현대 韓中關係에 내재된 '歷史論爭'과 그 극복

V. 맺음말

I. 머리말

徐居正은 『東國通鑑』에서 徐熙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宋에 寇準과 富弼이 있는 것만 알고 高麗에 이미 서희가 있었던 것을 알지 못한다. 契丹은 병력이 많은 것만을 믿고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는 마음으로 서급하게 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마야흐로 蕭道寧은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蓬山을 깨뜨리고 선봉군을 사로잡아 크게 기세를 올리며 공갈협박으로 함복할 것을 강요하였다. 成宗은 西部에 이르렀다가 급히 開京으로 돌아오니, 여러 대신들이 의논하에 어떤 이는 함복하자고 하고, 또 어떤 이는 땅을 떼어 주자고 한다. 성종이 땅을 떼어주자는 의견에 따르려 하니 그 계책이 크게 잘못되었음에도 이에 감히 반론하는 자가 없었다. 서희는 홀로 그대서는 안 된다고 힘써 역설하며 한번 싸워보자고 하였으니, 바로 구준이 宋眞宗에게 親征할 것을 권한 것과 같은 계책이다. 또한 서희는 사신으로 거란에 나아가 禮로서 대항하여 굽히지 않으니, 포악하고 사나운 오랑캐도 놀라 감동하여 끝내 和親을 맺은 것이다. 奉命使臣으로서 그가 법도를 지킴이 또한 어찌 부필의 밑에 놓일 수 있겠는가. 당시 만약 서희의 계책이 없어서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면, 崑崙 이북의 땅을 우리가 어찌 다시 소유할 수 있었겠는가!”¹⁾라고 하여 실로 종전증화에 놓인 나라와 민족을 구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실로 의미심장한 것임에 틀림없는데, 따라서 우리는 契丹과 벌였던 화의담판 속에서 드러난 서희의 ‘역사적 역할’과,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이를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서희와 관련된 연구는 이미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졌는데, 즉 대외관계 속에서 그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한 시도가 있었고,²⁾ 그의 家系 및 인물사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며,³⁾ 제1차 麗遼전쟁의 경과 및 결과와 관련하여 그의 외교적 역할과 실리

1) 『東國通鑑』卷14 成宗文懿大王十二年條, “世徒知宋有寇準·富弼, 而不知高麗已有徐熙焉. 契丹恃其兵衆加兵, 於我吞噬之心翫然未已. 方蕭道寧之入寇也, 破蓬山, 獲先鋒大振聲勢, 恐喝脅降. 成宗幸西都, 奔還于京, 羣臣獻議, 或乞降或割地. 成宗特從割地之議, 其策大失, 而羣臣無敢駁論. [徐]熙獨力陳不可, 欲與一戰, 即寇準親征之策也. 及使契丹抗禮不屈, 強虜感服, 終講和親. 其奉使得體, 又豈下於富弼乎. 當時若無徐熙之策, 一失機會, 則崑崙以北, 能復保乎!”

2) 김위현, 1999, 「徐熙의 外交」, 105~121쪽, 윤명철, 1999, 「徐熙의 宋나라 使行航路 탐구」, 201~221쪽, 이재석, 1999, 「近代 外交史의 立場에서 본 徐熙」, 229~251쪽(이상은 모두 高句麗研究會 編, 「徐熙와 高麗의 高句麗 繼承意識」, 학인문화사), 박한남, 2008, 「고려시대 대외관계사의 흐름과 서희의 위상」, 『명분과 실리 서희 외교론』, 국학자료원, 71~93쪽, 金龍善, 2004, 「徐熙與十世紀麗遼外交關係」, 『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를 중심으로 접근한 연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⁴⁾ 成宗代 정치세력과의 상권관계를 중심으로 그의 시대적인 역할을 분석하기도 했다.⁵⁾ 그리고 특출한 협상가라는 관점에서 그의 功績을 연구하기도 했으며,⁶⁾ 또한 비록 서희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아니다하더라도, 고려전기의 대외관계,⁷⁾ 북방정책,⁸⁾ 그리고 정치세력들의 성향에 대한 연구⁹⁾ 속에서 간접적으로 그에 대해 검토하기도 하였다. 이밖에 화의담판 때 서희가 고려의 고구려 계승의식을 확연히 드러냈었는데, 설사 이를 중심으로 한 문제의식의 분석은 아닐지라도 고려의 건국에서부터 이런 인식은 고려사회 내부에 팽배했고, 고려는 고구려의 정통을 계승하여 건국된 왕조임을 밝힌 연구가 있다.¹⁰⁾ 주지하듯 이상의 연구는 분명 서희의 개인적인 면모뿐만 아니라 10세기 중·후반 고려를 둘러싼 국제정세, 그리고 고구려=고려의 인식 등을 확인하는데 큰

- 3) 서길수, 1999, 「徐熙의 家系 研究」, 高句麗研究會 編, 『徐熙와 高麗의 高句麗 繼承意識』, 학연문화사, 9~60쪽, 이재범, 2008, 「인물사로서의 徐熙에 대한 재평가」, 『명분과 실리 서희 외교론』, 국학자료원, 211~237쪽.
- 4) 최규성, 1999, 「徐熙의 北方政策」, 127~142쪽, 서일범, 1999, 「徐熙가 築城한 城郭과 清川江 以北 防禦體系」, 149~172쪽(이상은 모두 高句麗研究會 編, 『徐熙와 高麗의 高句麗 繼承意識』, 학연문화사), 임용한, 2008, 「서희의 현실외교론과 1차 여·요전쟁」, 121~152쪽, 신안식, 2008, 「고려초기의 영토의식과 서희의 국정론」, 155~180쪽(이상은 모두 『명분과 실리 서희 외교론』, 국학자료원).
- 5) 김당택, 1999, 「徐熙와 成宗代의 정치적 지배세력」, 高句麗研究會 編, 『徐熙와 高麗의 高句麗 繼承意識』, 학연문화사, 87~99쪽, 류주희, 2008, 「고려 성종대의 정치세력과 서희의 국가관」, 『명분과 실리 서희 외교론』, 국학자료원, 181~210쪽.
- 6) 김광현, 2003, 「서희, 세계화 속에서 고려를 찾은 외교의 귀재」, 『내일을 여는 역사』13, 하혜수, 2005, 「우리나라 역사인물의 협상전략에 대한 비교연구: 을지문덕과 서희장군을 중심으로」, 『협상연구』11-1, 박현모, 2009, 「서희의 협상리더십 연구: 993년 안용진 담판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49-2, 박상현, 2010, 「전략적 사고의 관점에서 본 서희의 강릉6주 협상」, 『한국정치학회보』44-3.
- 7) 구산우, 1992, 「高麗 成宗代 對外關係의 展開와 그 政治的 性格」, 『韓國史研究』78, 서성호, 1999, 「고려 태조대 대거란 정책의 추이와 성격」, 『역사와 현실』34, 김순자, 2002, 「고려전기 대중국관계사 연구의 현황」, 『역사와 현실』43, 김순자, 2006, 「10~11세기 高麗와 遼의 영토정책-압록강선 확보 문제를 중심으로」, 『북방사논총』11, 239~272쪽, 이재식, 2008, 「고려전기 국제관계의 특징」, 『한국정치외교사논총』29-2, 김순자, 2008, 「고려·송·거란의 대륙질서 정립과정과 고려의 외교」, 『명분과 실리 서희 외교론』, 국학자료원, 95~119쪽, 王崇時, 1986-3, 「十至十二世紀初女眞與高麗的關係」, 『北方文物』, 徐連達, 1995, 「10世紀中葉到11世紀初北宋與高麗王朝的友好關係」, 『韓國研究論叢』1, 朴今海, 1998-4, 「試述中世紀高麗與遼·宋之間的關係-以公元10世紀末~12世紀初爲中心」, 『延邊大學學報』, 蔣茂, 2008-6, 「遼朝與高麗朝貢關係淺析」, 『東北史地』.
- 8) 추명업, 2002, 「고려전기 '蕃' 인식과 '동·서민'의 형성」, 『역사와 현실』43, 신안식, 2004, 「고려전기의 북방정책과 성곽체제」, 『역사교육』89, 신안식, 2005, 「高麗前期의 兩界制와 '邊境」, 『한국중세사연구』18, 이효형, 2006, 「高麗前期의 北方認識-발해·거란·여진 인식 비교」, 『지역과 역사』19, 윤경진, 2010, 「고려 태조·광종대 북방 개척과 州鎮 설치: 『高麗史』地理志 北界 州鎮 언의 분석과 補正」, 『奎章閣』37.
- 9) 이정신, 2002, 「고려 태조의 건국이념의 형성과 국내의 정세」, 『한국사연구』118, 구산우, 2003, 「高麗 成宗代 정치세력의 성격과 동향」, 『한국중세사연구』14, 이미지, 2008, 「고려 성종대 地界劃定の 성립과 그 외교적 의미」, 『한국중세사연구』24.
- 10) 하현강, 1975, 「高麗時代의 歷史繼承意識」, 『이화사학연구』8, 박한설, 1977, 「高麗王室의 起源-고려의 고구려계승이념과 관련하여」, 『사총』21·22, 박한설, 1999, 「徐熙와 高麗의 高句麗 繼承意識」, 高句麗研究會 編, 『徐熙와 高麗의 高句麗 繼承意識』, 학연문화사, 69~80쪽, 박용운, 2004a, 「국호 高句麗·高麗에 대한 일고찰」, 『북방사논총』1, 29~49쪽, 박용운, 2004b, 「고려시기 사람들의 高麗의 고구려계승의식」, 『북방사논총』2, 155~198쪽, 안병우, 2004, 「고구려와 고려의 역사적 계승관계」, 『한국고대사연구』33, 박용운, 2006, 「高麗의 高句麗繼承에 대한 東北亞 사람들의 이해」, 『북방사논총』9, 7~35쪽.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 필자는 이상의 諸研究에 기초하여 서희의 화의담판 속에 담긴 역사적인 의미와 그리고 그것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적인 예시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英雄'은 그가 살았던 시대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했듯 서희가 살았던 동북아 국제정세는 대체 어떠한가? 이에 대한 분석이 본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은 실로 나라와 민족을 위기에서 구한 그의 '역사적 역할'이 시대적인 배경과 깊은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대학에서 唐 멸망 후 반세기 이상 이어져 온 五代十國의 혼란을 960년 宋이 통일하면서 이보다 앞선 시기 907년 長成 이후에서 유목민족을 통합하고 건국된 契丹¹¹⁾과 쌍방은 중국대학 전체를 누가 차지하느냐를 두고 군사적으로 대결하고 있었다. 이와 거의 같은 시기 936년 後三國의 분열을 끝내고 한민족을 통일한 高麗는 對外的으로 北進政策을 추진하면서 대입할 수밖에 없었던 契丹·女眞 등에 대한 견제의 일환으로 五代왕조 혹은 宋과 비교적 우호적인 외교노선을 추진하는데,¹²⁾ 이는 당시 고려의 국익과도 직접 관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에 서희는 살았고, 그 시대가 그를 원하고 있었다. 光宗 11年(960) 18세로 甲科에 급제한 그는 廣評員外郎¹³⁾에 임명되었고, 光宗 23年(972) 31세로 內議侍郞으로 宋에 出使하였으며, 그리고 成宗 2年(983) 42세에 佐丞을 거쳐 兵官御事로, 또한 같은 해 內史侍郞으로 승진하였다. 이후 成宗 12年(993)¹⁴⁾ 거란의 침략이 있자 中軍使에 임명되어 참전하게 된다. 당시 거란군에 1차 방어선이 붕괴된 이후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혼란에 빠져 있던 고려 조정대신들은 投降 혹은 割地로 위기를 모면코자 했는데, 성종 역시 땅을 떼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기게 된다. 이때 서희는 거란과의 和議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이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우선 성종과 여러 대신들의 割地論에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할지는 화의를 시도한 후에 제차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이후 奉命使臣으로서 거란장수 蕭道寧¹⁵⁾과 화의담판을 진행하게 된다. 이 담판에서 고려는 주지하듯 江東6州로 대변되는 鴨綠江 以東의 280里에 이르는 땅을 實利로써 확보하게 되었음을 잘 알려진 사실인데, 그런데 고려가 고구려의 정통을 계승했다는 사실을

11) 일반적으로 契丹은 민족의 이름으로, 遼는 거란이 세운 왕조로 알려져 있는데, 宋의 문헌에 의하면 大契丹과 大遼를 별개로 국호로 사용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遼史』에는 947년 遼太宗이 국호를 大遼라고 정했다는 기록은 오직 한 군데밖에 없다. 게다가 漢文이 아닌 거란문자와 여진문자의 기록에서는 거란 국호를 哈喇契丹·大契丹·契丹國 혹은 契丹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劉浦江, 「遼朝國號考釋」, 『歷史研究』2001-6, 40-43쪽.) 따라서 본 글에서는 契丹이란 용어를 주로 사용할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遼라고 표기할 수 있음을 밝혀둔다.

12) 김위현, 1999, 앞의 글, 108-110쪽.

13) 廣評省은 성종 원년(982) 御事都省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이후 성종 14년(995)에는 尙書都省으로 바뀌었는데, 그 밑으로 吏部·戶部·禮部·兵部·刑部·工部 등 6부를 두었다. 게다가 員外郎은 正6品の 벼슬로 서희가 과거에 급제한 후 받은 첫 관직으로는 대단히 파격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서길수, 1999, 앞의 글, 18쪽.)

14) 제1차 麗遼전쟁의 발발시기를 『遼史』에서는 統和 10年(992)으로(『遼史』卷13四 聖宗紀, "[統和十年]十二月庚辰, 是月, 以東京留守蕭恒德等伐高麗."), 그리고 『高麗史』에서는 成宗 12年(993)으로 기재하고 있어(『高麗史』卷3 成宗十二年條, "[993年 8月]是月, 女眞復報契丹兵至.") 서로 차이가 보인다. 이를 구산우는 성종 11년에 거란을 마침내 고려침공을 단행했는데, 이 소식은 그 이듬해 5월에야야 고려에 알려질 수 있다고 하여(구산우, 1992, 앞의 글, 49-50쪽), 모두 맞는 것으로 보았다.

15) 『遼史』卷88 蕭恒德傳, "恒德, 字道寧"에 의하면 '道寧'은 字이고 본명은 恒德임을 알 수 있다. 다만 『高麗史』에서 그를 소손명으로 기록하고 있고, 우리의 위에 이 이름이 소항리보다 훨씬 익숙함으로 본 글에서는 소손명으로 통일하여 서술할 것이다.

거관으로부터 인정받아 이러한 실리를 쟁길 수 있었던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학자들의 “그렇다”와 중국학자들의 “그렇지 않다”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이다.¹⁶⁾ 그렇다면 한국·중국학계에서 내세우고 있는 소손녕이 군대를 돌리고 강동6주를 고려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근거들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 서희가 고구려=고려란 인식으로 내세운 國號·도읍지·地界문제를 어떻게 이해함으로써 하여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고 옳은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런 문제들을 확인해야만 강동6주의 획득이 고려의 입장에서 진정 고구려의 舊土를 회복한 壯舉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필자는 서희의 답판이 21세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살고 있는 현대의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적인 예시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다. 특히 몇 년 전 중국이 추진한 ‘東北工程’¹⁷⁾

16)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학계에서는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여 그 舊地에서 흥기했다는 사실을 들어 서희는 소손녕을 설득시켰기 때문에, 강동6주를 차지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하고 있는 데에 반해(박용운, 2004a, 앞의 글, 33쪽), 중국학계에서는 이와 달리 고려가 당시 거란의 영역인 女眞人들이 거주한 강동6주를 불법으로 점령함에 따라 이후 거란은 7차례에 걸쳐 그 지역의 반환을 요구했으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양국 사이에서는 결국 전쟁이 발발하기까지 했다고 하였다.(鄭川水, 2003-1, 「遼聖宗及遼與高麗藩交考略」, 『遼寧大學學報』, 33~37쪽.) 주지하듯 이는 고구려=고려라는 인식과도 관계된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본 글에서는 그 속에 내재된 ‘진실’을 찾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17) 주지하듯 중국은 “현재 중국영토 내에 존재하고 있는 漢族 및 少數民族, 그리고 과거 중국 강역 내에 거주했던 모든 민족집단은 중국민족이며, 이들의 역사적인 모든 활동은 중국역사의 범주에 속한다”라는 것을 핵심이론으로 하는 ‘統一的 多民族國家論’으로 역사를 재구편성하려고 한다.(‘統一的 多民族國家論’에 관한 이해와 이에 대한 비판은 윤위탁, 2004, 「중국학계의 영토·민족·국가 인식-‘統一的 多民族國家論’과 그 한계」, 『韓國史論』40, 3~63쪽, 조재승, 2006, 「중국 ‘통일다민족국가론’의 논거와 허실」, 『중국학연구』38, 331~357쪽, 이인철, 2009, 「中國 統一的 多民族國家의 歷史認識과 그에 대한 對應論理」, 『동북아역사논총』26, 297~337쪽 등을 참고.) 이 논리대로라면 현재 중국의 영토 내에서 활동했던 고조선·고구려·발해는 중국민족에 의해 건국된 왕조일 수밖에 없고, 그들의 역사 활동 역시 중국역사의 일부분일 수밖에 없게 된다. 게다가 중국은 2002년 3월 공식적으로 ‘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이하 ‘東北工程’으로 약칭)이란 국가적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특히 高句麗 역사의 위속문제(본 글에서는 고구려=고려의 인식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함으로, 고조선·발해 등과 관련된 것은 논외로 한다)를 두고 한국(북한도 포함)과 ‘歷史論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학자들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후 얻은 결론이란, 고구려는 기원전 1세기에서 7세기까지 중국 동북지역에서 생활한 중국의 고대민족으로, 중국의 역대왕조와 隸屬관계를 맺으며 발전하였고, 中原 漢人왕조의 朝貢과 管轄을 받은 地方政權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지하듯 고구려 역사를 중국역사로 간주하려는 시도는 ‘東北工程’이 추진되기 훨씬 이전부터 있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 학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에 그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변화된 민족관·영토관·역사관을 지역적으로 표출된 구체적인 산물로서 東北工程(윤위탁, 2004, 「現代中國의 國家主義 歷史觀과 古代東北邊疆史 認識」, 『북방사는총』1, 177쪽)이 출현하면서 학자 개개인의 이견의 견해는 별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고, 이제는 정해진 목표, 즉 고구려는 중원 漢人왕조의 지방정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몰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북공정은 정치적 목적이 다른 프로젝트로써, 애당초 상무에서 결론을 제시하고 그에 합당한 자료만 골라 논리를 전개하기 때문에 학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던 학자도 있다.(박한설, 2008, 「고려의 고구려 계승성」, 『동북공정과 한국학계의 대응논리』, 879~880쪽.)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일찍이 고구려 역사에 대한 연구에 부족한 점이 없었나, 그랬다면 이를 완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중국학자들의 논리의 부당함과 동시에 그들을 학문적으로 설득시켜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중국학자들의 주장처럼 고구려는 당시 중국의 일개 지방정권으로 굳어지 버려 고구려 역사는 중국역사의 일부분으로 결론 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993년 거란의 침략 때 徐熙의 외교담판 속에 나타난 고구려=고려의 인식을 집중 분석하여, 고려는 고구려의 정통을 계승한 왕조로 건국되었음을 확인 할 것인데, 이런 작업이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감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을 통해 야기된 '歷史論爭'으로 우리는 경제·문화 혹은 전략적으로 멀리할 수 없는 그런 중국을 상대로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세살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그들을 학문적으로 설득시켜야만 하는 과제 또한 안게 되었다. 사회가 소손녕에게 언급한 고려는 고구려의 舊地에서 일어났다(我國卽高句麗之舊也)라는 사실과 이를 고구려=고려란 인식과 연계시켜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有關史實을 찾아 증명해낼 수 있다면, 이는 '동북공정'의 허구성을 알리는 이론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민족의 역사, 특히 고대사 부분이 완전한 형태로 남을 것임은 분명하며, 더 나아가 지금까지 역사교육에 대한 홀서·홀대 속에서도 민족의 부궁함과 역사의 유구함을 보전·발전시켜야 할 사명감에 조금이나마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회에 대한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된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II. 10세기 중·후반 東北亞 국제정세와 契丹의 침략

동북아 역사가 10세기로 접어들은 907년 契丹은 북방 유목민족을 제압하고 이보다 만세기가 늦게 五代의 혼란기를 끝내고 中原을 통일한 宋과 중국대륙을 남북으로 두고 치열하게 대립하였으며, 동시에 만주의 실질적인 지배 혹은 송과의 본격적인 대결을 앞두고 後方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전략적인 요인으로 고려 및 여진 등과도 적지 않게 교류 혹은 대결하고 있었다. 당시 고려와 송은 거란의 계속된 군사적인 압박에 함께 대항하기 위해 동맹을 모색하기도 하였는데,¹⁸⁾ 중국의 '대표' 자리를 두고 다투던 거란과 송 사이에서 고려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 언제나 송과의 관계를 끊고 거란과도 가까이할 수 있는 외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는 송·거란 간의 관계가 개선되면 역시 이들 모두와도 관계를 둘 수 있다는 사실로도 표현될 수 있었다. 따라서 혹자는 당시 고려는 중국대륙의 세력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등거리 실리외교를 전개했던 것이라고 하였다.¹⁹⁾ 사실 이후 994년 거란과 화의가 이루어지자, 고려는 송과의 관계를 끊고 그들과 交聘하게 된 것이나, 그리고 1004년 거란과 송이 澶淵의盟을 맺고 정상적인 友好관계로 들어서자, 거란에 사신을 보내 축하하고 어느 한 쪽에 치우쳐 교류하지 않는 양면적인 외교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²⁰⁾ 그렇다면 이러한 당시 동북아 국제정세를 염두에 두면서 특정 왕조가 출현해 패권적인 지위를 누리지 못한 가운데²¹⁾ 송 가쁘게 전개된 고려와 거란·송 그리고 여진 사이의 대외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거란이 군사적으로 강성했음은 그 말과 병사에 있다고 한 史實처럼,²²⁾ 건국 이후 거란은 대규모 征服戰을 전개하여 유목지역을 통일하고 諸民族을 그 통치하에 두면서 이제 그 세력

정리하고 미흡한 점을 보충하고자 함은 사회의 달관 속에 담긴 역사적인 의미와 그리고 그것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적인 예시를 줄 수 있을지를 재차 확인하고, 나아가 동북공정의 허구성을 알리는데 일조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18) 徐連達, 1995, 앞의 글, 134쪽.

19) 박한남, 2008, 앞의 글, 75~78쪽.

20) 朴今海, 1998-4, 앞의 글, 64쪽.

21) 이재식, 1999, 앞의 글, 237~239쪽.

22) 『遼史』卷59上 食貨志, "契丹舊俗, 其富以馬, 其強以兵, 縱馬於野, 弛兵於民."

을 中原으로 뺏치고자 하였다. 이에 한인 五代왕조와 대결하거나 혹은 稱臣을 받아 충원 진출의 교두보인 燕雲지역을 차지하게 된다.²³⁾ 그렇다면 이후 五代十國의 혼란을 통일한 宋과는 선원적으로 대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쌍방은 이러한 역사적인 운명을 적어도 澶淵의盟이 체결될 때까지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주지하듯 거란의 한인왕조에 대한 군사적인 우세는 분명했지만, 이는 극히 상대적인 것으로 이러한 우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본질적인 한인왕조와의 대결을 앞두고 그 후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고리를 어떻게든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비록 목적이 불분명하다고는 하지만,²⁴⁾ 922년 고리에 사신과 함께 낙타와 말 그리고 모전을 보내고 있는데,²⁵⁾ 이는 사서에서 처음으로 확인되는 거란과 고리 사이에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기록이며, 거란은 이를 통해 호의를 표시하려 했을 것만은 확실하다고 생각된다. 이후 고리는 925년과 926년 거란에 각각 사신을 보내 '來貢'하기도 했다고 한다.²⁶⁾ 한편 遼太宗은 937년 고리에 사신을 보냈으며,²⁷⁾ 이어서 939년에는 冊冊을 준 사실을 高麗에 사신을 보내 알리기도 하였다.²⁸⁾ 따라서 이때 양국의 관계를 폭자는 대등한 선원우호관계라고 했으며,²⁹⁾ 또 10여 년간 쌍방은 우호적인 교류를 진행해 왔다고 주장한 것이다.³⁰⁾ 그런데 고리는 고구려의 고토를 회복하기 위해 太祖 王建 이래로 北進政策을 추진하면서 거란과는 어떻게든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는데, 특히 양국 간 세력의 완충역할을 해왔던 말해가 926년 거란에 의해 멸망하자, 이 사건은 쌍방의 관계를 새롭게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게 되었다.³¹⁾ 즉 태조 17년(934) 말해의 세자 太光顯이 부리 수 만을 이끌고 고리에 來附하자, 태조는 그를 심히 우대하여 王繼란 이름을 내리고 宗籍에 附記할 수 있게 하고, 특히 元雨의 봉계를 주어 白州를 지키게 하였으며, 동시에 그곳에서 제사도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게다가 그의

23) 後唐 말기 통치계를 내부에 모순이 팽배하자, 河東節度使로 沙陀族 출신이었던 石敬瑭은 군사정변을 통해 帝位에 오른 李從珂에 반발해 기병하게 되는데, 토벌군과 대치하고 있을 때 전세가 불리하자, 거란에 燕雲16州를 割地하겠다는 조건으로 구원을 요청하게 된다. 이후 遼太宗은 석경당을 구원하고, 그를 大晉皇帝에 책봉하였으며, 그 댓가로 연운지역을 차지할 수 있었다. 주지하듯 거란은 이 지역을 근거로 수시로 中原으로 남하하여 한인왕조와 대결하게 되었다.(楊樹森, 1986-1, 「略論遼與五代·北宋戰爭的性質」, 『社會科學戰線』, 300쪽.)

24) 서성호는 契丹의 이번 使行은 渤海를 도모하기 위한 사전 정치작업의 성격이 있는 조치였다고 하였다.(서성호, 1999, 앞의 글, 24쪽.)

25) 『高麗史』卷1 太祖五年條, “五年春二月, 契丹來遺驘馬及氈.”

26) 『遼史』卷2 太祖紀, “[天贊四年 十月], 辛巳, 高麗國來貢. …… [天顯元年 二月], 丁未, 高麗·歲貢·鐵驢·韓臨來貢.” 이와 달리 『遼史·高麗傳』에서는 天贊三年(924)과 天顯二年(927)으로 기록하고 있다.(『遼史』卷115 高麗傳, “天贊三年, 來貢. 太宗天顯二年, 來貢.”)

27) 『遼史』卷3上 太宗紀, “[天顯十二年 九月], 辛未, 遣使高麗·鐵驢.”

28) 『遼史』卷4下 太宗紀, “[會同]二年春正月乙巳, 以受冊冊, 遣使報南唐·高麗.”

29) 魏志江, 1996-1, 「論遼與高麗關係的分期及其發展」, 『揚州師範學報』, 87쪽.

30) 武玉環, 2001-4, 「論遼與高麗的關係及遼的東部邊疆政策」,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76쪽.

31) 『遼史』卷34上 兵衛志, “天顯元年, 滅渤海國, 地方五千里, 兵數十萬, 五京·十五府·六十二州, 盡有其衆, 契丹益大.” 魏志江은 말해가 멸망함으로써 북부의 屏障을 잃어버린 高麗 太祖는 거란의 세력 확장에 심히 걱정하고 두려워했는데(『深爲憂懼』), 따라서 말해유민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이후의 환란을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거란과 우호적이었던 관계를 끊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魏志江, 1996-1, 앞의 글, 87쪽.) 만약 왕건이 거란의 세력 확장에 걱정하고 두려워하여 그들과의 관계를 끊었다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오히려 계속해서 거란과 우호적인 관계로 그 걱정과 두려움을 제거하려 했다고 보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僚佐들에게는 官爵을, 그리고 軍士들에게는 토지와 집을 각각 차등 있게 나눠주기도 했던 것이다.³²⁾ 이에 대해 기란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하는 사료가 없어 확인하기 어렵다하더라도 분명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만은 확실하다. 더욱이 稱臣했던 後들이 반발해 오자, 기란은 새로운 정책변화의 일환으로 942년 고려와의 우호를 업무에 두고³³⁾ 사신 30명과 낙타 50필을 각각 보내고 있는데, 예상외로 사신들을 유매시키고 낙타를 아사시킨 고려 태조의 반기반적인 조치³⁴⁾에 크게 반발했을 것은 쉽게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다.³⁵⁾ 그러나 당시 기란의 主敵은 五代왕조 및 宋으로, 그들과의 대결을 남거두고 있었고,³⁶⁾ 게다가 遼太宗 사후 즉위한 世宗·穆宗·景宗 때의 통치계층 내부의 혼란은 고려의 契丹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한 원인 중의 하나로 생각된다.³⁷⁾ 말해의 말대로 고려가 기란에 대해 큰 경계심을 느꼈을 것은 분명하며, 이 경계심은 양국의 관계를 극도의 긴장상태로 빠지게 하였을 것이다. 사실 기란에 대한 경계심과 인식태도는 태조 왕건의 『訓要十條』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 즉 그는 “기란은 禽獸의 나라이다. 風俗이 우리와 같지 않고 言語 역시 다르다. 衣冠·制度는 모두 본받을 바가 되지 못하니 이를 명심하라. …… 그리고 지를 強惡之國인 기란과 이웃하게 되었으니 어찌 위험을 잊을 수 있겠는가? 병졸을 보호하고 돌봐주어야 하며 요역을 면제하고 매년 가을에 무예가 출중한 자들을 檢閱하여 벼슬을 주고 쓰도록 해야 한다”³⁸⁾라고 하여 후손들에게 특별히 경계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태조의 기란에 대한 이러한 경계심은 이후 고려와 그들 간의 관계에 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따라서 고려가 시종 親宋反遼의 외교정책을 추진하면서 기란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사실로 다가왔을 것이며, 송과 패권을 다투고 있던 기란으로서도 고려에서 오는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³⁹⁾ 이를 어떤 방법으로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특히 송이 기란과의 대결을 앞두고 고려에 사신을 보내 군사동맹을 추진하려 할 때, 이를 무마시킬 목적으로 40여 년간 교류가 전혀 없었던 고려에 986년 厥烈을 보내 請和하고자 한 것⁴⁰⁾은 바로 기란과 고려 사이에 보이지 않게 얹혀 있던 이해관계의 실재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혹자는 이때 기란이 고려에 사신을 보내 화전을 요청한 것은 바로 한 해 전 고려침략을 업무에 두고 여전을 정벌했던 사건의 연속선상에서 고려의 기란에 대한 경각심을 무마시키려는 和戰 양면의 전략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32) 『高麗史』 卷2 太祖十七年條, “秋七月, 渤海國世子大光顯率衆數萬來投, 賜姓名王繼, 附之宗籍, 特授元甫, 守白州以奉其祀. 賜僚佐爵·軍士田宅有差.”

33) 서성호, 1999, 앞의 글, 39~41쪽.

34) 『高麗史』 卷2 太祖二十五年條, “冬十月, 契丹遣使來遺藥驢五十匹, 王以契丹嘗與渤海連和, 忽生疑貳, 背盟弑滅, 此甚無道, 不足遠結爲隣, 遂絕交聘, 流其使三十人于海島, 繫藥驢萬夫橋下, 皆餓死.”

35) 태조 왕건의 反契丹적인 행위에 李齊賢은 장차 戎人(거란)의 기만적인 계획을 꾀하려 한 것인지, 혹은 후세의 사치한 마음을 방지하려 한 것인지, 아마 반드시 숨겨진 뜻이 있을 것이라고 평하였다. (『高麗史節要』 卷1 太祖神聖大王二十五年條, “我太祖之所以爲此者, 將以折戎人之謫計耶, 抑亦防後世之侈心耶, 蓋必有微旨矣.”)

36) 이정신, 2002, 앞의 글, 46쪽.

37) 魏志江, 1996-1, 앞의 글, 88쪽.

38) 『高麗史』 卷2 太祖二十六年條, “契丹是禽獸之國, 風俗不同, 言語亦異, 衣冠制度, 慎勿效焉. …… 又以強惡之國爲隣, 安不可忘危, 兵卒宜加護恤, 量除徭役, 每年秋閱勇銳出衆者, 隨宜加授.”

39) 신안식, 2004, 앞의 글, 70~71쪽.

40) 『高麗史』 卷3 成宗五年條, “春正月, 契丹遣厥烈來請和.”

하였다.⁴¹⁾ 한편 거란에서는 983년 즉위한 遼聖宗이 정치·경제 그리고 교육·법률 등에서 일련의 개혁조치를 취하면서 국력은 이전에 비해 훨씬 강화되었는데,⁴²⁾ 고려를 침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임에도 983년과 985년에 걸쳐 여진을 먼저 정벌한 사실,⁴³⁾ 그리고 986년 정월에는 요동지역에 있던 정안국을 멸망시키면서 압록강 유역에서 자국 중심의 동북아 질서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들을 제거해 간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⁴⁴⁾ 거란의 고려침략은 시간적으로 언제든 일어나고야 말 사건으로 남겨 놓게 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993년 거란은 고려를 침략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려는 한인 五代 왕조 및 宋과는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까? 혹자는 10세기 고려의 외교노선이 일종의 불개입주의로서 송과의 교류조차 부담스러워했다고 했지만,⁴⁵⁾ 그러나 고려는 거란과 달리 비교적 적극적으로 한인 왕조와 관계를 유지해 나가길 바랐으며,⁴⁶⁾ 이는 中原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고 더불어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함이었을 뿐만 아니라,⁴⁷⁾ 더 나아가 송과 마찬가지로 거란·여진 등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⁴⁸⁾ 이는 당시 고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선택이기도 했다.⁴⁹⁾ 우선 937년 거란의 위협을 업무에 두고 고려는 後晉에 胡僧 裱囉를 보내 말해와의 특수한 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함께 군사를 내어 거란을翦공하자고 요청하게 된다.⁵⁰⁾ 말해가 멸망한 지 10여 년이 지난 그때 고려는 '婚姻'으로 맺어진 말해멸망에 대한 보복의 차원에서 그런 요구를 한 것일 텐데,⁵¹⁾ 오대왕조 後晉이 거란의 힘을 빌려 건국되었다는 사실을 업무에 묻다면, 고려의 요구는 원래부터 받아들여지기 힘들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지만 裱囉가 전한 말 속에서 고구려의 後身으로 건국된 말해와 고려가 '婚姻'으로 맺어졌다는 史實은 바로 고구려=고려란 事實과도 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실은 후술할 것이다.

960년 五代十國의 분열이 宋에 의해 통일된 후 불과 2년이 지난 光宗 13年(962) 고려는 廣評侍郎 李興祐 등을 송에 보내 方物을 헌상하자, 그 이듬해 宋은 時贊 등을 고려에 보냈는데,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 죽은 자가 90여명에 이르렀고 시관만이 홀로 생존하자 광종

41) 卍山, 1992, 앞의 글, 49쪽.

42) 黃鳳岐, 1992-3, 「論遼聖宗時期政治經濟的改革」, 『社會科學輯刊』, 73-78쪽.

43) 고려와 거란 사이에 여진이 가로 놓여 있었으므로, 거란은 고려 정벌에 장애가 될 것을 염려하여 먼저 여진을 정벌하게 된 것이다.(김위현, 1999, 앞의 글, 112쪽.)

44) 이미지, 2008, 앞의 글, 14-15쪽.

45) 임용한, 2008, 앞의 글, 127쪽.

46) 『新五代史』 卷74三 高麗傳, “王氏三世, 終五代常來朝貢, 其立也必請命中國, 中國常優答之.”

47) 특히 서희가 활동했던 成宗代 고려는 송으로부터 유학 서적류·불교경전, 그리고 정치기구의 도입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교류를 추진하였는데, 송은 주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고려와 교류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卍山, 1992, 앞의 글, 43-48쪽.)

48) 金龍善, 2004, 앞의 글, 20쪽.

49) 朴今海, 1998-4, 앞의 글, 62쪽.

50) 『資治通鑑』 卷285 後晉紀6 齊王開運二年(945)條, “初, 高麗王建用兵吞滅鄰國, 頗頡大.[胡注: 事見二百八十一卷高祖天福元年.] 因胡僧裱囉言於高祖曰: ‘物海, 我婚姻也. 其王爲契丹所虜, 請與朝廷共擊取之.’ 高祖不報.”

51) 서성호는 太祖 王建이 실제로 契丹 협공을 의도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목적은 後晉과의 관계를 군사협력으로까지 발전시키려고 했었을 것이라고 하였다.(서성호, 1999, 앞의 글, 35-38쪽.)

은 그를 후대했다고 한다.⁵²⁾ 그리고 이후 광종 23년(972) 徐熙는 송에 出使하는데, 그의 행동에 절도가 있고 예법에 맞았으므로 宋太祖로부터 檢校兵部尙書란 관직을 제수받기도 했다.⁵³⁾ 이는 10여 년간 송과 별다른 항쟁이 없었던 것을 서희의 출사를 통해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데,⁵⁴⁾ 후술하겠지만 이때 서희는 송의 거란에 대한 '文弱'과 '懦弱'을 직접 보며 '對宋觀'을 터득했을 것으로,⁵⁵⁾ 이후 거란과의 朝聘으로 고리가 명분과 실리를 얻게 된다면, 언젠가는 송과의 관계를 끊고 국가의 자존과 실익을 추구하고자 했었을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⁵⁶⁾ 한편 宋太宗은 일찍이 後晉 石敬瑭이 거란에 매어준 燕雲지역을 되찾기 위해 거란을 공격할 계획에 착수하는데, 이를 위해 985년 고리와의 군사동맹을 목적으로 監察御史 韓國華를 보내고 있다.⁵⁷⁾ 이는 연운지역을 차지한 거란이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宋에 직접적으로 큰 위협을 가해오자,⁵⁸⁾ 고리와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원개 송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고리 실종에게 한국화는 한편으론 협박성으로 다른 한편으론 이치를 따지기에 설득하는데, 결국 실종의 마지못한 동의를 얻어내고는 있지만, 고리는 시간을 끌며 군대의 파전을 미루고 송의 바람에 부합하지 않았다.⁵⁹⁾ 설사 고리

52) 『高麗史』 卷2 光宗十三年·十四年條, “十三年冬, 遣廣評侍部李興祐等如宋獻方物, …… 宋遣冊命使時贊來, 在海風溺死者九十人, 贊獨免, 王特厚勞之.”

53) 『高麗史』 卷94 徐熙傳, “二十三年, 奉使如宋, 時不朝宋十數年, 熙至春儀中庭, 宋太祖嘉之, 授檢校兵部尙書.”

54) 윤명철, 1999, 앞의 글, 214쪽.

55) 최규성, 1999, 앞의 글, 140쪽.

56) 류주희, 2008, 앞의 글, 205~206쪽.

57) 韓國華의 出使 시간을 985년이 아닌 그 이듬해 986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학자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본 「徐熙學術」 연구용역으로 제출된 郭天祥의 「韓國華出使高麗問題考辨」을 참고.

58) 陳鋒, 2007-3, 「北宋遼遼戰略的演變與「遼盟之盟」的產生及影響」, 『史學集刊』, 26쪽.

59) 『高麗史』 卷3 成宗四年條, “宋將伐契丹, 收復燕薊, 以我與契丹接壤, 數爲所侵, 遣監察御史韓國華齎詔來諭曰: ‘…… 惟王久慕華風, 素懷明略, 效忠純之節, 撫禮義之邦, 而接彼犬戎, 罹於蠻毒, 舒濫積忿, 其在於乎! 可申威節, 迭相犄角, 協此隣國, 同力備平’ …… [高麗]王遣延不發兵, 國華諭以威德, 王始許發兵西會.” 韓國華의 고리 出使와 관련하여, 劉綱은 고려는 송의 의도대로 수만의 병사를 보내 거란 경내 깊숙이 들어가 그 후방을 공격했으며, 그리고 宋太宗은 그런 고려 국왕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으로 988년·990년·992년에 걸쳐 官爵을 높이는 冊封을 행하였고, 심지어 993년 거란이 고려를 침략한 원인을 한국화의 출사로 인해 고려가 거란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 때문이었다고 보았다. 동시에 거란과 화의가 이루어진 후, 고려는 그 다음해 元祐를 송에 보내 군대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데, 이는 송 역시 고려가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의 것과 관련된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그는 이후 고려는 거란에 보복할 수 있도록 수차례 송에 병사를 요청하는데, 그럴 때마다 송은 거란과 평화롭게 교류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주장하였다.(劉綱, 2000-6, 「韓國華出使高麗及其影響」, 『文史哲』, 84~86쪽.) 劉綱의 이상과 같은 주장이 옳다면, 高麗왕조는 일개 使臣의 세 지 힘에 놀아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데, 비록 본 글이 劉綱의 견해를 반박하기 위하여 준비된 것이 아닐지라도 그의 견해에 몇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劉綱이 이상과 같은 ‘事實’을 설명하기 위해 근거한 자료는 『韓國華神道碑』인데, 보통 碑銘이 당사자의 공적을 찬양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보다 부풀려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그리고 이 碑銘의 서술내용 자체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보여 우선 이를 옮겨보고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즉 碑銘은 “天子議復燕薊, 綢繆臣曰, 安得勇而善辭令者, 爲我諭高麗出兵, 西攻契丹以分其力, 則吾事可不勞而集. 既曰, 非韓某不可, 卽假以太常少卿爲使, 公馳騎至其國, 其王負固, 不時奉詔. 公坐館舍, 遣王書, 責以慢命, 且稱, 朝鮮威德之盛, 諸酋僞悉已降, 遂欲北取故疆, 以雪晉恥, 而委王以方面者, 其意不已重乎. 王惟我中國是賴, 可以得志, 諸口雖暫動而衆, 實王長世之利也. 今若不從, 天子怒, 一日大兵車出, 先誅不用命者, 加涉海灌烟火, 王其無悔. 王大恐, 奔走率職, 明日, 遣太相韓光·元輔趙抗領

가 송의 요구에 마지못해 거란을 공격했을 수도 있으나, 이는 송과의 우호를 해치지 않기 위한 미봉적이고 극히 소극적인 것에 불과했을 것이다.⁶⁰⁾ 이때 거란은 고려가 송과 동맹을 맺게 되면 큰 위협이 될 것이라 생각해 고려에 嚴烈을 보내 請和했었을 것이란 사실은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다. 986년에 있었던 거란에 대한 송의 군사정벌이 고려의 도움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로 끝났다고 단언할 수 없을지 모르나, 송의 이번 패배로 거란에 대한 군사적인 열세는 더욱 공고히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는 반대로 거란으로서 고려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한 측면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처럼 10세 중·후반 고려와 송은 서로 빈번한 교류를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로의 현실적인 정치·군사적인 필요에 의한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⁶¹⁾ 고려는 북진정책을 추진하면서 거란·여진 등의 세력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자, 송과의 관계를 통해 이들을 제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것이고, 송 역시 고려의 힘을 빌려 거란을 압박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혹자는 993년 송의 사신 劉式이 고려에 출사한 것을 마지막으로 1078년까지 양국의 공식적인 관계는 단절되었으며,⁶²⁾ 고려는 거란과 화의한 후 그들의 연호를 1116년까지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동시에 1110년 송은 고려에 사신을 보내 「密諭」 형식으로 거란과 고려의 交聘을 인정했는데,⁶³⁾ 그렇다면 이때에 이르러 고려는 송·거란을 상대로 이원적인 교방관계를 진행시켜 간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말해의 통치하에 있었던 女眞은 말해가 거란에 의해 멸망한 후 그대로 거란의 통치하에 들어가기도 했으나, 일부는 그들의 통치에서 벗어나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후 遼聖宗 때에 이르러 거란은 압록강 유역에 거주하고 있던 여진을 정벌하기 시작하는데, 즉 985년

兵數萬，度遼江以侵契丹，且令光等率諸將詣館門應命，公侍以陪位，爲指畫方略，衝動而討之。期未集，公又累與王畫，獎激將戰，使不得少懈，復問曰，深入攻之邪，姑執戰也。王報曰，已深入矣，公得其肝膽，遂復命。”(『清』王親漢，1990, 『金石萃編』, 卷135 宋13 『韓國華神道碑』, 西安, 陝西人民美術出版社, 밑줄은 필자)으로 기록되어 있다. 宋이 거란에 군사적으로 밀리고 있었는데, 성종이 이런 사실도 모른채 “宋朝旣의 威德이 盛하여 ‘諸僭僞’들이 모두 擒滅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믿었을까(실사 이 史實이 宋의 천하통일을 가리킨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그리고 만약에 송태종의 뜻을 받들지 않는다면 “天子가 怒하여 하루만에 大兵을 동쪽으로 보내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주살할 것”에 성종은 두려워 즉시 천자의 뜻에 따랐다고 하는 것 역시 믿기 어렵다. 이러한 표현은 단순히 ‘冊封國’이 ‘朝貢國’에게 전하는 천자의 위덕을 과대 포장하여 사용하는 전형적인 言辭일 뿐이다. 게다가 『高麗史』에서는 太相이란 韓光과 元輔란 趙抗이란 인물을 찾을 수 없을뿐더러, 이들이 통명했다는 수만의 병사도 이미 契丹의 경내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닌은 성종이 韓光 등에게 館門에 이르러 命을 기다리라고 했던 것에서 알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出兵의 시일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한국화는 고려의 군사행동이 거란에 위협이 되어야 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거란 경내 깊숙이 들어가 공격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이며, 성종은 그를 안심시키고자 “이미 거란 경내 깊숙이 들어가 공격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는데, 이런 고려 국왕의 다짐을 확인하고 한국화는 송으로 되돌아 갈 수 있었다. 이렇듯 성종은 한국화에게 절연히 出兵하겠노라 다짐했으나, 고려가 당시 처한 사정을 고려해 군대 파견을 최대한 미루며 마지 못해 동의했지만, 결국에는 송의 바람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 986년 송은 燕雲지역을 회복하기 위해 거란을 공격했지만 패배하고 말았다.

60) 卍山宇, 1992, 앞의 글, 47~48쪽.

61) 孫建民·顧宏義, 1996-1, 『中國宋朝與高麗外交關係論略』, 『洛陽師專學報』, 44쪽.

62) 朴今海, 1998-4, 앞의 글, 63쪽.

63) 『高麗史』 卷13 睿宗五年條, “王受訖上殿使副就王前, 傳密諭曰, 皇帝明見, 萬里諒王, 忠恪之誠, 欲加恩數, 聞王已受北朝冊命, 南北兩朝通好百年, 義同兄弟, 故不復冊王, 但今賜詔, 已去權字, 卽是寵王, 以眞王之禮 ……”

고려 정벌을 업두에 두고 詔書를 내려 병사를 훈련시킨 것이나,⁶⁴⁾ 그리고 그 다음해 먼저 여진을 정벌하여 10여 만의 生口, 20여만匹의 말 그리고 다수의 물자를 노획한 후, 이를 이후 있을 고려 침략의 근본으로 삼고자 하였다.⁶⁵⁾ 이와 거의 같은 시기에 고려 역시 압록강 일대의 여진을 정벌하게 되는데,⁶⁶⁾ 이는 북진정책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고려 경내를 넘어와 약탈을 자행하던 女眞人들에 대한 무력적인 응징의 성격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⁶⁷⁾ 즉 성종 3년(984) 李謙宜에게 命해 압록강 변에 關城을 쌓으려 하자 女眞人들이 병사를 동원해 이를 막아섰다고 하며,⁶⁸⁾ 이어서 성종 10년(991)에는 압록강 밖의 女眞人들을 백두산 밖으로 내쫓아 거주하게 했는데,⁶⁹⁾ 이러한 고려의 군사행동이 여진을 사이에 두고 역시 그들의 거주지역에 관심이 있었던 거란에게 적지 않은 위협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사실 여진 정벌이 있기 전부터 고려는 그들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즉 태조 4년(921) 2월과 4월에 女眞人들이 고려에 '來投'했다고 하며,⁷⁰⁾ 그리고 定宗 3年(948)에는 東女眞이 말과 방물을 바쳤다고 하는 기록도 보인다.⁷¹⁾ 그러나 여진과 어떠한 형태의 교류를 추진한다고 한들 태조 왕건이 일찍이 北蕃(여진을 가리킨다)을 '人面獸心'과 '見利忘恥' 그리고 '向背無常'으로 간주하고 있었던 사실에서 알 수 있듯,⁷²⁾ 고려와 여진 간의 교류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들을 심히 경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高麗史』에는 '東女眞'과 '西女眞'이란 기록이 자주 보이는데, 이는 여진이 거주하고 있는 방향에 따

64) 『高麗史』卷10一 聖宗紀, "[統和三年 七月]詔諸道繕甲兵, 以備東征高麗."

65) 『高麗史』卷11二 聖宗紀, "[統和四年 春正月]樞密使耶律斜軻·林牙勤德等上討女直所獲生口十餘萬·馬二十餘萬及諸物."

66) 武玉環은 『朝鮮通史』(1959, 朝鮮科學院歷史研究所, 上卷, 長春, 吉林人民出版社)를 인용해 고려는 980년에 淸塞鎮을, 그리고 984년에는 文州에 요새를 두었으며, 게다가 992년에 이르러 압록강 하류에 거주하던 女眞人들을 백두산 이북으로 내쫓고 그곳에 威遠鎮을 두었다고 하였다.(武玉環, 2001-4, 앞의 글, 77쪽.) 그런데 청새진을 둔 시점은 980년이 아닌 景宗 4年(979)이며, 그리고 압록강 하류의 女眞人들을 백두산으로 내쫓은 것은 992년이 아닌 991년으로 사실과 다르고, 더욱이 威遠鎮은 顯宗 20年(1029)에(『高麗史』卷58 地理3, "威遠鎮, 顯宗二十年遣樞密修古石城, 置之鎮在興化鎮西北") 압록강 유역의 義州와 가까운 지역에 설치된 사실(신안식, 2004, 앞의 글, 77쪽, 94쪽)을 통해 武玉環의 이상과 같은 견해는 심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67) 고려에 출사했던 宋 사신 韓國華에게 성종은 고려의 호의를 도리어 악의로 갚는 여진에 대해 얘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그들은 병사를 거느리고 물대 고려 경내에 들어와 관리와 백성들을 약탈하고 장정들을 포획하여 노예로 만들었다는 말이 있다.(『高麗史』卷3 成宗四年條, "[女眞]不意反諸國, 奄至殺掠吾吏民, 驅虜丁壯沒爲奴隸.") 상황이 이러했다면 고려에서는 이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여진에 대해 무력으로 응징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68) 『高麗史』卷3 成宗三年條, "命刑官御史李謙宜城鴨綠江岸以爲關城, 女眞以兵遏之."

69) 『高麗史』卷3 成宗十年條, "遷鴨綠江外女眞於白頭山外居之."

70) 『高麗史』卷1 太祖四年條, "春二月, 甲子, 黑水酋長高子羅率百七十人來投, …… 夏四月, 乙酉, 黑水阿於聞率二百人來投."

71) 『高麗史』卷2 定宗三年條, "秋九月, 東女眞大匡蘇無蓋等來獻馬七百匹及方物." 高福順은 이런 무적이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동시에 여진과 고려 간에는 정치적인 예측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高福順, 1998-4, 『遼代生女眞與高麗的隸屬關係』, 『長春師範學報』, 19-20쪽.)

72) 『高麗史』卷2 太祖十四年條, "是歲詔有司曰, 北蕃之人, 人面獸心, 飢來飽去, 見利忘恥. 今雖服事, 向背無常, 宜令所過州鎮, 築館城外待之."

라 붙여진 이름으로, 즉 고려의 동북쪽에 거주한다고 하여 동여전이란, 그리고 서북쪽에 거주한다고 하여 서여전이란 이름을 얻은 것이다. 그런데 거란의 史書에서는 이들 동여전을 '長白山三十部女直'⁷³⁾으로, 그리고 서여전을 '鴨綠江女直'⁷⁴⁾으로 기재하기도 하였다.⁷⁵⁾

한편 이상에서 필자는 고려와 거란 간에는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다고 했는데, 成宗 12年(993) 거란의 東京⁷⁶⁾留守 蕭遙寧이 고려를 침략하면서 그 가능성은 그대로 현실화되고 말았다.⁷⁷⁾ 이때 소손녕이 거느린 병사의 규모가 80만이었다고 하는데,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어떻게는 차치하더라도,⁷⁸⁾ 당시 고려가 이번 침략을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만은 확실하다.⁷⁹⁾ 소손녕의 聲言에서도 알 수 있듯, 거란의 주된 침략 요인은 고려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자신들을 무시하고 바다 건너 송과 朝聘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으로, 거란의 고려침략을 촉자는 고려가 거란과의 외교관계를 끊고 다량의 말해유민을 받아들였으며, 또한 송과 동맹을 추진해 거란을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으며,⁸⁰⁾ 또한 고려를 압박해 송과의 관계를 끊어 놓고 이를 자신들과의 관계로 전환시키려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는데,⁸¹⁾ 모두 설득력 있는 주장들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거란의 침략이 있기에 앞서 그해 5월 여진은 고려에 그러한 사실을 알려왔다는 점이다. 당시 고려에서는 이를 믿지 않았으며 또한 이에 대한 어떤 사실 확인조차도 하려 하지 않았다. 게다가 거란의 침략이 일어난 8월에 여진이 다시 같은 소식을 전해오자, 그때서야 성종은 위급함을 직감하고 지방 각처에 兵馬齊正使를 보내 병사를 초집하여 대응하려고 하였다. 그렇다면 여진은 거란이 침략할 것이라는 정보를 어떻게 알았

73) 『遼史』卷15六 聖宗紀, "[開泰元年]長白山三十部女直酋長來貢."

74) 『遼史』卷4下 太宗紀 "[會同三年]鴨綠江女直遣使來觀"

75) 王崇時, 1986-3, 앞의 글, 58-59쪽.

76) 東京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宋]葉隆禮, 『契丹國志』卷22 四京本末條, "東京, 本渤海王所部之地. 在唐時, 爲黑水·靺鞨二種依阻高麗者. 黑水部與高麗接, 勝兵數千, 多曉武. 古肅慎氏地也. 與靺鞨相鄰, 東夷中爲強國. 所居多依山水, 地卑濕, 築土如堤, 鑿穴以居. 其國西北與契丹接. 太祖之興, 始擊之, 立其子東丹王鎮其地, 使口東京."

77) 『遼史』卷115 高麗傳, "[統和]十年, 以東京留守蕭遙寧伐高麗."

78) 소손녕이 동원한 거란군의 규모를 80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나, 이를 믿을 수 없고 이때의 병력은 騎兵 6萬 이하의 규모였을 것이 분명하다고 하기도 했으며(안주섭, 2003, 『고려 거란전쟁』, 경인문화사, 102쪽), 上京·中京·東京의 兵丁數를 고려하여 歩兵을 합해도 10萬은 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임용한, 2008, 앞의 글, 129-130쪽.) 이와 달리 거란의 盛世였던 遼聖宗 때 騎兵만 80萬을 동원하고도 남았을 것인데, 그러나 이 병력이 모두 고려 정내에 들어왔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라고 한 주장도 있다.(김위연, 1999, 앞의 글, 120쪽.)

79) 김순자는 이렇게 고려가 거란의 침략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과 관련하여, 결국 이때 외적의 침략을 받은 적이 없던 고려는 외적의 침입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으며, 그에 대한 국방상의 정보 수집이나 실제적인 국방력도 허술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하였다.(김순자, 2008, 앞의 글, 114쪽.)

80) 고려에 출사한 한국화는 송과 함께 출병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 이에 고려가 그렇겠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거란은 이 일을 고려침략의 구실로 삼았다.(魏志江, 1996-1, 앞의 글, 88쪽.)

81) 임용한은 거란이 고려를 침공한 본래의 목적은 거란의 배후를 공격할 수 있는 고려와 여진의 위협,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었는데, 고려와 여진이 연합한다면 거란에게 아주 커다란 위협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결국 고려에 대한 탐색적인 동시에 고려를 위협하여 거란의 여진정벌에 간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고 생각된다고 하였다.(임용한, 2008, 앞의 글, 143-144쪽.)

으며, 또한 어떤 이유로 이를 고려에 알려주고자 했던 것일까? 앞에서 10세기 후반 遼聖宗이 즉위하면서 여진에 대한 무력정벌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고려에게도 직접 관계된 사건이었다. 즉 983년 遼聖宗은 고려를 침략하기 위해 동경유수 휘하의 병마들을 진히 집결했다고 하며,⁸²⁾ 그리고 985년 역시 고려 침략을 위한 조서를 내려 병사들을 훈련시키도록 했으며, 게다가 그 이듬해에는 여진을 정벌하여 10여 만의 生口와 20여 만匹의 말, 그리고 다수의 물자를 노획하여 이후 고려 침략의 資本으로 사용코자 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거란의 고려 침략이 있기 전 압록강 유역에서 거주하고 있던 反契丹 혹은 親高麗의 성향을 가진 女眞人들이 일찍이 수차례 고려를 침략하기 전에 자신들을 정벌했던 거란의 사정에 밝았고, 이를 고려에 알려줌으로써 고려로부터 그 지역에 거할 수 있는 모종의 '허가'를 받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⁸³⁾ 그리고 이런 성향을 가진 女眞人들과는 달리 앞에서도 언급했듯 다른 성향의 女眞人들은 고려 경내를 침략하여 관리나 백성들을 살해하고 장정들을 포획하여 노예로 만들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후의 사례이긴 하나 역시 고려의 경내를 약탈하여 피해를 안겨줬다는 사실 등을 통해 볼 때,⁸⁴⁾ 이들이 反高麗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후 서희가 소손녕과의 담판에서 여진인들을 때문에, 거란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내몰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전적으로 고려의 입장에서 이들 反高麗의 성향을 가진 女眞人들을 업무에 두고 했던 말이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여하튼 거란의 침략에 성종은 侍中 朴良柔·內史侍郎 徐熙, 그리고 門下侍郎 崔亮을 각각 上軍使·中軍使, 그리고 下軍使에 임명하여 군사를 이끌고 北界로 보내 거란군을 막도록 하는 한편,⁸⁵⁾ 본인은 친히 西京에 이르러 군사들을 독려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가 서경으로 나간 행위를 親征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⁸⁶⁾ 거란군이 蓬山郡을 차지하고⁸⁷⁾ 先鋒軍使 給事中 尹德顏 등을 포로로 잡으며 압박해오자, 고려 조정대신들은 거란에 歸降 혹은 割地함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당시 성종조차 망을 때이바치는 것이 고려를 구하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 이렇게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해 이찌할

82) 『遼史』 卷10— 聖宗紀, “[統和元年]上將征高麗, 親聞東京留守耶律未只所總兵馬.”

83) 김순자는 女眞人들은 契丹이 高麗를 침략하려 할 때에 그 중간에 있는 자신들의 거주지가 전쟁터가 될 것이므로 고려가 침입에 대비하도록 자청하여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하였다.(김순자, 2006, 앞의 글, 249쪽.) 고려가 여진의 정보제공으로 거란의 침입에 대비했다는 치더라도, 전쟁의 발발 지역은 女眞人들이 거주지가 될 가망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전쟁 이런 이유로 이들이 고려에 이상과 같은 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이유 때문이라면 오히려 여진인들은 거란에 협력하여 고려 침략에 함께 나서는 것이 더 자신들의 거주지를 전쟁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상과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하겠다.

84) 女眞人들이 고려의 관리와 백성들을 약탈하고 장정들을 포획하여 노예로 삼았다는 사례는 주67을 참고할 수 있으며, 成宗 이후의 사례이긴 하나 고려 경내를 약탈했다는 史實은 “春正月, 東女眞寇登州, 姚州鎮部落三十餘所”(『高麗史』 卷3 穆宗八年條)와 “[五月]河拱辰營擊東女眞見敗.”(『高麗史』 卷4 顯宗元年條) 등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비록 사서에서는 女眞人들, 특히 東女眞人이 거란과 고려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있지 않더라도, 당시 이들을 反·親高麗의 성향으로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85) 『高麗史』 卷3 成宗十二年條, “冬十月, 以侍中朴良柔爲上軍使, 內史侍郎徐熙爲中軍使, 門下侍郎崔亮爲下軍使, 軍于北界, 以禦契丹.”

86) 임용한, 2008, 앞의 글, 133쪽.

87) 당시 사정을 契丹 史書에서는 “[蕭恒德]率兵拔其邊城”(『遼史』 卷88 蕭恒德傳)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其邊城’이란 蓬山郡城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바를 몰라 하고 있을 때, 서희는 거란과의 화의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이에 대비하고 있었으며, 이후 敵將 소손령과 담판하여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더 나아가 高句麗의 정통을 그로부터 인정받고 舊地도 차지하는 壯舉를 이루었던 것인데, 그 속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는 장을 바꾸어 서술하기로 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중국대륙이 分裂割據로 혼란에 휩싸였을 때, 고려 국왕은 스스로 年號를 정하고, 또한 일종의 皇帝國 체제 선포의 일환으로 수도를 皇都라 하는 등⁸⁸⁾ 자주적인 면모를 내세우기도 했는데,⁸⁹⁾ 특히 海東天子로서 독자적인 天下觀을 갖고 10세기 중·후반 거란·송과 상호 세력균형을 이루면서 나름의 권위와 통치력을 유지해 갔던 것으로 볼 수 있다.⁹⁰⁾ 그렇다면 10세기 중·후반 동아시아 국제정세 속에서 고려는 바로 자주와 실리를 최우선에 두면서 중국대륙의 정치형세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이에 대처해 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는 특히 고려의 국제적인 위상이 새롭게 정립되어 간 시대라는 점에서 보다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서희는 고려의 운명을 책임지고 거란과 외교담판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III. 徐熙의 외교담판 속에 담긴 고려의 名分과 實利

앞 장에서 우리는 10세기 중·후반 고려가 처한 동북아 국제정세를 살펴보면서 자주와 실리에 따라 움직였던 고려의 외교노선에 대해서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서희에게 국제정세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가지게 했을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업하고 삼간 줄 알았던 그는 사리에 분명하여 그릇된 것을 보면 참지 못했다고 하며,⁹¹⁾ 즉 일찍이 成宗을 따라 西京으로 巡幸하고 얼마 후 성종이 微行으로 永明寺로 놀러 가려는 것을 글을 올려 그릴 수 없다고 諫言했던 것에서 그런 그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⁹²⁾ 이렇게 도리에 확고했기 때문에, 그리고 법도에 흐트러짐이 없었기에 거란과의 화의담판에서 그는 이런 자신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해 蕭道寧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이라.

주지하듯 서희와 소손령 간의 화의담판은 전체 5단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데,⁹³⁾ 즉 담판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한 서희가 이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를 제1단계라고 한다면, 成宗의 國書를 휴대하고 소손령을 찾아가 쌍방이 相見禮를 두고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로 신경전을 벌인 것이 제2단계이며, 그리고 본격적인 담판으로 들어가 거란의 침략 이유와 그것을 둘러싼 요구사항을 사이에 두고 쌍방의 지열한 공방전이 오고 간 것이 제3단계이고, 이어서 담판이 끝난 후 쌍방은 그 내용에 만족을 표시하고 있는데, 특히 소손령은 이를 확인이라도 하듯 서희를 위한 宴慰를 열고자 하여 이 '歡好之禮'를 두고 벌어진 쌍방의

88) 『高麗史』 卷2 光宗元年條, “建元光德.” 同上 光宗十一年條, “改開京爲皇都, 西京爲西都.”

89) 김기덕, 2004, 「高麗時代 開京과 西京의 風水地理와 遷都論」, 『韓國史研究』127, 197쪽.

90) 류주희, 2008, 앞의 글, 197쪽.

91) 이재범, 2008, 앞의 글, 222~226쪽.

92) 『高麗史』 卷94 徐熙傳, “徐熙 …… 性嚴恪 …… 從幸西京, 成宗欲微行遊永明寺, 熙上疏諫, 乃止.”

93) 박한남은 서희와 소손령 간의 담판은 3단계로 전개되었는데, 즉 예비협상의 의미를 가진 상견례가 제1단계라면, 본 회담으로 거란의 침략 이유를 둘러싸고 쌍방에서 밀고 당기는 공방전의 단계가 제2단계이며, 그리고 마지막 제3단계는 후속 협상단계의 성격이 강한 서희의 연회 참석여부를 둘러싼 설복전이라고 주장하였다.(박한남, 2008, 앞의 글, 81쪽.)

舌戰이 제4단계이며, 마지막으로 契丹의 軍營을 떠나는 서희에게 소손녕은 여러 예물로 답관내용의 성공적인 이행을 바라고 있는 것이 제5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다섯 단계를 걸쳐 진행된 화의담판 속에 나타난 고려의 명분과 실리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高麗史·徐熙傳』에 기록된 유관내용을 살펴보면

(a)-1단계: [성종은 거란에 딸을 떼어 주자는 의전에 贊同하여 西京 창고에 두었던 딸을 통 털어 백성들로 가져가게 하고, 그리고 낚을 것을 우려해 大同江에 버리라고 命하였다.] 이에 서희는 "식량이 넉넉하면 賊을 가히 저킬 수 있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병력의 강하고 약한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만일 적의 약점을 잘 알고 행동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식량을 버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물며 양식이란 백성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차라리 적에게 이용되는 한이 있더라도 어찌 헛되이 강물에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또한 天意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奏請하였는데, 成宗도 그의 말이 옳다고 여기고 그만두게 하였다. 그는 또 "거란의 東京으로부터 우리나라 安北府에 이르는 수 백리 땅이 일찍이 모두 生女靑의 차지가 되었었는데, 이를 光宗 때에 도로 찾고 嘉州·松城 등의 賊을 쫓았습니다. 지금 거란이 군대를 동원한(契丹之來) 의도는 이 두 賊을 차지하려는 것에 불과하며, 고구려의 舊地를 찾겠다고 聲言하여 실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94) 지금 그들의 兵勢가 대단한 것만을 보고 西京 이북의 땅을 떼어 주는 것은 옳은 계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三角山 이북의 땅도 역시 고구려의 舊地인데, 그들이 窟塹之欲으로 끊임없이 이를 요구해 오면 다 주시겠습니까? 하물며 땅을 떼어 敵에게 주는 것은 萬世之恥입니다. 바라옵건대 主上께서는 都城으로 돌아가시고 臣 등으로 한 번 그들과 싸워 보게 한 후 다시 割地에 대해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주청하였다.

(b)-2단계: 서희가 國書를 가지고 소손녕의 軍營에 이르러 譯者에게 相見禮에 대하여 물은즉, 소손녕은 "나는 大朝의 貴人으로서 서희가 나에게 군영의 뜰에서 절해야한다"고 하였다. 이에 서희는 "신하가 君主에게 堂下에서 절하는 禮는 있으나, 양국의 대신이 대면하는데 어찌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여 반대하였다. 양측 사이에 상견례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두고 再三 교섭하였으나, 소손녕이 서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자, 서희는 怒하여 숙소로 들어가 움직이지 않으니, 소손녕은 내심 서희를 기이하게 여겨 堂에 올라 대등하게 상견례하는 절차를 승낙하였다. 이에 서희는 군영의 문 앞에서 말을 내린 후 들어가 소손녕과 뜰에서 마주서서 揖하고 堂에 올라 東·西로 마주 대면하고 앉았다.

(c)-3단계: 蕭道寧이 서희에게 "당신의 나라는 옛 新羅 땅에서 건국되었고, 고구려의 옛 땅은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바 어찌하여 당신들이 侵蝕하였는가? 또 우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바다를 건너 宋을 섬기고 있는 까닭에 이렇게 군사를 낸 것이다. 만약 땅을 떼어 바치고 朝聘을 회복한다면 무사하리라"라고 하였다. 이에 서희는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는 바로 고구려의 舊地이다. 그러므로 국호를 高麗라 하고 평양에 도읍을 정한 것이다(我國卽高句麗之舊也. 故號高麗都平壤). 만약 地界를 가지고 말하면, 上國의 東京도 우리 境城 안에 있으니 어찌 侵蝕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또

94) 이 부분을 『高麗史』의 원문은 "今契丹之來, 其志不滿取北二城, 其聲言取高句麗舊地者, 實恐我也. 今見其兵勢大盛, 雖溯西京以北與之, 非計也"(밑줄은 필자)로 기록하고 있는데, 北譯 『高麗史』(서울, 신서원, 1991)에서는 이 밑줄 부분을 "실상인즉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번역했다. 그런데 '恐'을 "두려워한다"로 하기 보다는 "집주다" 혹은 "위협하다" 등으로 번역해야 정확할 것으로, 이는 80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한 자들이 고려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이미 봉산군을 쳐서 함락시킨 상태이니 더욱 그럴 것이며, 그리고 밑줄 친 이하의 서희의 말에서 알 수 있듯, 고려조정에서 거란의 兵勢가 대단(大盛)하여 西京 이북의 땅을 떼어 주려고 한 것에서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부 학자들의 연구에서는 거란이 "실제로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 생각된다.

鴨綠江 内外도 역시 우리 境內인데 이제 女眞이 그 사이를 監據하여 완악한 행위와 간사스런 태도로 교통을 차단했으므로 바다를 건너기보다 왕래하기가 곤란하니 朝聘이 통하지 못함은 여진 때문이다. 만약 여진을 내쫓고 우리의 舊地를 회복하여 거기에 城과 堡를 쌓고 길을 통하게 된다면, 어찌 朝聘을 당지 않겠는가? 장군이 만약 나의 의견(臣言)을 귀국의 임금(天聽)에게 전달하면 어찌 접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했는데, 그 말에 힘이 있었다(辭氣慷慨). 소손령은 자신의 뜻을 장요할 수 없음을 알고 달란한 내용을 보고하였더니(蕭遼寧知不可強, 遂具以聞), 거란의 군주는 고려가 이미 和議를 요청하였으니 군대를 물리라고 하였다(契丹帝曰, 高麗既請和宜罷兵).

(d)=4단계: 소손령이 서희를 위해 宴慰을 베풀고자 하니 서희는 "이번 本國에 비록 도리에 어긋난 것이 없다 해도 上國에서 군대를 동원해 왔으므로(上國勞師遠來)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상하 구분 없이 모두가 황급히 무기를 들고 나선지 여러 날이 되었는데, 어찌 이를 참고 宴樂할 수 있겠는가?"라며 사양하였다. 그러자 소손령은 "두 나라의 대선이 만났는데, 어찌 歡好之禮가 없어서야 되겠는가?"라며 固請하니 서희는 이를 받아들여 고 매우 흥겹게 즐겼다.

(e)=5단계: 서희가 契丹營에서 7일을 머문 후 돌아갈 즈음에 소손령은 그에게 낙마 10마리, 말 100마리, 양 1000마리, 그리고 비단(錦綺羅執) 500匹을 예물로 주었다.

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서희와 소손령 간의 화의담판을 기관측 사료에서는 찾을 수 없어 전적으로 『高麗史』 혹은 『高麗史節要』 등에 근거할 수밖에 없음을 우선 밝혀둔다.

고려의 蓬山郡을 차지한 소손령이 침공을 계속하지 않고 속히 투항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오자, 이를 본 서희는 성종에게 "그들과 和議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인다(有可和之狀)"⁹⁵⁾고 奏請한다. 거란과 화의가 가능하다고 본 이상 그는 나를 이에 대비했었을 것인데, 실사 자신이 그 화의담판에 나설 수 없다할지라도 (a)에서처럼 화의가 결렬되어 일어날지도 모를 전쟁을 염두에 두고 軍糧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될 것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거란이 군사를 동원(契丹之來)한 것은 사실 女眞이 거주했던 지역을 고려가 차지하고 嘉州와 松城⁹⁶⁾을 쌓자 이를 제차 차지하려 한 것이기 때문에, 실사 고구려의 舊地를 찾겠다며 협박하고 있지만, 이를 밟고 두려워할 이유는 없으며, 정령 땅을 빼어주고 싶어도 최소한 그들과 싸워보고 난 이후에 협상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역설하고 있다. 혹자는 당시 서희가 '선항전·후협상'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협상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전략적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고려가 봉산군에서 패한 상태에서 ① 화친하고자 한다면, 거란의 요구를 끊임없이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② 이런 불리한 국면을 바꿔보기 위해 서라도 일단 결전을 통해 조금이나마 고려에게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⁹⁷⁾ 설득력이 충분한 주장이라 생각한다.

한편 西京을 빼어 주자는 湖地論은太祖 이래 서경을 중시하고 이를 근간으로 北進政策을 추진해 온 고려의 고구려 계승이라는 정체성을 송두리 채 뒤흔드는 것이었기 때문에,⁹⁸⁾ 고

95) 『高麗史節要』 卷2 成宗文懿大王十二年條.

96) 『高麗史』 卷58 地理志와 卷82 兵志에 의하면, 光宗 11年(960) 원대 信都郡이었던 것을 溫忽에 성을 쌓고 嘉州로 승격시켰으며, 또한 같은 해 松城을 구축하여 고려의 강역을 북쪽으로 확대시켰다고 한다.

97) 박상현, 2010, 앞의 글, 144~149쪽.

98) 할지론을 제기하게 된 것은 獻貞王后 皇甫氏를 중심으로 한 西京세력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기도 한다.(김창현, 2005, 「고려초기 정국과 서경」, 『사학연구』80, 34쪽.) 한편 서경 이북을 빼어 주자

구려=고려의 인식을 갖고 있던 서희로서는 상상 초차할 수 없는 일이었음에 틀림없었다.⁹⁹⁾ 여기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거란의 군사동원을 서희는 '契丹之侵'이 아닌 '契丹之來'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의 분석대로 그들이 이전 지역을 차지하러 왔으니 고려 입장에서선 그저 군사를 동원하여 유세를 떠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라, 이는 서희가 '契丹之來'하여 소손령이 '連致降款'하라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결과라고 하겠다. 서희의 '可和之狀'에 성종은 李蒙徽를 그들에게 보내 화의를 청하게 되는데, 이때 소손령은 80만 대군을 이끌고 왔으니 고려 국왕과 대신들은 속히 자신의 군영에 이르러 항복할 것을 강요한다.¹⁰⁰⁾ 이몽전이 되돌아와 이런 사실을 전하자, 고려 대신들은 歸降할 것인가 아니면 땅을 떼어 줄 것인가 중 하나를 위해 추진코자 했는데, 성종 역시 後者에 관동할 생각으로 서경의 백성들로 창고의 양식들을 마음대로 가져가게 하고 심지어 남은 것을 우리해 大同江에 버리게 하여 위기에서 모면코자 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서희는 (a)처럼 당시 상황을 분석했음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다. 또한 당시 前民官御事 李知白도 할지에 대한 부당함을 奏請하고 있는데, 古人의 詩, 즉 "千里山河輕孺子, 兩朝冠劍恨譙周"¹⁰¹⁾를 인용하며 曹魏에 제대로 대항하지도 못하고 蜀漢 後主 劉禪에게 나라를 들어 항복하도록 권한 譙周같은 인물이 고려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면서 서희의 先抗戰·後和議에 지지를 표하자, 성종도 할지로 치우쳤던 자신의 견해를 철회하고 그들의 견해에 동의하기에 이른다. 한편 이몽전이 되돌아간 후 아무 소식이 없자, 소손령은 고려를 더욱 압박하기 위해 安戎鎮¹⁰²⁾을 공격하는데, 예상외로 고려의 中郎將 大道秀와 郎將 庾力 등에게 패하면서 더 이상 진공하지 못한 채 사람을 보내 항복만을 독촉하였다.¹⁰³⁾ 거란의 요구에 성종은 開門舍人 張登을 和通使로

는 할지론이 고려 조정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당시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왕조라는 의식이 없었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본 학자도 있다.(하현장, 1975, 앞의 글, 14쪽.)

99) 박용운은 서희의 부친 徐弼은 태조 이래 朝臣으로서 光宗朝에서는 고려의 최고관직인 內議令까지 지낸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실 서희는 太祖 王建 집안이 고구려 후예라는 사실을 숙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따라서 그가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임을 자신 있게 소손령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박용운, 2004b, 앞의 글, 174쪽.) 그렇다면 서희가 北進政策을 포기하며 고려의 고구려 계승이라는 정체성을 부정한다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100) 서희가 거란과 화의할 수 있다고 보고하자, 성종은 이몽전을 소손령에게 보내 講和하게 하였다. 이때 이몽전이 화의의 조건으로 무엇을 제시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의 화의에 소손령은 그저 무항하라고만 강요하고 있는데, 이전 그가 移書로 보낸 것과 비교해 보면 이번에는 고려 국왕과 대신들이 직접 자신의 군영에 이르러 속히 항복하라고 하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일 수 있겠다. 여하튼 소손령의 목적은 고려의 항복, 즉 자신들과의 朝聘을 받아 되돌아가는 것이 이번 군사를 동원한 주된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101) 이는 唐代의 시인 羅隱(833-909)이 지은 『籌筆驛』에 나오는 詩로, 諸葛亮은 죽고 이후 曹魏가 蜀漢을 공격해 오자, 譙周는 後主 劉禪에게 무항할 것을 권했는데, 유선은 그의 말을 듣고 촉한의 강역을 들어 버치고 말았다. 즉 촉한의 千里山河를 孺子 劉禪이 가볍게 적에게 넘겨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이에 劉備와 劉禪 兩朝의 문무백관들이 문명 모두 초주를 원망했었을 것이다. 이치맥은 바로 유선이 촉한을 가볍게 조위에 넘긴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그럴 수 없음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102) 安北府 서북쪽 26里에 위치한 安戎鎮은 鎮將을 중심으로 1200여 명 정도가 배치된 軍鎮이다. 『高麗史』卷 83 志37 州縣軍 北界에는 안용전에 주둔한 병사들은 鎮將 1명, 郎將 1명, 別將 2명, 校尉 4명, 隊正 8명, 行軍 206명, 神騎 11명, 步班 27명으로, 각각 精勇 2隊, 左軍 3隊, 保昌 1隊, 白丁 33隊로 구성되었다고 하였다.

103) 982년 왕위에 오른 成宗은 압록강 유역에까지 세력을 확장한 거란에 대항하기 위해 중앙군·邊防軍·지방군 및 驛站 등의 군사개혁에 박차를 가했는데, 소위 '以少勝多'라 할 수 있는 安戎鎮 전투에서 고려가 승리할 수

삼아 소손령에게 보내고 있는데, 이때 그는 장영의 官位가 낮다하여 바깥히 大臣을 보내 다시 화의를 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정대신 모두가 화의담판에 나서길 꺼리고 있을 때(群臣無有應者), 서희는 (a)에서처럼 거란과의 화의가 있을 것에 대비해 온 자세로 기꺼이 자신이 나서겠다고 하였다. 성종은 이런 서희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전송한다.

거란과의 화의에 대비해 왔던 서희가 (b)에서처럼 대등하게 敵將과 상전례해야 함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특히 이미 국서를 휴대한 그에게 고려의 운명이 걸려 있던 상태에서는 티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설사 (c)와 (d)에서도 보이듯 서희는 거란을 上國, 그리고 자신의 말을 臣言이라 표현하여 이미 거란과 朝聘할 수 있다는 고려 국왕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하더라도, 이에 대한 거란의 상응한 양보가 없다면 쌍방의 담판은 결렬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상전례에서 上下의 만남이 아닌 대등한 것이어야만 이후에 있을 거란과의 朝聘도 결코 고려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혹자는 이러한 쌍방의 대등한 만남을 서희가 담판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우선 기선을 장악하는 것이 중요함으로 그렇게 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였지만,¹⁰⁴⁾ 실제 이런 것이 가능했는지의 의문이다. 이러한 양국 大臣의 대면에 맞는 예법을 주장하는 서희에 소손령은 마음으로 그를 비범한 인품의 소유자로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것(蕭蕭寧心異之)이며, 이런 그의 모습은 설사 거란이 군사를 동원한 주목적인 여진의 거주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결코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없었던 것이어서 엄하고 사리에 분명했던 서희의 인물됨됨이는 더욱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하겠다.

거란의 침략이유와 이를 둘러싼 쌍방의 치열한 공방전이라 할 수 있는 본격적인 담판인 (e)에서 소손령은 ① 고구려의 옛 땅이 거란에게 속해 있는데도 신라의 땅에서 일어난 고려가 어찌 침식할 수 있느냐며, 그리고 ② 고려는 거란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어찌 바다 건너 송과 朝聘할 수 있느냐며, 이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것이라고 압박하였다. 또한 비록 담판과정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일찍이 이몽선이 거란 軍營을 찾아 침략의 이유를 묻자, 소손령은 "당신의 나라가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므로 이제 天期를 주러 온 것이다"¹⁰⁵⁾라고 그 이유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에 서희는 ① 高句麗를 계승했으므로 국호를 高麗라 한 것인데,¹⁰⁶⁾ 이는 고구려의 수도 平壤에 도읍을 정한 것에서도 증명된다고 하였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군사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李成德, 1986-1, 「略論高麗王朝成宗의社會改革」, 『河南大學學報』, 90-91쪽.)

104) 박현모, 2009, 앞의 글, 91쪽.

105) 『高麗史』 卷94 徐熙傳, "[蕭]蕭寧曰, 汝國不恤民事, 是用恭行天罰."

106) 고구려와 관련하여 애초부터 존재하여 바깥이 된 명칭은 句麗이며, 뒤이어 그것에 '高'자가 덧붙여 고구려라는 명칭이 쓰이게 되었는데, 후자가 국호로 공식화되었지만 전자도 함께 混用되었다. 그런데 南北朝시대까지 거의 혼용되었던 이름이 동시에 새로이 高麗가 등장하면서 隋唐시대에는 고려만을 사용하게 된다. 아마 427년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를 단행하면서 국호의 개정을 통한 국정의 일대 전환을 가져온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박용운, 2004a, 앞의 글, 39-41쪽.) 그대서 대체로 장수왕 20년 무렵부터 고구려는 '高麗'로 개칭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中原高句麗碑』 혹은 『征高句麗碑』에 '高麗大王祖王' 그리고 '高麗'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후 중국의 사서에서는 대부분 고려라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구려는 장수왕 15년의 평양 천도와 관련하여 국호를 개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정구복, 1992, 「高句麗의 '高麗' 국호에 대한 一考-三國史記의 기록과 관련하여」, 『湖西史學』19-20, 58-63쪽.) 이밖에 중국학자 魏存成은 중국 동북지역에 거주했던 소수민족 중의 하나인 高句麗가 中原·南方의 한인정권으로부터 책봉을 받았는데, 이는 이들 정권에 隸屬되었다는 구체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고구려는 건국에서부터 출몰 중인 한인정권이 설치한 지방군현의 관할 하에 있었고, 이후 漢四郡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계속해서 한인왕조의 책봉을 받으며 정치적으로 밀집한

다. 이를 폭자는 당시 고려의 상하 대부분 사람들이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희는 그렇게 표현했던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란도 이러한 분위기를 수긍하고 물러난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다.¹⁰⁷⁾ ② 고려가 거란과 朝聘할 수 없었던 실제 이유는 고려에게 있지 않고, 이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고려의 境內인 鴨綠江 内外에서 옹기하고 있기 때문인데(女眞之故), 그들을 내쫓고 그곳에 城堡를 쌓아 조빙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확보해준다면 조빙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를 환언하면 서희는 압록강 内外를 고려의 境內로 인정한 상태에서(鴨綠江内外亦我境內), 그곳을 차지하고 있던 女眞人들을 驅逐하고 城堡를 쌓도록 거란이 묵인내지 협조해 준다면, 고려가 거란과 조빙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소손녕과 서희가 각각 언급한 답판의 내용을 비교하면 소손녕은 당시의 상황을 두고 주장한 것인데 반해, 서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의 입장에서 옛 경계를 가지고 주장한 것이어서 서로 차이가 엿보이지만, 모두 틀린 말은 아니다.¹⁰⁸⁾ 한편 서희는 소손녕에게 고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으며, 그리고 이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쌍방이 나눈 답판내용을 肅聖宗에게 보고하도록 제안까지 하였다. 그리자 소손녕의 전갈을 받은 肅聖宗은 고려가 이미 화의를 청해 왔으니 군사를 물리라고 하게 된다(契丹帝曰, 高麗既請和宜罷兵), 여기에서 우리는 거란이 고려를 침략(군사를 동원)한 궁극적인 목적이 고려와 송 간의 관계를 끊어 놓고, 이를 자신들과의 朝聘으로 전환시키려 했던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¹⁰⁹⁾

앞에서도 언급했듯 서희는 거란을 上國으로 표현하여 고려는 거기서 그들의 正朔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음을 드러냈는데, 이는 거란이 군사를 동원한 진짜 이유를 미리 간파하고, 나아가 송과 같은 편에 섰던 고려를 배어놓게 된다면, 후방에 대한 어떤 걱정도 없이 거란은 전적으로 송에 맞서 중국의 '대표'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란 당시 거란·송 간의 대결국면을 정확히 간파한 서희의 慧眼 때문일 수도 있겠다. 환언하면 고려가 거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인다고 했으니, 거란으로서도 고려의 요구사항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한 것이다. (d)에서는 바로 쌍방이 모두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고, 특히 소손녕은 답판내용에 만족을 표시하며 서희를 위한 宴慰를 열고자 했는데, 이를 두 사람 간의 개인적인 친분과 신뢰를 쌓기 위한 것이라고 한 학자도 있지만,¹¹⁰⁾ 그러나 서희는 거란의 군사동원(上國勞師

관계를 유지해 갔는데, 이것은 이후 하나의 관례 혹은 제도로 정착되어 갔다. 이런 상태에서 고구려가 고려로 명칭이 바뀐 시기는 엄밀히 말하면 5세기 말이라 할 수 있으며, 중원·남방 한인정권이 고구려에 대해 頒布한 詔冊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魏存成, 2004-1, 「中原·南方政權對高句麗的管轄冊封及高句麗改稱高麗時間考」, 『史學集刊』, 73-79쪽.)

107) 박용운, 2004a, 앞의 글, 32-33쪽.

108) 박용운, 2004b, 앞의 글, 172쪽.

109) 임용한은 거란이 高麗를 침공한 당면 목표는 女眞침략의 완수에 있었기 때문에, 肅聖宗은 거기서 徐熙와 강희희담을 가진 것이며 江東6州를 고려에 양보할 수도 있었다고 하였다. 게다가 서희와 소손녕은 鴨綠江을 경계로 거란과 고려가 남북에서 여진족을 협공하자고하는 밀약까지 체결했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소손녕은 서희가 예상외로 여진을 협공하자는 제의를 하니 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희소식이라 하면서 희담을 끝낸 그를 보내면서 막대한 물량의 예물을 준 것이라고 하였다.(임용한, 2008, 앞의 글, 146-148쪽.) 이상의 주장에서 거란의 군사동원 목적도 이상할뿐더러 무슨 근거로 서희가 소손녕과 여진을 남북에서 협공하자고 제의를 했다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더 큰 문제는 만약 이런 주장이 옳다면, 서희는 소손녕의 책략, 즉 고려와 여진을 협공하려 했던 계획에 처음부터 놀아난 존재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110) 박연모, 2009, 앞의 글, 94쪽.

遠來)으로 불안한 여러 날을 보낸 고려의 백성들을 생각하면, 설사 담판이 성공했다하더라도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양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진심으로 담판내용에 만족을 표하며 '歡好之禮'를 진행하길 원했던 소손녕에게 서희는 더 이상 이를 거절하지 못한 채 허락하고 함께 담판의 성공을 기뻐했다고 한다(許之極歡乃罷). 이어서 (c)에서처럼 7일 동안 契丹의 軍營에서 머물렀던 서희가 떠나려 하자 소손녕은 적지 않은 예물을 선사하고 있는데, 이는 쌍방의 담판내용이 이후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일 것으로 생각된다.¹¹¹⁾ 이러한 사실은 이듬해 소손녕이 보내온 서신을 통해서 확인되는데,¹¹²⁾ 그는 이 서신에서 세 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즉 고려가 개척해야 할 땅의 범위와 城을 조성할 방법, 그리고 그 지역이 이후 어떻게 쓰여지기를 바란다는 내용들이다.¹¹³⁾

이상에서 5단계에 걸친 서희와 거란 간의 외교담판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그 속에 담긴 고려가 얻은 명분과 실리에 대하여 분석할 차례이다. 명분과 실리는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배려야 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여기에서 '名分'이란 고려가 건국된 후 지금까지 고려를 존속시킨 정체성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實利'는 눈에 보이는 담판을 통해 얻게 된 실질적인 이득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고려가 얻게 된 명분이란 구체적으로

111) 廣輪은 제1차 麗遼전쟁은 거란이 고려에 의해 점령된 영토를 수복하고, 고려의 '稱臣奉貢'을 받으며, 그리고 麗宋 간의 군사충격을 화해시켜 이후 충을 정벌할 때 후환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후 994년 고려는 朴良柔를 보내 冊을 받고(『遼史』 卷134 聖宗紀, "高麗王遣朴良柔奉表請罪") 일찍이 점령했던 거란의 땅을 돌려줌으로 하여 전쟁을 끝냈다. 이에 거란은 成宗을 高麗國王으로 책봉하자, 양국 간에는 藩屬關係가 성립될 수 있었으며, 게다가 詔令으로 '女直鴨綠江東數百里地'(『遼史』 卷134 聖宗紀)를 고려에 하사하게 되었다. 고려는 이렇게 하사받은 땅에 城鎮을 두어 거란을 방어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하였다.(廣輪, 2004-12, 「遼·金與高麗的戰爭」, 『東北史地』, 7-8쪽.) 주지하듯 거란이 고려를 침략한 원인을 고려가 점령한 영토를 되찾겠다(爲了收復被高麗所佔領的領土)고 했다는 것이나, 그리고 성종이 막양유를 보내 冊을 받고 일찍이 점령했던 거란의 영토를 되돌려 주자 전쟁이 끝나게 되었다(高麗王成宗派遣朴良柔奉表請罪, 歸還所佔領的遼地, 戰爭結束)고 하는데, 거란의 입장에서 기록된 『遼史』에 근거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지만 당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면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기 심히 힘든 것이다.

112) 『高麗史』 卷3 成宗十三年條, "春二月, 蕭遜寧致書曰, 近奉宣命, 但以彼國信好, 早通境土相接, 應以小事大, 固有規儀, 而原始要終(領)存悠久, 若不設於預備慮中阻於使人, 遂與彼國相議, 使於要衝路陌, 創築城池者, 尋准宣命自使割館, 擬於鴨江西里, 創築五城取三月初, 擬到築城處, 下手修築, 伏請大王預先指揮, 從安北府至鴨江東計二百八十里, 踏行穩便田地, 酌量地里遠近, 并令築城發遣役夫, 同時下手其合築城數, 早與回報, 所貴交通車馬, 長開貢觀之途, 永奉朝廷自協安康之計."

113) 金渭顯, 1981, 「契丹의 東北政策—契丹與高麗女眞關係之研究」, 臺北, 華世出版社, 86쪽. 金渭顯은 소손녕이 서신에서 담판의 내용에 따라 고려가 차지해야 할 땅의 범위(取土地之範圍)로 鴨綠江 以東 280里라고 하였는데, 엄밀한 의미로 이는 거란과의 朝聘을 위해 고려가 개척하여 차지해야 할 땅으로 보아야 더 정확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담판 중 서희가 만약 여진을 내쫓고 고려의 舊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거란이 도와주(若令逐女眞, 還我舊地), 거기에 城壁을 쌓고 길이 통한다면, 그들과 朝聘할 수 있다고 했으며, 또한 담판을 끝내고 되돌아와 成宗에게 압록강 內外 모두를 고려가 수복하기로 소손녕과 약속했다고 주장한 사실(「臣與遜寧, 約盡平女眞, 收復舊地, 然後朝聘可通」)에서, 이런 점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손녕이 압록강 以西에 다섯 城을 쌓고자 한 궁극적인 목적은 고려를 도와 女眞人들을 내쫓고 조방이 막힘없이 통하게 하는 것 외에 고려로 하여금 舊地를 수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까. 그런데 혹자는 소손녕은 서신에서 압록강 內·外를 고려와 거란이 각각 점령하자고 제안했다고 하였다.(김순자, 2006, 앞의 글, 254쪽.)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했듯 소손녕이 보낸 서신에는 어디에도 압록강을 경계로 內·外를 고려와 거란이 각각 나누어갖자고 한 내용은 없고, 그저 고려의 거란에 대한 朝聘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기 때문에, 혹자의 이상과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심히 어려운 것이다.

무엇을 가리킬까? 이는 주지하듯 거란으로부터 고구려=고려란 사실을 인정받은 것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서희는 소손녕에게 자신의 의견을 契丹主에게 전달하면 집수될 것이 틀림없다고 얘기했던 것이며, 또한 소손녕 역시 그런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어떠한 반박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답판한 내용을 보고(蕭道寧知不可強, 遂具以聞)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¹¹⁴⁾ 그런데 혹자는 이에 대해 고려의 답판대표 서희가 “우리나라는 바로 고구려의 舊地이다, 그러므로 국호를 高麗라 하고 평양에 도읍을 정한 것이다(我國卽高句麗之舊也, 故號高麗都平壤)”라고 얘기했지만, 이는 역사적인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얘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즉 고려가 신라를 계승해 건국된 것을 ‘高句麗之舊’라고 했으며, 그리고 唐朝 安東都護府의 治所 평양을 옛대로 ‘西京’으로 바꿔 불렀으며, 더 나아가 고려의 大都護府를 평양에 둔 일을 ‘都平壤’이라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희는 外交謀略을 발휘해 거란의 영역인 鴨綠江女眞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을 옛대로 ‘高句麗舊地’라 하여 요구했으며, 또한 고려가 이 지역을 차지할 합법적인 왕조라고까지 주장했다고 하였다.¹¹⁵⁾ 그렇지만 주지하듯 고려가 신라를 계승하지 않고 고구려를 계승한 왕조란 사실은 이미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증명된 사실이며,¹¹⁶⁾ 그리고 고구려의 도성 평양을 開京과 함께 중시하여 개경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했으나 ‘西京’이란 명칭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으며,¹¹⁷⁾ 이렇듯 兩京(開京과 西京 혹은 皇都와 西部)制로 운영된 고려전기의 정치체도를 보면 서희가 고려의 도읍을 평양에 두었다고 한 것¹¹⁸⁾ 역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때, 서희는 “역사적인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얘기한 것(徐熙置歷史事實于不顧)”이 아닌 지극히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쳐 소손녕으로 하여금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왕조임을 인정토록 했던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화의답판 결과 고려는 거란의 正朔을 받는 대신 고려의 고구려 계승권 및 압록강 동쪽 지역의 점유를 인정받게 되었는데, 이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해동천하 관념을 가진 고려가 상대적으로 또 다른 원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거란의 정학을 기꺼이 받겠다고 하자, 반대로 고구려 계승권의 승인과 압록강 동쪽 영역에 대한 지배권의 확보라는 실리를 거란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¹⁹⁾ 외교적인 답판이기에 받는 것이 있다면 주는 것도 있음을 당연한 이치인데, 고려가 고구려 계승이란 명

114) 하현강은 고려는 신라를 정통왕조로 보는가하면, 한편으론 고구려의 계승자임을 자처하기도 했는데, 즉 대내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신라의 영향을,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고구려의 계승왕조임을 강조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二元的인 역사계승 의식은 993년 거란의 침략을 계기로 확립되어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이런 이원적인 역사계승 의식을 가지게 된 것은 고려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였다.(하현강, 1975, 앞의 글, 14~15쪽.)

115) 鄭川水, 2003-1, 앞의 글, 34쪽. 이밖에 楊保隆은 서희의 말은 확연히 속임수가 섞인 말로, 즉 ‘我國卽高句麗之舊’란 말이 한국의 古書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며, 그리고 당시 고려의 도성은 松嶽이었는데, 뭐 때문에 평양이라고 언급했는지, 게다가 東京(지금의 遼陽)은 秦漢 이래로 중국 역대왕조의 州·郡 治所이지 않았던가 라면서 서희의 말은 완전히 진실에서 벗어난 말이라고 하였다(徐熙의說法, 純屬不實之詞).(楊保隆, 1999-1, 「論高句麗與王氏高麗前後相承關係」, 『社會科學戰線』, 158쪽.) 또한 蔣茂은 서희의 언급은 말장난(文字遊戲)과 꾀변술에 불과한데, 이를 가지고 역사에 정통하지 못한 소손녕을 설득시킨 후, 그에게 고려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遼聖宗에게 보고토록 하여 결국 절충하게 된 것이었다고 하였다.(蔣茂, 2008-6, 앞의 글, 33쪽.)

116) 하현강, 1975, 앞의 글, 12~15쪽, 박한설, 1977, 앞의 글, 93~111쪽, 김장수, 1988, 앞의 글, 92~99쪽, 박한설, 1999, 앞의 글, 69~80쪽, 박용운, 2004a, 앞의 글, 29~38쪽, 박용운, 2004b, 앞의 글, 156~169쪽, 박용운, 2006, 앞의 글, 7~35쪽, 안병우, 2004, 앞의 글, 117~137쪽 등 참고.

117) 『明史』 卷320 朝鮮傳 “後唐時, 王建代高氏, 兼併新羅·百濟地, 徙居松岳, 曰東京, 而以平壤爲西京.”

118) 안병우, 2004, 앞의 글, 124~126쪽.

분과 강동6주만 실리를 얻게 되었으니, 거란은 그들 자신들이 원했던 고려의 朝聘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리고 후방에서 군사적으로 위협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얻었으니, 이는 쌍방이 모두 '원-원'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렇다면 고려가 얻은 명분 외에 실리를 보면 서희는 거란과 맺은 답판결과에 근거해 압록강 유역의 여진족 소탕과 고구려 舊地의 회복에 끝마로 착수하게 되는데, 즉 994년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 이동의 여진인들을 공격해 몰아내고 長興·歸化 두 개의 鎮과 郭州·龜州에 성을 쌓아 영역을 넓혔으며, 그리고 이듬해에도 다시 군사를 이끌고 安義·興化 두 개의 鎮과 또한 그 다음해 宜州·孟州에 성을 쌓아 방어를 공고히 하였다.¹¹⁹⁾ 특히 孟州에는 655개에 이르는 성가퀴(城路)를 가진 성을 쌓았는데, 이 성은 5개의 門과, 4개의 水門, 19개의 城頭 그리고 2개의 遮城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¹²⁰⁾ 한편 성종은 994년 8월 李承乾을 鴨江渡勾當使로 삼았다가 얼마 후 河拱辰으로 바꿔 파견하였는데, 이는 압록강 하구의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고구려의 舊地에서 여진인들을 驅逐하고 조성한 성곽을 지금까지는 江東6州로 불려져 왔는데, 혹자는 이를 '徐熙8城'으로 바꿔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¹²¹⁾ 이하론 고려는 鴨綠江 以東의 280리에 이르는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여 영토를 넓히고 성곽을 構築했으니, 이는 고려의 건국이념인 고구려 계승에 입각해 북진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한 것이라 할 수 있어 명분과 실리를 때어서 논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이유야 어떻든 고려의 요구를 거란이 받아들임으로써 고려는 고구려 계승국임을 확인받음과 동시에 영토도 주장했던 대로 고구려의 舊地 가운데서 압록강 일대까지는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¹²²⁾ 그리고 압록강을 중심으로 서북지역의 국경이 획정되는 역사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 것이다.¹²³⁾ 그런데 이상에서처럼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혹자는 서희는 거란의 영역 안에 여진인들이 살고 있던 곳을 멋대로 '高句麗舊地'라 하여 고려가 그 지역의 합법적인 계승자라고 주장하고, 이를 소촌령에게 요구하고 거부당하자, 당시 거란과 송의 대결국면을 이용해 송과의 조병을 거란으

119) 류주희, 2008, 앞의 글, 205-206쪽.

120) 『高麗史』卷94 徐熙傳, “十三年, [徐熙]率兵逐女眞, 城長興歸化二鎮, 郭龜二州, 明年又率兵, 城安義興化二鎮, 又明年城宜孟二州.”

121) 金龍善, 2004, 앞의 글, 23쪽.

122) 서일범, 1999, 앞의 글, 149-172쪽.

123) 박용운, 2004b, 앞의 글, 172쪽.

124) 신안식, 2008, 앞의 글, 157쪽. 신안식은 더 나아가 화의담판이 끝난 이듬해 소촌령이 보내온 서신에서 그들이 압록강 밖에 성곽을 쌓겠다고 했는데, 이는 곧 양국의 국경이 압록강을 중심으로 강동·강서로 구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177쪽), 또 다른 학자는 서희-소촌령의 강화회담에서 고려와 거란은 압록강을 정계로 국경선을 확정했다고 하면서, 이 회담은 한반도의 서북 경계선을 결정한 국제협약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도 하였다.(김순자, 2006, 앞의 글, 239-270쪽.) 이밖에 역시 이들과 비슷한 견해를 제시한 학자도 있다.(이미지, 2008, 앞의 글, 22쪽.) 만약 이런 주장들이 옳다면, 후술하겠지만 답판을 끝내고 퇴물아와 成宗에게 압록강 外까지 수복하기로 소촌령과 약속했다고 서희가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이는 국왕을 기만하고 속인 행위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 따라서 이에 근거하면 서희의 주장 내용, 그리고 소촌령이 서신에서 밝힌 압록강 以西 지역의 설치담사와 다섯 賊의 구축은 고려와 거란 사이에 압록강을 중심으로 국경을 확정짓고자 결정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이와 관련해서는 최규성, 1999, 앞의 글, 139-140쪽 참고.) 그런데 주지하듯 성종은 서희의 그런 의견을 채택하지 않은 채 서둘러 사신을 거란에 보내 朝聘을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압록강을 중심으로 거란과 국경을 획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로 바꾸는 것과 '高句麗舊地'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길 바라며 그 땅을 고려에게 양보할 것을 다시 요구하였다. 결국 遼聖宗은 고려와의 '交聘修好'와 계속된 외교적 공세에 영토주권을 양보하는 데우 밀기 어려운 실책을 저지르고 말았으며, 이후 江東6州의 반환을 위해 7번에 걸쳐 고려에 사신을 파견하였고, 모두 실패하자 고려를 침공까지 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²⁵⁾ 여기에서 무슨 근거로 압록강 이북 지역이 거란의 실질적인 영역이라고 하는지 알 수 없으며,¹²⁶⁾ 그리고 서희의 요구가 소손령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這種無理的方案, 理所當然地遭到遼方代表的斷然拒絕)는 근거도 무엇인지 모르겠고, 더 나아가 고려가 전쟁이 아닌 담판을 통해 의외로 얻게 된 영토를 자연히 달갑게 거란에 돌려주는 만무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高麗既然從談判桌上意外地獲得了在戰場上未能取得的領土, 自然不甘心輕易退還), 어째서 고려가 회복한 고구려 舊地를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얻은 것이라고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고려는 名分으로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란 인식을 거란으로부터 분명히 인정받았으며, 동시에 강동6주란 압록강 동쪽의 수 백리에 이르는 고구려 舊地를 實利로서 차지할 수 있었으니, 이러한 인식은 이후 고려인들의 역사관과 영토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이는 당시 거란·송과의 관계에서 고려가 자주적인 외교노선을 추구하면서 서희는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민족의 자존과 실익 추구란 명분과 실리를 함께 가질 수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환언하면 당시 서희는 국제정세를 꿰뚫어볼 수 있는 안목과 판단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리고 이를 가지고 적장과의 화의담판에서 불굴의 용기와 소신 있는 행동으로 임했기 때문에, 결국 고려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획득하는 계기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¹²⁷⁾

마지막으로 거란은 화의담판을 통해 어떠한 이득을 얻었는지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고 본 장을 마무리할까 생각한다.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두 나라가 전쟁을 계속 수행하지 않고 대표들의 외교담판을 통해 쌍방이 만족할 만한 '공동성명'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125) 鄭川水, 2003-1, 앞의 글, 34-37쪽. 이밖에 林榮貴는 遼聖宗이 압록강 이북의 수 백리를 고려에 하사한 것은 고려로 하여금 臣節을 잘 지키게 하고, 동시에 北進정책을 정지한다는 교환조건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였다.(林榮貴, 2000-1, 『北宋與遼的邊疆經略』, 『中國邊疆史地研究』, 34쪽.)

126) 鄭川水는 溟水 이북지역은 일찍이 唐과 新羅가 맺은 '分界面治'의 界約文書에 의해 唐의 영역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는 당과 신라 사이에 정식으로 맺은 邊界이기 때문이며, 그리고 신라는 이를 인정했고, 그래서 패수 유역의 사회 안정과 신라의 경제문화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200여 년 간 이어져 온 界約을 高麗가 어기고 패수 이북지역을 점차 侵蝕하면서 이곳에 거주하던 女眞人들의 반발을 샀고, 또한 원래 평화로웠던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그래서 거란은 고려의 이러한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으며, 그리고 송과 연합하여 거란을 위협하는 행세를 바꾸기 위하여 여진인들의 도움을 받아 993년 고려를 침공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鄭川水, 2003-1, 앞의 글, 31-33쪽.) 鄭川水가 말하는 '分界面治'의 界約文書란 開元23年(735) 唐玄宗이 詔書를 내려 "溟江以南地"를 신라에게 賜與했다는 것에 근거한 것인데, 이것이 어째서 신라도 인정한 邊界인지 알 수 없고, 그리고 溟水 이북지역이 唐의 직접적인 관할 하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더 밀기 어려운 것은 당의 영역이므로 이를 거란의 영역과 동일시할 수 있는가도 그렇고, 게다가 신라가 界約文書를 통해 경제문화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 수밖에 없다.

127) 박한설은 소손령과의 담판을 통해 볼 때, 서희는 ① 충성심이 가득한 인물이었고, ② 거란의 본심을 꿰뚫어 파악하여 대세를 전환시키는 機智를 가지고 있었으며, ③ 용기와 배짱을 가지고 담판에 임한 결단한 인물이었다고 하였다. 게다가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가 거란의 東京까지 고려의 땅이라고 주장하여 소손령을 골짜기 못하게 승복시킬 수 있었던 것이라고도 주장하였다.(박한설, 1999, 앞의 글, 73쪽.)

면, 이 '공동성명'이란 두 나라 모두에게 이득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텐데, 우리는 앞에서 고려가 얻은 이익을 명분과 실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면, 거란은 주지하듯 고려로부터 중국의 유일하고 합법적인 '대표'라는 상징성을 인정받았으며, 동시에 늘 불안해 왔던 후방의 군사적인 안정을 보장받게 되었다.¹²⁸⁾ 군사적인 정복에 의하지 않고 자신들의 正朔을 강요하기 전에 고려가 자원하여 송과의 관계를 끊고 거란과 조빙할 수 있다고 하자, 거란은 이 보다 더 할 수 없는 '제면'을 차릴 수 있게 된 것이다.¹²⁹⁾ 화의담판의 결과에 의거해 994년 고려는 거란의 統和年號를 사용하고 송과의 관계를 단절했으며,¹³⁰⁾ 또한 侍中 朴良柔를 禮幣使로 삼아 거란에 파견하여 그들의 正朔을 행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포로들을 돌려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어서 거란에 妓樂을 선사하였다.¹³¹⁾ 이듬해 역시 거란에 李周植¹³²⁾을 보내 방물과 매를, 그리고 李知白을 보내 방물을 선사하였고, 童子 10명을 보내 契丹語를 배우게 하였으며, 게다가 左承宣 趙之邁를 보내 혼인을 청하니 遼聖宗은 소손령의 딸과 혼인할 것을 허락하기도 하였다.¹³³⁾ 이런 사례에서 '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했던 고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분명 고려가 이전 자신들에게 했던 송의 외교적 역할을 거란으로 대체한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거란에 고려가 朝聘을 구해오자, 거란은 996년 3월 翰林學士 張幹과 忠正軍節度使 蕭然葛를 보내 成宗(王治)을 開府儀同三司·尚書省·高麗國王에 책봉하는데, 그 冊書의 내용 중 "辰卜之區에서 유일하게 천권을 가진 高麗王이 부귀를 지키고 교만을 경계하여 小人之謀를 피하지 말고 大君之命을 어기지 않기를 바란다"¹³⁴⁾라는 부분은 힘겹게 맺어진 양국의 친선관계가 단절되길 원치 않으며 '大君之命'을 어기지 않는 한 이런 관계는 계속 유지될 것인데, 이런 사정을 환연하면 고려가 거란을 上國으로 인정한 이상 앞에서 언급했듯 거란은 "我國卽高句麗之舊也, 故號高麗都平壤"과 동시에 江東6州의 고구려 舊地를 고려의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혹자는 고려가 臣服하고 조공한다는 조건으로 거란은 전략적으로 비교적 중요한 江東 數百里의 땅을 고려에 주었는데, 이로써 이후 遼遼 간의 분쟁의 불씨를 만들어놓게 되었고, 지금까지 양국 간의 평등한 선린관계는 끝나고 불평등한 관계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였다.¹³⁵⁾ 당시 성종은 예의를 갖추어 책명을 받고 대사명을 행했으며, 韓彥卿을

128) 박종기는 契丹은 장차 宋과의 전쟁에 대비해 고려와 송의 군사·외교적 연합을 막기 위한 이른바 '後顧의患'을 없애려는 전략에서 고려에 鴨綠江 以東지역의 영유권을 허락한 것이라고 하였다.(박종기, 2010, 「고려와 거란의 영토분쟁과 그 의미」, 『정치와 평론』7, 103쪽.)

129) [宋]徐兢, 『高麗圖經』卷2 世次 王氏條, "[王]治畏懦無守, 臣事北虜, 遂開朝貢."

130) 『高麗史』卷3 成宗十三年條, "六月, 遣元祐如宋乞師, 以報前年之役. 宋以北鄙雨寧不宜輕動, 但優禮遣還, 自是與宋絕." 고려는 전년에 있었던 거란의 침공을 빌미로 송에 병사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데, 이를 혹자는 송이 수용할 수 없는 외교적인 제안을 하여 국교를 단절하는 절차를 밟기 위한 고려측의 전략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김순자, 2008, 앞의 글, 116~117쪽.)

131) 『高麗史』卷3 成宗十三年條, "[高麗]始行契丹統和年號. …… 是月遣侍中朴良柔奉表如契丹告行正朔, 乞還俘口. …… 遣使契丹進妓樂却之."

132) 거란 사서에는 李周植으로 적고 있다.(『遼史』卷134 聖宗紀, "高麗遣李周植來貢.")

133) 『高麗史』卷3 成宗十四年條, "是月遣李周植如契丹獻方物又進鷹. …… 是歲遣李知白如契丹獻方物, 遣童子十人於契丹習其語, 遣左承宣趙之邁如契丹請婚, 以東京留守鄭馬蕭恒德女許嫁."

134) 『高麗史』卷3 成宗十五年條, "春三月, 契丹遣翰林學士張幹, 忠正軍節度使蕭然葛來冊王曰, …… 海岱之表, 汝惟獨尊辰卜之區, 汝惟全有, 守茲富貴, 戒彼滿盈, 無庸小人之謀, 勿替大君之命."

135) 魏志江, 1996-1, 앞의 글, 88쪽.

거란에 보내 패물을 전했다고 한다.¹³⁶⁾ 이러한 양국의 관계는 성종 이후 穆宗 때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 번 강조해야 할 것은 이러한 관계가 고려가 거란의 군사력에 압도되어 하는 수없이 그들에게 조빙한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¹³⁷⁾임은 이후 거란과 송의 관계가 호전되고 거란의 침략 의사가 없음이 분명해지자, 고려는 송과 외교관계를 재개한 것에서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¹³⁸⁾ 한편 고려로부터 올 수 있는 군사적인 위협을 제거하는데 성공한 거란은 전적으로 송과 中原을 두고 경쟁할 수 있었는데, 宋太宗 후기 이래로 거란의 계속된 공격에 그저 수동적인 방어에 급급해 하고 있던 송을 더욱 압박하는 형세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¹³⁹⁾ 이후 주지하듯 1004년에 이르러 거란은 송을 압박하여 澶淵의盟을 맺게 되는데, 그렇게 된 주요인은 분명 송이 거란의 우세한 군사력에 굴복하여 歲幣로 '평화'를 산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¹⁴⁰⁾ 만약 고려가 후방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계속 사로잡혀 있었다고 한다면, 거란으로서도 그런 결과를 얻기 힘들었을지 모를 일이다.¹⁴¹⁾ 따라서 고려와 송의 군사동맹을 와해시켜 전적으로 송과 대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란이 실사 江東6州를 고구려의 舊地로 인정해 고려에 이러한 실리를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할지도 모르나, 결과적으로 볼 때 거란으로서도 중국대륙에서 송과의 경쟁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으니 서희와의 담판을 통해 비교적 공정한 결과를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¹⁴²⁾

IV. 현대 韓中關係에 내재된 '歷史論爭'과 그 극복

우리는 앞에서 서희가 살았던 10세기 중·후반 동북아 국제정세와 그리고 거란의 침략이

136) 『高麗史』卷3 成宗十五年條, “王備禮受冊, 大赦, 遣韓彥御如契丹納幣.”

137) 그렇다고 불구하고 중국의 한 학자는 高麗가 契丹과 관계정상화를 이룩한 것을 거란의 세력 강화에 두려워하여(王氏高麗畏契丹強大) 곧 바로 거란에 '納貢稱臣'하고 그들의 冊封을 받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曲解하고 있다.(楊保隆, 2001b, 「高氏高麗與王氏高麗前後相承關係辨識」, 『古代中國高句麗歷史叢論』, 黑龍江教育出版社, 143쪽.) 후술하겠지만, 楊保隆의 이런 논조는 고구려=고려의 인식을 부정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것으로 전혀 취할 바가 못 된다고 생각한다.

138) 박한남, 2008, 앞의 글, 75쪽.

139) 陳鋒, 2007-3, 앞의 글, 28쪽.

140) 陳鋒, 2007-3, 앞의 글, 29쪽. 陳鋒은 宋眞宗과 대신들은 거란군이 중원 깊숙이 들어와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을 것이란 상황을 이용해 결국 '議和休戰'을 이루게 된 것인데, 특히 宋眞宗은 澶淵의盟에 안목을 표시하고 장기간 해결하지 못했던 거란과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것으로 自任했다고 주장하였다.

141) 澶淵의盟을 통해 거란과 송은 ① 원래의 강역을 유지하되 白溝河를 경계로 以北은 거란이, 以南은 송이 차지하고, ② 兄弟之國을 약조해 宋眞宗은 형을, 遼聖宗은 동생을, 그리고 蕭太后는 宋眞宗의 叔母가 되며, ③ 변경지역에서 서로 침범하지 않으며 도망자가 있거든 바로 돌려보내고, 변경무역을 원래대로 유지한다. ④ 함부로 城堡를 쌓지 않고, 河道를 파지 않는다. 그리고 ⑤ 거란은 송으로부터 매년 白銀 10萬兩, 絹 20萬匹을 歲幣로 받게 되었다.

142) 화의담판 이후 고려에서는 건국 이래 유지되었던 '高麗論의 契丹觀'은 존속하지 않게 되었으며, 오히려 거란문화를 상위문화로서 모방의 대상으로 여러 방면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졌다는 주장처럼(김순자, 2009, 『고려 전기의 거란(遼), 여진(金)에 대한 인식』, 『한국중세사연구』26, 125-128쪽), 실사 화의담판에서 소손녕이 고구려=고려의 명분과 압록강 내외한 실리를 고려에 주면서 이상과 같은 거란문화의 영향을 업무에 두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이상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면, 이 역시 거란이 화의담판을 통해 얻게 된 이익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있을 때, 소손녕과 나눈 화의담판 속에 담긴 의미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거란이 고려의 명분과 실리를 인정하면서 그들 역시 그 화의담판을 통해 나름의 이득을 챙긴 그야말로 쌍방은 '원-원'할 수 있었다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거란이 인정한 "우리나라(고려)는 바로 고구려의 舊地이다, 그러므로 국호를 高麗라 하고 平壤에 도읍을 정한 것이다, 만약 地界를 가지고 말하면, 上國(거란)의 東京도 우리 境域 안에 있으니 어찌 侵蝕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我國即高句麗之舊地, 故號高麗都平壤, 若論地界上國之東京, 皆在我境, 何得謂之侵蝕乎?)"라고 주장했던 서희의 고구려=고려의 인식을 ① 國號문제, ② 도읍지문제, 그리고 ③ 地界문제를 통해 살펴봄으로 고려가 고구려의 정통을 계승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¹⁴³⁾ 그럼으로써 고구려=고려의 인식, 즉 고려가 고구려의 정통을 계승한 왕조임을 증명해 낼 수 있다면, 일찍이 중국이 '동북공정'이란 연구프로젝트를 통해 왜곡해 온 고구려의 역사가 결코 중국역사의 일부분이 될 수 없음과 고구려의 역사는 韓民族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 확신하는 바이다.¹⁴⁴⁾

우선, 주지하듯 후삼국의 통일은 弓裔의 휘하 장수로 있으면서 적지 않은 전공을 세우고 신망을 얻었던 王建이 918년 6월 궁예의 신하들에 의해 새 국왕으로 추대된 후 高麗라 국호를 정하고, 이어서 935년 신라를 평화로이 합병하고, 그 이듬해 후백제를 공격해 멸망시킴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럼 새 왕조를 연 왕건은 왜 국호를 고려라 했을까? 진정 그 안에 고구려를 계승한 왕조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혹자의 주장처럼 단순히 그가 휘하 장수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그리고 고구려의 舊地를 차지하겠다는 단순한 희망을 그 속에 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일까?¹⁴⁵⁾ 高麗란 국호에 '高句麗'의 의미가 내포

143) 지금까지 고려의 고구려 계승의식에 대한 연구는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었고 그 성과도 적지 않았는데, 즉 고려는 건국에서부터 후삼국의 통일시기까지는 국호에서 보듯 고구려를 계승한 왕조임을 분명히 했다는 주장(하연강, 1975, 앞의 글, 12쪽), 왕건이 고구려인의 후예라는 사실은 고구려 부흥·계승정책의 발원 이유라 하여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박한설, 1977, 앞의 글, 93~111쪽), 王建의 出自문제, 그리고 고구려 부흥운동의 결과로 고려는 건국되었다고 주장한 연구(박한설, 1999, 앞의 글, 69~80쪽), 왕건이 국호를 고려라 한 이유와 이는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왕조였음을 밝힌 연구(박용운, 2004a, 앞의 글, 29~49쪽), 고려시대 王建·徐熙·金富軾·李奎報 등이 남긴 기록이나 유관 사실을 통해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왕조임을 밝힌 연구(박용운, 2004b, 앞의 글, 155~198쪽), 고려와 고구려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중국학자들의 주장을 비판하고 당시대 중국인들과 고려인들의 고구려=고려란 사실을 밝힌 연구(안병우, 2004, 앞의 글, 117~139쪽), 그리고 五代시기 宋·契丹·女眞으로부터 元·明에 이르기까지 當時代 사람들의 고려의 고구려 계승문제를 밝힌 연구(박용운, 2006, 앞의 글, 7~35쪽) 등이 있다. 이밖에 중국에서는 고구려=고려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한 목적에서 역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대표적으로 楊保隆, 1999-1, 앞의 글, 156~165쪽, 楊保隆, 2001a, 「兩個高麗的差別」, 2001b, 「高氏高麗與王氏高麗前後相承關係辨識」, 「古代中國高句麗歷史論」, 黑龍江教育出版社, 史長榮, 2006-6, 「王建爲何定國號爲高麗」, 「東北史地」, 그리고 史長榮, 2007-3, 「唐明宗披露了高麗太祖王建的族籍」, 「東北史地」 등을 볼 수 있고, 이들의 주장은 본 글의 논지전개 상 필요에 따라 제술하여 비판하고자 한다.

144) 楊保隆은 高句麗族은 중국의 漢에서 唐에 이르기까지 동북지역에 존재했던 소수민족으로, 그들이 세운 高句麗國은 王建의 高麗國과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갖고 있지 않는데, 일찍이 '大漢族主義'에 사로잡혔던 일부 학자들이 高句麗를 외국민족이라 했지만, 이는 모두 잘못된 주장이라고 하였다.(楊保隆, 1999-1, 앞의 글, 156~165쪽.) 역시 中國官方 학자다운 주장으로, 고구려 역사를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입각해 해석하려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145) 史長榮, 2006-6, 앞의 글, 13~16쪽. 史長榮은 고려와 고구려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이미 밝혀졌음에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들추어내 제차 고려는 고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태조 왕건이 고구려와 관련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한 국가 특히 왕조의 계승관계를 논할 때 개국군주의 出自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¹⁴⁶⁾ 또한 동일한 국호 즉 句麗와 高句麗·高麗는 계통을 같이 하여 그 사용기간은 어림잡아 천 육·칠백년에 이르는데, 그러면 이와 같이 면면이 국호를 계승하여 오는 것은 다름 아닌 역사와 전통문화의 계승을 단적으로 웅변해줄 수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¹⁴⁷⁾ 고려의 先世와 관련하여 혹자는 왕건이 樂浪郡에 거주한 漢人의 후예일 것이라고 했지만,¹⁴⁸⁾ 이는 유관사료의 부족으로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라 비판받았으며,¹⁴⁹⁾ 이어서 혹자는 더 나아가 왕건이 낙랑군 漢人의 후예가 아니라면 중국의 淮河유역에서 한반도로 이주한 漢人의 후예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¹⁵⁰⁾ 이런 견해 역시 사료를 아전인수식으로 개인의 입맛에 맞춰 해석했다는, 그리고 중국학자들이 얼마나 역사왜곡에 몰두했었는가로 철저한 비판을 받았다.¹⁵¹⁾

고려와 아무 관련이 없음을 밝히려고 본 연구를 진행했다고 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楊保隆은 1949년 中華人民共和國가 성립된 후, ‘大漢族主義’ 혹은 역사적 조건의 제약을 받았던 사학자들이 고구려를 外國民族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게다가 인접국의 어떤 학자를 역시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고구려(高氏高麗)·高麗族(王氏高麗)·朝鮮族이 전후 계승관계를 갖고 발전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되었음은 모두 고씨고려와 왕씨고려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產生這些認識, 都是未對高氏高麗和王氏高麗歷史作深入研究). 만약 이런 인식에 기초하여 고구려 역사 및 그 역사발전의 향배를 서술한다는 것은 명실상부한 고구려의 역사를 實事求是에 맞춰 서술하기 힘들어진다. 따라서 연구를 진행해가면서 자연스럽게 高氏高麗와 王氏高麗는 전후 계승관계가 없음이 밝혀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일개 武夫(一介武夫)밖에 아니었던 徐熙가 어떻게 고려가 고구려의 정통을 계승했는지(高麗即高句麗之舊)를 알았겠냐며, 단지 왕씨고려의 국토 소재지인 松嶽 일대가 일찍이 고구려의 남쪽 경내에 속해 있었다고 해서, 이를 가지고 왕씨고려가 바로 ‘即高句麗之舊’라고 말한다면, 한반도의 역사발전은 모르는 사람만 이상과 같은 원한의 웃음거리가 될 만한 말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只有不懂朝鮮半島歷史發展變化的人, 才能說出這種貽笑于天下的話)(楊保隆, 2001b, 앞의 책, 124쪽, 134쪽.) 그런데 주지하듯 고려가 고구려의 정통을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한국학자들일 텐데, 그들의 연구성과를 이해하려거나 심지어 보려고 하지 않으면서, 게다가 한국에서 이미 충분하다고 할 만큼 이루어진 연구성과가 있음에도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않아 고구려=고려란 인식을 갖게 되었다면서, 이에서 강히 고려와 고구려는 아무런 계승관계가 없다(近世, 此一歷史問題雖已大白于天下, 王氏高麗同高氏高句麗毫無繼承關係可言)고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事實인양 ‘역사적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박용운 교수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매우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즉 그는 “중국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미 한국에서 충분하다고 해도 좋을 만큼 많이 논의해 와서 결론이 나 있다시피 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저들은 그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자기네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든다”라고 하였다.(박용운, 2004b, 앞의 글, 155~156쪽.) 중국학자들에게서 보이는 이상의 모습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이면서, 동시에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들이라 할 것이다.

146) 안병우, 2004, 앞의 글, 126쪽.

147) 박용운, 2004a, 앞의 글, 47쪽.

148) 楊保隆, 1991-1, 앞의 글, 159쪽.

149) 史長樂, 2006-6, 앞의 글, 14쪽.

150) 史長樂, 2007-3, 앞의 글, 12~15쪽.

151) 김갑동, 2008, 『왕건의 중국 출신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북아역사논총』19, 153~187쪽. 唐明宗이 고려에 보낸 詔書에서 이를테면 왕건 가문을 ‘辰淮茂族’이라 한 것은 東夷族 중의 변성한 족속을 가리키는 것이지, 淮水 지역 출신으로 볼 수 없으며, 그리고 契丹國의 酋長 耶律·休哥가 고려로 來投한 것을 왕건의 문신우대책 혹은 오일국 내부의 사정과 관련해서 살펴봐야지 왕건과 同鄉意識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한편 『高麗史』의 卷首 「高麗世系」에는 비록 고려의 先世는 기록이 없어 알기 힘들다고 하고 있지만,¹⁵²⁾ 鄭麟趾 등이 인용한 金寬毅의 「編年通錄」은 믿기 어려운 실화내용이 많고 또한 서술방식도 이치에 맞지 않아 의문시된 부분이 있지만,¹⁵³⁾ 그러나 태조 왕건 先祖의 출신을 엿볼 수 있는 기사들이 있어 일부는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주목받아 왔던 것이다. 즉 虎景이란 인물이 聖骨將軍이라 자칭하고 白頭山에서 遊歷하며 扶蘇山 左谷으로 이주하여 가정을 꾸려 생활했다고 하는데,¹⁵⁴⁾ 이런 史實을 통해 혹자는 왕건의 선조는 고구려 땅에서 남쪽 松嶽지방으로 이주해온 고구려 遺民이며, 호경이 성골장군이라 자칭한 것에서, 비록 '聖骨'이 신라의 골품제도에서 王族으로 왕위에 오를 최고위 신분을 가리키지만, 이것이 고구려에서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성골'이란 말 자체가 '성스러운 신분'이라는 뜻을 가진 王族을 의미하므로,¹⁵⁵⁾ 그는 고구려의 왕족 또는 귀족의 후예이지 않을까라고 하였다.¹⁵⁶⁾ 사실 이 점은 仁宗朝에 송의 사신으로 고려에 왔던 徐兢이 그의 저작 『高麗圖經』에서 王氏의 先祖들은 高麗(고구려를 가리킨다)의 大族이라고 한 것¹⁵⁷⁾에서 증명되고 있다. 게다가 호경이 거주했다는 부소산은 扶蘇郡의 남쪽에 위치했는데, 康忠 때에 풍수에 능한 新羅 監干 八元이란 자가 부소산에 이르러 강릉에게 郡을 산 남쪽으로 옮기고 소나무를 심어 암석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면 거기서 三韓을 통합할 인물이 출생할 것이라 일러준다.¹⁵⁸⁾ 주지하듯 그곳은 원래 고구려의 땅이었다가 이후 삼국통일 후 松嶽郡으로 고쳐졌는데,¹⁵⁹⁾ 고구려 유민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았던 그곳에서 고구려 지향적인 土着意識과 遺民意識이 대단했을 것으로 추측되기도 한다.¹⁶⁰⁾ 그리고 왕건의 祖父에 해당하는 作帝建은 부친을 찾기 위해 배를 타고 唐으로 가던 중 함께 동행했던 자들에 의해 '高麗人'으로 불려졌는데,¹⁶¹⁾ 이곳의 '고려인'이란 물론 고구려인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왕건은 고구려의 유민 출신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왕건의 父에 해당하는 龍建 때에 風水에 밝았던 道誥이 그가 새로 지은 집을 보고 기장을 심을 터에 어찌 삼을 심었는가라고 하면서, 그 집터는 실로 壬方 백두산의 水母木幹으로부터 내려와서 馬頭明堂에 떨어질 지역으로 天地의 大數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시 집을 지으면 三韓을 統合할 인물이 태어날 것이

억측이라 할 수밖에 없다. 그 외에 비슷한 아전인수식의 주장은 여러 군데에서 보인다. 따라서 史長樂이 주장하는 '왕건의 중국출신설'은 왕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수사적으로 쓴 字句에 국한한 연구로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152) 『高麗史』 卷首 高麗世系, "高麗之先, 史闕未詳."

153) 楊保隆, 1991-1, 앞의 글, 159~160쪽, 史長樂, 2006-6, 앞의 글, 13~14쪽.

154) 『高麗史』 卷首 高麗世系, "金寬毅『編年通錄』云, 有名虎景者, 自號聖骨將軍, 自白頭山遊歷, 至扶蘇山左谷, 娶妻家焉. 富而無子, 善射以獵爲事."

155) 박한설, 1977, 앞의 글, 103쪽.

156) 박한설, 1999, 앞의 글, 78~79쪽.

157) [宋]徐兢, 『高麗圖經』 卷2 世次 王氏條, "王氏之先, 蓋高麗大族也."

158) 『高麗史』 卷首 高麗世系, "時新羅監干八元善風水到扶蘇郡, 郡在扶蘇山北, 見山形勢而童, 告康忠曰, 若移郡山南, 植松使不露巖石, 則統合三韓者出矣."

159) 『高麗史』 卷56 地理1 王京開城府, "本高句麗扶蘇岬, 新羅改松嶽郡."

160) 김광수, 1988, 앞의 글, 93~94쪽.

161) 『高麗史』 卷首 高麗世系, "[作帝建]欲觀父, 寄商船行至海中, 雲霧晦冥, 舟不行三日, 舟中人卜曰, 宜去高麗人."

라고 하였는데,¹⁶²⁾ 그가 바로 왕건으로, 여기에서 우리는 왕건이 일찍이 호경이 遊歷했던 백두산의 精氣를 받은 명당에서 태어난 것임을 알게 된다. 이상에서 제시한 사례들은 왕건의 先世가 고구려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에 틀림없다. 바로 이러한 出自를 가졌던 왕건이기에 고구려의 부흥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나라를 새로이 열면서 고구려를 계승한 왕조란 의미로 國號를 高麗로, 그리고 하늘이 수여한 것이란 인식하에서 天授란 年號를 사용한 것으로 이해되거나, 또한 이러한 그의 정치적인 행위가 당시 그를 따랐던 자들과 궁예의 신하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보인다.¹⁶³⁾ 따라서 고려는 시간상의 간격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의 후예들과 舊高句麗 지역이 중심이 되어 고구려의 계승을 표방하고 건국된 왕조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적어도 건국에서부터 후삼국의 통일까지의 신라를 계승한 면이 매우 약했다는 점에서도 증명된다고 하겠다.¹⁶⁴⁾

사실 고려란 국호를 사용함으로써 왕건은 옛 고구려의 威望을 이용해 자기 세력권 내에 있었던 자들에게 고구려 舊地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그러므로 자신이 미래에 발전시킬 세력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 있는 것임에 틀림없지만,¹⁶⁵⁾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서서도 언급했듯 그가 단순히 세력을 고구려의 舊地쪽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고려란 국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분명 고구려 및 발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舊址에 터전을 잡고 있었던 고구려를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앞 장에서 필자는 937년 왕건은 後晉으로 귀국하는 胡僧 撣囉에게 고려가 발해와 '婚姻'으로 맺어진 관계라며 함께 거란을 공격하자고 청했던 적이 있었다고 하였다. 주지하듯 撣囉는 天福년간(936-943) 後晉으로 來朝했다가 고려로 유람하고 싶은 請을 해 허락받고 고려에 도착했던 승려로, 왕건의 극진한 예우를 받았다고 한다. 이때 왕건은 그에게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는데, 즉 발해는 원래 고려의 親戚之國으로 그 군주가 거란에 포로가 되었으니 大師가 후진으로 돌아가거든 後晉主에게 거란을 함께 공격하자는 뜻을 전해 달라고 했던 것이다.¹⁶⁶⁾ 후진과 함께 거란을翦平하기 위해 그 이유로 왕건은 고구려의 後身으로 건국된 발해가 고려의 親戚之國이라고 했던 것으로, 이런 중요한 일을 부탁하면서 침착하게(從容) 얘기했다는 것은 그런 사실을 늘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는 얘기일 것이며, 또한 契丹主를 父로 섬기고 있던 後晉主 石敬瑭¹⁶⁷⁾을 위해 거란을 공격해

162) 『高麗史』卷首 高麗世系, 「[道說]登白頭山至鵲嶺, 見世祖新構第曰, 種穆之地何種厥耶, 言訖而去. 夫人聞而以告世祖, 倒屣道之. …… [道說]曰, 此地脉自王方白頭山水母木幹, 東落馬頭明堂, 君又水命宜從水之大數, 作字六六爲三十六區, 則符應天地之大數, 明年必生聖子, 宜名曰王建. 因作實封額其外云, 謹奉書百拜獻書, 于未來統合三韓之主, 大原君子足下.”

163) 박용운, 2004a, 앞의 글, 37쪽.

164) 하현장, 1975, 앞의 글, 12쪽.

165) 史長樂, 2006-6, 앞의 글, 13-16쪽.

166) 『資治通鑑』卷285 後晉紀6 齊王開運二年(945)條, “胡三省注: 宋白曰: 晉天福中, 有西域僧撣囉來朝, 善火卜, 俄辭高祖, 請遊高麗, 王建甚禮之. 時契丹併渤海之地有年矣, 建因從容謂撣囉曰: ‘渤海本吾親戚之國, 其王爲契丹所虜, 吾欲爲朝廷攻而取之, 且欲平其舊惡. 師還, 爲言於天子, 當定期南顧之.’ 撣囉還, 具奏, 高祖不報.”

167) 『舊五代史』卷137 契丹傳, “清泰三年, 晉高祖爲張敬達等攻圍甚急, 遣指揮使何徽齎表乞師, 顯爲皇子, 德光白其母曰: ‘兄昨夢太原石郎發使到國, 今果至矣. 案: 契丹國志作太宗夢見眞武, 使之教晉, 與薛史微異. (舊五代史考異)事符天意, 必須赴之.’ 德光乃自率五萬騎由雁門至晉陽, 即日大破敬達之衆於城下, 尋冊晉高祖爲大晉皇帝, 約爲父子之國.”

말하여 원수를 갚자고 했던 것에서(吾欲爲朝廷攻而取之, 且欲平其舊惡) 왕건이 말해의 열망으로 그를 위한 복수에 얼마나 절치부심했었는지를 알게 된다.

한편 901년 弓裔는 스스로 王을 칭하면서 일찍이 신라가 唐에 군사를 요청하여 고구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平壤 옛 도읍이 폐해져 풀만 무성하게 되었으니 만드시 그 원수를 갚겠노라 했다고 한다.¹⁶⁸⁾ 王이라 自稱한 궁예가 나라 이름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이상한데, 이하를 『三國史記』에 그 기록이 없는 것을 혹자는 金富軾이 의도적으로 고려가 고구리를 계승한 것임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리고 고려는 신라를 계승해야 하며 고려왕실은 신라왕실의 外孫이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⁶⁹⁾ 사실 궁예가 그냥 王이라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後高麗王이라 자칭했다는 史實들은 여러 곳에서 보이는데, 辛酉에 高麗라 칭했다거나,¹⁷⁰⁾ 錦山郡을 甄萱이 차지했다가 얼마 후 그 郡民들이 後高麗王 궁예에게 귀부했다거나,¹⁷¹⁾ 또한 武州에서 후백제를 칭한 견훤이 全州로 도읍을 옮기자 後高麗王 궁예는 왕건으로 그 지역을 공격하게 했다는 것,¹⁷²⁾ 그리고 孝恭王 9年(905) 궁예가 철원에 근거한 후 後高麗王을 自稱했다는 것¹⁷³⁾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궁예가 후고려왕을 자칭했다는 사실을 전력 비판하는 자가 있는데, 그 이유로 그는 ① 국호를 정하지 못한 궁예는 당시 왕조를 세울 만한 실력이 없어 그저 만안군의 수령 정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며, ② 904년 궁예가 국호를 마진이라 한 것(立國號爲摩震)은 그전에 그가 국호를 두지 않은 것을 설명하는데, 즉 만약 이전에 후고려란 국호를 썼다면, 이때에는 '立國號'가 아닌 '改國號'라고 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고, ③ 궁예의 왕조는 신라를 계승한 것이지만, 역시 고구리 官制의 흔적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며, ④ 왕건은 궁예를 내쫓고 나라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국호를 정할 때 분명 궁예가 사용했거나 혹은 버린 것을 다시 계승하지 않았을 것이며, ⑤ 『三國遺事』와 『高麗史』에 보이는 後高麗王 弓裔란 기록은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후 당시인들이 왜 국호를 고려라 해야 하는지에 대한 牽強附會 때문이라 하였다.¹⁷⁴⁾ 이런 주장은 주로 『三國史記』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 지자 金富軾의 의도, 즉 신라를 계승한 왕조로 고려를 보기 위해 고구리란 국호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그의 본래 의도를 알지 못한데서 오는 오류이며,¹⁷⁵⁾ 그리고 궁예가 비록 신라왕실 출신이긴 하지만, 처음에 국호를 高麗(後高麗)라 한 이상 당시 도읍지였던 松嶽을 중심으로 하는 舊고구리 영역에 아직도 고구리의 문화전통이 면면히 이어진다는 사실과 그 주민들의 고구리 지향적인 토착의식에 기초하여 이념과 영토를 계승해야겠다는 뜻을 표명했다는 사실¹⁷⁶⁾ 등을 제대로 이해

168) 『三國史記』卷50 弓裔傳, "辛酉, 善宗(弓裔)自稱王, 謂人口, 住者新羅請兵於唐, 以破高句麗, 故平壤舊都, 鞠爲茂草, 吾必報其讎."

169) 정구복, 1992, 앞의 글, 63~65쪽.

170) 『三國遺事』卷1 王曆1, "丁巳, 移都松嶽郡, 辛酉, 稱高麗."

171) 『高麗史』卷57 地理志2, "[錦山]郡人附于後高麗王弓裔 ……."

172) 『高麗史』卷57 地理志2, "[甄萱]興德[武州]稱後百濟, 尋移都全州後, 後高麗王弓裔, 以太祖爲精騎大監, 帥舟師略定州界."

173) 『高麗史』卷58 地理志3, "孝恭王九年, 弓裔據鐵圓, 自稱後高麗王."

174) 史長樂, 2006-6, 앞의 글, 15쪽. 楊保隆은 고려의 국호는 왕건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궁예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史長樂과 다른 견해를 제출했었는데(楊保隆, 2001b, 앞의 책, 131쪽), 이런 주장을 史長樂이 비판하기 위해 이상에서처럼 5가지로 언급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이들은 모두 고려가 고구리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지 않은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들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175) 정구복, 1992, 앞의 글, 43~66쪽.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출된 사례들로 보아 모두 취할 바가 되지 못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왕건이 고려라 국호를 선포한 것은 가깝게는 궁예의 고구려에 대한 원수를 갚겠다는 의식의 계승이며, 멀게는 이념적으로 고구려의 청통을 계승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인데, 당시 인들은 그의 이런 부분을 수긍하고 따랐을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당시 亞相에 해당하는 內史侍郎으로서 中軍使에 임명되어 참전했던 서희가 거관과의 담판에 임한 것을 통해 그를 전형적인 '入相出將'의 인물로 볼 수 있으며, 그리고 그의 父 徐弼 역시 태조 이래의 朝臣으로서 光宗朝에서는 고려의 최고관직인 內議令까지 지낸 인물이었다. 따라서 서희는 왕건이 고구려 후예라는 사실은 물론이고, 또한 그가 고구려의 땅에서 일어나 신라의 항복을 받고 후백제를 멸한 후 三韓을 통일했다는 사실¹⁷⁷⁾을 충분히 숙지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我國卽高句麗之舊也)임을 소손평과의 담판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¹⁷⁸⁾

둘째, 서희는 고려는 평양에 도읍을 두었다(高麗都平壤)고 주장하여 이를 통해 고구려=고려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엄연히 고려의 도성이 開京(松嶽)이었음을 모를 리 없던 그가 '속입수'로 소손평을 속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임기응변적인 賢答¹⁷⁹⁾으로 하지 않은 이상, 그리고 '高麗都平壤'이란 사실을 깊이 감추고 마치 밝히기 싫은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하지 않은 한, 그가 그렇게 한 것에는 분명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다는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혹자는 서희의 이런 주장을 두고 속입수가 쉬운 거짓말이거나 詭辯術 혹은 말장난(文字遊戲)이라고 혹평했거니와,¹⁸⁰⁾ 또는 唐의 安東都護府治所인 平壤을 멋대로 '西京'이라 고치고, 그리고 고려의 大都護府를 둔 일을 평양에 도읍을 둔 일 인양 했다고 주장했다.¹⁸¹⁾ 그런데 앞서도 언급했듯 고려전기 역대 帝王들이 평양을 개경에 비견할 정도로 중시했다는 사실을 보면, 평양이 도성 개경에 견줄만한 지위와 자격을 갖추고 있었음은 쉽게 증명되기도 남음이 있다. 즉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태조 왕건이 신라와 후백제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에도, 西部(平壤)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10여 차례에 걸쳐 그곳으로 巡幸하여¹⁸²⁾ 북방 변경을 살피고, 고구려의 舊土를 석권해야 할 귀중한 유산(靑氈)으로 확신하고 있었던 것에서 알 수 있다.¹⁸³⁾ 이렇게 왕건이 평양을 중시한 것은 즉위 3개월에 해당하는 918년 9월 丙申日 신하들에게 古都인 平壤이 황폐화 된지 오래됐으나 基址는 여전히 있는데, 그곳에서 蕃人(女眞人들을 가리킨다)들이 遊獵하며 변방 고을들의 피해가 적지 않으니 마땅히 백성들을 그곳으로 천사시켜 藩屏을 공고히 하여 百世의 이득이 되게 하겠다면서, 그곳을 大都護府로 삼아 堂弟 王式廉과 廣評侍郎 列評을 파견하여 지키게 한 것에서도 확인된다.¹⁸⁴⁾ 게다가 성을 쌓고 군대를 주둔시켜 혹시

176) 김광수, 1988, 앞의 글, 92~93쪽.

177) 『高麗史』卷56 地理志1, "高麗太祖, 興於高句麗之地, 降羅淑高, 定都開京, 三韓之地, 歸于一統."

178) 박용운, 2004b, 앞의 글, 174쪽.

179) 하연갑, 1975, 앞의 글, 14쪽.

180) 楊保隆, 1999-1, 앞의 글, 158쪽, 張茂, 2008-6, 앞의 글, 33쪽.

181) 鄭川水, 2003-1, 앞의 글, 34쪽.

182) 신안식, 2004, 앞의 글, 69쪽, 주14.

183) 『高麗史』卷2 太祖二十六年條 李齊賢 贊, "忠宣王嘗言, …… 我太祖即位之後, 金傳未賓, 帳蓋未闕, 而歷幸西部, 親巡北鄙, 其意亦以東明舊壤, 爲吾家靑氈, 必常眷而有之."

184) 『高麗史』卷1 太祖元年條, "丙申, [太祖]諭群臣曰, 平壤古都荒廢, 雖久基址尙存, 而荊棘滋茂, 蕃人遊獵於其

있을지 모를 외적의 방어에 대비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특히 『訓要十條』에서 왕건이 얼마만큼 평양을 중시하고 있었는지는 잘 드러나고 있는데, 『高麗史·太祖二十六年條』에는

朕은 三韓 山川의 陰佑로 大業을 이루었다. 西京은 水德이 순조로워 우리나라 地脈의 근본이 되며(我國地脈之根本) 大業을 萬代 동안 이어갈 땅이다(大業萬代之地). 마땅히 사계절의 중간 달에 국왕은 그곳으로 행차하여 1백일 이상 머물러 나라의 안녕을 도모토록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지맥의 근본이 서경에 있다고 하고, 그곳은 大業(王業)을 만대 동안 이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한 것이나,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후손들로 하여금 1년에 1백일 이상을 그곳에서 머물게 하여 1년의 1/3에 해당하는 시간을 도성으로서의 지위를 서경에게 부여토록 한 것에서 이곳은 이미 都城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왕건은 아예 그런 '我國地脈之根本'인 西京을 새로운 수도로 삼으려고까지 했던 것인데(平定三韓, 將都於此),¹⁸⁵⁾ 설사 서경으로의 천도에 대한 그의 의지가 開京人들과 豪族들의 반발로 확실하게 할 수 없었거나,¹⁸⁶⁾ 혹은 그의 서경천도 발언이 서경 정비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상황을 비판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¹⁸⁷⁾ 이는 태조 왕건이 즉위와 함께 국호를 고려라 선포한 사실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옛 고구려의 도성이었던 평양을 다시 고려의 수도로 삼음으로써,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한층 분명히 하고자 함과 동시에 고구려의 舊土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낸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 것이다.¹⁸⁸⁾ 이러한 왕건의 사상은 역대 제왕들에게 그대로 이어져 갔는데, 이후 서경은 고려 일대를 통해 개경과 함께 兩京으로 중시되어 定宗 때에는 도성을 아예 서경으로 옮기려고까지 했으며, 光宗 때에는 開京을 皇都로, 그리고 西京을 西都라 하여 서경은 이미 개경에 비견되는 도성이 되었던 것이다.¹⁸⁹⁾ 또한 행정조직 혹은 체계, 그리고 통치·군사조직이나 도시구조 등 모든 면에서 서경은 일반 지방의 고을이 아니라 개경과 유사한 면모를 지녔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¹⁹⁰⁾ 고려는 고구려의 옛 도읍지를 도성의 하나로 삼았고, 이를 통해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국임을 대내외에 선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태조 왕건이 서경을 중시하게 된 것은 고구려 구지를 회복하기 위한 북진정책의 추진과도 깊은 관련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후 고려의 제왕들은 그의 그런 사상을 계승하여 서경에 태조의 사당인 廟를 두고, 그리고 眞影을 모신 聖容殿, 感眞殿을 두어 태조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는 서경이 도성으로서의 지위를 가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곳이 태조가 특별히 중요하게 여긴 곳, 고구려의 수도였고 북진정책의 실질적인 전진기지였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¹⁹¹⁾ 따라서 고려전기 이념상의 수도는 평양이었고, 고구

間, 因而侵掠邊邑爲害大矣. 宜徙民實之, 以固藩屏爲百世之利. 遂爲大都護, 遣堂弟式廉·廣評侍郎列評守之."

185) 『高麗史節要』卷1 太祖神聖大王十五年條.

186) 이정신, 2002, 앞의 글, 51~52쪽.

187) 김기덕, 2004, 앞의 글, 195쪽.

188) 박용운, 2004b, 앞의 글, 163~164쪽.

189) [宋]徐兢, 『高麗圖經』卷3 城邑 郡邑條, "惟西京最盛, 城市略如王城."

190) 하현강, 1970, 「고려 서경의 행정구조」, 『한국사연구』5, 47~63쪽, 이근화, 1987, 「고려 성종대의 서경경영과 통치조직」, 『한국사연구』58, 1~21쪽, 김창현, 2007, 「고려 서경의 행정체계와 도시구조」, 『韓國史研究』137, 33~75쪽.

려 계승정책 내지 복전정책이 희박해진 이후를 기준으로 수도를 개정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 학자도 있는 것이다.¹⁹²⁾ 이밖에 성종 9년(990) 9월과 10월에 내린 敕書를 보면 성종 역시 태조 이래 서경 중시정책을 계속 이어갔다는 史實을 통해서도 이상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¹⁹³⁾

이처럼 이상에서 언급했던 사실에 충실했던 서희였기에 당연히 소손녕에게 고려는 평양에 도읍을 정한 것(高麗都平壤)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며, 이는 결코 입기용변적인 賢答, 혹은 속임수가 섞인 거짓말이거나 詭辯術도 아니며 더더욱 말장난이라고 할 수 없는 고려전기 개경에 비견되고 중시되어 도성의 지위에 있었던 平壤의 실제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서희했던 것이라고 하겠다.

셋째, 서희는 고려가 거란의 境域을 침식했다는 소손녕에게 만약 地界를 가지고 말하면 上國(거란)의 東京도 우리 境域 안에 있으니 어찌 侵蝕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若論地界上國之東京, 皆在我境, 何得謂之侵蝕乎)라고 하면서 鴨綠江 内外도 역시 우리(고려) 境內라고 주장하여(鴨綠江内外亦我境內) 일찍이 고구려가 차지했던 강역이 고려의 境內라는 그야말로 地界를 들어 고구려=고려의 인식을 실현코자 하였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 신라 땅에서 건국된 고려가 고구려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란의 경역을 침식했다는 소손녕의 말에 대한 서희의 반박으로, 소손녕의 말을 신라를 계승한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거란을 침략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遼聖宗 이전까지는 거란에서도 고려를 신라계승국가로만 인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¹⁹⁴⁾ 거란이 고려에 대한 군사행동을 정당화하고 더 나아가 고려와의 영토문제에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될 수 있는 遼東지역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려를 신라와 연결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¹⁹⁵⁾ 그런데 서희가 답관을 끝내고 되돌아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성종이 朴良柔를 禮幣使로 삼아 거란에 보내려 할 때, 언급했던 그의 말은 이상의 주장과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高麗史·徐熙傳』에서 서희는 成宗에게

① 臣이 蕭道寧과 약속하기를 女眞을 盡平하여 舊地를 收復한 연후에야(臣與道寧, 約盡平女眞, 收復舊地) 朝覲를 통할 수 있다고 하였사온대(然後朝覲可通), ② 지금 겨우 鴨綠江 內만을 수복하였으니(今纔收江內) 바라옵건대 鴨綠江 外까지 차지하기를 기다려 修聘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請俟得江外, 修聘未晚).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이상의 내용을 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즉 ①은 여진을 내쫓고 고구려의 舊地를 회복해야만 거란과 朝聘할 수 있다는 뜻이며, ②는 ①에서 언급한 고구려의 舊地를 압록강 内外라고 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①을 소손녕과 약속했다고 하여 ②에서 고려가 압록강 外까지를 차지해야만 거란과의 답관에서 했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압록강 外가 구체적으로 어

191) 안병우, 2004, 앞의 글, 125~126쪽

192) 박한철, 1977, 앞의 글, 108~109쪽.

193) 『高麗史』 卷3 成宗九年條.

194) 허인옥, 2008, 「高麗의 歷史繼承에 대한 契丹의 認識變化와 領土問題」, 『한국중세사연구』 24, 114~115쪽. 『全遼文·王裕墓誌銘』에 나오는 "……烟口境連海表, 地控句麗, 口仁舊壤……"에 근거하여, 허인옥은 '海表'가 고려의 異稱이므로 거란이 처음부터 고려를 신라계승국가로 인식했던 것은 아닐 수 있다고 보았다.

195) 허인옥, 2008, 앞의 글, 115쪽.

느 지역까지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하더라도, 앞 장에서 언급했듯 고려가 거란을 上國으로 만들고 그럼으로 후방의 군사적인 위협이 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압록강 内外를 그 경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¹⁹⁶⁾ 게다가 소손녕은 서희와의 약속대로 이듬해 서신에서 고려의 거란에 대한 조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압록강 以西에 다섯 城을 쌓겠다고 하고 고려가 舊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했음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데, 그렇다면 서희가 성종에게 감히 거짓 답판내용을 주청했을 리 없기 때문에, 압록강 內야 주지하듯 강동6주도 대변될 수 있다면, 최소한 거란에서는 압록강 外라 하여 요동지역의 일부라도 고려가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 되고 만다.¹⁹⁷⁾ 따라서 서희가 주청한 이상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고려는 옛 신라 땅에서 건국되었고, 고구려의 옛 땅은 거란이 차지하고 있는바 어찌하여 고려가 侵蝕하는가라고 했던 소손녕의 언급은 요동지역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기보다는 그들이 고려와 송 간의 교병을 끊어 놓은 후 자신들을 上國으로 만들게 하고 그래서 이후 송과의 군사대결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후방의 안정을 도모하려 한 것으로 그들의 군사동원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성종은 오래 동안 修聘하지 않으면 또 무슨 후환이 있을지 모른다 하여 기꺼이 막양유를 거란에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압록강 外 지역까지를 차지할 수 없다하더라도 서희는 압록강 內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女眞人들을 몰아내고 280리에 이르는 곳에 城堡를 구축하여 일부일지 몰라도 고구려의 舊土를 회복했었음은 앞 장에서 설명한바와 같다. 이밖에 李齊賢이 태조 왕건을 贊한 내용 중에 "태조께서 즉위한 후 金傅가 함북해 오지 않고 甄萱이 사로잡히지 않았음에도, 누차 西部에 巡幸하여 천히 북방 변경을 살폈으니, 그 뜻은 역시 東明王의 옛 땅을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귀중한 물품(靑甌)으로 여겨 받으시 석권하여 소유하려 한 것이었다. 어찌 닭을 잡고 오리를 매리는 것(操雞搏鴨)만으로 그쳤겠는가"¹⁹⁸⁾라고 했던 것 역시 압록강 유역, 즉 압록강 内外가 고구려의 舊土였으므로

196) 김순자는 이상의 사서기목을 화의담판 이후에 후속조치를 의논하는 중에 서희가 成宗에게 주청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그가 수복해야 할 舊地로 생각한 범위에 압록강 内外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과, 화의담판에서 영토 침범에 관해서 서희와 소손녕은 명확하게 합의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김순자, 2006, 앞의 글, 254쪽.) 만약 그렇다면, 소손녕과 유관사실을 거침으로 약속이라도 한 듯 成宗을 기만하고 있는 서희는 '欺君罪'로 엄청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서희가 그렇게 했을 리도, 그렇게 해야만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김순자의 "소손녕이 서신에서 전후 처리로 촉구한 것은 서희가 처음 주청한 대로 압록강 內·外 모두를 고려의 영토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내(江東)-고려, 외(江西)-거란이 나누어 침범하는 것으로, 이후 고려와 거란의 조치는 소손녕의 서신 내용을 추진하는 것이다"(252~253쪽)라는 주장은 심히 믿기 어렵다고 하겠다.

197) 이러한 믿음은 화의담판이 끝난 이듬해 소손녕이 보내온 서신에서 그 일단을 엿보게 되는데, 그는 鴨綠江 以西을 조사하고 그곳의 女眞人들을 내쫓아 고려의 거란에 대한 朝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그곳에 다섯 城을 쌓을 것이라고 하였다. 설사 이런 사실을 서희 개인이 압록강 이북까지 차지하려했다고 할 수 있지만, 전후 상황 상 그것이 고려조정 전체의 정책으로 채택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하더라도(이미지, 2008, 앞의 글, 21쪽, 주47), 소손녕은 서희에게 압록강 外 高句麗 舊地까지 고려가 수복하고 거란에 朝聘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臣與遼寧, 約盡平女眞, 收復舊地, 然後朝聘可通')에서 그의 압록강 以西지역의 조사와 다섯 城의 축조는 결국 약속대로 高麗가 舊地를 수복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와 관련해 최규성 교수는 화의담판으로 고려가 확보할 수 있게 된 지역이 압록강 동쪽의 강동6주에 그치지 않고 압록강 너머로 확장된 고구려 고토였음이 확실하다면서, 성종이 湖地論者들의 조속한 거란과의 국교정상화의 건의를 받아들인 결과 압록강 이북으로의 복진은 불가능해졌고, 고려의 영토는 압록강 하류 이남에서 고착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다.(최규성, 1999, 앞의 글, 139~140쪽.)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 생각한다.

이를 회복해야겠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¹⁹⁹⁾ 이곳의 '닭을 잡고(擄雞)'의 '雞'는 雞林, 즉 신라를 빗대어 표현한 것이며, '오리를 빼리는(擄鴨)'의 '鴨'은 압록강 일대, 즉 고구려의 舊地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편 고려후기에 이르러서도 압록강 外, 즉 遼東지역을 이미 고려의 강역으로 여겼거나, 혹은 고려가 수복해야 할 고구려의 舊地로,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던 백성들을 고려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恭愍王 19年(1370) 고려가 東寧府 정벌에 임하여 金州·復州 등지에 붙인 榜文에서 本國은 서쪽으로 遼河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강역을 지켰으며, 무릇 遼河 以東 本國 疆內의 백성들과 大小 頭目 등은 속히 스스로 來朝하여 함께 爵祿을 누리도록 하라고 한 것에서,²⁰⁰⁾ 그리고 같은 해 西北面上元帥 池龍壽가 東寧府에 남아있던 附元세력을 소탕하기에 앞서 압록강 外, 즉 遼陽·瀋陽지역에 살던 백성들을 위무코자 했던 말 중에서 이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용수는 遼·瀋지역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遼·瀋은 우리의 地界 내에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백성들이다. 지금 義兵을 동원해 安撫하고자 하는데, 만약 山塞로 도망한 자들이 있으면 각 校 軍馬에 해를 당할까 염려되니 軍前으로 나와서 실정을 고하라고 하였던 것이다.²⁰¹⁾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서쪽으로 遼河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강역을 지켰다는 것(腹西至于遼河, 世守疆域)과 遼東을 本國 疆內로 생각하고 그곳에 거주하던 백성들(凡 遼河以東本國疆內之民)을 고려인으로 여긴 것, 그리고 遼陽과 瀋陽지역을 고려의 地界 내에 있다고(遼瀋是吾國界) 한 것, 게다가 그들을 고려의 백성들(民是吾民)이라고 한 부분으로, 이는 실로 고려후기까지 고려인들의 의식 속에 압록강 外를 여전히 고구려의 舊地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²⁰²⁾ 이러한 地界문제에 명확했던 시의였기에 거란의 東京도 고려 정내에 있으며, 압록강 內外를 고구려의 옛 땅으로 보고, 고려는 이를 회복해야 할 곳으로 여겼던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시의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려가 고구려의 영토관뿐만 아니라 그 정통을 계승한 왕조였기 때문으로 생각되는 것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當時代 中國人들은 고구려와 고려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본장을 마무리할까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선 이미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여기에서는 이를 간단히 정리하여 고구려=고려의 인식이 보다 확연히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란다. 주지하듯 중국의 歷代史書에는 고구려와 고려를 아무 구분 없이 혼용해서 사용해 왔으며, 또한 고려에 대한 기록을 고구려로부터 기술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들은 옛 중국인들이 高麗를 高句麗와 같은 것으로 여겼다는 증거일 것이며, 동시에 고구려=고려란 인식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럼 고려가 존속했던 시기에 한정하여 중국의 역대사서 중 비교적 명확하게 이러한 인식이 보이는 기록을 옮겨보면

198) 『高麗史』 卷2 太祖二十六年條 李齊賢 贊, “忠宣王嘗言, …… 我太祖即位之後, 金傳未賓, 報當未滿, 而屢幸西部, 親巡北鄙, 其意亦以東明舊壤, 爲吾家南甌, 必席卷而有之, 豈止擄雞搏鴨而已哉.”

199) 이는 고려건국 이래 지도층들이 어떠한 영토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연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박용운, 2004b, 앞의 글, 173쪽.)

200) 『高麗史』 卷114 池龍壽傳, “本國 …… 腹西至于遼河, 世守疆域 …… 凡遼河以東本國疆內之民, 大小頭目等, 速自來朝, 共享爵祿.”

201) 『高麗史』 卷114 池龍壽傳, “[池龍壽]告諭遼瀋人曰, 遼瀋是吾國界, 民是吾民, 今舉義兵, 撫安之. 如有逃離山塞者, 恐爲各校軍馬所害, 卽詣軍前告情.”

202) 박한남, 2008, 앞의 글, 87쪽.

㉞ 高麗는 본래 扶餘人之別種이다. 그 國地(나라의 地理)와 君世(군주의 世系)는 唐書에 보이며 다른 夷狄에 비해 姓氏도 있고, 그 官號는 대략 그 뜻을 알 수 있다. 唐末에 그 왕의 姓은 高氏이다. 同光元年 廣評侍郎 韓申一과 副使 春部少卿 朴巖을 보내왔는데, 그 국왕의 성명은 사료를 잃어버려 기록하지 못했다. 長興 3年 權知國事 王建이 使者를 보내오자, 明宗이 이에 그를 玄菟州都督·充大義軍使에 拜授하고 高麗國王에 봉하였다. 王建은 고려(고구려)의 大族이다.²⁰³⁾

㉟ 高麗는 본래 高句麗라 부른다. …… 遼東에서 대개 扶餘의 別種으로 平壤城을 國邑으로 삼았다. …… 唐末에 中原이 혼란에 빠지자 머로소 스스로 君長을 두었다. 後唐 同光·天成 때에 그 君主 高氏가 수차례 職貢하였다. 長興 때에 權知國事 王建은 高氏의 왕위를 잇고 遣使하여 朝聘하였다.²⁰⁴⁾

㊱ 高麗(高句麗)는 건국된 이래 여러 해를 지나오면서 人民과 土田에 대해서는 역대 각각 관련된 기록이 있다. 게다가 高麗는 遼(거란)와 200여 년을 교류해 왔다.²⁰⁵⁾

㊲ 그 군주의 姓은 高氏로 나라를 세우고 唐 乾封初에 이르러 멸망하였다. 垂拱 때 이래 자손들이 다시 그 지역에 冊封되어 이후 점차 자립할 수 있었다. 五代 때에 이르러 대신에 그 나라의 君主가 되어 松岳으로 遷都한 자가 있는데, 그의 姓은 王氏이고 이름은 建이다.²⁰⁶⁾

㊳ 漢末 扶餘人으로 高氏가 그 땅에 근거하고 國號를 高麗라 고쳐 붙였는데, 또 高句麗라 부르기도 한다. 平壤에 근거하니 바로 樂浪이다. 唐에 의해 격파당한 후 동쪽으로 이주하였다. 後唐시기 王建은 高氏를 대신해 新羅·百濟 지역을 권병한 후 松岳으로 옮겨 근거했는데, 이를 東京이라 부르고 平壤은 西京이라 하였다.²⁰⁷⁾

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㉞의 내용 중 “唐末에 그 왕의 姓은 高氏이다”와 “同光元年 廣評侍郎 韓申一과 副使 春部少卿 朴巖을 보내왔는데 ……”라는 부분에서 그 高氏는 弓裔를 가리킨다는 점²⁰⁸⁾에서 『新五代史』의 저자가 착오를 일으킨 것이 분명한데, 이는 唐末·五代의 정치사회적인 혼란기였으므로 고구려의 원수를 갚겠다는 명분으로 舊고구려 지역에서 흥기한 궁예를 高氏로 오해한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며, 이를 문제 삼아 모든 기록을 부정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하겠다. 또한 後唐에 출사한 同光 元年(923)의 시간이 『五代會要』 등 다른 사서의 기록과 비교해 볼 때, 同光 3년으로 기재하고 있어 연월상의 차이만을 제외하면 ㉞의 내용은 역시 모두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²⁰⁹⁾ ㉟의 내

203) 『新五代史』 卷74 高麗傳, “高麗, 本扶餘人之別種也. 其國地·君世見於唐. 比佗夷狄有姓氏. 而其官號略可喻其義. 當唐之末, 其王姓高氏. 同光元年, 遣使廣評侍郎韓申一·副使春部少卿朴巖來, 而其國王姓名, 史失不紀. 至長興三年, 權知國事王建遣使者來, 明宗乃拜建玄菟州都督, 充大義軍使, 封高麗國王. 建, 高麗大族也.”

204) 『宋史』 卷487 高麗傳, “高麗, 本曰高句麗. …… 在遼東, 蓋扶餘之別種. 以平壤城爲國邑. …… 唐末, 中原多事, 遂自立君長. 後唐同光·天成中, 其主高氏累奉職貢. 長興中, 權知國事王建承高氏之位, 遣使朝貢.”

205) 『遼史』 卷115 高麗傳, “高麗自有國以來, 傳次久近, 人民土田, 歷代各有其志. 然高麗與遼相爲終始二百餘年.”

206) 『元史』 卷208 高麗傳, “其主姓高氏, 自初立國至唐乾封初而國亡. 垂拱以來, 子孫復封其地, 後稍能自立. 至五代時, 代主其國遷都松岳者, 姓王氏, 名建.”

207) 『明史』 卷320 朝鮮傳, “漢末, 有扶餘人高氏據其地, 改國號曰高麗. 又曰高句麗, 居平壤, 卽樂浪也. 已, 爲唐所破, 東徙. 後唐時, 王建代高氏, 兼併新羅·百濟地, 徙居松岳, 曰東京, 而以平壤爲西京.”

208) 김갑동은 궁예가 고구려 부흥을 내세웠을 때 스스로 高氏를 표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중국사서에서는 들은 바를 그대로 옮긴 것일 수 있다고 하였다.(김갑동, 2008, 앞의 글, 163쪽.)

용 중 “長興 때에 權知國事 王建은 高氏의 왕위를 잇고 ……”에서 왕건이 고씨, 즉 궁예의 왕위를 이었다는 것은 궁예가 고씨가 아닌 것 외에는 모두 사실로 인정할 수 있고, 앞 장에서 왕건이 고려라 국호를 선포한 것은 궁예의 고구려에 대한 원수를 갚겠다는 의식의 계승이라고 언급했던 것처럼, 『宋史·高麗傳』은 고려가 그런 상태에서 건국된 것임을 기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의 기재에서 우리는 고구려 건국 이래 그 인민과 토지에 대한 기록이 고려에게로 계승되어졌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데, 만약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 『遼史』의 저자는 굳이 그렇게 혼란스럽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⑤의 기록에서도 역시 고려가 고구려의 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사 垂拱의 연대(685~688)에 유의하여 그 자손들이 다시 그 지역에 책봉되어 점차 자립한 사실을 渤海의 건국과 관련시켜 생각할 수 있거나, 혹은 그 나라의 군주가 되어 松嶽으로 천도한 자가 왕건이고, 그 나라는 궁예의 後高麗(泰封)를 가리킬 수 있으므로, 210) 어떻게 보면지 간에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왕조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⑥에서 고구려를 고려라 부르기도 한다는 史實도 주의할 필요가 있겠거니와, 唐에 의해 격파당한 후 동쪽으로 이주한 자들이 渤海를 건국한 세력이 되었건, 아니면 이후 후삼국으로 흘러들어 後高麗(泰封)의 주축세력이 되었건 간에 결국 고려의 건국으로 귀결된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송악에 거하고 이를 東京으로 부르고, 동시에 平壤을 西京이라 했다는 것은 고려전기 兩京制의 실시와 평양을 중시했던 당시의 사정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211)

이상에서 필자는 서적이 언급한 國號·都城·地界 등의 문제로 고려가 고구려의 정통을 계승한 왕조였음을 살펴보았는데, 실사 그의 국호·도성·지계에 대한 언급을 역사적인 사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한 자도 있지만, 212) 서적은 충분한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소

209) 박용운, 2006, 앞의 글, 8~16쪽.

210) 박용운, 2006, 앞의 글, 27~28쪽.

211) 중국 正史에 기록된 고구려=고려란 인식에 대하여 楊保隆은 모두 역사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기록이라 하면서, 그 근거로 우선 『新·舊五代史』에서 고구려=고려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고구려와 고려 사이에는 ① 시간적으로 250년의 차이가 있고, ② 통치계승 역시 다르고, ③ 통치강역도 다르며, ④ 王都 및 基本國民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구려와 고려를 함께 다룬 것 자체가 분명 오류라고 하였다. 그리고 잘못된 기재도 보인다면서, 즉 『舊五代史·高麗傳』의 “其國遂自立君長, 前王姓高氏”가 대표적인 것으로, 당시에 한반도에는 高氏를 君長으로 한 高麗國이 존재하지 않았고, 後高麗王은 弓裔로 그의 姓은 金氏이지 않았는가 하면서, 이를 가지고 『新·舊五代史·高麗傳』의 기록 모두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元史·高麗傳』, 『明史·高麗傳』의 기록의 근간이 되었던 『宋史·高麗傳』에도 역시 잘못된 기록들이 보인다면서, “長興中, 權知國事 王建承高氏之位”가 대표적인데, 長興년간은 王建이 왕위에 오른 지 이미 10년 이상 지난 930~933년으로 시간도 잘못되었고, 또한 “王建承高氏之位” 역시 잘못된 기록이라고 하였다. 게다가 “後唐同光·天成中, 其主高氏累奉職貢”에서 “其主高氏”는 분명 王建을 가리키는데,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高氏가 될 수 있느냐며, 이것들을 가지고 역시 『宋史·高麗傳』 전체를 잘못된 것으로 부정하고 있다. (楊保隆, 2001b, 앞의 책, 144~153쪽.) 楊保隆의 이상의 전제는 그가 가장하게 전백여 년 간 역사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 정사의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기 위해 특별히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하였지만(對此, 立本題試作辨析, 訂正這一千百年來不符合歷史事實的誤傳), 東北工程의 영향인지 중국 정사의 기록을 “錯誤” 혹은 “誤謬”라는 이유로 동북공정에 부합하지 않는 기록을 부정하고 있고, 또한 이는 자그마한 오류들로 인해 역사발전의 큰 줄거리를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를 통해 고구려=고려의 인식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로 작은 나무만 보기를 고집하며 넓은 숲을 보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박용운, 2006, 앞의 글, 7~33쪽을 참고.

손령을 설복시킨 것이었음은 이미 앞에서 충분히 서술했는데, 만일 잘못된 史實로 상대방을 속이려 했다면, 이는 國書를 휴대하고 敵將과의 화의담판을 책임져야 할 자로서의 자질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을 것이 분명하거니와, 오히려 이후 더 큰 禍를 불러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서희의 이상에 대한 언급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것이다. 또한 소손령이 서희보다 역사적인 지식이 뒤떨어져 압록강 以東의 수 백리에 이르는 지역을 고려에게 내주는 옷지 못 할 우매한 '짓'을 했다고도 생각되지 않지만,²¹²⁾ 그 역시 서희의 발언에 동의하고 그 나름의 만족할 만한 이득을 얻어 담판이 끝난 후, 이런 사실을 기꺼이 遼聖宗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나아가 그것이 원만히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서희에게 적지 않은 예물을 선사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게다가 이런 담판내용에 근거해 서희는 합법적이긴 하지만, 압록강 외가 빠진 압록강 內, 즉 강동6주만을 차지했던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한편으론 압록강 外를 수복할 수 있었음에도 그럴 수 없었던 것은 적지 않게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당시대 中國人들도 고구려=고려관 인식을 갖고 사서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고려가 고구려의 정통을 계승한 사실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V. 맺음말

이상으로 우리는 徐熙가 살았던 10세기 중·후반 동북아 국제정세는 어떠했으며, 그의 화의담판을 통해 高麗가 얻은 명분과 실리는 무엇이었으며, 그리고 서희는 國號·都城·地界를 통해 고려가 고구려의 정통을 계승한 왕조임을 설파하여 契丹으로부터 이런 사실들을 인정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이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10세기 중·후반 고려는 자주와 실리에 근거한 외교노선을 통해 중국대륙의 정치형세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며 諸王朝과 교류하였으며, 한편 중국의 '대표' 자리를 두고 다투던 契丹과 宋은 어떻게든 고려를 자기편으로 확보하여 자신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의 재편을 원하고 있었다. 이때 군사적으로 열세였던 송이 거란보다 고려에 적극적으로 접촉했을 것은 쉽게 짐작이 가는 바로, 특히 고려와의 군사동맹을 통해 거란을 양면에서 협공하고자 했던 사실은 설사 그 계획이 실현되지 못하긴 했으나, 당시 송의 고려에 대한 교류의 목적이 비교적 분명히 드러난 것이라고 하겠다. 이에 대해 거란은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국초 이래로 고구려 고토회복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며 세력을 북쪽으로 뻗치고 있던 고려와 어떤 형태로든 군사적인 충돌이 있어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고려가 자신들에 의해 멸망한 발해의 유민들을 받아들이고, 또한 우호의 표시로 보낸 사신과 낙타에 대해 각각 '反契丹'적인 행위로 단교를 선언하자, 그 가능성은 실로 양국 간에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마치 폭발만을 남겨놓은 시한폭탄과도 같았다고 하겠다. 한편 972년 10여 년간 교류가 없었던 송에 서희가 出使함으로써 양국의 관계는 회복되었지만, 이때 그는 송의 對契丹觀이 어떠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로써 자주적인 외교노선에 입각한 고려의 국가적 위상과 그 주체성을 우선시하는 외교적인 안목을 갖추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이는 그가 이후 거란과의 외교담판에서 고려의 명분과 실리를 강조하며 그들을 설복시켰던 사실을 통해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압록강 내외에 거주하고 있던 女真人들은 고

212) 史長樂, 2006-6, 앞의 글, 16쪽.

213) 蔣茂, 2008, 앞의 글, 33쪽.

려-거란 간의 직접적인 교류를 방해하며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대체로 그들을 親·反高麗의 성향을 가진 자들로 대변할 수 있다면, 거란의 침략을 고려에 알려준 자들은 친고려의 성향을 가진 자들로, 반대로 서희가 소손령에게 驅逐해야 한다고 했던 자들은 반고려의 성향을 가진 자들로 볼 수 있어, 여기에서 우리는 거란의 협조로 고려가 그곳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면, 거란의 正朔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환연하면 宋 편에 있던 고려가 송과의 관계를 끊고 거란 편에 서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본격적인 송과의 대결을 앞두고 있던 거란으로서는 이후 송을 굴복시켜 漚淵의盟을 통해 그들 나름의 명분과 실리를 챙기게 되었으니, 서희-소손령의 답판은 실로 쌍방이 '원-원'한 것임에 틀림없다고 하겠다.

한편 거란의 대규모 침공에 1차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혼란에 빠진 고려 조정대신들은 위항 혹은 할지란 굴욕적인 방법으로 사태를 해결하고자 했는데, 그러나 이들과 달리 화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한 서희는 거란이 군사를 동원한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들이 고려에게서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잘 알고 있었기에 답판의 일사와 장소가 결정되자, 奉命使臣의 신분으로 적장과 어떻게 대면하고 답판할 것인가에 대해 엄격하고 단호하게 임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고려가 安戎鎭에서 거란의 예봉을 꺾어 그들의 공세를 다 소나마 누그러뜨리기는 했지만, 그들은 언제든 제침을 단행할 수 있고, 게다가 만일 답판이 결렬되어 서희 본인도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한다면, 자신에게 걸려있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물론이며, 본인 역시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터티욱 그러했을 것이다. 따라서 적장 소손령과의 대면이 상하의 만남이 아닌 대등한 것이어야 함은 답판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그렇게 했다가보다는 이후에 있을 거란과의 朝聘이 결코 그들의 일방적인 요구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보다 강하게 각인시키려 했던 행동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거란의 군사동원(契丹之來) 목적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던 서희였으므로 그들의 강요가 있기 전 고려는 기꺼이 거란을 上國으로 하는 正朔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고, 동시에 후방에서 거란을 위협하지 않겠다는 언질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는 실로 소손령이 군사를 동원한 목적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것이기에, 그렇다면 거란 역시 이를 위해 고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함은 어찌 보면 더없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소손령이기에 서희는 단호히 그를 향해 답판내용을 契丹主에게 보고하여 최충승인을 받으라고 했던 것이리라. 거란은 고려의 요구, 즉 ① 고려가 고구려의 정통을 계승한 왕조라는 사실과, 그리고 ② 거란과의 교류를 방해하던 압록강 내외의 女眞人들을 양국이 함께 내쫓아 그곳을 고려가 차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인정하였다. 거란으로부터 고구려=고려란 사실을 인정받았음은 더없이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임에 틀림없는데, 이밖에 고려는 비록 압록강 外地가 빠진 그 內地만을 차지해 답판내용이 불완전하게 실행된 감이 없지 않으나, 건국 이래 처음으로 국경선을 압록강 유역으로까지 확대시킬 수 있었음은 실로 고려의 자주적인 외교가 실시되고 있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서희의 '역사적인 역할'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인 성과'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서희-소손령 간의 외교답판이 그야말로 쌍방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때, 고려가 얻은 것이 있다면 주는 것도 있었음은 당연한 이치일 텐데, 거란은 고려로부터 중국의 유일하고 합법적인 '대표'라는 상징성을 인정받아 자신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국제질서에 고려를 정식으로 참여시킬 수 있었고, 동시에 늘 불안했던 후방에서 고려의 위협을 제거하고 안정을 이루어 전적으로 송과 대결해 이를 굴복시킬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하겠다. 게다가 화의답판 이후 고려에서는 거란문화를 모방의 대상으로 하여 여러 방면에서 폭넓게 받

아들여졌다'는 주장이 있는 것처럼, 설사 소촌명이 고구려=고려의 명분과 압록강 내의한 실리를 고려에 주면서 이와 같은 거란문화의 고려에 대한 영향을 업무에 두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면, 이 역시 거란이 화의담판을 통해 얻어낸 이득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이밖에 필자는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와 고려 간의 계승관계를 부정하고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역사의 일부분으로 고착시킬 수 없음을 서희가 화의담판에서 소촌명에게 했던 "우리나라(고려)는 바로 고구려의 舊地이다, 그러므로 국호를 高麗라 하고 平壤에 도읍을 정한 것이다, 만약 地界를 가지고 말하면, 上國(거란)의 東京도 우리의 境域 안에 있으니 어찌 侵蝕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史實로 반박해 왔다. 父 徐弼 이래 고려의 朝廷으로 국가 경영에 참여해왔던 서희는 ① 태조 왕건이 고구려의 후예라는 사실은 물론이며, 또한 고구려의 정통을 계승하고 그 부흥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 입각해 국호를 高麗라 했음을 숙지하고 있었으며, 게다가 ② 고려전기 역대 제왕들이 開京과 함께 兩京 중의 하나로 평양을 중시해 온 사정 역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가 평양에 도읍을 정한 것(高麗都平壤)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③ 거란의 東京과 鴨綠江 内外가 모두 고려의 境內에 있다고 한 주장은 고려건국 이래 고려인들의 영토관 속에 나타난 의식으로, 다만 서희에 의해 보다 확고하게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高麗가 바로 高句麗의 정통을 계승한 왕조(我國卽高句麗之舊)임을 한 치의 의문도 없는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고려와 시기를 같이한 중국의 제왕조가 그들의 역사를 다룬 史書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고구려와 고려를 함께 혼용하고 있는 사실에서, 그리고 고려의 先史를 고구려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에서 고구려=고려란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일부 중국학자들은 고구려와 고려는 ① 건국된 시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역사적인 발전방향이 다르며(立國時間懸殊及歷史發展走向不同), ② 존속했었을 때의 통치강역 역시 다를 뿐만 아니라(統治區域各有所在), 그리고 ③ 君主의 族屬이 서로 다르고, 그 주체 민족이 서로 계승관계가 없기 때문에(最高統治者族屬互異, 族源的主源非前後相承), 이 두 왕조를 아무 계승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는데,²¹⁴⁾ 전혀 취할 바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모습은 한국학자들이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고구려 혹은 고려와 관련된 연구 성과를 이해하려거나 심지어 보려고 하지 않으면서 막무가내로 자기네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쏟아내어 자기네 주장들이 옳다고 하는 중국학자들의 연구자세는 물론이거니와, 적어도 순수하게 학문적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글을 맺으며 필자가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번 연구를 통해 고려가 고구려의 정통을 계승한 왕조란 사실(고구려=고려란 인식)과 고구려 역사를 한민족의 역사와 떼려야 뗄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역사는 고구려 역사가 온전함으로 인해 완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현재 중국의 고구려 역사왜곡으로 빚어진 '역사는쟁'에서 우리가 이에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해야할지를 1천여 년 전 서희는 이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적인 예시를 했다는 점에서 고구려=고려란 사실은 더욱 분명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동북공정의 허구성을 보다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가 동북공정의 문제점과 허구성을 드러내고, 한민족의 역사가 완전한 형태로 남을 수 있도록 작게나마 일조했다면, 연구를 시작했을 때의 목적 및 그 초기의 목표에 도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214) 楊保羅, 2001a, 앞의 책, 108-123쪽.

1
토론

徐熙의 外交談判에 담긴 意味와 그 影響에 대한 所見

장동익

(경북대학교 교수)

「徐熙의 外交談判에 담긴 意味와 그 影響」에 대한 所見

張 東 翼

이 論文은 993년(成宗12) 10월 이래 다음해 4월까지 전개된 契丹軍의 侵入과 이에 대한 高麗側의 對應을 주된 檢討의 對象으로 하여 作成된 것이다. 그렇지만 副題인 '現代 韓·中關係에 가로놓인 歷史論爭의 克服과 關聯하여'가 內包하고 있는 意味를 감안해 볼 때, 이에서 다룰 內容은 매우 重大하며 複雜하다. 또 발표자가 序言에서 '徐熙의 和議談判 속에 담긴 歷史的인 意味와 그리고 그것이 現代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敎訓的인 豫示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集中的으로 살피보고자 한다.'라고 言及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過去의 歷史研究에 限定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政治外交를 위시한 思想의 分野에까지 外延이 擴大되는 것이기에 評者が 어떠한 所見을 提示하여야 할까하는 어려움이 없지 않다.

이 論文은 契丹의 1次 侵入에서 주도적인 役割을 遂行했던 徐熙를 중심으로 하여 當時의 事實과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는 韓·中學界의 研究現況과 問題點을 綜合적으로 다루었기에, 어떤 特定分野에 대해 論評을 가할 수는 없다. 發表文은 크게 다섯 개로 나누어지 있으나, 서로 별개의 內容으로 首尾相應하게 陳述된 것[整合的展開]이 아니라 相互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것이다. 곧 ①10世紀 北東亞細亞의 情勢, ②契丹과의 接觸과 戰爭, ③徐熙의 外交談判, ④ 韓·中 兩國 學者의 史實에 대한 視覺差異, 그리고 ⑤ 高麗의 國號問題 등과 같은 여러 분야에 대한 發表者의 意見이 多樣하게 提示되어 있다.

새로운 의견이 제시된 점도 많이 있지만, 그보다는 既往의 研究에서 提示된 結果에 대한 發表者의 새로운 意見의 提示가 많아 向後 學界로부터 注目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제시한 意見이 종래에 다루어졌던 史料를 再解釋하는 수준에 머물고 말았고, 이미 拔萃·整理된 새로운 資料에 대한 接近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해 일정한 限界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 검토했던 다섯 가지의 主題들이 각각 하나의 論文으로 보다 精緻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현재 一部學者들에 의해 提示되고 있는 다양한 견해,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 주목될 수 없으면서도 他人의 眼目만을 어지럽게 할 수 있는 論議들에 대해 卽刻적으로 對應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評者가 内外의 論文들을 살피본 결과에 의하면 重厚한 中國의 歷史學者들은 그렇게 輕薄한 의견을 提示하지 않았다. 이 점은 오늘의 發表에 임한 郭天祥·龐天佑·申右良 教授의 發表文에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오늘 발표한 네 분의 教授에게 高麗時代의 對外關係에 대한 研究를 위해서는 工具書의 하나인 『高麗時代對外關係史綜合年表』·『宋代麗史資料集錄』등을 위시한 評者의 여러 資料研究書를 參照할 것을 付託드린다. 이들 쪽에는 여러분들이 考證을 하였거나, 考證을 하여야 할 必要性이 있는 史料들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說明이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2

10~12세기 東北亞 정세와 宋麗·遼麗 관계에 대한 중국학자들의 연구 동향

(中国学者论10~12世纪东北亚局势与宋丽、辽丽关系)

곽천상(郭天祥)

(담강사범대학 교수)

10~12세기 東北亞 정세와 宋麗·遼麗 관계에 대한 중국학자들의 연구동향

(後附－筆者:「韓國華出使高麗問題考辨」)

著:郭天祥 譯:諸同鎬

引言

- I. 최근 中國에서 출판된 관련저서
- II. 東北亞 정세에 대한 견해
- III. 宋麗 관계에 대한 연구
- IV. 遼麗 관계에 대한 연구
- V. 徐熙와 遼의 교섭에 대한 평가
- VI. 宋·遼·麗 삼국과 高麗의 외교정책에 관한 연구
- VII. 고려의 '二元'의 조공체제에 관한 연구

結語

引言

주지하듯 고려의 지명한 외교가였던 서희는 10세기 후반부에 활동하였으므로, 따라서 10세기 후반에서 12세기 초반에 이르는 동북아 정세 및 宋麗·遼麗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은 '徐熙研究'에 보다 폭넓은 역사적 배경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외교 활동과 공헌에 대한 정확한 인식 혹은 평가를 하는데도 필요한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 글은 이상과 같은 인식 하에서 지금까지 중국학자들이 진행해 온 연구 성과 및 기본적인 견해 등을 종합하고 소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다만 현재 필자가 맞닥뜨린 여러 제한적인 여건들로 인해 대만 및 홍콩학자들의 일부 연구 성과만을 언급하는데 그친 것은 깊은 유감이다. 그렇지만 이 글을 통해 中韓 양국 간의 학술 문화교류의 촉진과, 더 나아가 서희연구 내지 한중관계사 분야의 연구에 미력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자 한다.

I. 최근 中國에서 출판된 유관저서

한중관계사에 대한 중국학자들의 연구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1950년대 이전 李符桐·朱希祖 등 극히 일부 학자들에 의해 遼麗 관계에 대한 초보적인 연구가 진행되었고, 1950대 초에 이르러 周一良·張政烺 등은 비로소 한중관계사의 개척에 기념비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주일량의 『中朝人民友誼關係與文化交流』(上海, 開明書店, 1951)와 장정량의 『五千年來的中朝友誼關係』(上海, 開明書店, 1951)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 論著들 대부분은 일반적인 지식을 보급하고 소개하는 데에 그치고 있어 학술적인 가치가 떨어진다. 이후 1980년대에 이르러 이상과 같은 상황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으며, 한중관계사와 관련된 학술저서 및 자료집들이 속속 출간되었다. 예를 들면 刁書仁·衣典國 編纂의 『二十六史中朝關係史料選編』(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95), 姜孟山·劉子敏 主編의 『中國正史中的朝鮮史料』(延吉, 延邊大學出版社, 1996), 楊潤生 主編의 『宋麗關係史料匯編』(北京, 學苑出版社,

1999), 그리고 經莉·陳湛綺의 『朝鮮史料匯編』(北京, 全國圖書館文獻縮微復制中心, 2004) 등이 있다.

한국관계사와 관련된 학술지서로서 朴眞禎의 『中朝經濟文化交流史研究』(沈陽, 遼寧人民出版社, 1984), 楊昭全의 『中朝關係史論文集』(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88), 楊昭全·韓俊光의 『中朝關係簡史』(沈陽, 遼寧民族出版社, 1992), 楊昭全·孫玉梅의 『中朝邊界史』(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93), 劉永智의 『中朝關係史研究』(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4), 黃枝連의 『東亞的禮義世界—中國封建王朝與朝鮮半島關係形態論』(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4), 全春元의 『早期東北亞文化圈中的朝鮮』(延吉, 延邊大學出版社, 1995), 吉林社會科學院的 『中朝關係通史』編寫組가 편찬한 『中朝關係通史』(長春, 吉林人民出版社, 1996), 楊通方의 『中韓古代關係史論』(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6), 楊渭生의 『宋麗關係史研究』(杭州, 杭州大學出版社, 1997), 陳尚勝의 『中韓關係史論』(濟南, 齊魯書社, 1997), 蔣菲菲·王小甫의 『中韓關係史(古代卷)』(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8), 楊昭全의 『中國—朝鮮韓國關係史』(天津, 天津人民出版社, 2001), 金熙德 主編의 『中國的東北亞研究』(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1), 魏志江의 『遼金與高麗關係考』(홍콩, 香港天馬圖書有限公司, 2001), 李雲泉의 『朝貢制度史論』(北京, 新華出版社, 2004), 汪高鑫의 『東亞三國古代關係史』(北京, 北京工業大學出版社, 2006), 魏志江의 『中韓關係史研究』(廣州, 中山大學出版社, 2006), 楊軍의 『中國與朝鮮半島關係史論』(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 朱雲影의 『中國文化對日韓越的影響』(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7), 陶晉生의 『宋遼關係史研究』(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1984, 北京, 中華書局, 2008, 이 저서는 제목만 보면 고려의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실제로 宋·遼·高麗 삼국 간의 관계가 비교적 상세히 언급되었다. 필자), 傅百臣의 『中朝歷代朝貢制度研究』(長春, 吉林人民出版社, 2008) 등이 있다. 이밖에 본 글의 주제와 관련된 학술논문 혹은 학위논문들은 50여 편에 이른다.

II. 東北亞 정세에 대한 견해

대만학자 陶晉生은 그의 역저 『宋遼關係史研究』(臺北聯經出版公司, 1984, 中華書局, 2008)에서 10-12세기 동북아 정세에 대해 총체적으로 분석한 후, 전통시대 중국의 대외관계는 항상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질서를 그 理想으로 하면서, 이러한 이상적인 질서 내에서 이웃한 다른 나라들은 중국에 朝貢하는 소위 '朝貢制度'를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五代시기 이래 契丹의 건국과 이후의 발전에 따라 契丹이 동아시아에서 차지하는 국제적인 지위는 부단히 높아지게 된다. 게다가 契丹 자신도 적지 않은 漢族文化를 흡수하여, 이웃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찍이 中原王朝가 취했던 '模式(樣式 혹은 類型, 역자)'을 모방하여 자신들(遼)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를 세워 이웃한 다른 나라들 및 部落들에게 조공을 요구하게 되는데, 즉 北漢·高麗, 그리고 西夏 등의 국왕으로 하여금 契丹의 冊封을 받을 것을 요구한 것이다. 한편 중원의 문제에 있어서 遼朝는 進攻하여 차지하려는 야심이 있었으나, 대체로 남방 한인왕조에 대한 耶律德光的 정벌정책이 실패한 이후 몇몇 황제들의 개인적인 의지 혹은 현실정치의 발전방향, 그리고 遼 내부에 상존한 문제 등으로 인하여 南進정책은 점차 포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도전생의 저서가 대만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출판되긴 했으나, 중국대륙의 학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魏志江은 『遼宋麗三角關係與東亞地區秩序』(復旦大學『韓國研究論叢』, 1998)에서 도전생의 기초 위에 宋·遼·高麗 삼국 사이의 복잡·다변한 외교관계를 연구

의 출발점으로 삼아 10세기 중엽에서 12세기 초까지 韓中 외교관계 발전의 시대적 특징과 동아시아 질서변천의 행적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국제정세를 또한 새롭게 개괄하였다. 즉 漢朝 이래 줄곧 동아시아 질서의 중심이었던 중원의 漢族왕조, 이후 역대 왕조의 통치자들은 儒家의 '禮治主義'와 '以德柔遠'(德으로 中原에서 멀리 떨어진 주변을 懷柔한다, 억자)'을 제창했으므로 중국 주변 국가들과 민족들은 중원왕조에 歸附 혹은 遣使하여 朝貢하게 된다. 그런데 10세기 중엽에서 12세기 초까지 遼·금이 흥기함에 따라 1천여 년 간 유지되어 온 중원 한족왕조 중심의 一元화된 조공체제는 무너지게 되었으며, 또한 이런 조공체제에 의해 형성된 동아시아의 '規範' 역시 붕괴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동아시아의 주요 구심원으로서 한반도를 통치하고 있던 王氏高麗는 시간적인 前後로 혹은 동시에 遼·金 혹은 宋朝에 '朝貢外交'를 전개하였는데, 이로써 형성된 '二元' 혹은 '多元'의인 조공체제는 이 시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중요한 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이후 고려는 그 조공의 대상을 전통적인 중원의 한족왕조에서 중국의 北族王朝-遼·金으로 바뀌게 되었다.

朱曉樂은 그의 석사학위논문 「高麗與中國遼金王朝外交關係略論」(中央民族大學, 2004)에서 10-13세기 중국 북방유목민족인 거란과 여진은 흥기한 이후 잇달아 遼와 금왕조를 건국하고 전후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렇게 새롭게 재편 혹은 조정된 복잡한 형태의 동아시아 국제정세가 출현하면서 원래 송조와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맺어왔던 고려왕조는 적지 않은 외교적 압력을 받았을 것이다. 遼·금이 한반도와 이웃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는 그들의 강한 압력을 받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인데, 따라서 외교정책을 끊임없이 새롭게 조정하고 전체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화에 적응해야만 비로소 생존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賈志揚은 「宋代與東亞的多國體系及貿易世界」(『北京大學學報』, 2009-2)에서 9세기 후반에서 13세기까지 동아시아에는 '多國體系模式'와 中國(혹은 漢人)에 의해 통치되지 않는 동아시아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다국적 국제질서체계 속에서 중요한 왕조로서 契丹人·党項人, 그리고 女真人이 세운 遼·西夏·金, 그리고 936년 한반도를 통일한 고려왕조 등을 들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齊康允은 「12世紀初東亞政治格局的重塑與再造」(『英才高職論壇』, 2009-3)에서 10-13세기 동아시아 대륙에는 중원 한족왕조를 중심으로 '天下一體'란 관념에 기초하여 형성된 질서가 붕괴되고, 이를 대신해 북방소수민족의 왕조가 점차 동아시아 세계의 주체로 등장하면서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중원의 한족왕조 宋은 동아시아 전체를 제어할 능력과 세력을 갖지 못하고, 동시에 소수민족 왕조의 침입과 약탈을 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宋·高麗·遼 삼국이 정립하여 서로 견제하고 있던 동아시아에서 어느 한 왕조의 정치적 力量의 增減은 지역 전체의 형세변화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따라서 12세기 초 여진의 신속한 興起야말로 遼를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의 동아시아 질서에 각계 정치역량이 새롭게 분화 혹은 통합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결국 새로운 지역적 질서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張瑩瑩은 그의 석사학위논문 「論遼麗戰爭與遼麗宋三國的政治關係」(延邊大學, 2010)의 제 2장 중 '遼與中原政權的關係'·'高麗與中原政權的關係及北進政策'·'高麗與遼的交惡' 등 세 방면에서 '遼麗전쟁 전 동북아 정세'에 대하여 상술했다. 게다가 그는 논문의 摘要 부분에서 10세기 大唐帝國 멸망 후 중국의 중원에는 五代十國의 할거국면이 출현하였고, 宋朝는 건국 이후 점차 중원을 통일하면서 당시 북방에 웅거하고 있던 遼와 남북대치의 정치적인 국면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당시 한반도에 자리 잡은 고려왕조는 외교정책상 이러한

중국의 정치적 국면에 대하여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때 遼·高麗·宋 삼국의 관계는 동북아 국제관계사를 구성하는 주요한 내용일 수 있다.

도전생의 제자인 한국학자 金潤顯은 이 시기 동북아 정세에 관해 여러 견해들(김위현, 『契丹의東北政策-契丹與高麗女眞關係之研究』, 臺灣, 華世出版社, 1980, 1~2쪽)을 발표하였는데, 모두 논리 정연하여(『精辟』) 여러 한국학자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상태이며, 또한 필자 역시 관통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그런데 그는 당시 형세를 "의문의 여지없이 宋과 契丹을 중심으로 한 두 개의集團, 즉 서로 協和(『互相協和』)한 宋·高麗 그리고 女眞과, 서로 聯合(『互相聯合』)한 契丹·西夏로 나뉜 두 집단이 서로 대적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互相協和' 혹은 '互相聯合'했다는 두 개의 적대적인 집단이 존재했다는 견해에 대하여, 필자는 완전히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10세기 후반에서 11세기 초까지 송·여진·고려가 모두 강력한 세력을 가진 거란의 침략을 받아 당연히 그들에 대항하는 군사적인 동맹 혹은 집단을 구성하려했을 터이지만, 사실 이러한 '反契丹'을 이념으로 내세운 다국적 군사동맹 집단은 결국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 명확한 사실은 986년 宋太宗은 2차 북벌이 있기 전 詔書를 휴대한 사신을 여진과 고려에 각각 보내 협력을 요청했지만, 모두 실질적인 호응을 얻어내지 못하였다. 992년~993년 거란의 제1차 고려침략 이후 고려는 송에 수차례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해 거란을 견제하려 했으나, 송 역시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게다가 주지하듯 고려와 여진 사이에서도 모순과 충돌이 있었다. 더욱이 우리는 이후 비교적 긴 시간 속에서 송·여진·고려가 '反契丹'의 실제적인 '互相協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宋史·外國傳』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반면 거란과 서하는 '互相聯合'하여 '集團'을 형성하고 宋朝에 대적했는데, 이는 사료를 통해서 증명되므로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출전에 의하면 서하가 활동했던 시대의 동북아 정세는 그 전체적인 발전추세에 있어서 송·요 양자의 패권다툼의 시기를 지나 遼가 홀로 쟁패한 시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요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조공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을 밟아갔다고 할 수 있다. 宋이 매년 遼에 '歲幣'를 보내는 것을 핵심으로 한 '澶淵之盟'을 체결함으로써 송·요 양자가 패권을 다투던 시대는 끝나게 되는데, 이는 遼가 바로 동북아 '覇主'의 지위를 차지한 것이거나, 혹은 동북아 조공체계의 중심적인 지위를 완전히 확립한 표시라 할 수 있다. 당시 宋·遼·高麗 삼국의 관계 역시 이러한 큰 흐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요는 武力을 통해 고려를 침략하여 송과의 전통적인 '宗藩關係'를 끊어 놓았으며, 이어서 자신들에게 '稱臣納貢'하게 함으로, 바로 동북아 조공체계의 중심적인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고 확대시킬 수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III. 宋麗 관계에 대한 연구

중국에서 宋麗關係史에 대하여 비교적 체계적으로 연구한 학자는 일찍이 杭州大學 역사학과 교수이며, 이후 浙江大學과 합병된 후 韓國研究所의 겸직연구원으로 있는 楊渭生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저서 『宋麗關係史研究』(杭州大學出版社, 1997)는 그가 여러 해 동안 宋麗 간의 관계를 연구하고 종합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 저서는 50만자에 이를 정도의 방대한 글자 수에서 알 수 있듯, 宋麗의 관계를 官方에서 民間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정치·경제·문화 등의 상호 교류·영향·촉진 등 역사적인 과정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분석했는데, 이 모든 과정에 대한 고찰이 宋麗 양국의 사회발전과 그 변천이라는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그는 국제관

계중 유관 국가의 국력의 증감 및 이를 통한 상호 간의 영향을 중시하여, 특별히 저서의 1장 「宋與高麗：複雜而微妙的「三角」政治關係」에서 宋麗, 遼麗 간의 정치관계와 상호 영향, 그리고 송어 양국의 대신들이 이러한 미묘한 삼각관계를 어떻게 보았으며, 이를 통해 형성된 송어 정치관계 등 일련의 문제에 대하여 깊이 있는 분석을 가하였다.

孫建民·顧宏義는 「中國宋朝與高麗外交關係論略」(『洛陽師專學報』, 1996-1)에서 송과 고려의 외교관계는 각개 왕조가 맞닥뜨린 정치·군사적인 형세와 그 필요에 의해 '時親時疏(가까웠다 소원해졌다하다, 역자)', 그리고 '時斷時續(끊어졌다 이어졌다하다, 역자)'적인 교류를 이어왔는데, 이것이 바로 당시 송어 관계의 주된 내용이며, 다른 방면의 교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학술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民間外交'란 말은 실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데, 이는 민간부문의 교류는 줄곧 있어왔고, 또한 어느 정도의 역할도 한 것이 사실이지만, 양국 관계를 좌우할 만한 실질적인 요소가 될 수 없으며, 도리어 官方外交의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梁利는 「從「聯麗制遼」到「聯金滅遼」—論10-12世紀東北亞的戰略格局及宋朝的戰略對策」(『河南大學學報』, 2005-2)에서 北宋의 '東聯高麗'의 전략은 북송이 존속했던 시기에 일관되게 관철되었던 기본적인 國策으로, 그 본질은 지리적으로 遼의 배후에서 그들과 모순관계에 있었던 고려와 연합하여 동북아의 전략적인 정세변화에 대응하고, 그리고 속적 기반에 대항해 燕雲지역을 수복한 후, 북방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王安石의 變法이 실시된 때를 제외하면 고려와 연합하려는 북송의 전략적인 시도는 거의 성공했다고 할 수 없다.

齊廉允은 그의 석사학위논문 『宋朝的高麗政策』(山東師範大學, 2008)에서 송조의 고려정책에 대하여 비교적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는 북송 초기의 통치자들은 스스로 漢唐의 정통을 합법적으로 계승한 자라 자처하고, '天朝大國'이란 의식에 사로잡혀 唐朝의 한반도에 대한 전통적인 정책을 이어가려 했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고려에 대한 빈번한 冊封으로 한반도에 영향력을 강화하려 했는데, 그렇지만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못하자, 그 외교적인 실효성은 예상했던 것만큼 확연히 드러날 수 없었다. 그러나 송 초기 30여년의 宋麗 관계는 정치적인 색채가 비교적 강한 전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朝貢關係'였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澶淵의盟이 체결되기 전후 宋朝는 하는 수 없이 唐의 계승자로서의 '雄心(자부심 혹은 포부, 역자)'과, 또한 허울뿐인 '天朝大國'이란 '架子(눈에 보이는 것 혹은 형식적인 것, 역자)'를 거두어들면서 이후 보다 조심스레 遼와 교류하는 평화의 시기로 들어설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조는 초기 비교적 강력하게 고려를 관리했던 정책을 버려야 했으며, 의도적으로 고려를 멀리하고 고려에 대한 일종의 '不干涉'을 내용으로 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러던 것이 11세기 중후반에 이르면서 宋·遼·高麗 삼국은 동아시아에서 '전략적인 도박(戰略博奕)'을 전면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중 송은 외교적인 전략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며 고려를 자신의 전체적인 방위전략 내로 집어넣기 위해 고려에 대하여 '主動進取' 혹은 '奮發有爲'의인 조치로 '聯麗制遼'의 외교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주지하듯 宋은 여러 조치를 통해 '聯麗制遼'의 외교적인 전략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희망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이 추진되면서 宋麗 관계는 크게 발전할 수 있었는데, 즉 경제·문화방면의 교류뿐만 아니라 쌍방 간의 사절도 부단히 왕래하는 새로운 신기원을 이룰 수 있었다.

蘆敏은 「從文化角度看北宋和高麗的關係—兼與遼·麗關係作比較」(『南洋問題研究』, 2007-2)에서 문화적인 시각으로 宋麗 관계를 고찰하였는데, 즉 한중 양국은 자고로 국경을 맞닿은 인접국으로 매우 밀접한 경제·문화적인 교류를 진행해왔다. 천백 여년의 문화적인 발전과 융합을 걸쳐 양국은 문화적인 동질감을 갖게 되었으며, 나아가 심리적으로도 서로를 인정하

며 동일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쌍방은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었다. 북송은 바로 고려와 이러한 기초 위에서 우호적인 교류를 펼칠 수 있었는데, 반대로 문화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 요는 어쩔 수 없이 무력을 동원하여 고려와 '朝貢關係'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宋麗 간의 왕래가 비록 遼의 간섭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유구한 역사와 문화적인 유대감을 통해 이러한 왕래는 완전히 끊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

齊廉允은 「強化控制與結盟意圖的錯位－北宋初年的高麗政策」(『山東英才學院學報』, 2010-2)에서 북송 초기의 통치자들은 冊封이란 수단을 통해 한반도를 강제적으로 통제, 혹은 쌍방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려 했으나, 결국 宋麗 양국 간의 동맹관계를 성립시킬 수는 없었다. 따라서 외교적인 실천과 그 성과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것들은 완전히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며, 또한 성공하지 못한 사례라 할 것이다.

朴今海는 「試述中世紀高麗與遼·宋之間的關係－以公元10世紀末－12世紀初爲中心」(『延邊大學學報』, 1998-4)에서 高麗가 大宋王朝에 '稱臣納貢'한 목적을 첫째, 중원의 선진문물을 수입하기 위함이며, 둘째, 북방의 '夷狄(오랑캐, 역자)', 즉 요와 어진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소위 '事大'는 고려의 역사적인 선택이었다. 한편 장기간 거란과 대치하고 있던 북송은 자연히 고려가 자신의 盟邦이 되어 함께 遼에 대적하기를 희망하였다.

劉強은 「韓國華出使高麗及其影響」(『文史哲』, 2000-6)에서 기존의 견해와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즉 ① 宋朝는 고려와 연합하여 2차 북벌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韓國華를 고려에 出使시키고 있는데, 그 시간을 雍熙3年(986)이 아닌 雍熙2年(985)으로 보았으며, ② 「金石萃編」에 수록된 宋人 富弼이撰한 「韓國華神道碑」를 인용하여 한국화는 그 출중한 외교적 재능을 발휘하여 宋조정이 그에게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고, 마침내 고려국왕을 설득하여 수만의 대군을 출병시켜 遼 정내 깊숙이 들어가 공격하게 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③ 그는 한국화의 이번 출사에 대단히 높은 평가를 가하고 있는데, 바로 한국화의 출사를 통해 고려의 역사적인 운명과 대외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필자는 유강이 비록 이러한 새로운 주장들을 하고 있지만, 그 결론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본 글의 후미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楊通方은 「五代至蒙元時期中國與高麗的關係」(『韓國學論文集』3, 東方出版社, 1994)의 내용 중 두 부분에서 宋麗 관계 및 遼麗 관계를 논하고 있는데, 사료를 비교적 많이 인용하여 서술했다는 점에서는 취할 바가 되나, 문제를 논증하고 분석하는 부분에서는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는다.

IV. 遼麗 관계에 대한 연구

현재 중국학자들 중에서 遼麗 관계에 대하여 비교적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현저한 연구 성과를 남긴 학자는 中山大學의 魏志江이라 할 수 있다. 그는 「遼金與高麗關係考」(香港, 天馬圖書有限公司, 2001), 「遼史·高麗傳考證」(『文獻』, 1996-2), 「論1020-1125年的遼麗關係」(『南京大學學報』, 1997-1), 그리고 「遼宋麗三國關係與東亞國際秩序」(臺北 『大陸雜誌』, 1997-3) 등 다수의 논문들을 발표하였는데, 이들 연구 성과는 모두 그의 저서 「中韓關係史研究」(廣州, 中山大學出版社, 2006)에 수록되었다. 이 저서의 '上編'에서 그는 고려의 외교관계는 전통적인 중원 漢族왕조에 대한 조공관계에서 北族왕조에 대한 것으로 변화하는 역사적 과정과 그 시대적 특징을 깊이 있게 검토했으며, 또한 10-13세기 동아시아 국제질

서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규칙과 이와 관련된 여러 의미 있는 견해들을 제시한바 있다. 즉 ① 遼·金は 비록 거란·여진에 의해 건국된 北族왕조이지만, 고려와의 관계는 여전히 中國을 중심으로 한 華夷秩序의 범주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요·금 통치자들이 중원에 들어온 후 점차 漢化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모두 華夏의 '正統'이라 자부하며, 先後로 고려에 대한 '宗主權'을 획득했으며, 이어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중심에 올라선 후, 고려와의 교류는 대체로 隋唐 및 宋朝가 주변국들에 대해 행한 일반적인 원칙과 기본적인 양식을 계승하였다. 이는 바로 고려와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以德柔遠'이란 儒家의 禮治主義를 기본적인 이념으로 삼은 것이다. 그는 외국의 일부 학자들이 遼金元과 고려의 관계는 고대 중한 조공 관계가 변질된 것이라는 주장에 찬성하지 않는다. ② 군사적인 정복이란 수단을 통해 고려를 압박해 '稱臣'시킨 遼朝는 한반도에 대한 '宗主權'을 획득할 수 있었으나, 宋과 자신에 대해 동시에 조공하는 고려의 '二元'의인 조공체제에 대하여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다. ③ 遼金시대 고려는 늘 중원의 한족왕조 송과 북방의 북족왕조 요금사이에 끼어 외교적으로 수차례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고비에 놓일 때가 많았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 고려는 송·요·금 등 諸王朝와의 관계를 시기적절하게 조정해 나가면서 '事大' 외교의 이념과 정책을 수행하였는데, 즉 '朝貢' 혹은 '請賜'의 명분하에서 그들이 정치 혹은 군사적으로 실현하기 불가능한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거란이 처음으로 고려를 침략했을 때, 고려는 곧 '朝貢'·'請賜' 등의 명분을 이용해 거란으로부터 '江東6城'의 영유권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며, 이후 이를 거점으로 세력을 압록강 하류에까지 확장하게 되었다.('中韓關係史研究', 中山大學出版社, 2006, 251~252쪽.)

魏志江은 「論遼與高麗關係的分期與發展」('揚州師範學院學報', 1996-1)에서 요와 고려의 관계변화를 세 시기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는데, 즉 922년~992년이 전기에 해당하며, 이 시기 遼와 고려는 우호적이면서 평등했던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로 바뀌었다. 그리고 992년~1020년이 중기로, 이 시기에 요는 수차례 武力으로 고려를 압박하여 '稱臣納貢'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1020년~1125년이 후기에 해당하는데, 이 시기에 遼·麗의 조공체제는 전반적으로 확립되었으나, 요의 멸망으로 양국의 관계는 끝날 수밖에 없었다. 遼·麗 간의 200여년에 걸친 교류에서 군사적인 충돌과 使臣 왕래 등이 있었는데, 대체로 평화적인 왕래가 많아 이것이 양국 관계의 主流였다고 할 수 있다.

蔣戎은 「遼朝與高麗朝貢關係淺析」('東北史地', 2008-6)에서 양국이 건국되고 70여년이 지난 후 고려는 비록 遼의 무력에 굴복하여 어쩔 수 없이 '稱臣納貢'하게 되었으나, 이 조공관계로 전정 이익을 본 쪽은 고려였다. ① 遼에 조공하게 된 고려는 비교적 긴 시간동안 遼朝의 강력한 군사적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이를 경제발전, 그리고 국방을 공고히 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으며, ② 조공을 통해 고려는 遼로부터 原발해 땅을 侵蝕하는 것에 대해 복인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요는 조공제도의 성립으로 잃은 것이 얻은 것보다 더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遼朝가 땅을 가지고 朝貢과 맞바꿔 이루어진 遼麗의 宗藩關係는 그리 안정적이지 못했는데, 이는 이 조공제도가 성립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려는 압록강에 송에 사람을 보내 군사의 파견을 요청하며 요에 복수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려의 조공을 받기 위해 遼朝는 압록강 이북의 넓은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통치권을 상실하고 말았다. 고려는 조공의 길을 닦는다는 미명하에 압록강 以東 지역에 대규모로 성을 쌓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女真人들을 내몰았는데, 이는 이후 요에 커다란 후환으로 작용하였다.

武玉環은 「論遼與高麗的關係及遼的東部邊疆政策」('吉林大學學報', 2001-4)에서 요와 고려의 관계를 '境外藩屬國'의 관계라고 하였다. 그리고 遼朝가 존속한 200여 년간 遼麗 사이

에는 전쟁도, 그리고 우호적인 교류도 있었는데, 그러나 우호적인 교류가 양국 관계의 主流였음은 틀림없다. 게다가 遼의 동부 邊疆정책은 바로 軍鎮을 두어 군사를 주둔시키고 백성들을 그곳으로 이주시켜 그곳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즉 '因俗而治(그곳 풍속에 맞춰 통치한다, 역자)' 그리고 '以夷制夷(오랑캐의 힘을 빌려 다른 오랑캐를 제어한다, 역자)'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鄭川水는 「遼聖宗及遼與高麗藩交考略」(『遼寧大學學報』, 2003-1)에서 遼聖宗은 중원과의 민족관계, 그리고 '藩屬國'인 고려왕조와의 관계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편협적인 민족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讓外制內(외부를 양보하고 내부를 제어한다, 역자)'라는 말기 어려운 실패를 저지르고 말았는데, 즉 북송과 대항하고, 동시에 고려가 바다 건너 송에 朝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鴨綠江東六州란 邊疆을 거둬들여 없이 고려에 넘겨주고 말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실수로 인하여 변경의 女眞人들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은 끊임없는 전쟁의 災禍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으며, 그리고 '藩屬國'인 고려와의 우호적인 왕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는데, 더욱이 그것이 국가의 邊疆領土 주권을 크게 해치면서 이후 고려에게 중국의 영토를 계속 잠식하게 하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말았다. 여기에서 필자는 鄭川水는 문제의 핵심을 당시대 특정한 역사적인 배경 하에 두고 검토하지 않고, 지극히 현대적인 상황에 맞춰 분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된다.

王貴竹은 그의 석사학위논문 「試論十至十一世紀遼與高麗在大同江以北地區的爭奪」(延邊大學, 2010)에서 遼麗 쌍방이 대동강 이북 지역, 그리고 강동6주의 귀속문제를 두고 벌인 쟁탈전은 고려가 '分界而治'란 界約을 위반하고 파기했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쟁탈전에서 고려는 요의 통치자들이 대동강 이북 지역의 역사적인 연원에 대해 生硬하다는 사실을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수단을 총동원하여 결국 遼聖宗으로부터 '女直鴨綠江東數百里地'를 사여 받게 되었는데, 이 일로 이후 쌍방은 수차례 전쟁을 하게 되었다.

이밖에 대만의 王儀·王民信·黃寬重 등 학자들도 遼金과 고려와의 관계사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모두 뛰어난 성과를 남겼다.

V. 徐熙와 遼의 교섭에 대한 평가

金龍善은 그의 석사학위논문 「徐熙與十世紀麗遼外交關係」(延邊大學, 2004)에서 서희와 麗遼 관계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논하였다. 제1차 麗遼전쟁 당시 양국 간에 존재한 현실적인 국력의 차이와, 그리고 고려왕조 내부에서 제기되었던 '割地論'과 '降服論'으로 진퇴양난에 빠졌었던 상황에서 名臣 서희는 용감히 나서 기란 군영에 나아가 담판을 진행하였다. 이때 서희가 이치에 따라 상대방과 논쟁하여 '徐熙-蕭恒德 協定'을 체결할 수 있었는데, 이로써 遼는 고려의 '臣服'을 확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송을 공격할 때 있을지 모를 후환을 제거하게 된다. 이에 반해 고려는 태조 이래 진행된 북진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江東 280리에 이르는 땅을 얻게 되었으니, 이는 서희가 機智 넘친 담판을 통해 획득한 고려의 실리로 이 부분의 뛰어난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서희에게 凡人을 능가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그가 거란이 군사를 동원한 진정한 목적을 간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즉 遼의 고려침략은 고려의 영토를 점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송과의 동맹관계를 끊어 놓고 더 나아가 자신들에게 臣服시켜 이후 송을 공격할 때 발생할지도 모를 후환을 없애려는 데에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외교담판에서의 성공은 서희가 당시 국제정세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고, 동시에 이에 대한 외교적인 안

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이를 통해 당시 고려는 현실주의와 실리주의에 입각한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음도 확인할 수 있다.

朱曉樂은 그의 석사학위논문 『高麗與中國遼金王朝外交關係略論』(中央民族大學, 2004)에서 서희가 遼와의 교섭 중에 했던 역할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서희는 뛰어난 외교적인 재능과 성공적인 중재능력을 발휘해 고려가 비록 군사적으로 패배했을지 모르나, 외교적으로 기적에 가까운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하였다. 서희의 화의요청으로 遼聖宗은 군대를 철수시키라는 명령을 하였으며, 이어 고려는 바로 요에 대해 '奉表請罪'라는 외교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 이렇듯 고려가 臣服해오자, 遼로서는 麗宋동맹이 붕괴되는 가능성을 현실화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遼朝는 서희의 요구를 받아들여 女眞人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女直鴨綠江東數百里地'를 고려에게 사여한다. 이후 고려는 압록강 左岸 女眞(東女眞)을 '蕩平'하고 江東에 6개의 城池를 수축하였는데, 이를 江東6州라 부른다. 이로써 고려의 서북 邊界는 압록강 남안에까지 이르렀으며, 또한 북진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고려가 두 강대국의 패권다툼에서 얻은 實利主義 외교의 큰 성과일지 모르나, 그러나 이후 遼의 두 번에 걸친 침략을 초래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金龍善과 朱曉樂의 주장은 대체로 중국대륙의 견해를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밖에 張瑩의 석사학위논문 『論遼麗戰爭與遼麗宋三國的政治關係』(延邊大學, 2010)와 王貴竹의 석사학위논문 『試論十至十一世紀遼與高麗在大同江以北地區的爭奪』(延邊大學, 2010) 등도 이상과 비슷한 견해를 견지하였다.

吳于廛·齊世榮이 主編하고 현재 중국의 여러 대학 역사학과에서 전공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世界史·古代史編』 下卷(北京, 高等教育出版社, 1994, 41쪽)은 이미 20여 차례에 걸쳐 인쇄되어 출판되었는데, 서희와 요 사이의 교섭, 그리고 그가 이룩한 성과를 사실과 어긋나게 서술하고 있어 심히 이해할 수 없다. 즉 "993년 거란의 수십만 대군이 고려를 침략하였다. 고려의 軍民은 愛國將軍 徐熙의 지휘 하에 분연히 일어나 저항하였으며, 그리고 침략자들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안겨주었다. 그런데 겁에 질린 통치자는 화의만을 고집한 후, 굴욕적인 화의조건을 받아들여 契丹(遼)을 上國으로 받들고, 고려는 그들의 屬國이 되었다. 이후 고려는 매년 6차례에 걸쳐 遼에 納貢하고, 동시에 줄곧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던 遼宗과 '盟交關係'를 끝게 되었다"고 하였다.

鄭川水는 『遼聖宗及遼與高麗藩交考略』(『遼寧大學學報』, 2003-1)에서 자신의 입장과 관점이 다른 학자들과 달랐기 때문인지, 서희의 외교적인 역할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지명한 외교가인 서희는 遼朝에 압록강 여진이 거주하고 있던 땅을 떼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그가 開元23年 唐과 新羅 사이에 맺어진 '分界而治'를 통해 浪江 이북의 압록강 여진이 거주한 지역을 '高句麗舊地'라고劃정한 후, 고려가 일방적으로 開元乙亥 '分界而治'의 界約을 파기하고 이를 물리탈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이다. 서희는 계속해서 "朝聘이 통하지 못한 것은 女眞 때문이다. 만약 여진을 내쫓고 우리의 舊地를 되돌려 주고 그곳에 城堡를 쌓아 도로를 통할 수 있게 된다면, 朝聘을 담지 않을 수 있겠는가"('高麗史節要' 卷2)라고 강조하였다. 국가영토의 보전, 邊界主權을 지키기 위한 외교원칙에서 遼聖宗은 결국 국가의 존엄성을 내팽개치고 '女直鴨綠江東數百里地'를 고려에 사여한다는 조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실로 그가 '藩屬'인 고려왕조와의 외교관계를 너무 잘못 처리하여 결국 遼가 존속한 기간 동안 양국의 모순은 邊界紛爭으로 더욱 격화되었고, 또한 무고한 민중들에게 전쟁의 참사를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 악영향을 가져왔던 것이다.

VI. 宋·遼·麗 삼국과 高麗의 외교정책에 관한 연구

宋·遼·高麗 삼국의 관계에 대해서는 陶晉生의 『宋遼關係史研究』(北京, 中華書局, 2008) 제7장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이후 학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도전쟁은 송·요와 고려 사이의 외교관계에서 송·요 양국은 고려를 공동으로 회유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고 보았다. 이 경쟁에서 요는 강력한 군사력에, 그리고 지리적으로 비교적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송보다는 우세했다. 한편 고려는 遼와 영토를 맞닿고 있었으므로 이질 수 없이 그들의 압박에 굴복하여 책봉을 받게 되는 신세로 전락하였다. 그런데 고려의 외교적인 이해관계는 송과 같았기 때문에, 송과의 교류를 계속 추진하고 그와 연합하여 거란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송 역시 거란에 대항하기 위하여 고려와의 연합을 중시하려고 하였다. 여하튼 요와 단독으로 관계를 맺었던 시기의 宋·麗 양국의 관계는 시간이 바뀌면서 변화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점은 양국의 진정한 군사적 동맹을 맺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또한 요에 대한 일치된 행동을 하기 어렵게까지 하였다. 따라서 북송이 멸망하기 전까지 宋·高麗 양국은 대체로 문화 혹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왕래가 빈번했으나, 외교적으로는 보다 전전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張瑩은 그의 석사학위논문 『遼麗戰爭與遼麗宋三國的政治關係』(延邊大學, 2010)의 제4장에서 遼麗전쟁 이후 遼·高麗·宋 삼국의 대외관계의 변화에 대하여 논하였다. 그는 遼麗전쟁 이후 고려가 遼朝의 '藩屬國'이 되면서 요는 고려를 정복한 목적을 달성하였다. 따라서 이전 양국 간에 존재했던 적대적인 대외정책은 바뀔 수밖에 없었으며, 양국은 대체로 평화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해갈 수 있었다. 게다가 요의 군사적 압박 때문에, 송과의 朝貢關係를 단절할 수밖에 없었던 고려는 40여년 후 다시 관계를 회복하긴 했으나, 이때 그 내부에는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 정치적으로 '臣屬'한다는 의미를 내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요송 양국은 바로 遼麗전쟁 기간에 澶淵之盟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양국의 관계는 대립적인 전쟁상태에서 평화적인 교류의 시기로 들어설 수 있었다. 동시에 宋朝 역시 각기 다른 시기에 고려와 연합하여 요를 견제하고자 하였으나, 큰 효과를 볼 수는 없었다.

고려의 외교정책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은 '事大主義' 혹은 '實利外交'로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朱曉樂은 그의 석사학위논문 『高麗與中國遼金王朝外交關係論』(中央民族大學, 2004년)에서 요컨대 고려는 북방유목민족과의 왕래를 그들의 武力에 압도되어 수동적으로 추진한 면이 있는데, 따라서 그 대외관계에는 어느 정도의 소극성·수동성, 그리고 한계성이 엿보이며, 동시에 그 소극적인 내면에는 융통성이 존재하고 있다. 정세가 그다지 좋지 못하거나, 혹은 혼미한 상태에서 고려는 비교적 중립적인 외교노선을 취하였다. 그런데 삼국이 경쟁하여 새로운 霸主가 출현하고, 동시에 정세가 비교적 안정되어갈 때, 고려는 '事大'의 외교노선을 선택하여 그 명분 아래 실리외교를 추진하였으며, 더욱이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한 사태에 직면하게 되면, 일부분의 주권과 이익을 포기하는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생존을 도모해 가고자 하였다.

呂英亭은 『高麗王朝與遼·宋政治關係之比較』(『東岳論叢』, 2004-6)에서 宋·遼·高麗 삼국의 정치관계를 비교하면서, 동시에 고려의 '以小事大'(작은 것으로 큰 것을 섬긴다, 역자)'의 외교정책을 평가하였다. 고려왕조가 송·요에 파견한 사절단의 횟수와 내용, 그리고 그 사신들의 지위 및 외교정책 등을 비교함으로써 고려는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처리하는 기본적인 이념으로 시종 '以小事大'란 외교적인 원칙을 견지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遼朝의 무력적

인 정복과 위협 앞에 어쩔 수 없이 稱臣한 고려였다고 하지만, 동시에 중원의 문명에 대하여 깊은 문화적인 동질감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주지하듯 이러한 문화적인 동질감은 '實力'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屈從'하게 되는 것인가 보다.

王貴竹은 그의 석사학위논문 『試論十至十一世紀遼與高麗在大同江以北地區的爭奪』(延邊大學, 2010)에서 역시 이상과 비슷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VII. 고려의 '二元'의 조공체제에 관한 연구

주지하듯 遼가 수차례 전쟁을 통해 고려를 정복한 후, 宋·遼·高麗 삼국 사이에서 고려는 요·송에 동시에 조공하는 소위 '二元'의인 조공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한국학자 金海宗은 그의 저서 『韓中關係史研究』에서 고려의 遼·金·元에 대한 조공은 고대 韓中 朝貢관계의 변질된 형태라고 하였다.(金海宗, 『韓中關係史研究』, 서울, 一潮閣, 1974, 46쪽.) 그리고 한국의 또 다른 학자 徐榮洙는 일찍이 '朝貢關係'란 개념에 대해 정의하기를, "일반적으로 전형적이면서 실질적인 조공관계는 정치적인 '臣屬'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 점은 曆法 혹은 年號의 사용을 통해서 從屬關係를 표시하거나 상징하게 되며, 이어서 내정간섭과 예의관계가 성립되고, 계속해서 宗主國은 從屬國에 발물을 바칠 것을 요구하여, 이는 종속국이 부담하는 일종의 경제적인 관계로 발전한다"라고 하였다.(徐榮洙, 「三國和南北朝交涉의 性格」, 『東洋學』11, 1981, 78쪽.) 한편 중국학자 魏志江은 서영수의 견해를 기초로 하여 遼·宋·高麗 삼국 관계에서 형성된 '二元'의인 조공체제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들 삼국 관계의 본질과 中韓관계의 시대적 특징을 밝혔는데, 그의 견해는 중국학자들의 주장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遼麗의 조공제도는 정치적인 臣屬關係를 전제로 하여 형성된 실질적인 朝貢관계라고 하였다.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어 양국의 교류 속에 평등한 요소들도 내포되어 있는데, 즉 양국은 서로 生辰·正旦·帑祭·慰問 등을 위해 사신들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요어 양국 관계의 본질적인 면에서 조공체제의 확립과정이란 바로 요가 고려에게서 점차 宗主權을 확립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조공체제는 불평등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요는 단지 강력한 정치·군사적인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宋人은 이를 일컬어 고려가 "強虜에 압도되어(爲強虜所迫)", "北虜는 強暴하여, 단지 무력만을 가지고 밤의 세계를 제압한다(北虜之強暴, 徒以力制其外也)"라고 한 것이다.([宋]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卷40) 이는 바로 遼麗 관계의 본질을 언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송과 고려 양국은 요에 대하여 각각 서로 다른 정책을 실시했으므로 시종 군사동맹을 맺을 수 없었다. 遼·宋·高麗 삼국 관계에서 송조는 기본적으로 고려와 연합하여 요를 견제하고자 했으며, 고려는 요와 송 두 나라에 대하여 '二元'의인 조공체제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조공체제 하에서 요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중심에 서게 된다. 따라서 이들 삼국이 관계한 시대는 중한관계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기라 할 수 있는데, 즉 고려는 전통적인 臣屬關係를 전제로 형성된 중원의 한족왕조에 대한 朝貢에서 중국 北族王朝-遼金元에 대한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魏志江, 『中韓關係史研究』(廣州, 中山大學出版社, 2006, 51~54쪽.) 위지강의 견해는 적지 않은 학자들에 의해 수용되었는데, 張瑩瑩 등의 학위논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楊軍·王秋彬은 『中國與朝鮮半島關係史論』(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에서 中韓 宗藩體系 확립의 표시와 시간 등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데, 중반체계 확립의 표시란 안정적이면서 제도화된 조공관계를 의미한다. 이 견해를 따른다면, 遼 中期 이전 中國과 高麗, 혹은

契丹과 高麗 사이에는 모두 제도화된 조공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고, 遼 中期, 즉 11세기부터 遼는 비로소 고려와 성숙화된 宗藩관계 내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楊軍은 또 다른 논문 「東亞封貢體系確立的時間—以遼金與高麗的關係爲中心」(『貴州社會科學』, 2008-5)에서 이상의 문제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였는데, 즉 遼麗 간의 제도화된 '冊封朝貢關係'는 수차례 대규모 전쟁이 끝난 이후에 확립된 것으로, 그 성격은 封貢體系 내에서 宗主國과 朝貢國 간의 관계에 속한다고 하였다. 이밖에 中韓 宗藩관계에 대한 연구로는 홍콩 학자 黃枝連의 「東亞的禮義世界—中國封建王朝與朝鮮半島關係形態論」(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4)과 중국대륙 학자 李雲泉의 박사학위논문을 기초로 하여 완성한 「朝貢制度史論—中國古代對外關係體制研究」(北京, 新華出版社, 2004) 등이 있는데, 각기 독특한 견해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結語

비록 중국학자들이 본 글의 연구주제 혹은 전체 중한관계사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 중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중 비교적 두드러진 문제점이라면 적지 않은 논자들이 史實의 정리시술 혹은 고증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는 데에 반해 종합적인 이론분석과 논리적인 歸納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通史類의 저작들은 왕왕 朝代의 순서에 맞춰 중국과 한반도 사이의 비교적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그리고 斷代史類의 저작들은 왕왕 編年體 史書와 유사한 기술방식을 채용하고 시간을 단서로 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유관사건의 자료와 과정 등을 소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魏志江, 楊軍 등의 논지에서 그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밖에 소수의 학자들을 제외하면 절대 다수의 중국학자들은 한국어를 하지 못해 한국학계와의 교류가 적고, 혹은 아예 교류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대외적인 연구현황이나, 그들의 연구 성과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의 연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글을 마치며 필자는 본 글의 연구주제를 가지고 세심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간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서 이루어 놓은 연구 성과도 부족했는데, 더욱이 자료를 완전히 수집하지도 못했으며, 하나하나 꼼꼼히 정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상의 연구동향의 소개에서 빠진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소개에 부적절한 곳이 있다면, 여러 학자들의 심심한 비평과 叱正이 있기를 바란다.

後附—筆者: 「韓國華出使高麗問題考辨」

韓國華의 高麗 出使에 대한 考辨

— 鄭麟趾 「高麗史」에 보이는 한 문대 錯誤를 함께 논함

劉強은 「韓國華出使高麗及其影響」에서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는데, 즉 ① 宋朝는 고려와 연합하여 2차 북벌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韓國華를 고려에 出使시키고 있으며, 그 시간을 肅熙3年(986)이 아닌 肅熙2年(985)으로 보았고, ② 「金石萃編」에 수록된 宋人 富弼이撰한 「韓國華神道碑」를 인용하여 한국화는 그 출중한 외교적 재능을 발휘하여 宋조정이 그에게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고, 마침내 고려국왕을 설득하여 수만의 대군을 출병시켜 遼 경

내 깊숙이 들어가 공격하게 했다고 하였으며, ③ 한국화의 이번 出使는 고려의 역사적인 운명과 그 대외관계에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¹⁾ 그런데 필자의 출간에 의하면 劉彊이 비록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결론에 대해선 쉽게 동의할 수 없다. 이에 그가 제기한 몇 가지 주장과, 그리고 근거로 내세운 鄭麟趾의 『高麗史』에 나타난 한 문대 錯誤를 분석하여 그 시비를 가려보고자 한다.

1. 韓國華가 고려에 出使한 時間문제

宋朝는 高麗와 연합하여 2차 북벌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韓國華를 出使시키고 있는데, 그 시간을 『宋史·高麗傳』에서는 雍熙3年(986)으로 기록하고 있고, 정인지 등이 景泰2年(1451)에 완성한 『高麗史』 卷3에서는 이 일을 成宗4年(985) 五月條에 기록하고 있다. 주지하듯 劉彊은 한국화가 출사한 시간을 고증하기 위해 주로 유관 기록의 분석과 추론에 의지하였는데, 그렇지만 직접적이면서 또한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기하지 못한 것은 깊은 유감이라 하겠다. 물론 그가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분명 아님대, 즉 그의 견해를 빌려보면, “한국화는 雍熙2年 고려에 출사하였는데, 『高麗史』뿐만 아니라 淸人 畢沅이 저술한 『續資治通鑑』 卷12, 그리고 吳乘權의 『綱鑑易知錄』 卷65에 모두 雍熙2年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²⁾라고 하여 이를 근거로 삼았다.

조선시대에 완성된 『高麗史』는 물론 고려왕조의 역사를 기술한 가장 중요한 典籍임에 틀림없으므로, 사료적인 가치가 매우 높아 유관사실을 고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참고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완성된 시간이 1451년으로 시간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유관사실을 고증함에 있어 이른 시기에 완성된, 그리고 모두가 인정하는 문헌기록을 상호 참고할 수 있다면, 이 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淸人 畢沅의 『續資治通鑑』과 吳乘權의 『綱鑑易知錄』 등의 문헌자료를 가지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근거로 삼았다면, 識者들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주지하듯 현대 중국의 저명한 目錄文獻學者 黃永年은 『續資治通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한 적이 있는데, 즉 “일반적으로 宋元 역사의 대략을 이해하려 할 때, 이 책을 보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보다 더 좋은 송원 兩代의 編年史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절대로 『通鑑』의 唐·五代 부분처럼 史料로서 인용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이를 가지고 역사적인 사실을 고증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³⁾라고 하였다. 黃永年이 이와 같이 언급한 이유는 宋·元人이 남긴 宋代 역사사실을 기록한 제1차 文獻典籍이 매우 많이 현존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綱鑑易知錄』 역시 저자 오승권이 編纂한 다른 저서 『古文觀止』처럼 과거 서당에 비치되어 읽혔던 통속적인 서적으로 비록 유행을 타고 널리 알려지긴 했으나, 그 학술적인 가치로 본다면 너무 전부하기나(‘太俗陋’), 혹은 가치가 없는 것(‘無價值’)으로 평가되었으므로, 『四庫全書』에 著錄 혹은 存目될 수가 없었는데,⁴⁾ 따라서 이들 서적을 사료로 사용하여 유관사실을 고증할 수 없는 것이다.

사실 한국화가 언제 고려에 出使하였는지를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님대, 宋代의 유관 문헌전적들을 살펴보면 쉽게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함에도 유감스럽게

1) 劉彊, 2000-6, 「韓國華出使高麗及其影響」, 『文史哲』.

2) 劉彊, 2000-6, 앞의 글.

3) 黃永年, 2008, 『史部要籍概論』, 南京, 江蘇教育出版社, 68-69쪽.

4) 黃永年, 2008, 앞의 책, 72쪽.

劉彊은 宋代의 제1차 문헌자료 역시 참고·인용하지 않았다. 南宋人이 編纂한 『宋大詔令集』 卷23에 수록된 「北伐遣使諭高麗詔」의 전문을 보면, 이 조서의 반포시각을 정확히 雍熙3年 2월 癸卯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게다가 詔書 正文의 말미에 “遣監察(御)史韓國華實詔以諭之”⁵⁾라는 글자가 보이기도 한다.

北宋人 錢若水 등이 編修한 宋『太宗皇帝實錄』 卷35에는 한국화가 고려에 출사한 배경과 휴대했던 ‘賜高麗國王治詔’書의 내용, 그리고 조서 반포의 시간 등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詔令集』에 기록된 시간과도 완전히 일치한다. 그 내용을 우선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雍熙3年 春正月, …… 宋太宗이 北征을 하려하여 天平軍節度使 曹彬으로 幽州道行營前軍馬步水陸都部署가 되게 하고, …… 彰化軍節度使 米信을 幽州西北行營馬步軍都部署가 되게 하며, …… 靜(靖)難軍節度使 田重進을 定州路行營馬步軍都部署가 되게 하였다. …… 2월 癸卯 高麗國王 王治에게 詔書를 내려 이르기를, 짐은 大統을 잇고 天下에 군림하여 草木·蟲魚 어느 것 하나 은혜를 받지 않은 것이 없고, 華夏·蠻貊 역시 지배를 받지 않은 것이 없다. 다만 야만스럽고 쓸모없는 北虜(契丹)만이 잔히 皇威를 거슬러 沙漠之中에서 동지를 끌고 앉아 남은 복수를 저우 부지해 가고 있다. 幽薊之地는 본래 皇風으로 덮였던 지역이다. 일찍이 [後]晉·[後]漢 등에 우환이 있어 戎醜(契丹)가 이를 빼앗아 盜據하였다. …… 지금 大軍을 결집하여 요망스런 氣運을 殄滅하고, 대군을 동원해 여러 갈래로 나눠 출병하여 곧 契丹을 멸하고 천하를 통일하고자 한다. 高麗王은 오랫동안 華風을 앙모해 왔으며 본래부터 明略을 품고 있다. 게다가 忠勤之節을 지키면서 禮儀之邦을 다스리고 있다. 그런데 북으로 大羊(契丹)과 인접하여 그 害毒을 당하고 있다. 쌓인 분노를 씻어낼 때가 바로 지금이지 않은가? 왕은 군사에게 명하여 宋과 협력하고 힘을 모아 요망케를 평정하도록 하자. 우리는 一鼓之雄을 내어 垂亡之虜(곧 멸망할 요망케, 契丹, 역자)를 제거하도록 하자. 좋은 때는 다시 오지 않으니 왕은 이를 도모하도록 하라. 게다가 전쟁 중 노획한 生口·牛羊·財物·器械 등을 모두 本國(高麗)의 將士들에게 줄 것이다. 監察御史 韓國華를 보내 詔書를 내린다. 고려는 서쪽으로 거만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항상 침략을 당했으므로 宋太宗은 이를 알고 이러한 조서를 내린 것이다.⁶⁾

한편 南宋의 學人으로 『西山圖經』과 『九域志』 등의 典籍 편찬에 참여하여 역사적인 비화에 감동했던 李攸는 『宋朝事實』 卷20에서 韓國華는 雍熙3년에 고려에 출사했다고 적고 있다. 이를 옮겨보면 아래와 같다.

雍熙3年 大軍을 동원하여 출정하려 하니 天平軍節度使 曹彬을 幽州道行營前軍都總管으로 삼아 涿州로 향하게 하고, 河陽節度使 崔彥進으로 그를 돕게 하였으며, 그리고 馬軍都指揮使 米信을 幽州西北道行營都總管으로 삼아 雲中으로 향하게 하고, 代州觀察使 杜彥圭로 그를 돕게 하였다. 또한 步軍都指揮使 田重進을 定州路行營都統으로 삼아 飛狐口로 출발하게 하였다. …… 이때 權知高麗國王 王

5) 『宋大詔令集』 卷23, 北京, 中華書局, 1962, 924쪽.

6) [北宋]錢若水 等撰修, 宋『太宗皇帝實錄』 卷35 雍熙3年 正月·2月條, “雍熙三年春正月, …… 上將北征, 以天平軍節度使曹彬充幽州道行營前軍馬步水陸都部署, …… 彰化軍節度使米信充幽州西北行營馬步軍都部署, …… 靜(靖)難軍節度使田重進充定州路行營馬步軍都部署, …… 二月, 癸卯, 賜高麗國王治詔, 曰: 朕誕膺丕構, 奄宅萬方, 草木蟲魚, 罔不蒙澤, 華夏蠻貊, 罔不率俾, 蓋茲北虜, 敢拒皇威, 側狃沙漠之中, 遷延歲月之命, 幽薊之地, 本被皇風, 向以晉漢多虞, 戎醜因而盜據, …… 今已董齊師旅, 殄滅妖氛, 元戎起行, 分道問出, 卽期誅翦, 一鼓混同, 惟王久慕華風, 素懷明略, 輸此忠勤之節, 撫茲禮儀之邦, 而援此大羊, 困於疊毒, 舒泄積憤, 其在茲乎? 便可中成節徒, 相爲犄角, 葉比鄰國, 同力底平, 韋(『宋大詔令集』·『高麗史』에는 ‘誓’로 기재했는데, 옮은 것이다. 필자)其一鼓之雄, 勦此垂亡之虜, 良時不在, 王其圖之, 應廣養生口·牛羊·財物·器械, 并給本國將士, 遣監察御史韓國華齎詔諭之, 高麗西與契丹接壤, 常爲虜所侵, 上知之, 故降是詔.”

治는 사신을 보내 京師에 이르러 修貢하였는데, 당시 宋太宗은 北伐하려 하였다. 고려가 契丹과 국경을 접하고 늘 그들의 침략을 당하므로 監察御史 韓國華에게 명하여 假太常少卿으로 고려에 出使케 하여 詔書를 전달하였다.⁷⁾

韓國華의 아들로 북송의 名相이었던 韓琦와 친밀하게 교류했던 北宋의 文人 尹洙도 『韓國華墓誌銘序』에서 “雍熙元年, [韓國華]遷監察御史, [雍熙]三年, 假太常少卿使高麗, 還拜右拾遺直史館, 賜五品服”⁸⁾이라고 적고 있다.

이밖에 풍부한 자료를 인용해 정확한 고증으로 유명했던 元人 馬端臨은 『宋史』가 완성되기 이전 편찬한 『文獻通考』에서 역시 “監察御史 韓國華를 보내 詔書를 하사하고” 고려를 설득해 “출병하게 하여 거란을 공격하도록 했다고 하였는데”, 이 모든 일을 雍熙3年條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⁹⁾

이렇듯 모두에게 인정되어 믿을 만한 宋元시기 公的 혹은 私的인 문헌들에서 한국화의 고려 出使 시간을 雍熙3年(986)으로 적고 있는데, 이는 그가 휴대했던 조서를 통해서도 증명되는 것으로, 그 시간을 雍熙3年, 즉 成宗5年으로 기록하였다. 한편 劉彊을 포함한 그 누구도 宋太宗의 제2차 북벌은 雍熙3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太宗皇帝實錄』·『續資治通鑑長編』·『宋史·太宗本紀』 등에 모두 雍熙3年 正月條에 송이 2차 북벌을 어떻게 決策하고, 어떤 장수들에게 명령을 내렸으며, 또한 어떤 방법을 동원해 출병을 하게 되었는지를 상세히 적고 있기 때문이다. 『太宗實錄』 卷35 雍熙3年 2月 丙午日, 송태종은 “近臣들과 長春殿에서 연회를 열어 幽州道(都)部署 曹彬 등을 격려했다”고 한다. 이러한 제1차 문헌기록들은 한국화가 휴대한 조서에서 보이는 “今已董齊師旅, 殄滅妖氛, 元戎起行, 分道開出”¹⁰⁾의 상황과도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宋 『太宗皇帝實錄』·『續資治通鑑長編』·『宋史·太宗本紀』의 雍熙2年(985)條의 기록, 심지어 『遼史·聖宗本紀』의 統和3年(985)條에 보이는 송이 군사들을 집결하여 여러 갈래로 나누어 북벌을 감행했다는 史實과 상응할 수 있는 것일까? 필자는 확실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史實들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史實을 통해서라도 한국화가 고려에 출사한 시간은 雍熙3年이지, 결코 劉彊이 주장한대로 雍熙2年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劉彊은 雍熙2年 한국화가 고려에 출사하였고, 그해 여름 고려는 출병하여 遼 경내에 들어섰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런데 이는 실제로 한국화가 고려에 출사한 목적과 서로 모순된다는 점에서 믿기 어렵다고 하겠다. 한국화가 고려에 출사한 목적은 그가 휴대했던 조서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는데, 그것은 바로 송이 2차 북벌을 감행할 때, 고려로 하여금 거란의 동부를 공격하게 하여 송의 서부 전선과 맞물려 쌍방이 함께 적을 섬멸하고, 나아가 ‘一鼓之雄’으로 분발하여 거의 멸망에 이른 오랑캐를 평정하자고 한데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¹¹⁾ 주지하듯 어느 정도의 군사방면에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로 전쟁

7) 李攸, 1955, 『宋朝事實』 卷20, 北京, 中華書局, 321쪽, “雍熙三年, 大發師, 以天平軍節度(使)曹彬爲幽州行營前軍都總管, 出涿州, 河陽節度(使)崔彥(進)副之, 馬軍都指揮使米信爲幽州西北道行營都總管, 出雲中, 代州觀察(使)杜彥圭副之, 步軍都指揮使田重進爲定州路行營都統, 出飛狐口, …… 是時, 權知高麗國王治, 遣使修貢京師, 帝以王師北征, 其國與契丹接壤, 常爲其所侵, 乃命監察御史韓國華, 假太常少卿, 往使其國, 降詔諭之.”

8) 尹洙, 1989, 『河南先生文集』, 上海, 上海書店, 4쪽.

9) 馬端臨, 1986, 『文獻通考』 卷325 四裔2·高句麗, 北京, 中華書局, 2558쪽, “遣監察御史韓國華實詔 …… [高麗] 出兵大攻.”

10) 『宋大詔令集』 卷23·宋 『太宗皇帝實錄』 卷35와 鄭麟趾의 『高麗史』 卷3 成宗4年 5月條에 같은 기록들이 보인다. 그런데 1990년 아세아문화출판사의 영인본 『高麗史』에서는 ‘殄滅妖氛’ 중의 ‘殄’을 ‘殄’로 잘못 적고 있다.

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병력을 나누어 양쪽에서 전쟁을 수행해 앞뒤에서 적의 공격을 받아 이리저리 저리저리 못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번 송이 한국화를 고려에 출사시킨 목적은 고려가 거란을 공격해 그들의 병력을 분산시켜 양쪽에서 전쟁을 하도록 하여 송의 서부 전선이 겪을 부담을 줄여 거란을 격파할 확률을 높이려는데 있었다. 이 점은 尹洙가撰한『韓國華蓋誌銘序』에서도 확연히 드러나는데, 즉 “雍熙시기 원자의 군대가 북벌을 감행하려 할 때, 고려가 거란과 惡鬪처럼 지냈으므로, 공에게 諭旨하여 [고려로 하여금 거란을 공격해] 그들의 세력을 나누도록 하였다”¹¹⁾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밖에 한국화가 고려에 출사하려 할 때, 宋太宗 趙匡義는 廟堂에서 그의 임무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북송 외교가인 富弼이撰한『韓國華神道碑』에서 “원자가 燕薊지역을 수복하기 위해 조정의 대신들에게 물기를, '어떻게 용감하고 言辭에 능한 자를 얻어 우리를 위해 고려를 설득하여 출병하게 하고, 서쪽에서 거란을 공격하여 그들의 세력을 분산시켜 우리의 일이 힘을 들이지 않고 이룰 수 있게 할 수 있는가’”¹²⁾라고 기록하고 있다. 만약 유강이 얻은 결론이 성립될 수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고려군이 雍熙2年 여름 이미 거란의 경내로 들어왔는데, 송의 2차 북벌은 뒤로 늦추어지 그 다음해 봄에 이루어졌다는 예기가 되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여송 양국이 東西로 나누어 전쟁을 수행해 거란의 병력을 분산시킨 후 서로 협공하려 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겠는가? 당연히 그럴 수 없었을 것이며, 게다가 잘못하면 상대방에게 오히려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됨으로, 이것은 마로 兵家에서 가장 기피해야 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유강이 얻은 결론은 史實과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常識에도 맞지 않는 것이어서 성립될 수 없다.

그렇다면 한국화가 고려에 출사한 시간과 관련하여 유강은 잘못된 결론을 도출했다고 할 수 있는데, 더불어『高麗史』의 상관계목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필자가 인용한 1990년 한국의 亞細亞文化社에서 출판된『高麗史』를 예로 들면, 撰修者는 확실히 成宗4年(985) 夏5月 宋이 太常卿 王著·秘書監 呂文仲을 보내 고려왕을 책봉했다는 사실과 成宗5年(986) 봄에 있었던 송이 거란을 정벌하기 위해 監察御史 韓國華를 보내 詔書를 주었다는 서로 다른 해에 일어난 서로 다른 사절단을 모두 成宗4年 夏5月條에 기록하고 있다.¹³⁾ 이런 史實은 유강을 포함한 일부 학자들을 혼동시켰을 것이다. 사실 유강 외에 중국에서 中韓 古代史 분야의 연구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楊通方 등도『高麗史』의 잘못된 기록에 혼동하여 한국화가 고려에 출사한 시간을 985년 5월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¹⁴⁾ 게다가 사실 宋朝 雍熙2年과 雍熙3年 두 차례에 걸쳐 고려에 출사한 사절단의 상황을 가장 처음 기록한 것은 宋『太宗皇帝實錄』 卷32·卷35이다. 즉『太宗皇帝實錄』 卷32 雍熙2年條에는 “[正月] 甲戌, 制加高麗國王治檢校太傅, …… [2月] 壬午, 以翰林侍書·左拾遺王著, 翰林侍讀·著作郎呂文仲使高麗”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왕저와 여문중이 2월에 명을 받고 5월에 고려에 도착한 것으로, 이에 어떠한 의문도 없다. 또한『太宗皇帝實錄』 卷35 雍熙3年 2月條에 한국화가 고려에 출사한 기록이 적혀 있는데, 이미 앞에서 인용했으므로 여기에서 생략한다. 필자는 중국 역사 문헌학에 약간의 견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중국 황제『實錄』의 사료적인 가치가 어떠한지

11) 『宋大詔令集』 卷23·宋『太宗皇帝實錄』 卷35·鄭麟趾의『高麗史』 卷3 成宗4年 5月條.

12) 尹洙, 1989, 『河南集』 卷16, 文淵閣『四庫全書』 影印本,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090冊-90쪽, “雍熙中, 王師北伐, 聞高麗與契丹嘗爲仇怨, 會(命)公諭旨, 以分敵勢.”

13) [清]王昶 編纂, 1990, 『金石萃編』 卷135, 西安, 陝西人民美術出版社影印本, “天子議復燕薊, 掘底臣曰: ‘安得勇而善辭令者, 爲我諭高麗出兵西攻契丹, 以分其力, 則吾事可不勞而集’.”

14) 『高麗史』 卷3 成宗4年 5月條.

15) 楊通方, 1996, 『中韓古代關係史論』,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75쪽.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그 기사 내용 및 출현 시간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높은 것이다(정치적인 경향을 나타낸 것은 제외한다. 지자). 왜냐하면 중국고대 史官制度는 상당히 완비되어 朝廷 내의 사관은 하루하루 皇帝의 言行 및 국가에서 일어난 大事를 '起居注'로 編制하여, 혹은 '日曆'·'時政記' 등으로 구분하여 史館에 보관하였다.¹⁶⁾ 사관이 기록한 原자료는 황제가 崩御한 후, 새 황제가 그를 위해 實錄을 撰修할 때, 주된 근거가 된다. 錢若水 등은 宋 至道3年(997) 송태종이 붕어한 그해, 즉 奉詔로 「太宗皇帝實錄」을 撰修하게 되는데, 당시 宋太宗朝의 原자료들이 잘 보존되어 있었을 것은 확실하다. 현존하는 「太宗皇帝實錄」이 비록 殘本이라고 하지만, 그중 雍熙初年の 기록들, 즉 卷31-卷35까지는 완전하다고 할 수 있고, 게다가 '南宋館閣寫本', 즉 남송의 '理宗朝重錄之本'¹⁷⁾이므로 이 殘本은 매우 권위 있는 것이며 신뢰도 역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太宗皇帝實錄」에서 기록된 한국화의 출사 시간은 전혀 문제없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宋史·高麗傳」은 「太宗皇帝實錄」 등의 사료에 근거하여 왕자·여문종의 출사와 한국화의 출사를 서로 구분하여 雍熙2年(985)과 雍熙3年(986)에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완전히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高麗史」는 雍熙3年 한국화의 出使 사실을 왕자·여문종의 출사 사실과 함께 기록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고 하겠다.

II. 宋의 契丹에 대한 2차 北伐, 高麗는 약속에 따라 出兵하여 송을 도왔는가?

劉強은 高麗가 실제 출병하여 宋을 도왔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韓國華는 雍熙2年 고리에 出使하였는데, 그의 出使 목적은 고리가 군사를 내어 契丹을 공격하게 하고 이후 遼가 송과 전쟁을 수행하게 될 때 후환이 되게끔 하여 그들을 견제하려는 역할을 하려 한 것이다. 고리는 비록 주저하며 시간을 끌었지만, 결국 詔書를 받들고 수만의 병사를 보내 遼 경내로 들어가 공격하였다. 그렇다면 한국화는 그의 使命을 원만히 완수하였으며, 그의 出使 역시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¹⁸⁾

이와 같은 劉強이 얻은 결론의 근거는 宋人 富弼이撰한 「韓國華神道碑」의 내용으로, 주지하듯 이 비문은 이후 淸人 王昶이 編纂한 「金石萃編」 卷135에 수록되었다. 유권내용은

公(韓國華)이 배를 타고 급히 고리에 도착했는데, 고려왕은 本國의 地勢가 險固함을 믿고 宋太宗의 詔令을 바로 받지 않았다. 한국화는 館舍에서 왕에게 서신을 보내 詔令에 怠慢한 것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말하길, 宋朝廷의 威德이 성하여 諸國諸將들이 이미 모두 擒滅되었고, 이에 契丹을 정벌하여 燕雲지역을 수복하여 後晉의 遺業을 씻고자 합니다. 王에게 당부하기를 병사를 내어 契丹을 공격하면 그 意義가 어찌 重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만약 宋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天子가 怒하여 하루 만에 大軍을 동쪽으로 보내 詔令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주살할 것인데, 이것은 마치 큰 불꽃이 터져 뿔뿔을 쪼갬 할 것이므로 국왕은 후회할 일을 하지 마십시오. 왕은 심히 두려워 바로 詔令을 받았다. 이른 날 太相 韓光·元輔 趙抗으로 수만의 병사를 이끌고 混江을 건너 契丹을 공격하게 하였다. 또 韓光 등에게 諸將을 이끌고 館門에 이르러 명령을 받도록 하였다. 한국화는 그들을 陪臣之禮로 대하며 개책을 세워 따르도록 하고 또 위로하여 보냈다. 出兵의 시일이 정해지지 않자, 한국화는 수차례 왕에게 서신을 보내 사기를 북돋우며 어떠한 태만함도 없게 하였다. 후에 다시 문

16) 韓琦, 1989, 『安陽集』 卷35 「修仁宗實錄畢乞不推恩」文, 文淵閣「四庫全書」影印本,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089冊-420쪽.

17) 黃永年, 2008, 앞의 책, 75쪽.

18) 劉強, 2000-6, 앞의 글.

기를, 고려군이 거란 경내 깊숙이 들어가 공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경지역에서 도전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였다. 왕은 회답하길, 이미 거란 경내 깊숙이 들어가 공격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국화는 고려왕의 성실한 대답을 듣고 귀국길에 올랐다.¹⁹⁾

라고 기재하고 있다. 사실 이상의 기재는 碑文에서만 보이는 내용들로, 『高麗史』·『遼史』 및 『宋史』에서는 고려가 거란을 공격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비문의 내용이 가지는 진실성에 의문을 품게 된다. 주지하듯 高麗와 遼는 모두 漢文化의 영향을 받아 역사를 편찬할 때, 그 체계와 내용 등이 중원왕조의 史書 형식을 모방하여 서로 큰 구분이 없었다. 한문화 중에서 “國之大事，在祀與戎(나라에서 가장 큰 일은 제사와 전쟁이었다, 역자)”이라는 이념 역시 그들의 史家들도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환연하면 수만의 대군을 동원하여 遼의 경내를 공격하는 이런 대규모 군사행동을 高麗·遼 양국의 史書에 한 줄이라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믿기 힘든 것이다. 사실 우리는 『遼史』와 『高麗史』 중에서 고려의 대군이 遼 경내로 진입하여 거란 병력과 마다트려 宋의 北伐에 압력을 떨어줬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이와 반대로 『遼史·聖宗本紀』 統和4年(宋徽宗3年, 高麗 成宗5年(986))條에는 徽宗3年 3월 송의 북벌군이 서부에서 거란을 공격한 후, 요는 이웃한 고려의 邊界인 동부 전선에서 급히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 조직되었던 兵馬를 동원하여 서부 전선으로 증원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바로 고려가 출병하여 거란을 공격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遼史·聖宗本紀』 統和4年(986)條에 有關사실을

[3월] 辛巳, 宋軍이 涿州에 들어섰다. 顯義軍節度副使 趙希贊은 朔州에서 만란을 일으켜 송에 귀부하였다. 당시 遼聖宗과 皇太后는 斡羅口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급히 詔令으로 東征한 兵馬를 동원하여 이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壬午, 詔令으로 林牙 勤德이 平州의 해안을 수비함으로 宋의 공격에 대비하게 하였다. …… [4월] 戊申, …… 또 詔令으로 兩部 突騎를 蔚州로 보내 [遼] 關覽을 돕도록 하였다. …… 이어서 將軍 化哥는 平州의 兵馬를 통솔하게 하고, 橫帳郎君 奴哥를 黃皮室都監으로 삼았으며, 郎君 謁里를 北府都監으로 삼아 각각 步兵을 이끌고 蔚州로 보내 斜軻를 돕게 하였다.²⁰⁾

라고 기재하고 있다. 상술한 사서에서 언급한 林牙 勤德과 蕭關覽²¹⁾은 모두 統和3年 가을부터 그 다음해 年初까지 女眞을 東征했던 主將으로, 이때 서부 전선으로 동원되어 宋軍의 침입에 대응했던 것이다.

이밖에 劉強이 인용한 『韓國華神道碑』 자체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碑文中 수만의 병사를 이끌고 溟江을 넘어 契丹을 공격했다고 하는 太相 韓光과 元輔 趙抗, 이들 두 사람의 관직과 그 지위를 봤을 때, 분명 대단히 중요한 인물임에 틀림없는데, 『高麗

19) [清]王昶 編纂, 1990, 앞의 책, “公馳刺至其國, 其王負固, 不時奉詔. 公坐館舍, 遣王書, 責以慢命. 且稱: 朝廷威德之盛, 諸僭偽悉已歸誠, 遂欲北取故疆, 以雪晉恥. 而委王以方面者, 其意不已重乎? …… 今若不勉, 天子怒, 一日大兵東出, 先誅不用命者, 如決海灌棚火, 王其無悔. 王大恐, 奔走率職. 明日, 遣太相韓光·元輔趙(劉強의 글에는 ‘趙’자가 빠져 있다. 필자)抗, 領兵數萬, 度溟江(大同江)以侵契丹, 且令光等率諸將詣館門聽命. 公待以陪臣禮, 爲指畫方略, 衝勦而慰遣之. 卽期未集, 公又累與王書, 獎激警蹕, 使不得少懈. 復問曰: 深入及之邪? 姑挑戰也? 王報曰: 已深入矣! 公得其肝膽, 遂復命.”

20) 『遼史』 卷11 聖宗本紀, “[3월] 辛巳, 宋兵入涿州. 顯義軍節度副使趙希贊以朔州叛, 附于宋. 時上與皇太后駐兵斡羅口, 詔趣東征兵馬以爲應援. 壬午, 詔林牙勤德以兵守平州之海岸以備宋. …… [4월] 戊申, …… 又詔兩部突騎赴蔚州, 以助[蕭]關覽. …… 將軍化哥統平州兵馬, 橫帳郎君奴哥爲黃皮室都監, 郎君謁里爲北府都監, 各以步兵赴蔚州以助斜軻.”(밑줄은 필자)

21) 『遼史』 卷10 聖宗本紀.

史』 등 고려의 사서에서 그들과 관련된 어떠한 기록도 찾을 수 없다. 필자는 여러 역건의 제약으로 인하여 韓國史籍을 검토하고 분석할 시간이 매우 부족하여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하더라도, 한국 역사학자 李權浩의 견해를 참고하면 高麗史書 중에서 '太相韓光·元輔趙抗' 이들 두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물론 부필이撰한 이상의 비문 내용이 모두 다 거짓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큰 가능성은 한국화의 거듭된 요청에 고려왕 王治는 어쩔 수 없이 당시의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임기응변적으로 대답하여 한국화에게 큰 믿음을 주려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려왕 王治는 원래부터 송의 요구에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출병을 미루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며,²²⁾ 경솔하게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자신들보다 세력이 강하고 침략성이 대단했던 거란을 공격하여 화를 불러오려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고려가 실제로 병사를 동원하여 거란을 공격하지 않은 이상, 劉淵이 주장한 韓國華가 宋조정이 부여한 사명을 탁월하게 완수했다는 그에 대한 평가는 논의할만한 가치가 없게 된다. 게다가 한국화가 고려에 출사하여 고려의 역사적인 운명과 대외관계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등등의 언급²³⁾ 또한 사실을 과장한 것이며, 더욱이 事實과 동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22) 『高麗史』 卷3 成宗4年 5月條.

23) 劉淵, 2000-6, 앞의 글.

中国学者论 10~12 世纪东北亚局势与宋丽、辽丽关系

(后附笔者:《韩国华出使高丽问题考辨》)

郭天祥 中国 湛江师范学院

目 次

引 言

- 一、中国近年来出版的相关著作
- 二、关于对此时期东北亚局势的看法
- 三、关于宋丽关系的研究
- 四、关于辽丽关系的研究
- 五、关于徐熙与辽交涉的评论
- 六、宋辽丽三国关系及高丽外交政策研究
- 七、关于高丽“二元”朝贡体制的研究

结 语

引 言

高丽历史上著名的外交家徐熙,活动于公元 10 世纪下半叶,因此,研究 10 世纪下半叶至 12 世纪初年的东北亚局势以及宋丽(高丽)、辽(契丹)丽关系,不仅可以为徐熙研究提供较为广阔的国际历史背景,而且也可以为人们正确认识、恰当评价徐熙的外交活动及其贡献提供必要的参考。本文择要综述介绍近年来中国方面与这一课题相关的研究成果及基本观点。但限于条件,对中国台湾、香港地区学者的成果观点仅略有涉及而已。期望对促进中韩两国的学术文化交流,推动徐熙研究乃至中韩关系史的研究有些助益。

一、中国近年来出版的相关著作

中国方面对中韩关系史的研究起步较晚,在 20 世纪 50 年代前只有李符桐、朱希祖等学者对辽丽关系做过初步研究,50 年代初,周一良、张政烺等人对中韩关系史做过开拓性的研究,周氏撰有《中朝人民友谊关系与文化交流》(上海:开明书店,1951),张氏撰有《五

千年来的中朝友谊关系》(上海:开明书店,1951)。但这一时期的论著多属普及性的知识介绍,学术性并不强。上个世纪80年代以来,这种状况有了很大改观,陆续出版了好些这方面的专著或资料选编。如刁书仁、衣兴国编纂的《二十六史中朝关系史料选编》(长春:吉林文史出版社,1995);姜孟山、刘子敏主编《中国正史中的朝鲜史料》(延吉:延边大学出版社,1996);杨渭生主编《宋丽关系史料汇编》(北京:学苑出版社,1999);经莉、陈湛绮《朝鲜史料汇编》(北京:全国图书馆文献缩微复制中心,2004)等。

这方面的学术著作则有:朴真奭的《中朝经济文化交流史研究》(沈阳:辽宁人民出版社,1984);杨昭全《中朝关系史论文集》(北京:世界知识出版社,1988);杨昭全、韩俊光《中朝关系简史》(沈阳:辽宁民族出版社,1992);杨昭全、孙玉梅《中朝边界史》(长春:吉林文史出版社,1993);刘永智《中朝关系史研究》(郑州:中州古籍出版社,1994);黄棣连《东亚的礼义世界——中国封建王朝与朝鲜半岛关系形态论》(北京:中国人民大学出版社,1994);全春元的《早期东北亚文化圈中的朝鲜》(延吉:延边大学出版社,1995);吉林社会科学院《中朝关系通史》编写组编《中朝关系通史》(长春:吉林人民出版社,1996);杨通方《中韩古代关系史论》(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1996);杨渭生《宋丽关系史研究》(杭州:杭州大学出版社,1997);陈尚胜《中韩关系史论》(济南:齐鲁书社,1997);蒋非非、王小甫《中韩关系史(古代卷)》(北京:社会科学文献出版社,1998);杨昭全《中国——朝鲜韩国关系史》(天津:天津人民出版社,2001);金熙德主编《中国的东北亚研究》(北京:世界知识出版社,2001);魏志江《辽金与高丽关系考》(香港:香港天马图书有限公司,2001);李云泉《朝贡制度史论》(北京:新华出版社,2004);汪高鑫《东亚三国古代关系史》(北京:北京工业大学出版社,2006);魏志江《中韩关系史研究》(广州:中山大学出版社,2006);杨军《中国与朝鲜半岛关系史论》(北京:社会科学文献出版社,2006);朱云影《中国文化对日韩越的影响》(桂林:广西师范大学出版社,2007);陶晋生《宋辽关系史研究》(台北:联经出版事业公司,1984;北京:中华书局,2008)对宋辽丽关系也有较多涉及;傅百臣《中朝历代朝贡制度研究》(长春:吉林人民出版社,2008)等。专论或涉及本专题的一般论文、学位论文总数也不下50篇。

二、关于对此时期东北亚局势的看法

台湾学者陶晋生的大作《宋辽关系史研究》(台北联经出版公司,1984;中华书局,2008)一书,对这一时期的东北亚局势作过全面分析,他写道:传统的中国对外关系,常以建立以中国为中心的世界秩序为其理想。在这种理想秩序的构想下,其它邦国向中国朝贡,从而构成所谓的“朝贡制度”。不过,自五代以来,随着契丹的建国以及后来的发展,它在东亚国际关系中的地位不断提高。同时,契丹自身也吸收了不少汉族文化。所以契丹在对待邻国的问题上,亦仿照以往中原朝代模式,试图建立一个以契丹(辽)为中心的国际系统,并要求其它国家和部落向其朝贡。要求北汉、高丽和西夏等国王接受契丹的册封。至于中原问

题,辽朝亦曾有进攻与并吞之野心。不过大抵来说,自耶律德光经略南方政策失败后,基于若干皇帝的个别取向,现实政治的发展,以及辽的内部问题等因素,其渐渐放弃了南进政策。

因陶著在台湾出版较早,明显地对大陆学者产生了影响。魏志江《辽宋丽三角关系与东亚地区秩序》(复旦大学《韩国研究论丛》,1998)一文,在吸收陶著看法的基础上,从分析宋辽丽三角错综复杂的外交关系入手,在揭示10世纪中叶至12世纪初中韩两国外交关系发展的时代特征和东亚地区秩序变迁轨迹的基础上,对此时期东北亚的国际局势做出了新概括:认为自汉王朝以来,中原汉族王朝,一直是东亚地区秩序的中心。由于历代王朝的统治者提倡儒家的礼治主义和以德柔远的政策,从而中国周边国家和地区纷纷向中原王朝表示归附或遣使朝贡。然而,10世纪中叶至12世纪初,由于辽金的崛起,这种维系了近千年之久的以中原汉族王朝为中心的一元化朝贡体制被打破,而由这种朝贡体系所建立的东亚地区规范也随之崩溃。统治朝鲜半岛的王氏高丽政权,作为东亚地区圈内的重要成员,先后或同时展开对辽金或宋朝的朝贡外交,从而,这种“二元”或“多元”的朝贡体制,构成了这一时期东亚地区秩序的重要规范,而高丽也从传统的对中原汉族王朝的朝贡,开始转变为对中国的北族王朝——辽、金的朝贡。

朱晓乐硕士学位论文《高丽与我国辽金王朝外交关系略论》(中央民族大学,2004)认为,公元10世纪至13世纪,中国北方游牧民族契丹、女真崛起,相继建立强大的辽、金王朝,并先后赢得了东亚国际秩序的中心地位。东亚国际局势不断重组和调整,呈现出复杂化趋势,这种重组和调整使原与宋朝保持传统友谊的高丽王朝面临巨大的外交压力。由于辽金与朝鲜半岛相邻,高丽备受其强权的压制,处境艰难,唯有不断调整其外交政策,适应整个东亚国际局势的变动,才能求得自身的生存和发展。

贾志扬《宋代与东亚的多国体系及贸易世界》(《北京大学学报》,2009年2期)认为,在9世纪后期到13世纪之间,东亚地区存在着一个多国体系模式,一个不被中国(或者汉人)统治的东亚世界。在这个多国秩序体系中著名的政权有契丹人的辽国,党项人的西夏以及女真人,当然还有936年在朝鲜半岛建立的高丽王朝等。

齐廉允《12世纪初东亚政治格局的重塑与再造》(《英才高职论坛》,2009年3期)认为,10至13世纪,在东亚大陆以“天下一体”观念为基础、以中原汉族王朝为中心而形成的地区秩序发生裂变,北方少数民族建立的政权成为东亚世界的主宰,而中原汉民族建立的宋朝实力非但不足以制驭东亚地区,而且还常常面临少数民族政权的侵扰与欺凌。在宋、高丽、辽三足鼎立、彼此制约的东亚地区,任何一方政治力量的消长,都是以引起地区局势的变动。

12 世纪初女真的迅速崛起就猛烈地冲击着东亚旧有的、以辽为盟主的地区秩序，促使各种政治力量重新分化整合，一种新的地区秩序最终得以建立。

张莹莹的硕士学位论文《论辽丽战争与辽丽宋三国的政治关系》（延边大学，2010）第二章里，从“辽与中原政权的关系”、“高丽与中原政权的关系及北进政策”、“高丽与辽的交恶”三个方面论述了“辽丽战争前的东北亚局势”，她在论文“摘要”里概括说，公元 10 世纪，大唐帝国灭亡后，在中国的中原地区，先后形成五代十国的割据局面。宋朝建立之后，逐步统一了中原地区，而辽国雄踞北方，宋辽遂形成南北对峙的政治格局。此时处于朝鲜半岛的高丽王朝，面对中国的政治局势，在外交政策上面临新的选择。此时辽、丽、宋三国之间的关系，构成了东北亚国际关系史的主要内容。

陶晋生的学生、韩国学者金渭显关于此时期东北亚局势的看法（金渭显：《契丹的东北政策——契丹与高丽女真关系之研究》，台湾：华世出版社，1980，第 1-2 页），也很精辟，韩国学者想必十分熟悉，笔者也很赞同，但对金先生所说，从当时的形势来看，“无疑的是以宋和契丹为中心，分为两个集团，即互相协和的宋与高丽、女真等与互相联合的契丹与西夏相敌对”，即认为存在过两个“互相协和”或“互相联合”的敌对集团的说法，笔者不完全同意。理由是，虽然在 10 世纪下半叶以至 11 世纪初年的一段时期内，宋、女真、高丽都曾受到过势力强大的契丹的侵略打击，三方理应结成反对契丹的军事同盟或集团，但实际上并未出现过这样的反契丹多国军事同盟集团。明显的事实是，986 年，宋太宗二次北伐前，曾先后派使者携带诏书联络女真、高丽，但都没有得到实质性的响应。992-993 年契丹第一次攻打高丽以后，高丽方面也多次请求宋在军事方面给予支持配合，来牵制契丹，宋也没有答应高丽的要求。而且高丽和女真之间也发生过矛盾和冲突。当然，在随后较长的时期内，也看不到三方在反契丹斗争中有实质性“互相协和”的事实。这从《宋史·外国传》里看得很清楚。至于契丹和西夏“相互联合”，形成“集团”，来对付宋朝，倒有史实支撑，还可以成立。

依笔者个人浅见，仅就徐熙生活时代的东北亚局势而言，其总的发展趋势，可以说是从宋辽两强争霸，到辽一强独霸，并最终建立起以辽为中心的东北亚朝贡体系的演变过程。以宋每年向辽输送“岁币”为核心内容的“澶渊之盟”的缔结，既是宋辽争霸过程的终结，也是辽东北亚霸主地位，或曰辽东北亚朝贡体系中心地位完全确立的标志。此时期宋辽丽三国间关系的变幻，也无不受此大趋势的影响。而辽以武力入侵的方式，迫使高丽断绝与宋传统的宗藩关系，转而向辽称臣纳贡，则是辽对其东北亚朝贡体系中心地位的进一步维护和扩张。

三、关于宋丽关系的研究

中国方面对宋丽关系史做出深入系统研究的当数原杭州大学历史系教授、合并后的浙江大学韩国研究所兼职研究员杨渭生先生，他撰写的《宋丽关系史研究》（杭州大学出版社，1997）就是他对该专题研究成果的总汇。该书以近 50 万字的篇幅全面系统地考察和分析了宋与高丽之间从官方到民间，从政治、经济到文化的互相交流、互相影响、互相促进的历史过程，并将这一过程置于宋和高丽两国社会发展与演变的历史背景之下考察，很值得一读。同时，作者也很重视国际关系研究领域相关国家实力消长及其相互影响，书中专列《宋与高丽：复杂而微妙的“三角”政治关系》一章，对宋丽、辽丽之间的政治关系和彼此间的影响，宋和高丽两国大臣对这种微妙的三角关系的看法，以及由此产生的宋丽政治关系的变化等一系列问题作了深入分析。

孙建民、顾宏义《中国宋朝与高丽外交关系论略》（《洛阳师专学报》，1996 年 1 期）认为，宋朝与高丽的外交关系，依据各自的政治、军事形势和需要，时亲时疏，时断时续，构成宋丽关系的主线，支配着其它层面的双边关系。学术界“民间外交”说与这一实际不符。民间往来尽管一直存在并起过一定的作用，但并不构成双方关系的支配因素，反而受官方外交的极大影响。

梁利《从“联丽制辽”到“联金灭辽”——论 10—12 世纪东北亚的战略格局及宋朝的战略对策》（《河南大学学报》，2005 年 2 期）认为，“东联高丽”战略是贯穿于整个北宋的基本国策，其实质在于联合与辽有矛盾且居于辽国侧背的高丽，以应对东北亚战略格局的变化，抗御宿敌契丹，收复燕云，解除北方的威胁。但除了王安石变法时期外，其在联盟战略的实施方面基本上是不成功的。

齐康允的硕士学位论文《宋朝的高丽政策》（山东师范大学，2008），对宋朝的高丽政策做了较为全面深入的考察，认为北宋初年的统治者以汉唐正统的合法继承者自居，“天朝大国”意识浓厚，延续了唐王朝对朝鲜半岛的传统政策，通过对高丽频繁的册封来强化对朝鲜半岛的控制，但由于缺少了强势军事实力的支撑，就外交实效而言，这种强化控制的外交行为并没有达到预期的目的，但仍然使宋初三十年的宋丽关系充满较多的政治色彩，宋丽得以结成典型而实质的朝贡关系。澶渊之盟前后，宋朝不得不收起继承盛唐光荣的雄心，放下“天朝大国”的架子，小心翼翼地维护宋辽之间的和平成果。在这种情况下，宋朝基本上放弃了宋初对高丽强化控制的政策，有意识地疏远高丽，对高丽推行一种“不干涉”的外交政策。¹¹

世纪中后期，宋、辽、高丽三国在东亚地区的战略博弈全面展开，宋朝积极调整对外战略，采取主动进取、奋发有为的高丽政策，即把高丽纳入到宋朝的整体防御战略构想之中，积极推行“联丽制辽”外交，并采取多种措施来保证“联丽制辽”外交战略的推行。在这一政策的推动下，宋丽关系获得极大的发展，经济、文化交流频繁，双方使节往来不断，开创了宋丽关系的新纪元。

芦敏《从文化角度看北宋和高丽的关系——兼与辽、丽关系作比较》（《南洋问题研究》，2007年2期），则从文化的视觉来审视宋丽关系，认为中韩作为山水相连的近邻，自古以来就存在着密切的经济、文化往来。历经千百年的发展融合，双方堪称文化同源，进而在心理上形成一种认同感，由此奠定了双方政权在不同时期的友好关系。北宋与高丽就是在这样的基础上展开友好交往，而文化迥异的辽却只能借助强权来维持其与高丽的朝贡关系。尽管宋丽往来常受制于辽，然而悠久的历史与文化纽带，又使得双方的关系能够断而不绝。

齐康允《强化控制与结盟意图的错位：北宋初年的高丽政策》（《山东英才学院学报》，2010年2期），认为北宋初年的统治者，试图通过册封的手段对朝鲜半岛推行强化控制、密切联系的传统政策，但频繁的册封并没有确保宋丽之间同盟关系的建立，因此，就外交实践与外交成果而言，是完全错位的，并不成功。

朴今海《试述中世纪高丽与辽、宋之间的关系——以公元10世纪末~12世纪初为中心》（《延边大学学报》，1998年4期）认为，高丽向大宋王朝称臣纳贡，其目的：一方面是为了输入中原进步的文物，另一方面又为了牵制北方“夷狄”辽及女真。这种所谓的“事大”是高丽历史的选择。而北宋方面，因为长期同契丹对峙，显然希望高丽能成为自己的盟友，以便联合起来共同对付辽朝。

刘强《韩国华出使高丽及其影响》（《文史哲》，2000年6期），与以往说法颇有不同：一是认为韩国华奉命出使高丽，请求高丽出兵配合宋二次北伐契丹的时间，不是雍熙三年（986），而是雍熙二年；二是征引《金石萃编》所收宋人富弼所撰《韩国华神道碑》文字，来证明“韩国华以其出色的外交才能，完成清廷所付使命”，最终说服高丽国王，出动“数万”大军，“进入辽国境内”；三是对韩国华此次出使的意义评价甚高，认为对“高丽历史命运和对外关系产生了深远影响”。在笔者看来，刘文虽有“新意”，但其结论实难令人苟同。笔者拟撰文提出商榷意见。

杨通方《五代至蒙元时期中国与高丽的关系》（《韩国学论文集》（第三辑），东方出版社，1994）一文，其中有两部分专论宋丽关系和辽丽关系，史料性虽然很强，但论证分析则略显

不足。

四、关于辽丽关系的研究

在当今中国学者中，对于辽丽关系做过深入研究，成就显著的，当首推中山大学的魏志江教授。魏撰有《辽金与高丽关系考》（香港：天马图书有限公司，2001）一书，以及《辽史·高丽传》考证》（《文献》，1996年2期）、《论1020—1125年的辽丽关系》（《南京大学学报》，1997年1期）和《辽宋丽三国关系与东亚国际秩序》（台北《大陆杂志》，1997年3期）等多篇系列论文，这些成果，后来都反映在魏君另一部大作《中韩关系史研究》（广州：中山大学出版社，2006）中。该书“上编”对高丽从传统的向中原汉族王朝的朝贡关系演变为对北族王朝朝贡关系的历史过程和时代特征作了深入探讨，揭示了10至13世纪东亚国际秩序演进的一般规律，提出了诸多有价值的见解：第一，辽金虽为契丹、女真族建立的北族王朝，但其与高丽的关系仍属于以中国为中心的华夷秩序的范畴。辽金统治者在入主中原和逐渐儒化的过程中，均以所谓华夏“正统”自居，在先后取得对高丽的宗主权，并确立其东亚国际秩序的中心地位后，其与高丽的交往大体仍继承了隋唐时代以及宋朝对周边交往的一般原则和基本模式，用儒家以德柔远的礼治主义，作为指导其与高丽关系的基本理念。不赞同国外有些学者认为辽金元与高丽的关系是古代中韩朝贡关系变质的观点。第二，辽朝通过军事征服的手段，迫使高丽称臣，从而取得在朝鲜半岛的宗主权。但辽对高丽奉行的向宋、辽两国同时朝贡的“二元”朝贡体制并不加以干涉。第三，辽金时代高丽经常夹持在中原汉族王朝宋朝和辽金北族王朝之间，不断面临着外交上艰难的抉择。但不管如何，高丽总是不失时机地调整对宋辽金诸王朝的关系，奉行“事大”外交的理念和政策，并在“朝贡”或“请赐”的名义下，谋求其政治或军事上无法实现的利益。如契丹首次征伐高丽以后，高丽即以“朝贡”、“请赐”等名义，从契丹取得了对“江东六城”的领有权，并以此为据点，将势力拓展至鸭绿江下游。（《中韩关系史研究》，中山大学出版社，2006，第251—252页）

魏志江《论辽与高丽关系的分期与发展》（《扬州师范学院学报》，1996年1期）一文，则把辽与高丽关系发展演进的过程划分为三个时期，认为从922—992年为前期，辽、丽由睦邻平等变为敌对关系；992—1020年为中期，辽通过数次武力征服，迫使高丽称臣纳贡，1020—1125年为后期，辽、丽朝贡体制全面确立，并随着辽之衰亡，两国关系趋于终结。辽、丽交往二百余年，虽间有战争，但和平相处仍为其主流。

蒋戎《辽朝与高丽朝贡关系浅析》（《东北史地》，2008年6期）认为，在双方建国70余年后，高丽虽在辽武力高压之下被迫向辽称臣纳贡，但高丽却是这种朝贡关系的真正受益

者。首先，高丽通过向辽朝贡，在相当长的一段时期内解除了辽朝强大的军事威胁，使之有充分的时间发展经济，巩固国防。其次，通过朝贡，高丽取得了辽朝对其侵蚀原渤海国土地的默认。对辽朝来说，朝贡制度的确立则是得不偿失的。首先，辽朝通过以土地换朝贡建立起来的辽丽宗藩关系并不稳定，就在朝贡制度确立不久，高丽就暗中派人如宋请兵，准备报仇。其次，为了使高丽朝贡，辽朝失去了对鸭绿江东广大地区的实际控制。高丽以通贡道为名，在鸭绿江东大规模筑城，不断向西北驱赶当地女真人，也给辽朝留下了极大的隐患。

武玉环《论辽与高丽的关系及辽的东部边疆政策》（《吉林大学学报》，2001年4期）认为，辽朝与高丽的关系为境外藩属国的关系。在辽朝统治的二百余年间，辽与高丽既有战争，也有和平交往。和平交往为辽与高丽关系的主流。其东部边疆政策，则是建立军镇，派驻军队，移民实边，因俗而治，以夷制夷。

郑川水《辽圣宗及辽与高丽藩交考略》（《辽宁大学学报》，2001年1期）认为，辽圣宗在处理与中原的民族关系和对藩属国高丽王国的关系上，由于其狭隘的民族利己私欲，竟然采取了“让外，制内”的错误政策，为了与北宋王朝对抗，制止高丽王国“越海事宋”，不惜将鸭绿江东六州边疆重要之地拱手割让给高丽。这一政策失误，不仅使边疆女真族聚居区遭受了连绵的战火浩劫，也对与藩属国高丽的睦邻关系产生不良影响，更损害了国家边疆领土主权，而且给了高丽以继续蚕食中国领土可以利用的条件。笔者觉得，郑文的立论，似乎没有把问题放在当时特定的历史背景下来考量，立足点过于现代化。

王贵竹硕士学位论文《试论十至十一世纪辽与高丽在大同江以北地区的争夺》（延边大学，2010）认为，辽丽双方在大同江以北地区的反复争夺，江东六州归属的纷争，主要是由于高丽对“分界而治”界约的违反与破坏而引起的。在争斗过程中，高丽利用辽当权者对大同江以北地区历史渊源的陌生，通过外交手段，获取了辽圣宗赐予的“女直鸭绿江东数百里地”，由此也埋下了后来双方多次战争的隐患。

在中国台湾，亦有王仪、王民信、黄宽重诸先生研治辽金与高丽关系史，颇有成绩。

五、关于徐熙与辽交涉的评论

金龙善硕士学位论文《徐熙与十世纪丽辽外交关系》（延边大学，2004年），对徐熙与丽辽关系做了较为集中的论述。文章认为，在双方力量悬殊的情况下，在高丽国内形成割地论和降服论的形势下，高丽名臣徐熙挺身而出，入契丹营与辽谈判。徐熙据理力争，签定了《徐熙——萧恒德协定》。辽国达到了使高丽臣服于己，解除攻宋后顾之忧的目的。而对高丽来说，则继续了太祖以来奉行的北进政策，得到了江东二百八十里的地方。同时也树立了

徐熙机智谈判的卓越范例。徐熙的高明之处，在于他迅速窥破了契丹用兵的真意所在：不是为占据领土，而是意在切断丽宋间的同盟关系，使之臣服于己，解除攻宋后顾之忧。徐熙外交谈判的成功，还在于他对当时国际局势的准确把握和所具备的外交敏锐力。同时也反映出当时高丽在外交上所采取的现实主义和实利主义政策。

朱晓乐的硕士学位论文《高丽与我国辽金王朝外交关系略论》（中央民族大学，2004），对徐熙的与辽交涉也有所评论。他认为，由于徐熙出色的外交才能和成功的斡旋，高丽虽然在军事上失败，但在外交上却取得了奇迹般的胜利。徐熙的求和，不仅换来了辽圣宗的罢兵，而且高丽随后向辽“奉表请罪”的外交态度，更使辽看到了高丽臣服于己后丽宋联盟将分别离析成为现实的可能。为实现这一战略意图，辽朝同意了徐熙的要求，让女真成了这场交易的牺牲品，“诏取女真鸭绿江东数百里地”赐与高丽。高丽“荡平”鸭绿江左岸女真，在江东修筑了6座城池，史称江东六州，不仅将西北边界扩展到鸭绿江边，还获得了进一步北进的重要据点。可以说，这是高丽利用两强争霸之间的利害冲突而取得的实利主义外交的一大成果，但也为辽后来的两次入侵埋下了伏笔。金、朱二君的观点，基本上代表了比较主流的看法。如张莹莹的硕士学位论文《论辽丽战争与辽丽宋三国的政治关系》（延边大学，2010），王贵竹的硕士学位论文《试论十至十一世纪辽与高丽在大同江以北地区的争夺》（延边大学，2010）等，就持有类似的想法。

由吴于廑、齐世荣主编，当今风行中国大陆的大学历史系专业教材，已重印20多次的《世界史·古代史编》下卷（北京：高等教育出版社，1994年，第41页），却对徐熙的与辽交涉及其成果做出了有悖事实，令人费解的评述：“993年，契丹数十万大军进攻高丽。高丽军民在爱国将领徐熙的领导下奋起抵抗，给入侵者以有力的打击。但是怯懦的统治者坚持议和，接受屈辱的议和条件，承认契丹（辽）为上国，高丽为其属国，每年纳贡六次，并与一向友好的宋朝断绝盟交关系。”

郑川水《辽圣宗及辽与高丽藩交考略》（《辽宁大学学报》，2003年1期）文，因立场和视角的不同，对徐熙与辽交涉活动的评价，则持批评态度，他写道：著名外交家徐熙向辽朝提出了割让鸭绿江女真聚居地领土的要求。徐熙竟然把开元二十三年唐与新罗“分界而治”的溟江以北鸭绿江女真聚居区，界定为“高句丽旧地”，把高丽单方面擅自破坏开元乙亥“分界而治”界约称为“还我旧地”。徐熙一再声言：“朝聘之不通，女真之故也。若令逐女真，还我旧地，筑城堡，通道路，则敢不修聘。”（《高丽史节要》卷2）面对涉及国家领土完整、边界主权的的外交原则问题，辽圣宗却丧失国格，发布“取女真鸭绿江东数百里地赐之”的诏书，这是辽圣宗在处理与邻邦藩属高丽王国外交关系决策失误的集中表现，终于导致了有

辽一代与高丽边界纷争矛盾的激化，给两国无辜民众带来了战火浩劫，也破坏了东亚和平安宁的稳定局面。

六、宋辽丽三国关系及高丽外交政策研究

关于宋辽丽三国关系研究，陶晋生《宋辽关系史研究》（北京：中华书局，2008）一书第七章有专题论述，很是精彩，也最有影响。陶氏认为，宋、辽与高丽三国间的外交关系，是以高丽为宋辽两国共同争取的对象。在这一竞争中，辽因其武力较强，亦占有地利，故在这一竞争中取得上风。至于高丽，因其与辽有边境之邻，故不得不屈从辽的压迫，不得不接受辽的册封。但因高丽的外交利害与宋相同，故不忘与宋联系，欲与宋结成犄角之势以制契丹。而宋为抗衡契丹，也有人主张联丽抗辽。但因宋、丽两国单边与辽的关系在不同时期都有所变化，这就使得两国难以结成真正的军事同盟，对辽采取一致的行动。故终北宋之世，宋、丽多为文化及经济上的联系，而外交上很难有进一步的发展。

张莹莹硕士学位论文《辽丽战争与辽丽宋三国的政治关系》（延边大学，2010）第四章，论述了辽丽战争之后辽丽宋三国对外关系的变化。认为辽丽战争之后，高丽成为辽朝的藩属国，辽朝达到征服高丽的目的，从而转变了前此敌对的对外政策，与高丽总体上保持了和平的外交关系。迫于辽的军事压力，高丽与宋的朝贡关系曾一度断绝。四十余年后，两国恢复朝贡关系，但此时丽宋关系却发生本质变化，不再具有政治臣属的意义。而辽宋两国则在辽丽战争期间，签订了“澶渊之盟”，自此之后，宋辽关系即由对立战争转变为和平往来。同时，宋朝也在不同时期制定实施过“联丽制辽”的政策。不过，收效不大。

至于高丽的外交政策，论者多以“事大主义”、“实利外交”来评议。如朱晓乐硕士论文《高丽与我国辽金王朝外交关系略论》（中央民族大学，2004）认为，总体上来说，高丽与北方游牧民族的交往，是迫于其武力的被动交往，其对外关系带有一定的消极性、被动性和局限性。但是，消极中也带有灵活性。当局势尚不明朗时，高丽采取的是较为中立的外交路线；当三国角逐出新的霸主和局面稳固时，高丽便选择“事大”的外交路线，在“事大”的名义下推行实利外交；当关系到国家安危存亡的重大时刻，高丽便不惜牺牲部分主权和利益，委曲求存。

吕英亨《高丽王朝与辽、宋政治关系之比较》（《东岳论丛》，2004年6期），在比较宋辽丽三国政治关系的基础上，评论了高丽“以小事大”的外交国策。她说，通过高丽王朝对宋、辽派遣使节的频率、内容、地位及高丽对这两个王朝的外交政策等方面的比较，可以发现高丽王朝处理与周边国家关系的基本理念，就是始终奉行“以小事大”的外交原则。高丽

在辽朝的武力征服和威胁下，不得不向其称臣。同时又对中原文明怀有深刻的文化认同感。但这种文化认同感又不得不屈从于实力对比。

王贵竹硕士学位论文《试论十至十一世纪辽与高丽在大同江以北地区的争夺》（延边大学，2010），也有类似的想法。

七、关于高丽“二元”朝贡体制的研究

大家知道，辽通过几次战争武力征服高丽之后，在宋辽丽三国关系中，形成了高丽对辽、宋同时朝贡的所谓“二元”朝贡体制。韩国学者全海宗在其《韩中关系史研究》中认为，高丽对辽金元的朝贡，是古代韩中朝贡关系的变质（全海宗：《韩中关系史研究》，首尔：一潮阁，1974年，第46页）。韩国另一位学者徐荣洙教授曾对所谓“朝贡关系”的概念加以界定，认为：“一般来说，典型而实质的朝贡关系，是以政治臣属为前提，这一点见于历法或年号的采用，以象征和表示从属关系。随之是内政干涉及仪礼关系的建立，继而是宗主国向从属国收取方物的要求，甚至成为后者负担的一种经济关系。”（徐荣洙：《三国和南北朝交涉的性格》，载檀国大学东洋学研究所编：《东洋学》第11辑，1981年，第78页）。中国学者魏志江以徐教授的观点为基础，对辽宋丽三国关系中形成的“二元”朝贡体制进行了较为深入的探讨，揭示了辽宋丽三国关系的本质及中韩关系的时代特征，很有代表性。他认为，辽丽朝贡制度是一种以政治上臣属关系为前提的实质朝贡关系。尽管如此，辽丽两国也存在一些国际交往中的平等因素，如两国互贺生辰、正旦、吊祭、慰问等。但从辽丽两国关系的本质而言，辽丽朝贡体制确立的过程，也就是辽在高丽逐步确立其宗主权的过程。因辽丽朝贡体制具有不平等性，所以辽只能依靠强大的政治和军事力量来维系，故宋人所谓高丽“为强虏所迫”，“北虏之强暴，徒以力制其外也”（〔宋〕徐兢：《宣和奉使高丽图经》，卷40），可谓一语道破辽丽关系的本质。但由于宋朝和高丽两国各自对辽政策演变趋势相异，因而始终未能达成对付契丹的军事联盟。在辽宋丽三国关系中，宋朝基本上是实行“联丽制辽”的政策，但高丽却对辽、宋两国奉行“二元”朝贡的体制。在这一朝贡体制的规范下，辽取得了东亚国际秩序的中心地位。因此，辽宋丽三国关系时代是中韩关系史上一个重要的转型时期，即高丽从传统的以臣属关系为前提的对中原汉族王朝的朝贡，开始演变为对中国北族王朝——辽金元的朝贡（魏志江：《中韩关系史研究》（广州：中山大学出版社，2006年，第51~54页）。魏先生的观点为不少学者所承用，从张莹莹等人的学位论文中都可以看出这一点。

杨军、王秋彬先生的《中国与朝鲜半岛关系史论》（北京：社会科学文献出版社，2006）

一书，对中韩宗藩体系确立的标志和时间也有论述，认为宗藩体系确立的标志应是稳定的、制度化的朝贡关系。按照这一标准，在辽中期以前，无论是中国与高丽之间，还是契丹与高丽之间，还都不曾存在制度化的朝贡关系，从辽代中期，也就是公元 11 世纪开始，辽朝才与高丽步入成熟的宗藩体系中。杨军在另一篇论文《东亚封贡体系确立的时间——以辽金与高丽的关系为中心》（《贵州社会科学》，2008 年 5 期）说得更为明白，认为辽丽之间制度化册封朝贡关系的确立，是在几次大规模辽丽战争之后，其性质属于封贡体系内宗主国与朝贡国的关系。在中韩宗藩关系的研究方面，香港学者黄枝连的《东亚的礼义世界——中国封建王朝与朝鲜半岛关系形态论》（北京：中国人民大学出版社，1994），大陆学者李云泉在其博士论文基础上完成的专著《朝贡制度史论——中国古代对外关系体制研究》（北京：新华出版社，2004），亦各具特色。

结 语

尽管中国学者在本专题以至整个中韩关系史研究领域取得了一定的成就，但研究中的不足也是明显的。突出的问题是，不少论著重视史实的整理叙述或考证，综合的理论分析与归纳则略显薄弱。譬如说，通史类的著作往往是按朝代依次介绍中国与朝鲜半岛间的重大历史事件，断代史类的著作往往采用类似于编年体史书的叙事方法，以时间为线索细致地梳理相关事件的材料和过程等。当然这种状况也正在改变，魏志江、杨军等人的论著就是例证。还有，除部分学者外，有些中国学者不懂韩语，和韩国学界的交流少或者根本没有交流，对外界的研究动态和成果不够了解，也影响到他们研究的进一步深入。最后要说的是，笔者接触本专题时间不长，学术积累还十分有限，资料的收集可能很不齐全，也未能一一细读，以上的综述介绍难免挂一漏万，错漏和不当之处，敬请各位同好批评指正。

后附笔者：《韩国华出使高丽问题考辨》

韩国华出使高丽问题考辨

——兼论郑麟趾《高丽史》的一处错误

郭天祥 中国 湛江师范学院

刘强《韩国华出使高丽及其影响》一文提出一些新看法：一是认为韩国华奉命出使高丽，请求高丽出兵配合宋二次北伐契丹的时间，不是雍熙三年（986），而是“雍熙二年”；二是征引《金石萃编》所收宋人富弼撰写的《韩国华神道碑》文字，来证明“韩国华以其出色的外交才能，完成清廷所付使命”，最终说服高丽国王，出动“数万”大军，“进入辽国境内”；三是认为韩国华此次出使对“高丽历史命运和对外关系产生了深远影响”。¹⁾但在笔者看来，刘文虽有“新意”，而其结论却实难令人苟同。兹就刘文涉及的几个问题，以及与刘文论据相关的郑麟趾《高丽史》的一处错误，试做分析辨正，以就教于刘强先生及各位同好。¹⁾

1、韩国华出使高丽的时间

关于韩国华出使高丽，请求高丽出兵配合宋王朝二次北伐契丹的时间，《宋史》卷 487《高丽传》系于雍熙三年（986），郑麟趾等人撰修、景泰二年（1451）成书的《高丽史》卷 3 则系于“成宗四年”（985）“五月”条下。刘文对韩国华出使高丽时间的考订，把较多的笔墨放在了对一些相关资料记载的分析推断上，直接而又非常过硬的证据并没有列举出来。当然，刘文也不是完全没有拿出“证据”，正如刘文所说：“韩国华雍熙二年出使高丽，并不只《高丽史》一处记载。清人毕沅《续资治通鉴》卷 12、吴乘权《纲鉴易知录》卷 65，都系此事于雍熙二年。”²⁾

不错，撰修于朝鲜李朝时期的《高丽史》是记述高丽王朝历史的一部重要典籍，具有较高的史料价值，在考订一些相关问题时，当然可以参考。但它毕竟成书于 1451 年，撰修较晚，征引时最好还是和成书较早，公认可信的文献记载相互参证一下可能会更稳妥些。至于搬出清人毕沅《续资治通鉴》、清人吴乘权《纲鉴易知录》这样的文献资料来作证据，恐怕要贻笑大方了。中国现代著名目录文献学家黄永年先生在评介《续资治通鉴》时说过：“要

1) 刘强：《韩国华出使高丽及其影响》，《文史哲》，2000 年 6 期。

2) 刘强：《韩国华出使高丽及其影响》，《文史哲》，2000 年 6 期。

一般了解宋元历史的大概，读这书还是可以的，因为还没有更好的宋元两代的编年史，但绝对不能像《通鉴》的唐五代部分那样作为史料加以引用，不能用它来考订史事。”³¹因为宋元人记录有宋一代史事存世的第一手文献典籍多得是。至于《纲鉴易知录》，则更是与作者吴乘权编纂的《古文观止》一样，是过去村塾里备用的通俗读物，虽很风行，但从学术上来讲，则“太俗陋”，亦“无价值”，故而“《四库全书》不予著录或存目”。⁴¹也根本不能当史料来征引。²

其实，要搞清楚韩国华出使高丽的确切时间并不难，只要查一查宋代的有关文献典籍即可解决。可惜刘强先生对宋代第一手文献资料并未翻检利用。南宋人编纂的《宋大诏令集》卷23就收有《北伐遣使谕高丽诏》全文，明确标注此诏书颁布的时间为“雍熙三年二月癸卯”，诏书正文末尾亦有“遣监察（御）史韩国华赍诏以谕之”的话语。⁵¹

北宋钱若水等撰修的宋《太宗皇帝实录》卷35，更是详尽记述了韩国华出使高丽的背景、所携宋太宗“赐高丽国王诰诏”书的内容、颁布时间等，和《诏令集》所记时间完全相合。兹节录如下：

雍熙三年春正月，……上将北征，以天平军节度使曹彬充幽州道行营前军马步水陆都部署，……彰化军节度使米信充幽州西北行营马步军都部署，……静（靖）难军节度使田重进充定州路行营马步军都部署，……二月，癸卯，赐高丽国王诰诏，曰：朕诞膺丕构，奄宅万方，草木虫鱼，罔不蒙泽，华夏蛮貊，罔不率俾。蠢兹北虏，敢拒皇威，倔强沙漠之中，迁延岁月之命。幽薊之地，本被皇风。向以晋汉多虞，戎丑因而盗据。……今已董齐师旅，殄灭妖氛，元戎起行，分道间出，即期诛翦，一灰混同。惟王久慕华风，素怀明略，输此忠勤之节，抚兹礼仪之邦，而接此犬羊，困于蜚毒。舒泄积愤，其在兹乎？便可申戒师徒，相为掎角，叶比邻国，同力底平，夺（《宋大诏令集》、《高丽史》作“奋”，当是。笔者注）其一鼓之雄，勘此垂亡之虏。良时不在，王其图之。应虏获生口、牛牛、财物、器械，并给本国将士。遣监察御史韩国华赍诏谕之。高丽西与契丹接壤，常为虏所侵，上知之，故降是诏。⁶¹

南宋学人，参与编撰《西山图经》、《九域志》等典籍，精熟历史掌故的李攸，在《宋朝事实》卷20亦将韩国华出使高丽事系于雍熙三年，其谓：

31 黄永年：《史部要籍概述》（南京：江苏教育出版社，2008年），第68-69页。

41 黄永年：《史部要籍概述》（南京：江苏教育出版社，2008年），第72页。

51 《宋大诏令集》卷23，（北京：中华书局），1962年，第924页。

61 北宋钱若水等撰修：宋《太宗皇帝实录》卷35雍熙三年正月、二月条。

雍熙三年，大发师，以天平军节度曹彬为幽州行营前军都总管，出涿州。河阳节度崔彦进副之；马军都指挥使米信为幽州西北道行营都总管，出云中。代州观察杜彦圭副之；步军都指挥使田重进为定州路行营都统，出飞狐口。……是时，权知高丽国王治，遣使修贡京师，帝以王师北征，其国与契丹接境，常为其所侵，乃命监察御史韩国华，假太常少卿，往使其国，降诏谕之。⁷⁾

和韩国华之子，北宋名相韩琦有密切交往的文人尹洙，在所撰《韩国华墓志铭序》中亦有“雍熙元年迁监察御史。三年，假太常少卿使高丽，还拜右拾遗直史馆，赐五品服”的记述。⁸⁾

以资料丰富翔实，考订精审而著称，且早于《宋史》成书的元人马端临的《文献通考》卷325《四裔二·高句丽》篇，亦将宋“遣监察御史韩国华资诏”，谕高丽“出兵大攻”契丹事系于雍熙三年。⁹⁾

不仅诸多公认可信的宋元公私文献，都把韩国华出使高丽事系在雍熙三年（986），而且我们从韩国华所携诏书的文字里，也能找到其出使时间确在雍熙三年亦即成宗五年的内证。包括刘文在内，谁也不否认宋太宗第二次出师北伐是在雍熙三年，因为在宋《太宗皇帝实录》、《续资治通鉴长编》、《宋史·太宗本纪》雍熙三年正月条里，都有宋二次北伐如何决策、如何命将、以及分道出兵的详细记载。《太宗实录》卷35雍熙三年二月丙午日，更有宋太宗“宴近臣于长春殿，钱幽州道（都）部署曹彬等”出征将领，为他们送行的文字记载。这些第一手的文献记载，正与韩国华所携诏书中“今已董齐师旅，殄灭妖氛，元戎起行，分道间出”的情形完全吻合。¹⁰⁾试问，在宋《太宗皇帝实录》、《续资治通鉴长编》、《宋史·太宗本纪》“雍熙二年（985）”条，甚或《辽史·圣宗本纪》“统和三年（985）”条里能找出与宋“董齐师旅”，“元戎起行，分道间出”北伐契丹相对应的史实吗？显然不能。因为根本不存在。这更证实韩国华出使高丽的时间确在雍熙三年，而不是如刘文所说在雍熙二年。

再次，刘文论证的韩国华“雍熙二年出使高丽”，以及雍熙二年夏高丽已出兵“进入辽国境内”的结论，实际上与韩国华出使高丽的目的使命也是相矛盾的，难以自圆其说。宋遣韩国华出使高丽，请求高丽出兵的目的，在韩国华所携诏书里说得很明确，就是要求高丽在宋二次北伐契丹期间，能够开辟东线战场，配合宋军西线战场，使两国军队“相为犄角……

7) 李攸：《宋朝事实》卷20（北京：中华书局），1955年，第321页。

8) 尹洙：《河南先生文集》（上海：上海书店），1989年，第4页。

9) 马端临：《文献通考》卷325《四裔二·高句丽》（北京：中华书局），1986年，第2558页。

10) 《宋大诏令集》卷23、宋《太宗皇帝实录》卷35、以及郑麟趾《高丽史》卷3“成宗四年”“五月”条里都有这几句话。不过，我看到的韩国亚细亚文化出版社1990年版影印本《高丽史》，把“殄灭妖氛”之“殄”，误作“殆”字，明显错了。

11) 《宋大诏令集》卷23、宋《太宗皇帝实录》卷35、郑麟趾《高丽史》卷3“成宗四年”“五月”条。

同力底平，奋其一鼓之雄，勘此垂亡之虏”。¹²⁾ 打败甚至灭掉契丹。稍有军事常识的人都知道，打仗最怕的就是分散兵力，陷于两面作战，腹背受敌，首尾难顾。而此次宋遣韩国华联丽攻辽的目的，也正是为了分散契丹的兵力，迫使其两面作战，从而减轻西线战场宋军的压力，增大打败契丹的胜算。这一点，在尹洙所撰韩国华《墓志铭序》中说得很清楚：“雍熙中，王师北伐，闻高丽与契丹尝为仇怨，会（命）公谕旨，以分敌势。”¹³⁾ 不仅如此，当初选派韩国华出使高丽之时，宋太宗赵匡义在庙堂之上，也把这个意图说得再明白不过，北宋大外交家富弼所撰《韩国华神道碑》文记其事曰：“天子议复燕蓟，揣庭臣曰：‘安得勇而善辞令者，为我谕高丽出兵西攻契丹，以分其力，则吾事可不劳而集’。”¹⁴⁾ 如若刘文前述结论能够成立，试想，高丽军队雍熙二年夏已进入契丹境内，宋二次北伐契丹的战事，却迟至雍熙三年春才打响，这样的话，宋丽东西两个战场能起到分散契丹兵力，协同配合的作用吗？显然不能！搞得不好，反倒给对手提供了各个击破的机会，这正是兵家之大忌。所以说，刘文的结论，不仅与史实不符，也极不合乎情理，无由成立。⁴

这样说来，关于韩国华出使高丽的时间，不仅刘文的结论错了，《高丽史》的相关记载也有问题。以笔者见到的韩国亚细亚文化社 1990 年版《高丽史》为例，撰修者确实是误将成宗四年(宋雍熙二年，985)“夏五月，宋遣太常卿王著，秘书监吕文仲来加册王”事，和成宗五年(宋雍熙三年，986)春“宋将伐契丹……遣监察御史韩国华赍诏来谕”这两批不同年份派出的不同使团，统统系在了成宗“四年夏五月”条下。¹⁴⁾ 这就误导了包括刘强在内的一些学者。实际上，不仅刘强被误导，中国方面研究中韩古代关系史颇有影响的学者杨通方等人亦受《高丽史》误导，把韩国华出使高丽的时间系在了“985 年 5 月”。¹⁵⁾ 其实，关于宋王朝雍熙二年和雍熙三年这两批出使高丽使团的事情，在资料性最为原始的宋《太宗皇帝实录》卷 32、卷 35 都有明确的记载。如《太宗实录》卷 32 雍熙二年条：“（正月）甲戌，制加高丽国王治检校太傅。……（二月）壬午，以翰林侍书、左拾遗王著，翰林侍读、著作郎吕文仲使高丽。”王著、吕文仲二月受命，五月抵达高丽，顺理成章，毋庸置疑。至于卷 35 雍熙三年二月条记韩国华出使高丽事，前已征引，兹不重复。熟悉中国历史文献学的人都知道，中国皇帝《实录》的史料价值，尤其是其记事记时的可信度是非常高的（其政治倾向性除外），因为中国古代的史官制度十分健全，朝中的史官要逐日记录皇帝的言行以及国

12) 尹洙：《河南集》卷 16，文渊阁《四库全书》影印本（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9 年，第 1090 册第 90 页。

13) [清]王昶编纂：《金石萃编》卷 135，（西安：陕西人民美术出版社影印本），1990 年。

14) 郑麟趾：《高丽史》卷 3“成宗四年”“五月”条，（首尔：亚细亚文化出版社），1990 年，第 69 页。

15) 杨通方：《中韩古代关系史论》，（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1996 年，第 75 页。

16) 韩琦：《安阳集》卷 35《修仁宗实录毕乞不推恩》文，文渊阁《四库全书》影印本（上海：上海古籍出版社），第 1089 册第 420 页。

家发生的大事，编写成“起居注”，或曰“日历”、“时政记”之类，¹⁶⁾存之史馆。史官当时记下的这些原始资料，就成了老皇帝去世后新皇帝给老皇帝撰修实录的主要依据，而钱若水等人在宋至道三年（997）宋太宗去世的当年，即奉诏撰修《太宗皇帝实录》，其时宋太宗一朝的原始史料是保存得非常完好的。虽然今传《太宗实录》已是残本，但其中记述雍熙初年史事的第31~35卷，尚属完好，而且是“南宋馆阁写本”，即南宋“理宗朝重录之本”，¹⁷⁾非常珍贵，也很可靠。所以，《太宗皇帝实录》对韩国华出使高丽时间的记述是不会有问题的。《宋史》卷487《高丽传》依据《太宗实录》等史料，把王著、吕文仲与韩国华两批出使高丽的不同使团，分别系于雍熙二年（高丽成宗四年，985）和雍熙三年（高丽成宗五年，986），是完全正确的。郑麟趾《高丽史》显然是把雍熙三年韩国华出使高丽事，和上一年王著、吕文仲出使高丽事混在一起了。

2、宋二次北伐契丹，高丽是否应约出兵配合？

刘文的结论是，有过实质性的出兵配合。刘文写道：“韩国华于雍熙二年出使高丽，宋廷对他出使的预期是使高丽能出兵境外，使辽在未来与宋的作战中有后顾之忧，起到牵制辽国的作用。高丽在犹豫迁延之后，最终奉诏，结集了数万人的军队，进入辽境。韩国华圆满完成使命，其出使是成功的。”¹⁸⁾

刘文得出上述结论的依据，是宋人富弼撰写的《韩国华神道碑》文，此碑文后来收入清人王昶编纂的《金石萃编》卷135，其文曰：

公驰舸至其国，其王负固，不时奉诏。公坐馆舍，遣王书，责以慢命。且称：朝廷威德之盛，诸僭伪悉已擒灭，遂欲北取故疆，以雪晋耻。而委王以方面者，其意不已重乎？……今若不勉，天子怒，一日大兵东出，先诛不用命者，如决海灌燔火，王其无悔。王大恐，奔走率职。明日，遣大相韩光、元辅赵（刘文引文缺“赵”字）抗，领兵数万，度溟江（大同江）以侵契丹，且令光等率诸将诣馆门听命。公待以陪臣礼，为指画方略，稍勒而慰遣之。师期未集，公又累与王书，奖激善励，使不得少懈。复问曰：深入攻之耶？姑挑战也？王报曰：已深入矣！公得其肝胆，遂复命。¹⁹⁾

其实，这只是碑文的一面之词，因为在《高丽史》、《辽史》以至《宋史》中都找不到高丽攻入契丹的任何佐证，其真实性很值得怀疑。我们知道，高丽和辽，都是深受汉文化影响的王朝，他们修史的体例内容，也是效仿中原王朝的史书范式，毫无二致。汉文化中的“国之大

17) 黄永年：《史部要籍概述》（南京：江苏教育出版社，2008年，第75页。

18) 刘强：《韩国华出使高丽及其影响》，《文史哲》，2000年6期。

19) 王昶编纂：《金石萃编》卷135，（西安：陕西美术出版社影印本），1990年。

事，在祀与戎”的理念，他们的史家也不会不知。再说，出动数万大军，攻入辽境，已属大规模的军事行动，在丽、辽两国史籍中不可能不写上一笔。实际上，不但在《辽史》、《高丽史》中看不到高丽大军攻入辽境，吸引契丹兵力，减轻西线宋师北伐压力的记载，相反，在《辽史·圣宗纪二》统和四年（宋雍熙三年，高丽成宗五年，986）条里，我们倒能看到，当雍熙三年三月，宋二次北伐战争在西线正式打响以后，辽不断从紧邻高丽边界的东线急调原征女真的兵马，增援西线。这个事实，恐怕正是高丽没有出兵会攻契丹的反证。请看《辽史·圣宗本纪》卷11“统和四年（986）”的记载：⁶

（三月）辛巳，宋兵入涿州。顺义军节度副使赵希赞以朔州叛，附于宋。时上与皇太后驻兵驼罗口，诏趣东征兵马以为应援。壬午，诏林牙勤德以兵守平州之海岸以备宋。……（四月）戊申，……又诏两部突骑赴蔚州，以助讨伐。……将军化哥统平州兵马，横帐郎君奴哥为黄皮室都监，郎君渴里为北府都监，各以步兵赴蔚州以助斜轡。²⁰⁾

这里提到的“林牙勤德”和“（萧）阔览”，²¹⁾都是统和三年秋至四年初，契丹东征女真的主将，这时候都调到西线对付宋军来了。

其实，刘文所引富弼所撰碑文的问题还不止此。譬如说，碑文中提到的“领兵数万，度沮江以侵契丹”的“大相韩光、元辅赵抗”二人，从他们的官衔来看，其地位应该十分显赫，高丽方面的史书里不可能不记载其人其事。但翻检郑麟趾《高丽史》，却查无其人。限于条件，笔者检读韩国史籍极少，不敢妄断。幸蒙友人、韩籍历史学者李椿浩博士见告，高丽史书中确无“大相韩光、元辅赵抗”二人。当然，这样说，并不等于富弼所撰碑文里讲了假话。最大的可能是，在韩国华的一再威逼胁迫下，高丽王治不得不做了一些应付场面的虚假姿态，让韩国华信以为真。因为高丽王治本来就对宋要高丽出兵会攻契丹的请求顾虑重重，采取“迁延不发兵”的消极态度，²²⁾不愿轻易冒险去挑战实力强大且富于侵略性的近邻契丹，惹祸上身。

既然高丽并未真正出兵会攻契丹，那么刘文所谓韩国华出色的“完成清廷所付使命”的评价也就无从谈起。至于韩国华出使高丽，对“高丽历史命运和对外关系产生了深远影响”云云，²³⁾似更有夸大拔高之嫌，背离事实。⁷

参考文献

- 20) 《辽史》卷11《圣宗本纪》（北京：中华书局标点本），1974年，第120-121页。
21) 《辽史》卷10、卷11《圣宗本纪》（北京：中华书局标点本），1974年，第115-119页。
22) 郑麟趾：《高丽史》卷3“成宗四年”“五月”条（首尔：亚细亚文化出版社），1990年，第69-70页。
23) 刘强：《韩国华出使高丽及其影响》，《文史哲》，2000年6期。

- [宋] 李焘：《续资治通鉴长编》（北京：中华书局标点本），1979 年。
- [宋] 钱若水等撰：宋《太宗皇帝实录》（四部丛刊三编）（上海：商务印书馆），1936 年。
- [宋] 佚名编纂：《宋大诏令集》（北京：中华书局），1962 年。
- [宋] 李攸：《宋朝事实》（北京：中华书局），1955 年。
- [宋] 尹洙：《河南先生文集》（上海：上海书店），1989 年。
- [元] 马端临：《文献通考》（北京：中华书局），1986 年。
- [元] 脱脱：《宋史》（北京：中华书局标点本），1985 年。
- [元] 脱脱：《辽史》（北京：中华书局标点本），1974 年。
- [清] 纪昀等编纂：《四库全书》（上海：上海古籍出版社影印本），1989 年。
- [清] 王昶编纂：《金石萃编》（西安：陕西美术出版社影印本），1990 年。
- [朝鲜] 郑麟趾：《高丽史》（首尔：亚细亚文化出版社），1990 年。
- 黄永年：《史部要籍概述》（南京：江苏教育出版社），2008 年。
- 杨通方：《中韩古代关系史论》（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1996 年。
- 刘强：《韩国华出使高丽及其影响》，《文史哲》，2000 年 6 期。

2

토론

郭天祥, [10~12세기 東北亞 정세와 宋麗、遼麗 관계에 대한
중국학자들의 연구동향] 및 郭天祥, 〈韓國華出使高麗問題考辨〉의
2편의 논고에 대한 토론

이강한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郭天祥, '10~12세기 東北亞 정세와 宋麗·遼麗 관계에 대한 중국학자들의 연구동향' 및 郭天祥, 「韓國華出使高麗問題考辨」의 2편의 논고에 대한 토론

이강한(한국학중앙연구원)

(고려시대의 전,중기에 해당하는) 10~12세기의 동아시아 국제관계사를 대상으로, 이 분야 중국 학자분들의 연구를 소상히 소개하신 본 논고를 대단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특히 기성 연구자분들의 성과 외에 최근에 발표된 연구도 다수 소개돼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당시의 국제정세를 '송, 고려, 여진 세력' 및 '기란과 서하 세력' 간의 대치상태(김위현)로 보는 것에 대한 선생님의 비판(4쪽)에는 토론자인 저도 별 이견이 없습니다만, 중국학계에서는 '서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학계의 경우 송, 고려, 기란 또는 송, 고려, 여진에 대한 주목하는 한편, 서하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에서 탕구트족의 서하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여쭙는 바입니다.
2. 고려와 송이 지니고 있던 '서로 간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왕안석의 변법이 실시되었을 당시에는 고려와 연합하려는 북송의 전략적 시도가 성공했다'고 보시는 듯한데(5쪽), 어떤 점에서 그리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齊康允 선생님의 경우 '송조는 초기에 비교적 강력하게 고려를 관리했다'고 하신 것으로 나오는데(5쪽), 그 '관리'의 맥락이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朴令海 선생님의 경우 고려가 송에 '稱臣納貢'한 것은 중원 문물의 수입(a) 외에도 북방 이적인 요와 여진을 견제(b)하기 위함이었다고 보셨는데(6쪽), 선생님께서 어떤 요인이 더 컸을 것이라 보시는지 또한 여쭙고 싶습니다.
3. 蔣戎 선생님의 경우 고려가 조공로 구축을 위해 여진인들을 내쫓은 것이 이후 요에 커다란 후환으로 작용했다고 보았고(7쪽), 鄭川水 선생님의 경우 요의 정책적 실수로 인해 변강 여진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이 계속 전쟁상태에 빠지들었다고 보았는데(8쪽), 당시 압록강 주변지역의 여진인 관리에 고심하고 있던 기란 요로서는, 고려가 압록강 인근지역의 여진을 소탕함으로써 오히려 '도움'을 얻은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서하와 소촌녕(소향덕) 사이에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던 연유 역시 그와 관련해 생각해 볼 만하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4. 王貴竹 선생님의 연구에 대한 설명(8쪽)에 등장하는, (고려가 파괴했다는) '界約'이 '형성된 시점'은 언제로 보시는지, 그리고 요의 통치자들이 '생경해' 했다는 '대동강 이북 지역의 역사적인 연원'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5. 선생님께서 중국 학자분들의 연구를 정리, 소개하시는 과정에서 '麗國'(9쪽), '藩屬'(9쪽), '宗藩體制'(12쪽) 등의 용어들을 거론하고 계십니다. 중국학계에서 이 용어들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6. '송 사신 韓國華의 고려 出使 시점'에 대한 劉強 선생님의 주장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고려군이 실제로 출병했다'는 유강선생님의 주장에 대한 선생님의 비판에는 저 또한 동의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연도' 부분은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려사>에는 그 연도가 '985년'이라 기록해 있는 반면, <宋太詔集>이나 (宋) <太宗皇帝實錄> 등에는 그 연도가 '986년'이라 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려사>의 경우 985년조의 기록에는 5월과 10월의 기사만, 그리고 986년조의 기록에는 1월, 3월, 9월조 기사만 남아 있어, 대단히 불완전한 상태의 기록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려사 관자의 확대로 985년과 986년의 사적들이 한 군데에 함께 기록(오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고려사>의 986년 기록을 신빙하기 어렵다는 선생님의 주장에도 동의가 되는 바입니다. 다만 다른 중국측 사료들, 예컨대 <속자치통감>이나 오승권의 <綱鑑易知錄> 등에서는 왜 오류가 발생한 것인지(선생님의 주장에 따르면) 궁금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사료비판을 해 놓으시긴 했지만, '그 외의 자료가 많다'거나 '내용이 전부하다'는 것을 해당 사료를 인용, 활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두 사료의 한국화 관련 언급이 오류임을 (내용이 충돌하는 다른 중국측 자료 보다는)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논증하거나, '또 다른 가능성'을 상정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려사>에는 985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송 사신들이 고려를 내방한 것으로載 있습니다. 大常卿 王著와 秘書監 呂文伸이 와서 고려왕을 책봉한 일, 그리고 한국화가 와서 군사적 협력을 요청한 일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후자, 즉 한국화의 방문사실을 기록한 기사는 엄밀히 말하면 다시 '2개의 단락'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송 태종황제실록에 나타난 바와도 같은, 송이 '군사적 제휴(협력)를 요청'하고 고려가 '그에 화답'하는 부분이라면, 다른 하나는 고려정부가 '(고려가) [송이 아닌] 거만과 통한다'는 여진 쪽의 무고에 대응하고자 송 사신 한국화에게 고려정부의 입장을 적극 해명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두 가지 일 모두 동일시점에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 대목에서, 일찍이 984년 5월 송에 파견되었던 고려사신 韓逢齡의 이름이 거론되었음이 주목됩니다. 일찍이 한수령이 송을 방문했을 당시 송 황제가 여진의 말을 듣고 고려정부에게 여진인 포로를 풀어주라 지시했다는 대목에서 그가 등장합니다(고려국왕은 그러한 지시를 듣고 걱정하다가, 한국화가 오자 자신의 입장을 적극 해명했다고載 있습니다).

즉 '여진의 음해와 고려의 곤경'은 984년과 985년 지속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만을 치기 위한 송의 군사적 협력 요청'은 물론 무관한 사안이긴 하지만 엄연히 별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국화의 고려방문이 송 실록에 나온 것처럼 986년에 있었던 한편으로, 그 전해인 985년에도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한국화가 985년과 986년 두 해에 걸쳐 고려를 '1회'가 아닌 '2회' 방문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선생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7.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기존 중국 학자분들의 연구' 및 '최근 발표된 신연구'를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과연 어떤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라 보시는지, 견해를 여쭙는 바입니다.

3

고려왕조와 요의 제1차 전쟁 연구 (辽与高丽王朝的第一次战争研究)

신우량(申友良)
(담강사범대학 교수)

第一次 遼麗戰爭에 관한 研究

著:申友良 譯:李梅浩

- I. 戰爭의 起因: 쌍방의 영토 확장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 II. 戰爭의 經過: 遼는 '來勢凶猛'으로 連戰連捷을 노렸지만, 高麗는 '一觸即潰'하여 눌었으나 위협에 처하지 않았다
- III. 戰爭의 規模: 遼麗의 군사제도·군사세력·병력배치 그리고 전략전술
- IV. 戰爭의 性格: 遼가 강역을 침식·침탈한 敵에 응당한 懲罰을 가하고 있는 것은 疆土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었다
- V. 戰爭의 影響: 遼는 '先小勝而後大敗'한 이후 망으로 平和를 마쳤다면, 高麗는 '先小敗而後大勝'한 이후 '稱臣'으로 망을 마쳤다
- VI. 遼가 疆域으로 고려의 臣服을 바꾼 이유: 宗主國의 代價
- VII. 結論

992년 12월에 발발하여 그 이듬해 2월까지 계속된 遼麗戰爭은 양국 간의 첫 번째 전면전으로, 10세기 동북아 지역에 심각하고 거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 전쟁의 발발 원인과 성격 등에 대하여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그렇게 상세하게 언급되었던 것 같지 않다. 이 전쟁이 한반도의 외교영웅 서희와 직접 관련된다는 점에서, 본 글에서는 전쟁의 발발 원인과 성격, 그리고 쌍방의 군사적인 책략 등과 관련하여 비교적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I. 戰爭의 起因: 쌍방의 영토 확장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992년 12월 遼聖宗은 東京留守 蕭恒德 등에게 고려를 정벌하도록 命하는데,¹⁾ 이로써 제1차 遼麗戰爭이 발발하게 되었다.

遼의 東京道 및 高麗疆域圖²⁾

1. 遼가 이번 전쟁을 일으킨 原因을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 中原으로 영토를 확장하려던 遼가 저항에 부딪히자, 고려에 군사를 동원하게 되었다. 契丹 遼王朝의 숙적은 중원의 北宋으로, 한반도에 위치한 고려는 요에 큰 위협이 되지 못했는데, 따라서 遼왕조 전기 영토확장의 주요 대상은 중원지역으로 고려에 대한 군사행동의 계획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遼 前期의 대규모 대외확장은 크게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제1차는 天贊3年(924)에 일어났는데, 그 방향은 西·北方으로, 統帥는 遼太祖이며, 副帥는 天下兵馬大元帥인 次子 耶律德光이었다. 이때 정복의 대상은 주로 북방 초원지대의 각개 유목민족으로, 요의 군대는 西로 중앙아시아에까지 다다랐으며, 북으로는 그 세력의 범위를 바이칼湖 이북까지 확대하여 전체 몽고초원을 통일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제2차는 天顯元年(926)에 발발했는데, 이때

1) 『遼史』 卷13四 聖宗紀.

2) 譚其驤 主編, 1982, 『中國歷史地圖冊』 卷6 宋遼金時期, 中國地圖出版社, 8~9쪽.

遼太祖는 세력을 동으로 뻗치 200여 년간 이어온 海東盛國 渤海를 멸망시키고 전체 東北지역을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제3차인 會同元年(938)에 있었는데, 이때 요는 中原의 五代 왕조인 後晉으로부터 北京·大同을 중심으로 한 지역인 소위 燕雲16州를 차지하게 된다. 이곳의 지역적 범위가 燕山과 陰山の 남북을 넘어섰는데, 이곳을 차지하고부터 長城 일대의 燕山과 陰山の 천연요새는 모두 요가 이후 중원으로 남하할 때 전초지기로 활용될 수 있었다. 연운16주를 차지함에 따라 거란의 騎兵들은 황하를 쉽게 넘어 중원으로 전격할 수 있었다.

遼太祖·太宗시기 거란 遼왕조가 고려와 서로 국경을 접하게 되었으나, 양국 사이에 전쟁은 발발하지 않고 예외에 입각한 왕래를 하게 된다. 건국원지 얼마 되지 않았던 고려는 922년 거란과 정식으로 접촉하게 되었으며, 그해 2월 거란은 고려에 나랏와 말 등을 보내고 있다.³⁾ 이후 고려 역시 사신을 보내 왕래하였으며, 麗遼 양국은 평등한 우호관계를 수립할 수 있었다. 그런데 926년 발해를 멸한 거란이 그 강역 5천 여리와 수십만에 이르는 병력을 모두 차지하면서 크게 강성해졌고,⁴⁾ 게다가 그곳을 東丹(東契丹의 뜻이다)으로 바꾸어 통치하게 된다. 928년 遼太宗 耶律德光是 발해유민(東丹國民) 다수를 遼東으로 천사시켜 순식간에 발해의 넓은 강역에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적은 지역으로 변해 버렸다.

原발해지역, 특히 한반도 북부 女眞지역에 대한 요의 통제가 약화되면서, 고려는 즉시 出兵하여 그들의 통제 하에 있던 女眞人들과 한반도 북부 지역을 두고 다투게 된다. 즉 거란 태종 天顯9年(934) 발해 世子 大光顯이 수만의 병사를 이끌고 고려에 투항해 온 사건은 고려에 좋은 기회를 안겨주었다. 주지하듯 발해와 고려는 대대로 동일한 민족이 건국한 왕조('世稱同種')로, 특히 발해는 고려의 屏障 역할을 해 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고려는 요와 斷交하고 서로 적대시하게 된다.

고려의 공개적인 국교단절, 거란사신의 유배와 다수의 발해유민을 받아들임으로 야기된 적대감의 표현, 그리고 北宋과의 '友好' 동맹, 이를 통한 북진정책의 추진과 영토확장 등으로 遼王朝의 통치자는 크게 진노하게 된다. 그런데 당시 遼太宗 耶律德光是 중원 정략에 바빴으며, 이어서 즉위한 世宗·穆宗·景宗의 시대를 지나면서 遼 내부에 난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燕雲16州를 차지하기 위한 後周와 北宋의 북벌에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고려의 북진정책에 대해선 방관하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있었는데, 따라서 고려에 대한 군사동원을 자제하며 후방이 고려의 공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경계하게 된다.

983년 어린 나이의 聖宗이 즉위하고 蕭太后가攝政하자, 宋은 요의 이런 상황을 심분 활용하여 북벌을 감행하는데, 사서에서는 이를 '雍熙北伐'이라 부른다. 이보다 1년 전 宋은 監察御史 韓國華를 고려에 보내 군사적인 동맹을 통해 거란을 공격하고자 하였다.⁵⁾ 그런데 고려는 이 문제에 상당히 신중한 자세로 일관하는데, 사서에서는 成宗이 군대파견을 미루자, 韓國華는 天子의 威德으로 다시 설득하여, 비로소 出兵하겠다는 대답을 받았다고 한

3) 『高麗史』卷1 太祖世家1. 『遼史·太祖本紀』에 의하면 고려는 太祖9年(915) 10월 寶劍을 보냈다고 하며, 神冊3年(918) 2월 來貢했다고 한다. 이 두 차례의 기록은 모두 고려 태조가 정식으로 왕위에 오르기 전의 내용들이다. 따라서 고려 태조5년 거란이 고려에 遣使함으로써 麗遼 간의 교류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遼史』卷34上 兵衛志, "地方五千里, 兵數十萬……盡有其衆, 契丹益大."

5) 『宋史·高麗傳』과 『高麗史』에는 韓國華의 出使 시간을 서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宋史』는 986년, 즉 雍熙3年 春正月이라 하여, 당시 宋朝는 이미 出征할 준비를 다 갖추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국화의 출사는 아마도 송조가 出征한 이후에 이루어진 듯하다. 한편 『高麗史』는 985년, 즉 成宗4年으로 기록하고 있다. 필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때, 송이 고려와 연합하기 위하여 한국화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의 出使는 出征이 있기 전이어야 옳다. 따라서 『宋史』의 유관기록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다.⁶⁾ 그러나 고려는 결국 송과 함께 거란을 공격하려 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송이 고려와의 동맹을 강구하려 할 때, 契丹人들 역시 고려의 존재를 忽視할 수 없었다. 송이 고려에 출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986년 春正月 거란에서는 厥烈을 고려에 보내 請和하고 있는데,⁷⁾ 그 의도는 고려를 진정시키고 후방이 고려의 공격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했던 것이다. 사실 宋麗 간의 군사동맹을 막기 위해 遼聖宗은 즉위한 그 해(983) 고려에 대해 강경책을 구사하기도 했는데, 즉 우선 東京留守에 속한 兵馬를 檢閱하는 등 고려정벌에 나설 태세를 보인 것이 그것이다.⁸⁾ 그리고 985년 遼는 대거 고려를 침략하려 했지만, 결국 정내에 水災가 일어 도로가 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없었다.⁹⁾ 환언하면 적어도 985년까지 遼麗 간에 全面戰이 발발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遼宋 간의 전쟁이 발발함과 동시에 이 틈을 이용해 북진한 고려는 무단히 압록강 연안의 女眞人들에 대해 정벌을 진행하여 城寨를 쌓고 방어를 강화하기 시작한다. 992년에 이르러 고려는 압록강 하류 남안에 거주했던 여진인들을 백두산 이북으로 거의 내쫓았다.¹⁰⁾ 고려가 이렇게 북쪽으로 무단히 세력을 확장하자, 遼朝의 불만을 사게 되었으며, 이는 이후 요가 고려를 정벌하게 된 직접적인 구실이 되고 말았다.

게다가 986년의 '雍熙北伐'에서 패배한 宋太宗은 고려와 연합하여 燕薊지역을 차지하고 요에 대항하려던 계획에 자신감을 상실한다. 같은 해 그는 조정대신들에게 "오늘 이후로 이런 일을 다시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기도 했으며, 淳化4年(993)에는 또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는 修德만한 것이 없다. 西夷는 통치력이 미치지 않는데 있다. …… 일찍이 土氣만이 앞서 일을 그르쳤다면, 지금은 병사를 동원하는 것이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조용히 이를 생각하면 경계로 삼을 수 있다"¹¹⁾고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요에 대한 송의 강경책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 즉 '改戰爲和(전쟁을 포기하고 화의로 문제를 해결한다, 역자)', 그리고 '守內虛外(안을 지키고 밖을 나둔다, 역자)'¹²⁾와 같이 宋遼의 관계는 점차 '남북대치'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宋遼 간에 停戰이 이루어진 후, 遼는 한반도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데, 즉 고려를 압박하여 '稱藩納貢'하게 하고, 그리고 宋麗 간의 동맹을 와해시켜 북송을 정복할 때 발생할

6) 『高麗史』卷3 成宗世家3, '宋麗同盟'과 관련하여 한국학자 金庠基는 고려는 병사를 동원하지 않았다고 했으며(金庠基, 1985, 『新編高麗史』, 서울대학교출판사, 64쪽), 그런데 李丙燕는 고려는 형식적으로 출병하여 송을 돕고자 하여 邊境일대에 군대를 결집시켰다고 하였다.(李丙燕, 1961, 『韓國史·中世紀編』, 서울, 乙酉文化社, 174쪽.) 한편 고려가 보낸 병력과 관련하여 富綱의 『韓國華神道碑銘序』(王利, 1985, 『金石萃編』, 北京, 中國書店)에는 '數萬'이라고 했으며, 宋人 尹洙의 『河南先生文集』(上海書店, 1989) 중의 『韓國華墓誌銘序』에서는 '二萬五千'이라 기록하였다. 이밖에 대안 陶晉生은 유관사료를 인용하여 고려가 정식으로 출병시킨 兵數를 2만 5천인이라고 고증하고, 거란 정내에 들어갔다고 하였다.(陶晉生, 1984, 『宋遼關係史研究』, 臺北聯經出版公司, 170쪽.)

7) 『高麗史』卷3 成宗世家3.

8) 『遼史』卷10— 聖宗紀.

9) 『遼史』卷115 高麗傳.

10) 朝鮮科學院歷史研究所, 1959, 『朝鮮通史』上卷, 吉林人民出版社, 87~88쪽.

11) 李燕, 1995, 『續資治通鑑長編』卷34 太宗淳化4年, 中華書局, "[宋太宗]曰: '自今復作如此事否? …… 治國在乎修德爾, 西夷當置之度外. …… 往明當銳居先, 還乃勦兵殿後, 靜而思之, 亦可爲戒.'"

12) 陳邦瞻, 1977, 『宋史記事本末』卷13 契丹和戰, 中華書局.

지도 모를 후방의 불안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992년 12월 遼聖宗은 東京留守 蕭恒德에게
 命해 고리를 정벌하게 함으로 제1차 麗遼전쟁은 발발하였다.

992년~1019년 遼의 고려 침략노선도¹³⁾

2) 遼는 武力으로 고려를 압박해 '臣服'시킨 후 후방에서 올지도 모를 후려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무력을 통해 고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족시켜야 할 두 가지 필요
 조건이 있는데, 첫째, 遼宋 간에 '대치국면'이 출현해야 하며, 요는 이런 상황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사실 遼太祖·太宗시기 遼麗 양국은 비교적 밀접한 禮遇의인 왕래를 하며
 서로 침범하는 일은 없었다. 즉 934년 말해 세자 대광현이 수만의 병력을 이끌고 고려에
 부항할 때까지는 그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고려는 요와 단교하고 서로 적
 대시하게 된다.

고려의 공격적인 국교단절, 기관사신의 유배와 다수의 말해유민을 받아들임으로 야기된
 적대감의 표현, 그리고 北宋과의 '友好' 동맹, 이를 통한 북진정책의 추진과 영토확장 등으
 로 遼王朝의 통치자는 크게 진노하게 된다. 그런데 당시 遼太宗 耶律德光是 중원 정략에 바
 렀으며, 이어서 즉위한 世宗·穆宗·景宗의 시대를 지나면서 遼 내부에 내란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燕雲16州를 차지하기 위한 後周와 北宋의 북벌에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고려의 북
 진정책에 대해선 방관하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데, 따라서 고려에 대한 군사동원을
 자제하며 후방이 고려의 공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경계하게 된다.

986년 '雍熙北伐'에서 패배한 宋太宗은 고려와 연합하여 燕薊지역을 차지하고 요에 대항
 하려는 계획에 자신감을 상실한다. 따라서 요에 대한 강정책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즉
 '改戰爲和', 그리고 '守內虛外'와 같이 宋遼의 관계는 점차 남북대치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
 었다.

宋遼 간에 停戰이 이루어지면서 遼는 한반도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데, 즉 고려를
 압박하여 '稱藩納貢'하게 하고 여송 간의 동맹을 와해시켜 북송을 정복할 때 발생할 지도 모
 를 후방의 불안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遼麗 간의 제1차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다.

둘째, 遼王朝 본래의 强盛을 들 수 있다. 聖宗 때에 이르러 요왕조의 국력은 이미 전성기
 에 들어섰다.¹⁴⁾ 983년 遼聖宗이 즉위했을 때의 나이는 12살로 당시 蕭太后가 攝政하게 된
 다. 소태후의 집정시기 여러 개혁조치와 정치를 안정시키는 정책들이 추진되었는데, 즉 農
 桑정책에 힘쓰고 수리시설을 보수하며, 賦稅를 낮추고 吏治의 整頓에 노력하며, 그리고 軍
 隊를 훈련시킴으로 遼의 백성들은 더욱 부유해질 수 있었고, 국력은 더욱 강성해질 수 있었
 다. 聖宗이 親政하게 된 1009년 이후 요는 이미 전성기에 들어서 蕭太后 집정시기 國統을
 대부분 계승하고, 또한 엄격한 법률에 수정을 가하여 탐관들에게 이용될 수 있는 여지를 없
 애버렸다. 게다가 과거제를 시행하고 佛經을 編修하자 불교는 더욱 성행할 수 있었다고 한
 다. 또한 여러 정벌전쟁을 수행하여 당시 요의 강역을 전성기에 들어설 수 있었으며, 게다
 가 송과의 수차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소위 '無敵의 장군'으로 불렸던 楊繼業을 사로잡기도
 하였다.

13) 傅海波 等編·史衛民 等譯, 1998, 『케임브리지 中國遼西夏金元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14쪽.

14) 舒焚, 1984, 『遼史稿』, 湖北人民出版社, 298쪽.

이런 상황에서 統和22年(1004) 遼宋은 澶淵의盟을 맺게 되었는데, 송은 매년 요에 銀 10만냥과 絹 20만필을 歲幣로 보내야만 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에는 100여년에 이르는 평화의 시대로 진입할 수 있었다. 또한 聖宗은 西夏와도 결맹을 추진하여 서하가 송요 사이에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遼·宋·西夏의 삼국이 정립할 수 있는 '後三國'의 시대를 열 수 있었다.

2. 고려왕조가 이번 요의 침략을 받게 된 것은 본래 두 방면에서 빚한 失策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이는 전쟁을 직접 일으킨 필연적인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1) 고려가 이웃한 강대국 遼王朝에 대하여 강경한 외교노선을 취한 것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이다. 왕건은 918년 고려왕조를 건국한 이래 요왕조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내심으로부터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934년 고려는 정식으로 요와 단교한다. 왕건이 거란에 대해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북진정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거란과 충돌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는 後晉과의 동맹을 통해 거란을 공격하려고도 했던 적이 있다.¹⁵⁾ 당시 거란은 비록 강한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한인들의 거주지역에 대한 공세로 바빠 북송과의 전쟁에서는 승부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또한 내부에서의 내란이 빈번하게 일어나 고려 문제에 집중할 여유가 없어 군사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943년 4월 왕건은 臨終에 즈음해 『訓要十條』를 통해 그의 후손들에게, 우리 고려는 오래 전부터 '唐風'을 본받아 文化·禮樂, 제도를 다 그대로 준수하여 왔다. 그러나 지역이 다르고 사람의 성품도 각각 같지 않으니 구태어 억지로 같게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契丹은 禽獸之國으로 풍속과 언어가 다르니 그들의 衣冠制度를 본받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하였으며, 동시에 또 強惡之國을 隣邦으로 삼고 있으니 위험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兵卒들을 보호하고 돌봐주어야 하며 徭役을 면제하고 매년 가을에 무예가 출중한 자들을 선발하여 사용하라고 분부했던 것이다.¹⁶⁾ 이를 통해 왕건의 거란에 대한 警戒과 防備精神은 그의 후계자들에게 계승되어 이후 고려의 외교이념과 기초로 정해지기까지 하였으며, 동시에 이는 중원의 한인왕조와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유목민족 출신인 거란과 교류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왕건의 '祖訓'에 대하여 이후 고려의 대신이며 지명한 학자였던 李齊賢은 "나라를 세우고 國統을 창시한 자로서 그의 선정지명에 후대인이 미치지 못했다"¹⁷⁾고 평하기도 하였다.

960년 後周 大將 趙匡胤은 스스로 제위에 올라 宋朝를 건국한다. 962년 고려는 사신을 보내 송과 朝聘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이듬해 고려 광종은 高麗國王이라 책봉되어 송의 연호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¹⁸⁾ 이후 20여 년 동안 고려는 북송의 힘을 빌려 전략적으로 거란을 견제하는 동시에 기회를 엿보며 北進을 추진하면서 수차례 송에 사신을 보내 方物 혹은 表文을 보내기도 했는데, 북송 황제 역시 수차례 고려의 새로운 왕을 책봉하는 등 왕망의 왕래는 매우 빈번했으며 그 관계는 상당히 밀접해질 수 있었다.¹⁹⁾ 979년에 이르러 북송은 여러 할거세력을 말하고 천하를 통일하면서 五代十國의 시대를 종식시켰는데, 이어서 燕雲지역을 회복하기 위해 거란을 공격했으나 대패하고 말았다. 이로써 요송 간에는 남북대

15) 司馬光, 1997, 『資治通鑑』 卷284 後晉紀 齊王開運2年, 上海古籍出版社.

16) 『高麗史』 卷2 太祖世家2. 이것들은 『訓要十條』 중에서 제4조와 제9조에 해당한다.

17) 『高麗史』 卷3 成宗世家3.

18) 『高麗史』 卷2 光宗世家2, 『宋史』 卷487 高麗傳을 참고.

19) 『高麗史』 卷2 光宗·景宗世家2, 同上 卷3 成宗世家3.

지의 국면을 이루게 되었고, 동북아 지역에서는 遼宋을 중심으로 한 대결국면에 고려가 끼어드는 형국을 연출하게 된다. 고려와 북송 그리고 요의 삼각관계 속에서 고려는 북송에 협력할 수 있는 세력이었는데, 이는 필요한 시기에 송을 도와 燕雲16州를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서에서는 당시 고려와의 협력을 “宋 天子는 燕薊지역의 회복을 위해 조정대신들에게 ‘어떻게 勇猛하고 言辯에 능한 자를 얻어 고려를 설득해 출병하게 하고, 서쪽에서 거란을 공격하여 그들의 세력을 분산시켜 우리의 일이 힘을 들이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20)라고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981년 고려는 宋太宗이 명사를 내어 宋을 도우라는 密諭를 받게 되는데, 이를 『宋史紀事本末·契丹和戰』篇에는 송이 고려에 다시 사신을 보내 諭令으로 명사를 내어 서쪽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고려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적고 있다. 확실히 고려는 송이 그들과 연합하여 요를 공격하자면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高麗史』에서는 어떠한 기록도 남기고 있지 않다. 이는 아마도 고려 국내의 정치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해 고려 景宗의 병세가 위중하여 왕위를 堂弟 王治에게 물려주면서 그 禪位 詔書에서 전국에 승을 내리 혹은 있을지 모를 정치적인 변동에 대비하리 하였고, 또한 거란이 이 틈을 타 침략할지도 모른다면 이에 방비하라는 의도도 엿보이기 때문이다.²¹⁾ 따라서 군대를 내어 송을 도울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왕위에 오른 成宗은 송에 대해 변함없는 우호의 표시로 곧바로 사신을 보내 자신의 즉위 사실을 알리고 있다. 986년 10월 송의 출병 요구에 고려가 응하지 않으면서 일어났던 遼宋 간의 좋지 않았던 영향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고려는 바로 그들의 ‘宗主國’이었던 북송에 사신을 보내 朝聘하고 있는 것이다.²²⁾ 북송은 고려를 계속해서 자기편으로 회유하고 거란을 더욱 고립시키기 위해 고려와 여전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며, 이후에는 3차례에 걸쳐 고려왕을 책봉하며 친선의 표시를 하였다.²³⁾

송이 고려와의 동맹을 강구하려 할 때, 契丹人들 역시 고려의 존재를 忽視만 할 수 없었다. 북송의 사신 한국화가 고려에 출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986년 春正月 거란에서는 厥烈을 고려에 보내 講和하고 있는데,²⁴⁾ 그 의도는 고려를 진정시키고 후방이 고려의 공격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했던 것이다. 게다가 986년의 ‘雍熙北伐’에서 패배한 宋太宗은 고려와 연합하여 燕薊지역을 차지하고 요에 대항하려는 계획에 완전히 자신감을 상실한다. 같은 해 송은 요에 대한 강경책에 변화를 주고 있는데, 즉 ‘改戰爲和’, 그리고 ‘守內虛外’와 같이 宋遼의 관계는 점차 남북대치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사실 어찌 보면 고려는 宋遼의 대결국면으로 끼어든 측면도 있었다. 비록 고려가 송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요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외교정책이 거의 어찌할 수 없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고려왕조와 거란의 요왕조는 그 국력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고려는 강력한 군사력에 의지해 요의 침략에 대항할 수 없었으며, 또한 건실한 경제력도 갖고 있지 못하여 그 군사력을

20) 王昶, 1985, 『金石萃編』卷135 韓國華神道碑銘序, 中國書店, 756쪽, “[宋太宗]天子議復燕薊, 獨廷臣曰: ‘安得勇而善辭令者, 爲我諭高麗, 出兵西攻契丹, 以分其力, 則吾事可不勞而集.’”

21) 『高麗史』卷2 景宗世家2.

22) 『遼史』卷115 高麗傳.

23) 『高麗史』卷3 成宗世家3.

24) 『高麗史』卷3 成宗世家3.

유지할 수도 없었다. 게다가 盟邦이었던 북송왕조는 고려왕조에 어떠한 실질적인 지원도 할 수 없는 상태이지 않았던가, 따라서 이런 관혹한 국제환경 속에서 졸졸 이웃한 강대국을 적대시켰으니 그 기백과 담력만은 존경을 받을 만도 하다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이웃한 강대국을 적으로 삼으려 했던 전략이 또한 국가와 인민, 그리고 영토의安危를 얼마나 중요시했겠는가?

2) 고려의 북진정책은 이웃한 강대국인 遼의 영토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했으므로 마치 '引火自焚(스스로 무덤을 파다, 역자)'과도 같았다고 할 것이다. 고려건국 이후 10~13세기 중국은 大唐의 통일제국시기가 아니라 남북대치를 이룬 분열의 시대였다. 북송이 건국되기 전 五代왕조와 고려 사이의 외교관계는 '宗主國'과 '從屬國'의 관계로 개관할 수 있다. 五代十國의 혼란 이후 중국은 비록 송에 의해 통일되었지만, 기란·여진 등 소수민족이 흥기하여 華北지역에서 정권을 건립하고 차례로 동북아의 '霸主'가 되면서 우세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북송을 위협하였다. 고려는 지리적으로 遼·金과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적지 않은 압력을 받았으며 또한 치지는 매우 힘들었다. 남북대치란 중국의 정세와 복잡·다변한 동북아 정세, 그리고 중국 내에서의 정권교체란 현상에 직면하면서 어떻게 이들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과 발전을 도모해 갈 수 있는가, 즉 어떻게 중국 북방에서 흥기한 유목민족과의 관계를 처리하느냐가 바로 당시 고려가 해결해야만 하는 절대절명의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고려란 국호에서 보듯 고려의 건국으로부터 태조 왕건은 스스로 고구려 왕조의 계승자임을 자처하고 있는데, 한반도의 통일에 전력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자처하면서 고구려 고도의 회복을 건국이념으로 하여 자주적인 외교노선을 추진하였다. 이를 『高麗史』에서는 "우리 太祖 王건의 포부와 도량으로 만일 중국에서 태어났다면 宋太祖보다 못하지 않았을 것이다. …… 우리 태조가 즉위한 후 金傅가 아직 귀부하지 않고 甄萱이 사로잡히지 않았음에도 수차례 西部에 순행하여 북방을 순찰하였으니 그의 뜻은 바로 東明王의 옛 강토를 우리나라의 귀중한 유산으로 여기며 반드시 석권하여 가지려고 한 것이다. 어찌 닭을 잡고 오리는 때리는 것(操雞搏鴨)에만 그쳤겠는가?"²⁵⁾라고 평가하였다.

고구려 부흥이라는 위협을 달성하기 위하여 왕건은 한편으론 통일전쟁을 수행하고, 다른 한편으론 외교적으로 대담하게 '北進政策'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중국대륙의 群雄割據란 국면을 이용하여 북방으로 강역을 넓히기 위한 것이었다. 우선 그 첫 번째 조치가 고구려의 고도인 평양을 다시 수복하는 것이었는데, 그곳에 大都護府를 두어 성을 쌓아 방어에 힘쓰고 북진정책을 추진하는 절전기지로 삼았다. 왕건은 또한 수차례 西京(平壤)으로 순행하여 북방의 정세를 살폈으며, 심지어 수도 開京을 평양으로 옮기려고까지 하였는데, 임종에 즈음하여 經史를 두루 살펴 옛 것으로 오늘의 정세로 삼도록 하여 후손들의 귀감이 되게 하였다. 이는 바로 후손들에게 西京의 중요성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²⁶⁾

고려는 서정경영에 힘쓰는 한편 동시에 淸川江 이북에 德川·長青·安朔 등의 성을 쌓아 고려와 요 사이의 邊界를 대동강에서 청천강으로 확대하였다. 게다가 적극적으로 압록강 연안에 거주하고 있던 女眞人들을 토벌하여 그들의 故地를 羈食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요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려는 光軍司를 두어 光軍 30만을 양성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밖에 왕건은 移民정책을 통해 변경을 강화하고자 하여 다수의 인구를 한반도의 남부에서 북부로 천사시키고 있다. 왕건의 이러한 조치들은 분명 고려 북부의 변방방어에 큰 도움

25) 『高麗史』 卷2 太祖世家2.

26) 『高麗史』 卷2 太祖世家2.

이 되었을 것이며, 동시에 국토면적은 더욱 확대될 수 있었다. 왕건은 그 세력을 북방으로 끊임없이 뻗어 그의 통치 말년에 이르러 고려의 북부 장역은 이미 지금의 함경남도 永興과 정천강 남안에까지 이르러 신라 배를 훨씬 능가하였다.

930년에 이르러 고려왕조는 通德鎮(지금의 平安南道 平原郡)·興德鎮(지금의 평안남도 殷山郡)·永清鎮(지금의 永柔)·朝陽鎮(지금의 평안남도 价川)·安北府(지금의 평안남도 安州) 등의 城塞를 두어 서북방의 영토를 지금의 정천강 일대로 확장하였다.

이후 고려는 또 安朔鎮(지금의 平安北道 雲山郡)·朔寧鎮(지금의 평안북도 泰川)·淸塞鎮(지금의 慈江道 熙川)·平康鎮(지금의 평안북도 寧邊) 등의 城鎮을 구축한다.

遼宋 양국이 서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을 때, 고려는 이 기회를 이용해 북진정책을 추진하여 압록강 연안의 여진인들을 무단히 정벌하였으며, 그곳에 城塞를 구축하여 변경방어를 강화했던 것이다. 992년에 이르러 고려는 이미 압록강 하류 남안에 거주하고 있던 女眞人들을 백두산 이북으로 驅逐하게 된다.²⁷⁾ 고려가 무단히 영토를 확장하자, 요의 불만을 샀으며, 이는 이후 遼가 고려를 정벌하는 구실이 될 수밖에 없었다.

II. 戰爭의 經過: 遼는 '來勢凶猛'으로 連戰連決을 노렸지만, 高麗는 '一觸即潰'하여 놀았으나 위협에 처하지 않았다

제1차 遼麗戰爭은 그 전체 진행과정을 보면 겨우 3개월간의 시간에 불과했지만,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제1단계는 전쟁의 준비단계로 전쟁발발 전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실 이번 전쟁이 발발하기에 앞서 末遼에 그쳤던 두 차례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는 바로 遼麗 간의 전쟁이 마지 못할 실타래를 떠나기만을 기다리듯 연재가 일어나고야 말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그 첫 번째 미수에 그쳤던 전쟁은 983년에 일어났다. 그해에 遼聖宗은 즉위한 후 宋麗 간의 군사동맹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고려에 감정한 정책을 취하기 시작한다. 게다가 그는 전히 동경유수에 속한 兵馬를 檢閱하여 고려정벌에 대한 의욕을 드러내기도 하였다.²⁸⁾

그리고 두 번째 미수에 그쳤던 전쟁은 985년에 일어났다. 그해 遼는 대거 고려 공격을 준비했으나, 경내에 수해가 일어 도로는 끊기고 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었다.²⁹⁾ 사실 遼河가 넘쳐 길이 통하지 않아 요성종이 고려 정벌을 그만두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평계일 수밖에 없었다. 진짜 이유는 바로 요성종이 어린 나이에 제위에 올라 母蕭太后가 朝政을 장악한 이른바 '主少國疑'한 기회를 송이 이용해 북벌을 감행하여 燕雲16州를 되찾으려 했기 때문이다. 요성종은 고려를 정벌한 후에 있을지 모를 송과의 전쟁, 그리고 고려와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불리한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바로 '罷征高麗'란 詔書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 「高麗史」의 기록에 의하면, 고려 成宗5年(986) 거란에서는 嚴然을 보내 請和했다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요성종이 사신을 고려에 보내 請和했으므로 송이 고려에 出兵할 것을 요구하며 함께 거란을 공격하려 했던 계획은 결국 실현될 수 없었던 것이라 하겠다.

제2단계는 전쟁이 정식으로 발발하여 요가 대거 공격을 감행하고 승리한 내용들이 여기

27) 朝鮮科學院歷史研究所, 1959, 앞의 책, 87~88쪽.

28) 『遼史』 卷10— 聖宗紀.

29) 『遼史』 卷115 高麗傳.

에 해당한다. 統和10年(992) 12월 遼聖宗은 동경유수 蕭恒德(字 通寧)을 主將으로 하여 대거 고려를 침략하게 하였다. 소항덕이 이끄는 대군은 압록강 중류를 넘어 여진의 거주지역을 지나 西南(지금의 龜城 부근)방향으로 남하하여 고려의 蓬山郡(지금의 북한 龜城 以西)으로 직접 향했다. 그리고 소항덕은 “大朝(遼國을 가리킨다)의 군대가 이미 高句麗 舊地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 나라가 우리의 疆界를 침탈하였으므로 지금과 같이 군대를 동원한 것이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는 당시 遼가 이미 원래 발해가 차지했던 고구려의 영토를 자신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었는데, 바로 고려가 북쪽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原高句麗의 일부 영토를 차지한 것은 바로 遼國의 영토에 대한 침범으로, 이 때문에 군사를 동원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고려의 선봉대는 龜城 西南의 대략 30餘里 되는 곳, 즉 당시 봉산군에서 遼軍과 마다뜨었는데, 요군에 패한 후 고려의 先鋒軍使 給事中 尹庶顔 등은 포로가 되고 만다.³⁰⁾

제3단계는 전략적으로 쌍방이 대치하게 된 단계라 할 수 있다. 高麗軍의 맹렬한 반격에 마다뜨던 遼軍의 진공은 순조롭지 못했다. 고려의 群臣들은 요의 침략에 대단히 놀라 여러 邊城·軍鎮들이 병력을 모아 방어에 나서도록 하는 한편 특별히 侍中 朴良柔·內史侍郎 徐熙 그리고 門下侍郎 崔亮을 각각 上軍使·中軍使·下軍使에 임명하여 출전토록 하였으며, 성종은 전쟁을 독려하기 위해 親征하였다고 한다.

淸川江 이북의 방어체제도³¹⁾

사실 그해 5월 고려의 西北界에 거주했던 女眞人들은 거란이 군사를 동원해 고려를 침략할 수 있다는 소식을 알려왔는데, 고려의 群臣들은 이를 믿지 않았고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아 거란의 鐵騎가 쉽게 침략하여 그 邊城을 차지하게 되었다.

遼軍은 봉산군을 차지한 후 계속 남하하는데, 淸川江 南岸의 安戎鎮을 차지하기 위해 공격했으나 大道秀와 廣力이 거느린 고려군의 저항에 마다뜨리게 된다. 이에 소항덕은 모험을 하며 고려를 더욱 깊숙이 침략할 수 없어 사람을 보내 항복할 것을 고하게 되는데, 이에 고려는 바로 서회를 사신으로 삼아 요의 군영으로 보내 화의를 논의하도록 하였다. 서회는 국가의 운명을 걸고 소항덕과 화의담판을 진행하였고, 이후 요성종은 고려가 화의를 청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군사를 돌려라고 명했던 것이다.

제4단계는 고려의 서회와 遼朝의 소항덕 간에 화의담판이 진행된 단계를 말한다. 사실 이보다 훨씬 전에 화의를 먼저 제기했던 것은 고려가 아니라 遼였다. 고려군을 격파하고 蓬山郡을 차지한 遼軍의 主將 소항덕은 위협적인 화의조건을 제출하고 있는데, 즉 고구려의 故土를 빼어 마치고 宋과 단교해야하며 거란을 上國으로 받들라는 것이었다. 고려는 요의 대규모 침략을 받아, 일찍이 “西京(지금의 북한 平壤) 이북을 그들에게 주고, 黃州(지금의 북한 黃海北道 黃州, 대동강 하류)에서 帶嶺(慈悲嶺, 지금의 북한 黃海北道 黃州의 鳳山에서 瑞興의 중간지역)에 이르는 선으로 封疆을 정하자”³²⁾고 주장했던 자들도 있었다. 이는 바로 황주에서 절령 이북의 영토 전부를 거란에게 빼어주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고려의 中軍使 서회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거란의 東京(지금의 遼寧省 遼陽)으로부터 우리의 安北府(지금의 북한 평안남도 安州)에 이르는 수 백리의 땅이 일찍이 모두 生女眞의

30) 『高麗史』 卷94 徐熙傳.

31) 高句麗研究會編, 1999, 『徐熙與高麗的高句麗繼承意識』, 서울, 학연문화사, 171쪽.

32) 『高麗史』 卷94 徐熙傳.

차지가 되었었는데, 光宗 때에 이를 도로 찾고 嘉州(지금의 북한 평안북도 博川 일대)·松城(미산, 嘉州 부근) 등의 성을 쌓았다. 지금 거란이 군대를 동원한 의도는 이 두 성을 차지 하려는 것에 불과하며 고구려의 舊地를 찾겠다고 僞言하여 실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³³⁾ 고 말하며 지금 거란이 고려를 침략한 것은 바로 고려가 차지한 女眞人들의 지역을 다시 차지하고자 함에 있지 고구려의 모든 舊地를 차지하려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서희는 땅을 빼어 바치고 도망하라는 자들의 주장에 반대하고 병사를 이끌고 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게다가 친히 遼의 군영에 이르러 소항덕과 담판을 하게 된다. 소항덕은 “당신의 나라는 옛 신라 땅에서 건국되었고, 고구려의 옛 땅은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바 어찌하여 당신들이 侵蝕하였는가? 또 우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바다를 건너 송을 섬기고 있는 까닭에 이렇게 군사를 낸 것이다. 만약 땅을 빼어 바치고 朝聘을 회복한다면 무사하리라”³⁴⁾고 위협한다. 이렇듯 소항덕은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즉 ① 고려는 신라의 계승자이지, 고구려의 계승자일 수 없으므로 신라 땅을 차지하는 것이 옳으며, 반면 原고구려 땅은 발해에 의해 계승되었고, 요가 발해를 멸한 후 발해로부터 原고구려 땅을 접수받아 관리하게 되었다. ② 거란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고려는 당연히 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옳은데, 도리어 그렇게 하지는커녕 바다 건너 송과 朝聘하고, 또한 그와 연합하여 공격하려 하니, 이는 바로 거란에 대해 비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거란은 이처럼 대군을 동원해 고려를 침략할 수밖에 없었다. 소항덕은 만약 고려가 ‘侵蝕’한 原고구려 땅을 되돌려 주고 송과 단교하며, 그리고 사신을 보내 거란에 ‘朝聘’하게 된다면, 바로 절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소항덕의 말에 서희는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는 바로 고구려의 舊地이다. 그러므로 국호를 高麗라 하고 평양에 도읍을 정한 것이다. 만약 地界를 가지고 말하면, 上國의 東京도 우리 境域 안에 있으니 어찌 侵蝕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또 鴨綠江 内外도 역시 우리 境内인데 이제 女眞이 그 사이를 監據하여 완악한 행위와 간사스런 태도로 교통을 차단했으므로 바다를 건너기보다 왕래하기가 곤란하니 朝聘이 통하지 못함은 여전 때문이다. 만약 여전을 내쫓고 우리의 舊地를 회복하여 기기에 城과 堡를 쌓고 길을 통하게 된다면, 어찌 朝聘을 단지 않겠는가?”³⁵⁾라며 반박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고려가 비록 신라 땅에서 흥기했다고는 하지만, 신라 땅을 계승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원고구려 땅을 계승하겠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따라서 이는 고려 자신이 고구려의 계승자라고 하면서 원고구려 땅을 차지하겠다는 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희는 바로 일종의 계승이론에 근거해 이처럼 추론한 것인데, 한반도 북부의 원고구려 땅이 고려에 속해야 할 뿐만 아니라, 東京(지금의 遼寧省 遼陽)을 포함한 압록강 이북 지역의 원고구려 땅도 고려에 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희의 이러한 논리는 바로 고구려 계승자라는 기치를 들어 고려 본국을 위한 상상의의 이득을 쟁거모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사실 주지하듯 그는 동청을 포함한 압록강 이북 지역의 原고구려 땅을 얻어내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다만 여진인들이 생활하고 있던 ‘鴨綠江 内外’를 고려의 ‘舊地’라고 하여 고려가 거란에 ‘修聘’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여진이 길을 가로 막고 있기 때문으로, 만약 그들을 내쫓고 압록강 이북의 지역을 고려에 준다면 바로 거란에 ‘稱臣納貢’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는 확실히 서희가 소항덕과의 담판에서 제기할 수 있었던 최고의 요구(‘要價’)였다고 하겠다.

33) 『高麗史』 卷94 徐熙傳.

34) 『高麗史』 卷94 徐熙傳.

35) 『高麗史』 卷94 徐熙傳.

이때 거란은 중원으로 세력을 뻗치고, 또한 송과 燕雲16州를 둘러싼 중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宋麗 간의 동맹을 끊어놓고자 하였다. 따라서 소항덕은 바로 고려가 遼에 '稱臣納貢'하고 송과 단교한다는 전제 하에서 '鴨綠江東數百里地'를 고려에 주겠다고 동의한 후 고려와 화의를 맺고 철군하게 된다.

統和11年(993) 2월 고려 성종은 朴良柔를 遼에 보내 奉表하고 동시에 請罪하게 하였으며, 한편 요성종은 바로 맹약에 근거해 女眞人들이 살고 있던 압록강 이동 수 백리의 땅을 고려에 賜與하였다. 이어서 요성종은 사신을 보내 정식으로 고려 성종 王治를 '高麗國王'에 책봉하고, 고려는 비로소 거란의 統和年號를 사용하고 정식으로 거란에 '稱臣納貢'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려가 북송과의 宗藩관계를 끊자, 그 朝聘의 대상은 宋에서 遼로 바뀌게 되었으며, 동시에 고려의 서북 境界는 청천강 유역과 그 이북지역으로 확장될 수 있었다. 고려는 이번 전쟁을 통해 전쟁터에서 얻을 수 없었던 값비싼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서희가 개척한 6주³⁶⁾

III, 戰爭의 規模: 遼麗의 군사제도·군사세력·병력배치 그리고 전략전술

거란족이 세운 遼王朝는 보통 武力을 통해 건국된 것이라고 한다.³⁷⁾ 契丹의 본래 뜻은 '鎧鐵'인데, 이는 전고하다는 의미로 용맹하고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을 가리킨다. 遼國의 강역은 동으로 고려와 접하고, 남으로 梁·唐·晉·漢·周·宋 등 여섯 개 왕조와 경쟁했으며, 북으로 阻卜·朮不姑 대국 십여 개 왕조와 이웃했고, 서로 西夏·党項·吐渾·回鶻 등의 강국 백여 개를 제압하였다. 이는 四戰之區에서 마치 벌이 그 중간에 웅크리고 있는 형세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³⁸⁾ 요왕조의 흥망성쇠는 그 군사와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遼史」의 기록에 의하면, 200여 년간 188회의 군사행동(정내에서 일어난 人民起義와 통치계층 내부의 무장충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필자)이 있었다고 한다. 게다가 다른 나라와의 각종 정치활동, 즉 예를 들면 出使·結盟·朝貢·賞賜 등도 대부분 군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군사 활동은 遼代 사회생활의 중요한 내용이며, 심지어 군사와 관련된 각종 전통명절도 출현하였는데, '旄甲節'과 '戰時節' 등이 그것이다.³⁹⁾

요의 군사제도는 '無定制'에서 '定制'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중 각종 군사기구와 시설이 설치되었다가 폐지되기도 했으며, 또한 분리되었다가 통합되기도 했고, 그리고 서로 계승되기도 혹은 상호 예측되기도 하는 등 200여 년을 지나오면서 큰 변화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遼朝의 군사제도는 비교적 복잡하면서도 특수한 면도 갖고 있는데, 문헌사료의 기록이 별로 없고, 게다가 「遼史」에 수록된 내용 역시 대단히 低劣하기 때문에, 遼朝의 군사제도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동반하고 있다. 여러 문제들 중 심지어 군사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은 아직까지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다.

36) 高句麗研究會編, 1999, 앞의 책, 3쪽.

37) 「遼史」卷61上 刑法志.

38) 「遼史」卷46二 百官志, "東接高麗, 南與梁·唐·晉·漢·周·宋六代爲勁敵, 北鄰阻卜·朮不姑, 大國以十數, 西溯西夏·党項·吐渾·回鶻等, 強國以百數, 居四戰之區, 虎距其間."

39) 「遼史」卷53上 禮志.

遼朝의 군대는 평시에 대략 2-30만 정도로 추정된다. 유목민족으로 騎射에 능했던 거란은 평시에 放牧과 狩獵을 행하는데, 이것이 생산 경제활동이면서 동시에 군사훈련이었으며, 유사시에 이들을 곧바로 결집해 군대로 편성하게 된다. '全民皆兵'이므로 遼朝가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단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164만 2800명에 이른다고 한다.⁴⁰⁾ 한편 거란족은 원시부족의 습관을 保持하고 있었으므로 게다가 노예제에서 봉건제로 급속히 변화하는 역사적인 단계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군사제도는 초기 대부분 契丹族 사회제도와 일치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長城 이남으로 진입한 이후 거란족 본래의 특색을 保持하면서 또한 한족의 영향을 받으면서 민족융합의 특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遼朝의 황제는 최고의 병권을 壟유하며 그 밑으로 北·南樞密院을 두었다. 北樞密院은 최고의 군사행정기구이면서, 일반적으로 거란인이 그 직책을 맡으며, 南樞密院은 보통 漢人樞密院이라고도 부르는데, 한인의 兵馬權을 장악한다. 따라서 한 개의 조정에 두 종류의 군사체제가 병존하는 형국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遼朝의 兵制는 宮帳軍·部族軍·京州軍 그리고 屬國軍으로 나뉘어진다. 궁장군은 바로 皮室軍이라고도 하며, 황제에 직속된 着帳戶의 장정들을 징집하여 구성되며, 동시에 契丹族의 親軍으로 숙위와 전쟁의 임무를 맡는데, 行營을 宮으로 하고 諸部의 豪健한 원 명을 선발하여 腹心部에 둔다고 한다. 부족군은 주로 거란 이외의 부족 장정으로 구성되며, 사방의 수비임무를 맡는다. 이상 두 종류의 군대가 遼軍의 주력이라 할 수 있다. 경주군은 五州郡軍이라고도 부르는데, 五京道 각 州縣의 한족·말해인들의 장정을 징집하여 구성된다. 속국군은 臣屬國의 장정으로 구성된 부대이다. 후자 두 종류의 부대는 보통병력으로 볼 수 있다. 遼初 귀족남자에게는 모두 병역의 의무가 있었는데, 15세에서 50세에 이르는 장정들은 正軍의 병적에 등재되어 兵器와 戰馬를 스스로 준비하여 유사시에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遼軍은 기병이 주력이며, 주요 무기는 활과 刀槍이다. 후기에 이르면 宋으로부터 拋石機를 들여와 炮手軍을 편제하기도 하였다.

遼朝의 통치자는 군대의 설치에 매우 열성적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의 군사적 역량은 비교적 강대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중앙에서 지방에까지 각종 군사기구가 설치되어 이들은 위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예측관계가 비교적 잘 정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명령계통, 직무 그리고 융통성 있는 군사적 관리와 지휘계통을 갖고 있었다.⁴¹⁾ 바로 『遼史』에는 遼의 宮帳·部族·京州·屬國이 각자 스스로 군대가 되고 그 지휘계통이 확연하여 일사불란했다고 적고 있다.⁴²⁾

한편 한반도를 통일한 고려 왕건은 두 가지의 커다란 문제에 직면해 있었는데, 이는 바로 대내적으로 통치를 어떻게 공고히 해야 하며, 대외적으로 어떻게 신흥강국 거란에 대적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할 수 있다. 왕건은 泰封·新羅, 그리고 中原王朝의 정치체도를 채용하여 신흥 고려왕조에 맞는 중앙정부 기구를 갖추게 된다. 고려는 三省을 두었는데, 內議·廣評 그리고 內奉省이 그것이다. 그중 광평성의 지위가 가장 중요시 되었다. 광평성 밑으로 選·兵·民·刑·禮·工 등 6부를 두어 국가의 각종 사무들을 분담시켜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는 바로 고려왕조의 중추가 되는 권력기구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고려의 최고 군사기구로 衛軍部를 들 수 있는데, 군대는 自耕農 중에서 징발된 府兵들로 구성된다. 이밖에 도성 開京에 주둔하는 六軍은 近衛軍으로써의 지위를 갖고 국왕이 직접 장악하였다. 고려왕조 중앙정부의 기

40) 楊若薇, 1992, 『契丹王朝政治軍事制度研究』, 文津出版社, 201쪽.

41) 張念堂·張國慶, 1996-2, 「略論遼朝軍事機構及軍事制度的特色」, 『遼寧大學學報』, 75쪽.

42) 『遼史』卷46二 百官志, "遼宮帳·部族·京州·屬國, 各自爲軍, 體統相承, 分數秩然."

구는 표면적으로 隋·唐帝國의 중앙집권제도를 계승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런데 표면적으로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고려왕조와 중원왕조의 사회적인 기반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여하튼 고려왕조는 지방호족들의 지지 속에 건국된 것으로(사실 왕건의 가족 역시 여러 호족 중의 한 구성원이라 할 수 있다, 필자), 고려왕조의 통일과정은 중원왕조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고려의 군사제도는 『高麗史·兵志』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즉 "고려 태조는 三韓을 통일하고 처음으로 六衛를 설치하였는데, 衛에는 38領이 있고, 領에는 각각 1천 명의 병사가 있다, 上下가 서로 연결되고 체계가 확립되었으니 唐의 府兵·衛兵제도와 비슷하다, 肅宗 때에 이르러 東女眞이 도전적이 행위를 함으로 방어에 힘을 기울이고 날로 군사훈련을 일삼았다, 브디어 別武班을 설치하고 散官과 吏胥들로부터 商人·賤人·중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입대시켰으니, 이것이 비록 옛 제도에 맞지 않으나 일정한 시기에 실시하여 효과를 거두었던 점은 또한 칭찬할 만 하다. 毅宗과 明宗 이후 權臣들이 國權을 잡고 군사 지휘권이 신하들에게로 옮겨지면서 裨將勳卒들이 다 私家에 속하니 나라에 적이 침입하여도 국가에는 一旅의 군대도 없게 되었다, 마침내 倉皇不振(나라가 위급한 상황, 역자)한 지경에 이른 다음에야 비로소 군대를 여러 방면에서 징발하였는데, 혹은 京都를 포괄하여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았으며, 혹은 文武散職·白丁·雜色까지도 조사하고, 혹은 四品 이상의 家值도 조사하고, 혹은 屋閭의 多少에 따라 징발한 인원수에 차등을 두기도 하였다, 나라 형편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아무리 위태롭게 되지 않으려 한들 되겠는가, 나라의 큰 일이 군사에 있는 것인 만큼 그 제도가 응당 자세히 갖추어졌을 것인데, 이전 역사에 자세히 적히지 않은 것이 유감이다, 이제 고찰할 만한 것을 특별히 기록하면, 兵制·宿衛·鎮戍·看守軍·團宿軍·檢點軍·州縣軍·船軍·工役軍이다, 그리고 기타 站驛·馬政·屯田·城堡 등도 또한 방제의 종류이므로 아울러 첨부하여 兵志를 짓는다"고 하였다. 이처럼 고려 태조시기에 6衛 38領의 군사제도를 제정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군사제도는 唐朝의 府兵制와 대단히 유사하지만, 또한 차이점도 발견되고 있다.

徐熙가 세운 州의 城郭 분포도⁴³⁾

고려는 전국에 15만 전후의 常備軍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크게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군은 2軍 6衛로 구성되며 약 5만 명에 이르고, 大將軍·上將軍이 지휘하고, 지방군은 각 道의 節度使가 지휘한다.

李元淳은 『韓國史』에서 고려시대의 군사제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바 있다. 즉 고려는 상당히 빈틈없는 군사제도를 두었는데, 그중 정치적인 성격의 중앙군과 國防의 성격을 가진 주현군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중앙군의 핵심은 太祖에 직속되어 편성된 2軍 6위이다. 성종14년(995) 봄에 설치된 6衛는 左右·神虎·典威·金吾·千牛·監門 등 6節團으로 수도와 궁성을 방어하고, 그리고 경찰부대 등의 임무를 담당하며, 유사시에는 邊疆으로 차출되기도 하였다. 6衛보다 늦게 설치된 鷹揚·龍虎 2軍은 국왕의 친위군이라 할 수 있으며, 6衛보다 지위가 높았다. 2軍 6衛를 합해 45領이 되는데, 1領에는 1千 名의 병사가 있다. 따라서 중앙군은 45000명이 되는 셈이다. 2軍 6衛는 각각 上將軍·大將軍이 正·副指揮官이 된다. 그리고 이들 上將軍·大將軍들이 '重房'을 구성하는데, 이 중방은 바로 文臣의 '都堂'과 대조되

43) 高句麗研究會編, 1999, 앞의 책, 157쪽.

지만, 고려는 문인들이 정치를 장악했으므로 중앙의 권력은 도당에 비교될 수 없었다. 領의 지휘권을 將軍이라 하며, 그 밑으로 郎將·校尉 등을 두고 각각 將軍房·校尉房 등을 갖는다.

2軍 6衛의 군인은 직업군인에 속한다. 게다가 軍戶軍籍을 두어 軍人田을 갖는데, 각 군인은 2명의 백성에게 군인전을 주어 경작하게 하며,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군인의 장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게 하였다. 군대에 缺員이 생기면 소위 '選軍'을 통해 부족분을 보충하고, 동시에 軍戶에 편입시켜 軍人田을 수여한다. 選軍은 일반적으로 농민 중에서 나이가 적고 힘이 센 자를 선발하는데, 그러나 유사시에는 賤民 중에서도 선발하기도 한다. 이는 원민의 신분상승을 가져올 수 있었으며, 동시에 군인사회의 지위를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고려초기의 군대는 州縣軍으로 편제되었다. '道'와 '界'가 서로 달랐는데, '兩界'의 각 鎮에는 州縣軍이 있어 抄軍·左軍·右軍을 정규군으로 두며, 일단 유사시에 신속히 동원할 수 있는 屯田兵 방식의 常備軍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道'에 설치된 州縣軍은 保勝·精勇·一品軍으로 나누어지는데, 보승과 정용은 방어와 치안을 책임지고, 일품군은 노동부대가 된다.

제1차 遼麗戰爭의 병력배치에 대하여 문헌자료에서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평가 혹은 분석하기란 곤란하다. 그런데 좀 이해하기 힘든 것은 朱曉樂은 그의 領土論文「高麗與中國遼金王朝外交關係略論」에서, 그리고 金龍善은 그의 領土論文「徐熙與十世紀麗遼外交關係」에서 각각 당시 遼軍의 병력규모를 80萬 大軍으로 주장하고 있는데,⁴⁴⁾ 그렇지만 그 어디에도 그 숫자의 명확한 출처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군대의 실제 규모가 어떠했는지를 평가하기란 힘들어 보인다. 1998년 출판된 『케임브리지 中國遼西夏金元史』에서 소항익은 소위 80만에 이르는 대군을 이끌고 국경을 넘었다고 적고 있으나,⁴⁵⁾ 이때 遼軍의 규모는 80만이라고 보기 힘들 것이다. 한편 朱曉樂과 金龍善은 그들의 논문에서 각각 고려의 방어배치에 대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고려가 遼朝에 대항한 군대의 규모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는 않았다.

제1차 요여전쟁에서 쌍방의 전략전술은 다음과 같다. 즉 遼王朝의 전략적 목표는 고려를 압박하여 北宋과의 조빙을 끊게 하고, 이를 통해 遼朝에 '臣服'하도록 하여 후방의 군사적인 위협을 없애는 것이었다. 북송이 遼朝의 강적으로 계속해서 '心腹之患'으로 존재했으므로, 고려가 요의 변경을 침략하는 것은 그들에게 작은 걱정일 불과했을 것이다. 당시 遼朝는 전술적으로 이번 전쟁을 매우 중시하고 있었다. 일찍이 983년 遼聖宗은 고려에 대하여 강경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는데, 우선 동경유수의 兵馬들을 檢閱하여 고려를 정벌하고자 한 것이다.⁴⁶⁾ 985년 遼는 대거 고려정벌을 준비했으나, 요 경내에 흉수가 발생하고 도로가 막히는 바람에 결국 이루지 못 수 없었다.⁴⁷⁾ 이렇게 본다면 遼朝는 이번 전쟁을 위해 10년의 시간을 들여 준비해 온 것이 된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끌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전쟁을 수행할 시기가 성숙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강적 송조와 계속해서 대적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송조와 동맹을 체결한 고려가 후방을 공격할까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요는 적당한 시기를 기다려 왔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한편 계속 북진정책을 추진한 고려에게 있어서 요에 대한 정벌은 거의 환상에 가까웠기

44) 朱曉樂, 2004, 「高麗與中國遼金王朝外交關係略論」, 『中央民族大學碩士論文』, 8쪽, 金龍善, 2004, 「徐熙與十世紀麗遼外交關係」, 『延邊大學碩士論文』, 12쪽.

45) 傅海波 等編·史衛民 等譯, 1998, 앞의 책, 116쪽.

46) 『遼史』卷10—聖宗紀.

47) 『遼史』卷115 高麗傳.

때문에, 宋朝가 출병하여 도움을 주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전쟁이 발발하기 전 992년 5월 고려의 西北界에 거주했던 女眞人들은 거란이 군사를 동원해 침략할 수 있다는 소식을 고려에 알려왔지만, 고려의 群臣들은 이를 믿지 않았고, 또한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다.⁴⁸⁾ 그렇지만 고려는 당연히 전술적으로 적극적인 방어조치를 취하게 된다. 강척 遼軍의 침략에 고려의 群臣들은 대단히 놀라 여러 邊城·軍鎮들이 병력을 모아 방위에 나서도록 하는 한편 특별히 侍中 朴良柔·內史侍郎 徐熙 그리고 門下侍郎 崔亮을 각각 上軍使·中軍使·下軍使에 임명하여 출전토록 하였으며, 성종은 전쟁을 독려하기 위해 親征하였다고 한다.

IV. 戰爭의 性格: 遼가 강역을 침식·침탈한 敵에 응당한 懲罰을 가하고 있는 것은 疆土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수단이었다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을 보다 확실히 예기하고자 한다면, 바로 두 政權 사이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쌍방의 영토 혹은 강역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면 이 일은 어떻게 해도 명확하게 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그것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첫째, 역사상의 문제이다. 쌍방은 모두 역사상의 문제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스스로의 침략행위 혹은 군사적인 정복행위에 '華麗한 外衣(명분, 역사)'를 입히고자 한다. 소위 '出師有名'이라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역사상의 문제는 바로 뻔뻔스럽고 상투적인 쟁개일 수밖에 없다. 만약 여기에서 소위 '民族意識'이라는 것을 들추어내 이성적으로 그 역사상의 문제를 보게 된다면, 소위 그 역사상의 문제는 하나의 쟁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된다. 환원하면 부친 혹은 조부 때에 소유했던 물건을 당신의 세대 때에 와서 반드시 소유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지 않은가? 개인적인 감성으로 보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다만 바로 그럴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 무수한 역사적 사실들은 반드시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역사상의 문제라는 '구실' 혹은 '쟁개'란 바로 아무 근거 없는 허튼 얘기일 뿐이다. 둘째, 당시 쌍방의 경제력·군사력 그리고 정치력의 강약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 역사상의 강역은 대다수 부력을 통해 점령한 것으로, 두 정권이 강역 혹은 영토의 문제를 논할 때에는 바로 '實力'에 의지하여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따라서 소위 正義 혹은 非正義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며, 강역 혹은 영토와 관련되어 일어난 전쟁에서는 어느 한쪽이 바로 정의라고 얘기하면 스스로는 정의가 되는 것이다.

이번 제1차 여요전쟁은 우선 역사상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쌍방의 영토귀속과 관련하여 일찍이 唐朝 때 명확한 '邊界協議'가 있었는데, 이는 開元23年(735) 唐玄宗이 詔旨를 통해 大同江을 경계로 以南은 신라가, 이북은 唐이 관리한다는 '開元乙亥界約文書'를 가리킨다. 이 '邊界協議'에 의하면 압록강은 마땅히 중국 내지에 있는 하천이 되는데, 따라서 遼는 바로 이 협의를 구실로 내걸고 '出師有名'했던 것이다.

건국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926년 遼王朝는 자신들의 동쪽에 위치해 있던 발해국을 멸하고, 그 강역 5천 여리와 수십만에 이르는 병력을 모두 차지하면서 강성해졌고,⁴⁹⁾ 게다가 그 지역을 東丹(東契丹의 뜻이다. 필자)으로 바꾸어 통치하였다. 928년 遼太宗 耶律德光是 다수의 발해유민(東丹國民)을 遼東으로 천사시켜 순식간에 발해의 넓은 강역에는 거주하는

48) 『高麗史』 卷3 成宗世家3.

49) 『遼史』 卷34上 兵衛志, "地方五千里, 兵數十萬 …… 盡有其衆, 契丹益大."

사람들이 적은 지역으로 변해 버렸다.

이어서 고려왕조가 강성해지면서 북방으로 무단히 영토를 확장하자 요의 불만을 샀는데, 당시 遼王朝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고려를 훨씬 능가했다. 중원의 강적 북송이 遼朝의 '心腹大患'이었으므로, 요는 고려를 침략할 적당한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고려왕조는 줄곧 고구려의 계승자임을 자처하며 무단히 북진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당시 遼王朝는 중원의 강적 宋王朝와 거의 매년 전쟁을 수행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부의 女眞人들에 대한 관리통치가 느슨해 질 수밖에 없었다. 고려는 이런 기회를 역이용하여 북진을 거듭해 압록강 연안의 여진인들을 정벌하여 城寨를 쌓고 방어를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왕건의 통치 말년에 이르러 고려의 북부 강역은 이미 지금의 함경남도 永興과 청천강의 남안에까지 이르러 신라 때를 훨씬 크게 넘어서게 되었다.

930년에 이르러 고려왕조는 通德鎮(지금의 平安南道 平原郡)·興德鎮(지금의 平安南道 殷山郡)·永清鎮(지금의 永柔)·朝陽鎮(지금의 平安南道 价川)·安北府(지금의 平安南道 安州) 등 城寨를 두어 서북방의 영토를 지금의 청천강 일대로 확장하였다.

이후 고려는 또 安朔鎮(지금의 平安北道 雲山郡)·朔寧鎮(지금의 平安北道 泰川)·清寨鎮(지금의 慈江道 熙川)·平虜鎮(지금의 平安北道 寧邊) 등의 城寨를 구축한다.

992년에 이르러 고려는 이미 압록강 하류 남안에 거주하고 있던 女眞人들을 백두산 이북으로 驅逐하게 된다.⁵⁰⁾ 고려가 무단히 영토를 확장하자 요의 불만을 샀으며, 이는 이후 遼가 고려를 정벌하는 구실이 될 수밖에 없었다.

고려왕조가 북진정책을 추진한 결과 '開元乙亥界約文書'에 규정된 강역의 범위를 영구히 초과하게 되었다. 따라서 遼朝는 고려의 무단한 침탈에 불만이 있었을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992년 말 결국 쌍방 간에 제1차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遼史』에서는 기록하지 않, 요성종이 동경유수 소항덕 등에게 명하여 고려를 정벌하도록 했다고 하며,⁵¹⁾ 동시에 『高麗史』에는 소항덕이 지금 고려가 거란의 강역을 침식했으므로 이와 같은 군사동원이 있었던 것이라고 적고 있다.⁵²⁾ 양국 간의 전쟁을 한 사서에서는 '伐'로 기록하고, 다른 사서에서는 '討'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遼王朝가 자신의 영토주권을 지키겠다는 정의로운 일면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침략을 당한 고려왕조가 遼의 동부 邊境을 무단히 잠식 혹은 침탈했으므로, 그에 합당한 '懲罰'을 받아야 함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다.

V. 戰爭의 影響: 遼는 '先小勝而後大敗'한 이후 땅으로 平和를 바쳤다면, 高麗는 '先小敗而後大勝'한 이후 '稱臣'으로 땅을 바쳤다

이번 전쟁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遼朝·高麗·宋朝 각각의 왕조와 관련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1. 전쟁이 遼朝에 끼친 영향

우선 遼麗 담판 후 遼는 '女直鴨綠江東數百里地'를 자원하여 고려에 양도했으므로 지금까지 통치해왔던 압록강 이동의 땅을 잃게 된다. 전쟁 중 거란의 鐵騎가 고려 경내를 휩쓸며 그 邊城을 차지하자, 고려조정은 두려움에 가득 차으며 심지어 고려 성종은 하마터면 땅을

50) 朝鮮科學院歷史研究所, 1959, 앞의 책, 87~88쪽.

51) 『遼史』卷134 聖宗紀, "以東京留守蕭恒德等伐高麗."

52) 『高麗史』卷94 徐熙傳, "今爾國奪侵疆界, 是以來討."

때에 화의를 청할 뻔하였다. 그렇다면 요는 이번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한 것이 된다. 그런데 당시 중원의 정략에 바빴던 거란은 북송과의 연운16주를 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조급하게 송어 간의 동맹을 끊어 놓기 위하여 고려와의 전쟁을 끝내고 압록강 이동의 땅을 포기하여 고려에 賜與한 후, 이를 통해 고려의 '稱臣納貢'을 얻어냈던 것이다. 이 점은 요가 전쟁에서 실패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遼는 땅을 가지고 고려의 '臣服'과 맞바꿨다는 점이다. 즉 고려와 북송 간의 관계를 끊어 놓고 송에 대한 朝聘을 자신들에게로 바꾸어 놓은 후, 전력으로 남하하여 송을 공격하게 될 때 후방에서 을 걱정을 제거할 수 있었다.

遼朝는 연운16주를 차지하기 위해 북벌한 宋朝의 군사행동을 저지했으며, 동시에 宋 麗 간의 동맹을 와해시킨 후 거의 매년 남하하여 송을 공격했으므로, 송은 극히 遼에 대적하기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統和4年(986)에서 統和22年(1004)에 이르는 시간 속에서 요는 대규모로 군사를 동원해 송을 공격하지 않고 비교적 소규모로 압박하는데, 즉 요성종과 소태후가 전혀 군대를 이끌고 남하한 것이 아니라 대신들을 보내 침략하도록 하였다.⁵³⁾ 그 중 가장 중요한 전쟁은 統和22年(1004) 요성종과 소태후가 전혀 군대를 이끌고 송을 공격하면서 일어났다. 그해 閏9月 南伐를 진행하여 癸亥에 固安에 이르렀으며, 10월 瀛州를 공격했으나 함락시키지 못하고, 甲午 祁州에 도달하였다. 11월 馬軍都指揮使 耶律諤里는 洺州에서 宋軍을 만나 격퇴시켰다. 甲子 東京留守 蕭排押이 宋의 魏府官吏 田逢吉·郭守榮·常顯·劉綽 등을 사로잡았다. 丁卯 南院大王 善補가 송에 주청하여 王繼忠에게 弓矢를 보내 물레 화의를 청하게 하였다. 왕계충에게 詔命으로 사신을 만나게 하고 화의를 허락하였다. 庚午 德清軍을 격파하였다. 壬申 瀋淵에 이르렀다. 蕭德藻는 환을 맞고 전사하였다. 乙亥 通利軍을 격파하였다. 丁丑 송은 崇儀副使 曹利用을 보내 화의를 청하였다. 12월 송은 李繼昌을 보내 화의를 청하고 蕭太后를 숙모로 하고 매년 歲幣로서 銀 10만兩과 絹 20만疋을 보내겠다고 하였다. 詔命으로 군대의 계엄을 풀었다. 같은 달에 군대를 돌렸다. 황태후는 大丞相 齊王 韓德昌에게 耶律의 姓을 내리고 晉王으로 책봉하였다. 統和23年(1005) 정월 南京에 이르러 각각 爵賞에 차이를 두었다. 10월 송의 세제가 처음으로 도착했는데 이후 常規가 되었다고 한다.⁵⁴⁾ 이상은 바로 요송 간에 전연의 맹이 체결된 후, 遼가 군대를 돌려 되돌아간 사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遼는 宋 경내 깊숙이 들어가 맞닥뜨릴 수 있었던 군사적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게다가 전쟁에서 쉽게 얻을 수 없었던 이득을 쟁취할 수 있었는데, 매년 적지 않은 액수의 세제를 얻게 된 것이 그것이다. 遼王朝의 이번 승리는 제1차 요어전쟁 이후 전력으로 송을 공격하여 얻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1차 요어전쟁 후 요는 고려에 대하여 '宗主國'이라는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데, 이는 일찍이 고려에 대해 군사적인 강경책을 썼을 때와 선명한 대비를 이루는 것으로, 이 후 요어 간에는 경제문화적인 교류가 강화될 수 있었다.

遼太祖·太宗시기 요어 양국은 서로 국경을 접하게 되었으나, 양국 사이에 전쟁은 발발하

53) 舒焚, 1984, 앞의 책, 404쪽.

54) 『遼史』卷14五 聖宗紀, "[閏月己未]南伐. 癸亥, 次固安. …… 十月, 攻瀛州, 不克. 甲午, 下祁州. …… 十一月, 馬軍都指揮使耶律諤里遇宋兵于洺州, 擊退之. 甲子, 東京留守蕭排押獲宋魏府官吏田逢吉·郭守榮·常顯·劉綽等以獻. 丁卯, 南院大王善補奏宋遣人遺王繼忠弓矢, 密請求和. 詔繼忠與使會, 許和. 庚午, 攻破德清軍. 壬申, 次瀋淵. 蕭德藻中伏斃死. 乙亥, 攻破通利軍. 丁丑, 宋遣崇儀副使曹利用請和. …… 十二月, 宋遣李繼昌請和, 以太后爲叔母, 願歲輸銀十萬兩, 絹二十萬匹. …… 詔諸軍解嚴. 是月, 班師. 皇太后賜大丞相齊王韓德昌姓耶律, 徙王晉. …… [統和]二十三年, 春正月, 還次南京. …… 爵賞有差. …… 十月, 宋歲幣始至, 後爲常."

지 않고 예의에 입각한 왕래를 하게 된다. 건국원지 얼마 되지 않았던 고려는 922년 거란과 정식으로 접촉하게 되었으며, 그해 2월 거란은 고려에 낙타와 말 등을 보내고 있다.⁵⁵⁾ 이후 고려 역시 사신을 보내 왕래하였으며, 여요 양국은 평등한 우호관계를 수립할 수 있었다. 그런데 遼太祖 天贊5年(926) 요가 발해를 멸한 후, 그 강역을 직접 통치범위에 넣고 그 지역을 東丹(東契丹의 뜻이다)으로 바꾸었다. 이는 당시 북진정책을 추진하고 있던 고려에게 매우 불리한 것이었다. 942년 10월 거란의 사신이 고려에 도착하여 낙타 50필을 贈送하자, 태조 왕건은 거란이 발해와의 동맹을 깨뜨리고 말하였으니, 이는 심히 無道한 것으로 이웃으로 할 수 없다며 그들과 국교를 끊고 그들의 사신 30명을 海島로 유배시키고 낙타 50필을 萬夫橋 밑에 묶어 아사시켰다. 이로써 요어 양국의 관계는 악화되었는데, 발해의 멸망이 두 나라의 관계를 악화시킨 주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⁵⁶⁾ 이와 달리 고려는 북송과 빈번하게 교류하며 군사적인 동맹을 통해 요를 견제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송여 간에 이루어질 군사동맹을 막기 위해 983년 요성종은 고려에 강경책을 구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우선 동경유수 관할의 兵馬를 집결하는 등 고려정벌에 대한 뜻을 드러냈다.

그런데 제1차 요어전쟁이 끝난 후, 고려가 遼에 臣服하게 되면서 양국 간에는 원래의 敵對관계에서 宗屬관계로 전환되었다. 성종13년(994) 2월 고려는 비로소 거란의 統和年號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이후 수차례 사신을 보내 方物과 幣物을 선사하였다. 遼는 統和13年(995) 11월 사신을 보내 王治를 高麗國王에 책봉한다.⁵⁷⁾ 이렇듯 양국은 초보적인 '朝貢關係'를 확립하게 된 것이다. 이후 고려는 요의 봉화연호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사신을 보내 요에 조공하였다. 『高麗史』에 의하면, 성종13년(994) 4월 侍中 朴良弼를 奉表하여 거란에 보내 正朔을 행한다고 고했으며, 또한 같은 해 사신을 보내 妓樂을 선사하였다. 성종14년(995) 李周植을 거란에 보내 방물과 배를, 그리고 같은 해 李知白을 보내 방물을, 또한 童子 10명을 보내 契丹語를 공부하게 하였다. 이어서 성종15년(996) 韓彦卿을 보내 폐물을 선사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遼史』에서는 고려가 統和13年(995) 正月 이주정을 보내 來貢했으며, 같은 해 冬10月 이지백을 보내 來貢하였고, 그리고 그 이듬해 2월 다시 童子 10명을 보내 國語를 공부하게 했다고 적고 있다.⁵⁸⁾ 고려는 수차례 遼에 사신을 보내 조공했는데, 이런 사실은 요어 간의 '宗屬關係'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또한 양국 간의 경제문화적인 교류와 발전을 크게 촉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2. 전쟁이 高麗왕조에 끼친 영향

우선 제1차 요어전쟁에서 고려는 비록 군사적으로 패배하여 이질 수 없이 遼에 '稱臣納貢'하게 되었으나, 외교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稱臣'의 대가로 '女直鴨綠江東數百里地'를 얻게 되면서 전쟁터에서 쉽게 얻을 수 없는 값비싼 것을 얻게 되었다. 이는 바로 고려가 외교에서 승리를 쟁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992년 12월 요성종은 동경유수 소항덕 등에 명하여 고려를 정벌하도록 하는데,⁵⁹⁾ 이로써 제1차 여요전쟁이 발발한다. 사실 그해 5월 고려의 西北界에 거주했던 女眞人들은 거란이

55) 『高麗史』 卷1 太祖世家1.

56) 張登榮, 2010, 「論遼麗戰爭與遼麗宋三國的政治關係」, 『延邊大學碩士論文』.

57) 『遼史』 卷13四 聖宗紀.

58) 『遼史』 卷13四 聖宗紀, "[統和]十三年二月, …… 高麗遣李周植來貢, 冬十月, …… 高麗遣李知白來貢, …… 十四年三月, …… 高麗復遣童子十人來學本國語."

59) 『遼史』 卷13四 聖宗紀.

군사를 동원해 침략할 수 있다는 소식을 고려에 알려왔지만, 고려의 群臣들은 이를 믿지 않고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아 첫 전투에서 패배하고 만다. 遼가 봉산군의 방어선을 뚫고 청원강 북안에 다다르자 고려조정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群臣들은 성종에게 땅을 떼어 바치고 화의를 청하자고 간언했는데, 서희는 그 의견에 반대하며 "거란의 東京으로부터 우리나라 安北府에 이르는 수 백리의 땅이 일찍이 모두 生女眞의 자지가 되었었는데, 光宗 때에 이를 도로 찾고 嘉州·松城 등의 성을 쌓았습니다. 지금 거란이 군대를 동원한 의도는 이 두 성을 차지하려는 것에 불과하며 고구려의 舊地를 찾겠다고 聲言하여 실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兵勢가 대단한 것만을 보고 西京 이북의 땅을 떼어 주는 것은 옳은 대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땅을 떼어 敵에게 주는 것은 萬世之恥입니다"라고 奏請하였다. 이에 성종은 割地할 계획을 포기하게 된다. 당시 성종이 和·戰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遼軍은 청천강을 넘어 그 남안의 安戎鎭을 공격하는데 고려군의 완고한 저항에 마다뜨리자 어쩔 수 없이 강 이북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소항덕은 더욱 고려에 항복을 재촉하는데, 그가 보낸 항복을 재촉하는 서신을 통해 서희는 遼의 의도, 즉 고려를 멸망시키려 침략한 것이 아님과 그 속에 화의할 조짐이 있음을 확신하고 자원하여 화의를 위해 요군과 교섭하게 된다.

거란의 군영에서 소항덕은 서희에게 요군이 출병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는데, 즉 "당신의 나라는 옛 新羅 땅에서 건국되었고, 고구려의 옛 땅은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바 어찌하여 당신들이 侵蝕하였는가? 또 우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바다를 건너 宋을 섬기고 있는 까닭에 이렇게 군사를 낸 것이다. 만약 땅을 떼어 바치고 朝聘을 회복한다면 무사하리라"라고 위협하였다. 소항덕의 지탄에 서희는 비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으며 機智에 입각한 외교적인 연사로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는 바로 고구려의 舊地이다. 그러므로 국호를 高麗라 하고 평양에 도읍을 정한 것이다. 만약 地界를 가지고 말하면, 上國의 東京도 우리 境域 안에 있으니 어찌 侵蝕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또 鴨綠江 内外도 역시 우리 境內인데 이제 女眞이 그 사이를 盜據하여 완악한 행위와 간사스런 태도로 교통을 차단했으므로 바다를 건너기보다 왕래하기가 곤란하니 朝聘이 통하지 못함은 여전 때문이다. 만약 여전을 내쫓고 우리의 舊地를 회복하여 거기에 城과 堡를 쌓고 길을 통하게 된다면, 어찌 朝聘을 닫지 않겠는가?"라고 반박하였다. 서희의 화의 요청에 요성종의 '罷兵' 명령과 고려의 요에 대한 '奉表請罪'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요는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송어 간의 통행을 끊어 놓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전략적인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遼는 서희의 요구에 동의하여 여전을 양국 간의 담판의 희생양으로 삼아 詔命으로 여전의 압록강 이동 수 백리 땅을 고려에 賜與한다. 이렇게 요의 승낙 하에 고려는 압록강 동안의 女眞(東女眞)을 '蕩平'하여 그곳에 6개의 城池를 쌓았는데, 즉 興化·龍州·通州·鐵州·郭州·龜州 등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고려는 그 西北邊界를 압록강 남안에까지 확장할 수 있었으며, 게다가 북진정책의 중요한 지점 또한 확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는 고려가 遼·宋이라는 두 강대국의 이해충돌을 이용하고 얻은 실리주의 외교의 큰 성과라고 할 만하다.

고려가 비록 군사적으로 실패했을지 모르나 외교적으로는 기적에 가까운 승리를 얻었는데, 즉 遼에 '臣服'하는 대가로 넓은 疆土를 얻게 되면서 고려의 판도가 더욱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상의 사실을 통해 무엇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지는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제1차 요여전쟁 후 고려가 비록 '稱臣納貢'으로 '女眞鴨綠江東數百里地'를 얻었지만, 그러나 고려의 이번 승리는 이후 遼가 두 차례에 걸쳐 침략을 자행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고려가 遼에 '稱臣'하여 맺어진 양국의 '臣屬'관계는 武力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따라서 시종 긴장이 동반했으며 안정적이지 못했다. 고려 태조 왕건은 『訓要十條』에서 "다만 우리 東方은 오래 전부터 唐風을 양모하여 文物禮樂을 다 그대로 준수하여 왔다, 그러나 지역이 다르고 사람의 성품도 각각 같지 않으니 구태어 역지로 같게 할 필요가 없다, 契丹은 禽獸之國으로 풍속과 언어가 다르니 衣冠制度를 본받지 말라, …… 強惡之國과 이웃하고 있으니 어찌 위험을 잊을 수 있겠는가, 兵卒들을 보호하고 돌봐주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언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고려의 遼에 대한 臣服은 어쩔 수 없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려 穆宗2年(999) "[穆宗이] 吏部侍郎 朱仁紹를 宋에 보냈다, 宋眞宗이 그를 불러 맞이했다. 그는 高麗人들이 華風을 思慕하고 있는 일들과 거란에 압박당하고 있는 형편(劫制之狀)을 진술했다"고 하는 것처럼 송에 사신을 보내 서로 연합하여 거란에 보복을 시도하려 하였다. 그리고 1003년 고려는 또 戶部郎中 李宜古를 송에 보내 요에 대항할 일을 함께 협의하기도 하였는데, 즉 '晉湖燕薊'을 이유로 宋眞宗이 연운16주를 회복하기 위한 결심을 하도록 자극했던 것이다. 이는 바로 宋의 출병으로 거란을 견제하고자 한 목적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⁶⁰⁾ 고려가 송과 연합하려는 행동은 요에 의해 말라져서 큰 불만을 샀는데, 여하튼 遼는 송어 관계를 끊어 놓기 위해 압록강 이북의 女眞人들이 거주하던 지역을 양도하는 대가를 치르고 말았다. 이 때문에 요성종은 고려에 '問罪書'를 보내 고려가 동으로 여진과 연결하고, 西로 송과 왕래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따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遼王朝는 출몰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2차로 고려를 침략하게 된다.

3. 전쟁이 北宋에 끼친 영향

제1차 요어전쟁 후 遼는 고려왕조를 압박하여 '臣服'시키고, 동시에 북송과의 '宗藩關係'를 끊어 놓아 원래 고려의 宋에 대한 朝聘을 자신들에게로 바꿀 수 있었다. 이는 바로 송어 간의 동맹이 결렬된 것을 의미하는데, 이후 송은 요의 침략이 있을 때 바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雍熙北伐'이 있기 1년 전(985) 송은 監察御史 韓國華를 고려에 보내 군사동맹을 통해 함께 요에 대항할 것을 청하게 되는데, 고려는 이에 대단히 신중하게 반응하고 결국 송과 연합하여 거란을 공격하자는 승낙을 이행하지 않았다. 제1차 요어전쟁 후 요가 고려에게 북송과의 관계를 끊도록 요구하였기 때문에, 북송은 고려와의 군사적인 동맹을 통해 요를 견제하려던 책략은 실패하고 말았다. 이는 북송이 986년에서 1004년까지 요의 대규모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 바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고립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1004년~1005년에 북송이 요의 대규모 공격을 받아 결국 '澶淵之盟'을 맺게 되면서 매년 요에 銀 10만냥과 絹 20만필을 세패로 보내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요의 철군과 양국 간의 평화를 가질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제1차 요어전쟁은 문헌사료의 부족으로 많은 문제들을 고증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이 전쟁이 10세기 동북아 정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던 것만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遼왕조가 망으로 고려의 '臣服'과 맞바꿀 수 있었다면, '不敗'로 '敗北'한 것이지만, 송어 간의 동맹을 깨뜨리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고려는 遼에 '稱臣'함으로써 망을 차지할 수 있었으니, '不勝'으로 '勝利'를 쟁취한 것이다. 한편 북송은 이번 전쟁으로 孤立無援의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따라서 이번 전쟁으로 10세기 송·요·고려 삼국관계의 기반은 더욱 공고히 될 수 있었다고 하겠다.

60) 『宋史』卷487 高麗傳, "乞王師屯境上爲之牽制."

VI. 遼가 疆域으로 고려의 臣服을 바꾼 이유: 宗主國의 代價

遼가 땅으로 고려의 단기적인 '臣服'과 맞바꾸기로 결정한 것은 그 안에 매우 중요한 원인들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중원에 강적 북송이 웅거하고 있었다. 10세기말 거란 遼왕조는 중원에 대한 정략과, 그리고 중원의 강적 北宋과 燕雲16州를 둘러싼 충돌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비록 요송 간에 일련의 전쟁이 있었으나, 특히 986년 '雍熙北伐'에서 패배한 북송은 요에 대한 강경책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즉 '改戰爲和', 그리고 '守內虛外'와 같이 송의 관계는 남북대치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비록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북송은 여전히 요가 중원으로 세력을 확장하는데 있어서 강력한 위협이었다.

둘째, 原발해국의 영토에서 여진이 독립하고 安定國이 興起하였다. 거란인들이 발해를 정복하고, 이를 통해 遼陽 주변에 적지 않은 渤海人들을 재배치하면서 요의 동부 변경지역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926년 前발해의 모든 영토가 요의 관도내로 들어올 수도, 게다가 모든 발해인들이 요의 통치를 인정했던 것도 아니었다. 原발해 왕실의 적지 않은 무리들이 고려로 피난하였다. 原발해국은 바로 고구려의 잔여 통치계층에 의해 건국된 것으로, 따라서 그들은 고려왕조를 먼 친척 혹은 잠재적인 동맹국으로 생각하고 있었다.⁶¹⁾ 환언하면, 당시 遼朝의 邊界 외곽에 세 갈래의 발해인들은 독립을 保持하고 있었는데, 지금의 黑龍江省 松花江 유역의 서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발해인들이 그 첫 번째이며, 지금의 遼寧省 압록강以西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발해인들이 그 두 번째이고, 그리고 셋째, 가장 강력한 발해인들로서 926년 牡丹江 유역에서 독립국 安定國(한국어로 Chongan)을 세운 세력이며, 이들은 前발해국의 上京(지금의 吉林省 東京城)에 해당하는 兀惹(We-jo)에 도움을 두었다.⁶²⁾

975년 安定國과 요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 거란의 토벌군이 安定國을 공격했으나, 실패했다. 985년-986년 사이에 요는 재차 그 지역을 토벌하게 되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록도 없다. 아마 실패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일찍이 10세기 80년대부터 거란의 요왕조는 압록강 유역에서 거주하던 각계 여진 부족과 적지 않은 충돌이 있었다. 북송은 일찍이 이들 여진부족과 모종의 만기란의 동맹을 맺고자 시도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국면을 해결하기 위하여 991년 요는 압록강 하류 지역에 군사를 주둔시켜 통치할 수 있는 3개의 堡壘를 두어 女眞과 宋 간의 해상연결을 막고자 하였다.

셋째, 고려는 북진정책을 통해 女眞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압록강 東岸을 호시탐탐 노리며 영토를 확장해 갔다. 당시 요어는 비록 이웃하고 있었으나, 10세기 80년대까지 직접 국경을 맞닿고 있지 않았으므로, 遼 동부의 여진 諸部族과 安定國은 고려와 요의 완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遼가 여진과 安定國에 대해 공격을 감행하자, 이 지역의 긴장 국면은 더욱 가속화되었을 것이다. 거란인들은 아마도 고려가 遼朝의 통치하에 있던 적지 않은 발해유민들을 동원하여 지역적인 분열활동을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 같은데, 이러한 분열행위는 이후 1029년-1030년에 대규모 반란으로 나타나게 된다.⁶³⁾

고구려 구지를 회복하기 위하여 왕건은 통일전쟁을 수행하고, 동시에 담대하게 외교·군사

61) 傅海波 等編·史衛民 等譯, 1998, 앞의 책, 116쪽.

62) 傅海波 等編·史衛民 等譯, 1998, 앞의 책, 115쪽.

63) 傅海波 等編·史衛民 等譯, 1998, 앞의 책, 116쪽.

적으로 '北進政策'을 추진하였는데, 즉 중국대륙의 군용할거의 국면을 이용하여 전력으로 북부로 疆界를 넓혀갔다. 따라서 그의 통치 말년에 이르러 고려의 북부 疆域은 이미 지금의 함경남도 永興과 청천강 南岸에까지 이르러 신라 배를 훨씬 능가하였다.

930년에 이르러 고려왕조는 通德鎮(지금의 평안남도 平原郡)·興德鎮(지금의 평안남도 殷山郡)·永清鎮(지금의 永柔)·朝陽鎮(지금의 평안남도 价川)·安北府(지금의 평안남도 安州) 등 城塞를 두어 서북방의 영토를 지금의 청천강 일대로 확장하였다.

이후 고려는 또 安朔鎮(지금의 평안북도 雲山郡)·朔寧鎮(지금의 평안북도 泰川)·淸塞鎮(지금의 慈江道 熙川)·平康鎮(지금의 평안북도 寧邊) 등의 城鎮을 구축한다.

요송 양국이 서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을 때, 고려는 이 기회를 이용해 북진정책을 추진하여 압록강 연안의 여진인들을 계속 정벌하였으며, 그곳에 城塞를 구축하여 변경방어를 강화했던 것이다. 992년에 이르러 고려는 이미 압록강 하류 남안에 거주하고 있던 여진인들을 백두산 이북으로 驅逐하게 된다.⁶⁴⁾ 고려가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하자 遼의 불만을 샀으며, 이는 이후 遼가 고려를 정벌하는 구실이 될 수밖에 없었다.

鐵嶺 이북을 포함한 高麗의 疆域圖⁶⁵⁾

넷째, 가장 중요한 이유로 遼朝는 宋朝를 대신해 중원의 소위 '正統王朝'가 되고자 하였다. 이번 전쟁이 발발하기 전 고려는 줄곧 송조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또한 송조를 중원의 정통왕조로 인정하여 그들의 封賜를 받아왔다. 환언하면 고려왕조는 줄곧 중원의 송조를 '宗主國'으로 인정하며, 송조의 행위만을 보고 따라왔던 것이다. 따라서 고려왕조는 감히 遼朝에 대항할 수도, 그리고 遼의 변경을 침탈할 수도 있었다. 당시 遼의 '心腹大患'은 송이었으므로, 따라서 요는 고려의 도전적인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 요는 중원을 둘러싼 전쟁에서 유리한 국면이 출현하기만을 기다린 후, 고려문제를 건요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을 때, 그 유일한 방법으로 무력을 동원하여 고려를 굴복시켰던 것이다. 이후 遼는 정식으로 고려 성종 王治를 '高麗國王'에 책봉하고, 고려는 거란의 統和年號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렇듯 고려가 정식으로 거란에 '稱臣納貢'함으로써 북송과의 宗藩관계는 깊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동시에 송에 대한 朝聘을 遼로 바꾸게 되었다. 이로써 遼는 소위 중원정권의 종주국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이는 아마 遼가 고려를 침략한 중국적인 目標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VII. 結論

이상을 종합하면 제1차 요여전쟁은 문헌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중국측 사료가 적어 많은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낼 수 없었다. 聖宗시기 국력이 가장 왕성했던 遼는 동시에 송이 간의 동맹이 有名無實한 상태에 있고, 송과의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면서 적절한 시기를 정해 고려를 침략함으로써 후방의 걱정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이후의 두 차례에 걸친 고려침략에서도 증명되는 사실이다. 이번 전쟁은 10세기 송·요·고려의 관계를 확립시키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할 것이다.

64) 朝鮮科學院歷史研究所, 1959, 앞의 책, 87~88쪽.

65) 高句麗研究會編, 1999, 앞의 책, 25쪽.

辽与高丽王朝的第一次战争研究

申友良* (湛江师范学院历史系)

- I. 战争的起因：双方领土的扩张是最为关键的因素
- II. 战争的经过：辽来势凶猛求速决速战，高丽一触即溃却有惊无险
- III. 战争的规模：辽与高丽军事制度、军事实力、兵力部署及战略战术
- IV. 战争的性质：辽王朝对蚕食侵扰之敌进行惩罚是捍卫疆土的正义手段
- V. 战争的影响：辽先小胜而后大败用土地换和平，高丽先小败而后大赢用称臣换土地
- VI. 辽以土地换高丽臣服的原因：宗主国的代价
- VII. 结论

辽王朝与高丽王朝发生在公元992年12月至公元993年2月的这次战争，可以说是辽与高丽之间的第一次正面交锋，对十世纪的东北亚地区产生了深远的影响。对于这次战争的起因和实质等问题，中外学者们曾有过涉及，但都语焉不详。因为这次战争直接关系到朝鲜半岛的外交英雄徐熙的光辉形象，所以本文将就这次战争的起因、性质以及双方军事策略等方面的问题，做一次深入的分析和探讨，以求证于专家学者。

I. 战争的起因：双方领土的扩张是最为关键的因素

公元992年12月，辽圣宗“以东京留守萧恒德等伐高丽”¹⁾，发动了第一次辽王朝征讨高丽王朝的战争。



辽东京道与高丽疆域图²⁾

* 申友良 (1964--), 男, 湖南邵阳人, 历史学博士, 博士后, 湛江师范学院副教授, 从事中国古代史、中国民族史和中西文化交流等方面研究。

¹⁾ 脱脱:《辽史》卷13 圣宗四, 中华书局, 1983年, 第143页。

²⁾ 谭其骧主编:《中国历史地图册》第六册宋辽金时期, 中国地图出版社1982年第8-9页辽东京道。

(一)、辽朝之所以要发动这次战争,其原因至少可以从两个方面来进行分析。

1、中原领土扩张受阻转而用兵高丽。契丹辽王朝的劲敌是中原的北宋王朝,而处在朝鲜半岛的高丽王朝并没有构成对辽王朝的威胁。所以在辽王朝前期的扩张上注重的是在中原地区的扩张,并没有用兵高丽王朝的计划。

辽朝前期的大规模对外扩张主要有三次。第一次发生在天赞三年(924年),扩张的方向是向西和向北,统帅是辽太祖,副帅是天下兵马大元帅次子德光。征服的对象主要是北方草原地带的各个游牧民族。这一次,辽朝向西一路打到中亚,向北直接把势力范围延伸到贝加尔湖以北,从而完成了对于整个蒙古草原的统一。第二发生在天显元年(926年),这一次辽太祖倾国而东,灭掉了立国二百年之久的海东盛世国渤海,从而统一了整个东北地区。第三次是发生于会同元年(938年),这一次辽朝从中原五代政权的后晋手中拿到了以北京和大同为中心的所谓燕云十六州之地。由于这个地域范围跨越燕山和阴山南北,从此,长城地带所在的燕山和阴山天险尽归辽朝所有,并且成为辽朝南下进攻中原的前哨基地,有了燕云十六州,契丹马队就可以挺进中原,饮马黄河了。

契丹辽王朝与高丽相邻,在两国还没有交战时,辽太祖和辽太宗时期与高丽礼尚往来,互不侵犯。建国不久的高丽在公元922年与契丹开始了正式接触。同年2月,契丹遣使高丽并赠送骆驼和马等³⁾。此后,高丽亦遣使报聘,丽辽两国开始建立起平等的睦邻关系。然而,926年,契丹灭渤海国,“地方五千里,兵数十万…尽抚其众,契丹益大”,⁴⁾并将其地改名为东丹(东契丹之意)。928年,辽太宗耶律德光将渤海遗民(东丹国民)大量内迁辽东,一时间广袤的渤海故地变得地广人稀。

由于辽国对原渤海地区特别是对朝鲜半岛北部女真地区控制减弱,高丽随即开始出兵与辽朝控制下的女真人展开对朝鲜半岛北部地区的争夺。机会终于来了,契丹太宗天显九年(公元934年),渤海世子大光显领兵数万投靠高丽。由于渤海、高丽世称同种,且渤海为高丽之屏障。高丽由此与辽朝绝交,互相敌视。

面对高丽的公开绝交、流放契丹使者、大量招诱渤海遗民、与北宋建立“友好”联盟以及不断向北扩张领土等,辽王朝的统治者曾一度十分震怒。但那时由于辽太宗耶律德光正忙于经略中原,后继者世宗、穆宗和景宗时代,不但内乱不断,而且还要应付后周和北宋试图收复燕云十六州等地的北伐,无暇东顾,只好对高丽的北扩采取姑息态度,不愿用兵高丽,使自己腹背受敌。

986年,宋乘辽国“主少国疑”即辽圣宗年幼,萧太后摄政之机再次出师北伐,史称“雍熙北伐”。此前一年,宋曾遣监察御史韩国华致诏高丽,期望与其结成军事同盟,张倚角之势,联合抗辽,“中成师徒,迭相骑角,协比邻国,同力荡平”契丹这个“垂亡之虏”。⁵⁾然高丽对此甚为慎重,史载“王迁延不发兵。国华谕以威德,王始许发兵西会。”⁶⁾但高丽终

³⁾ 郑麟趾:《高丽史》(上册)卷1世家,首尔亚细亚文化社1990年第41页。按:《辽史·太祖本纪(上)》载,太祖九年(915)十月,高丽进宝剑。神册三年(918)二月,高丽来贡。这两次均在高丽太祖正式即位之前。故从高丽太祖五年契丹遣使高丽为丽辽交往之始。

⁴⁾ 脱脱:《辽史》卷34兵卫志上,中华书局1983年第396页。

⁵⁾ 《宋史·高丽传》和《高丽史·世家三》在韩国华出使时间上记载不同。《宋史》系于986年即雍熙三年,是年春正月,宋朝已经分兵布将完毕,则韩国华出使似乎在宋朝出师之后;而《高丽史》系于985年即成宗四年。按以常理度之,宋欲联兵高丽,应在出兵之前。《宋史》对此记载恐为笔误。

⁶⁾ 郑麟趾:《高丽史》(上册)卷3世家,首尔亚细亚文化社1990年第68页。成宗四年夏五月。按:对宋丽结盟的研究,韩国学者金庠基认为高丽并未发兵(《新编高丽史》,汉城大学出版社,1985年版,第64页);李丙焄则认为高丽仅为形式上发兵应援,并在边境地带集结了军队。(《韩国史·中世纪篇》,汉城,己酉文化社,1961年版,第174页)。关于高丽所派的兵力,富弼《韩国华神道碑铭序》(出自王叔《金石萃编》,北京,中国书店,1985年版)说是“数万”;宋人尹洙《河南先生文集》(上海书店,1989年版)中的《韩国华墓志铭序》为“二万五千”;台湾陶晋生教授引相关史料也考订出高丽正式发兵25000人,并进入契丹境内。(《宋辽关系史研究》,台北联经出版公司,1984年版,第170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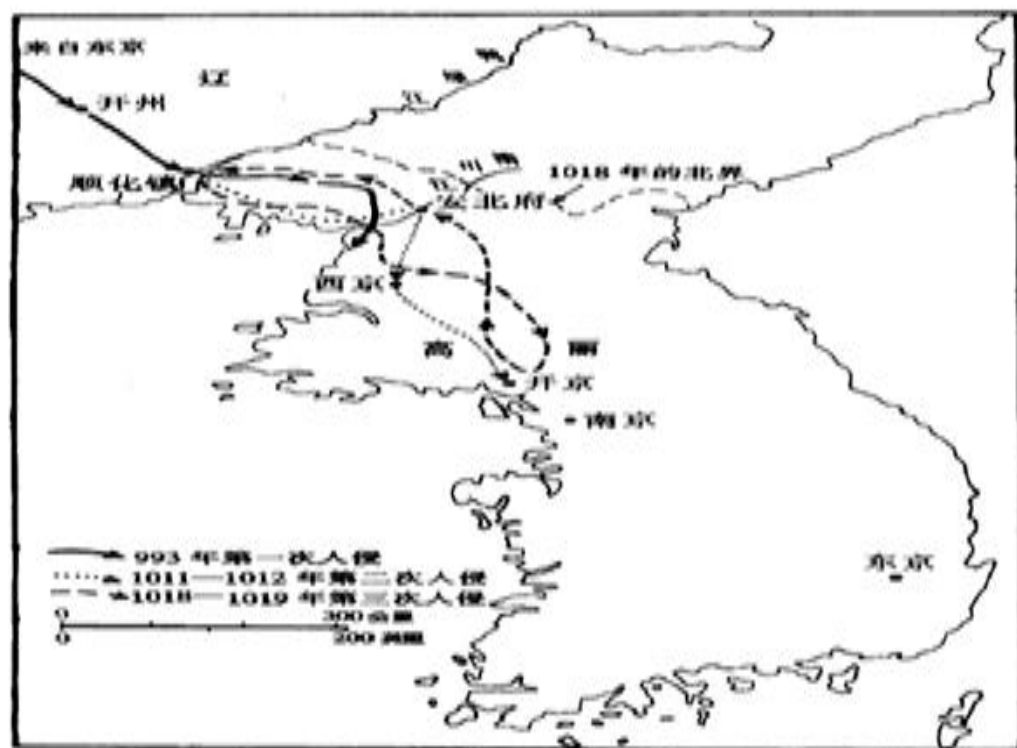
究未履行协同宋军与契丹交战的诺言。

在宋朝争取高丽的同时，契丹人也没有忽视高丽的存在。就在宋朝出使高丽后不久，契丹也于 986 年春正月，屈格“遣厥烈来请和”，⁷⁾意图稳住高丽，避免腹背受敌。其实，为了防止宋丽可能达成的军事同盟，辽圣宗早在即位的当年（983 年），就开始对高丽采取强硬政策，先检阅东京留守所总兵马，摆出欲亲征高丽的姿态。⁸⁾公元 985 年，辽朝准备大举进攻高丽，结果由于辽泽水溢，道路不通而没有成功。⁹⁾也就是说，至少到公元 985 年为止，辽与高丽还是没有过正面的军事冲突。

可是，就在辽宋进行战争的同时，高丽却乘机北进，不断地对鸭绿江沿岸的女真人进行征伐，建城筑寨，加强边防。至 992 年，高丽已将鸭绿江下游南岸的女真人基本驱逐到长白山以北地区。¹⁰⁾高丽不断扩张的态势引起了辽朝的不满，并成为了后来辽朝征讨丽的口实。

再加上北宋在公元 986 年“雍熙北伐”的溃败，宋太宗对收复燕蓟和联丽抗辽已失去信心。同年他曾询问廷臣：“自今复作如此事否？”。淳化四年，他又说“治国在乎修德，四夷当置之度外。……往则奇锐居先，还乃勒兵殿后，静而思之，亦可为戒。”¹¹⁾由此，宋朝暂时改变了对辽强硬政策，改战为和，“守内虚外”，¹²⁾宋辽关系逐渐形成南北对峙的局面。

宋辽停战后，辽开始着手经略朝鲜半岛，迫使高丽称藩纳贡，拆分宋丽联盟，以解除其全力南下征服北宋的后顾之忧。公元 992 年 12 月，辽圣宗命东京留守萧恒德统军伐高丽，发动了第一次丽辽战争。



992-1019 年辽对高丽的数次战役¹³⁾

⁷⁾ 郑麟趾：《高丽史》（上册）卷 3 世家，首尔亚细亚文化社，1990 年第 70 页，成宗五年。

⁸⁾ 脱脱：《辽史》卷 10 圣宗一，中华书局，1983 年第 112 页，圣宗统和元年冬十月。

⁹⁾ 脱脱：《辽史》卷 115 高丽传，中华书局，1983 年第 1519 页。

¹⁰⁾ 朝鲜科学院历史研究所：《朝鲜通史》上卷，吉林人民出版社 1959 年第 87-88 页。

¹¹⁾ 李焘：《续资治通鉴长编》卷 34 太宗淳化四年，中华书局 1995 年第 758-759 页。

¹²⁾ 陈邦瞻：《宋史纪事本末》卷 13 契丹和战，中华书局 1977 年第 89-90 页。

¹³⁾ 傅海波等编，史卫民等译：《剑桥中国辽西夏金元史》，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98 年第 114 页。

2、以武力迫使高丽臣服，解除后顾之忧。要想用武力解决高丽问题，必须满足两个必要的条件。一是辽宋对峙局面的出现，辽等待这个时机的出现。其实在辽太祖和辽太宗时期，辽与高丽的关系还是比较密切的，他们之间礼尚往来，互不侵犯。一直到公元934年，渤海世子大光显领兵数万投靠高丽之后，高丽才与辽朝绝交，互相敌视。

面对高丽的公开绝交、流放契丹使者、大量招诱渤海遗民、与北宋建立“友好”联盟以及不断向北扩张领土等，辽王朝的统治者曾一度十分震怒。但那时由于辽太宗耶律德光正忙于经略中原，后继者世宗、穆宗和景宗时代，不但内乱不断，而且还要应付后周和北宋试图收复燕云十六州等地的北伐，无暇东顾，只好对高丽的北扩采取姑息态度，不愿用兵高丽，使自己腹背受敌。

986年，北宋“雍熙北伐”的溃败，使得宋太宗对于收复燕蓟和联丽抗辽这些事情失去了信心，从而改变了对辽的强硬政策，改战为和，“守内虚外”，宋辽关系逐渐形成南北对峙的局面。

随着宋辽的停战，辽便开始了着手经略朝鲜半岛，迫使高丽称藩纳贡，拆分宋丽联盟，以解除其全力南下征服北宋的后顾之忧，继而便发生了辽丽之间的第一次军事冲突。

二是辽王朝本身的强大。辽王朝到圣宗时期，契丹国家的国力已经达到鼎盛阶段。¹⁴⁾ 982年辽圣宗继位，时年12岁，由萧太后摄政。萧太后执政期间，进行了改革，并且励精图治，注重农桑，兴修水利，减少赋税，整顿吏治，训练军队，使辽国百姓富裕，国势强盛。1009年圣宗亲政后，辽朝已进入鼎盛，基本上延续萧太后执政时的辽国风貌，并且还反对严刑峻法，不给贪官可乘之机。实行科举，编修佛经，佛教极为盛行。在位其间四方征战，进入辽国疆域的顶峰。对宋战争屡屡获胜，俘获号称杨无敌的宋朝名将杨继业。

1004年（统和二十二年），辽宋订立澶渊之盟，宋每年向辽输送岁币银十万两，绢二十万匹。从此两朝和好达一百多年之久。圣宗结好西夏，西夏摇摆于宋、辽之间以图存，形成辽、宋、西夏三国鼎立的后三国时代。

（二）、对于高丽王朝来说，之所以会承受这次战争的打击，与高丽王朝本身存在两个方面的决策失误有着密切的关系，也可以说这两个方面的决策失误直接导致了这次战争的必然发生。

1、对强邻辽王朝采取强硬的外交态势，值得深思。王建自公元918年建立高丽王朝后，尽管曾一度与辽王朝保持友好关系，但在骨子里却另有所图，934年正式与辽绝交。王建之所以对契丹有如此强硬态度，是因为他深知自己的北进政策必然会导致与契丹的冲突。同时他也做好了与后晋结盟夹击契丹的准备¹⁵⁾。当时契丹虽势盛，但因忙于经营汉地，与北宋的战争胜负未卜，加上自身内乱频繁，无暇东顾，故不愿用兵高丽。943年4月，王建临终前亲授《训要》嘱咐后人：“惟我东方，旧慕唐风，文化礼乐，悉尊其制。殊方异土，人性各异，不必苟同，契丹是禽兽之国，风俗不同，言语亦异，衣冠制度，慎莫效焉”，他还说：“又以强恶之国为邻，安不可忘危。兵卒宜加抚恤，量除徭役，每年秋闋，勇锐出众者，随宜加授。”¹⁶⁾由此可见，王建对契丹的警惕和防范态度，也为其继承者定下高丽的外交理念和基调，即主张延续中原汉族王朝与朝鲜半岛的传统友好关系，不与游牧民族出身的契丹通好。对王建的这个“祖训”，后世高丽大臣、著名学者李齐贤认为：“创业垂统之主，其见远，其虑深，非后世所及也。”¹⁷⁾

公元960年，后周大将赵匡胤自立为帝，创立宋朝。962年，高丽即遣使向宋朝贡。次年高丽光宗王昭接受宋的册封为高丽国王，并行宋年号。¹⁸⁾在此后二十年时间里，高丽借助

¹⁴⁾ 舒焚：《辽史稿》，湖北人民出版社1984年，第298页。

¹⁵⁾ 司马光：《资治通鉴》卷284后晋纪，上海古籍出版社1997年，第2665-2669页，齐王开运二年。

¹⁶⁾ 郑麟趾：《高丽史》（上册）卷2世家，首尔亚细亚文化社1990年，第55页，太祖二十六年四月。按：这个《训要》共十条，此为第四条和第九条。

¹⁷⁾ 郑麟趾：《高丽史》（上册）卷3世家，首尔亚细亚文化社1990年，第70页，成宗五年正月。

¹⁸⁾ 郑麟趾：《高丽史》上卷2世家，首尔亚细亚文化社1990年，第61-62页，光宗十三年、光宗十四年十二

北宋的力量在战略上牵制契丹，乘机北进，多次遣使入宋，或献方物，或呈表文，北宋皇帝也屡次册封高丽新王，双边往来频繁，关系相当密切。¹⁹⁾至 979 年，北宋荡平群雄，混一海内，结束五代十国割据局面，并欲乘胜收复燕云，却为辽所败。由此，辽宋形成南北对峙的政治格局，东亚地区呈现出以辽宋争霸为中心的局势，高丽卷入其中。在高丽、北宋与辽的三角关系中，高丽对北宋而言，是可以成为犄角之力，在关键时刻出兵助宋收复燕云十六州。史载：宋“属天子议复燕蓟，揣廷臣曰：‘安得勇而善辞令者，为我谕高丽，出兵西攻契丹，以分其力，则吾事可不劳而集’。”²⁰⁾

公元 981 年，高丽接到了宋太宗要求其出兵相助的密谕，据《宋史纪事本末》卷 13《契丹和战篇》记载：帝复遣使入高丽，谕令发兵西会，高丽不能应。显然，高丽对宋谋求与其联合伐辽的要求并没有回应。而对此《高丽史》却没有留下任何记录，这可能是高丽国内形势使然。此年高丽景宗王胃病重弥留之际禅位于堂弟治，禅位诏书中勒令全国严阵以待，以应付国内的政治变动，防止契丹乘机衅边，²¹⁾因此不可能腾出手来配合宋朝。

但是，继位的成宗并未改变对宋的友好态度，立即遣使通报宋朝其即位的原委。986 年 10 月，为了挽回在出兵的问题给丽宋所造成负面的影响，高丽立即向作为其宗主国的北宋遣使朝贡。²²⁾北宋为了继续拉拢高丽，孤立契丹，仍保持和高丽的友好关系，于此数年后，三次加册高丽王，以示亲善。²³⁾

在宋朝争取高丽的同时，契丹人也没有忽视高丽的存在。就在北宋使者韩国华出使高丽后不久，契丹也于 986 年春正月，屈格“遣厥烈来请和”，²⁴⁾意图稳住高丽，避免腹背受敌。再加上北宋在 986 年“雍熙北伐”的溃败，宋太宗对于收复燕蓟和联丽抗辽这件事情彻底失去了信心。同年宋朝也改变了对辽强硬政策，改战为和，“守内虚外”，宋辽关系逐渐形成南北对峙的局面。

其实在宋辽争霸的政治格局中，高丽是被迫卷入其中的。尽管高丽受到宋朝的影响，对辽采取同样的强硬态势，这样的外交政策也许是出于无奈。但如果理性的思考一下就会发现，高丽王朝与契丹辽王朝比较，也简直是小巫见大巫。高丽既没有强大的军事实力足以抗衡辽的征讨，也缺乏强大的经济实力作为支撑。更何况所谓的盟友北宋王朝也没有给予高丽王朝任何实质性的援助。因此，在这样严酷的环境下，还要一味地与强邻为敌，其气魄和胆识真的值得钦佩。但是，这种与强邻为敌的战略又把国家、人们以及领土的安危放在什么位置呢？

2、北上扩张领土的战略直接威胁到强邻辽朝的领土安全，引火自焚。高丽建国后，在公元 10 世纪至 13 世纪这段历史时期所面对的中国，已不是昔日大唐帝国的一统天下，而是南北对峙的分裂状态。在北宋建立以前，五代与高丽的外交关系可以概括为宗主国与从属国的关系。五代十国混乱之后，虽经赵宋之统一，但中国已有契丹、女真等少数民族先后崛起，在华北建立政权，相继成为东亚地区的霸主，并以优势兵力威胁北宋。由于高丽在地理上与辽、金相邻近，备受压制，处境艰难。面对南北对峙的中国政局，面对复杂多变的局势，面对中国政权的更替，如何在几大势力的夹缝中间求得生存发展，化险为夷、化弊为利，如何处理与中国北方强势游牧民族的关系，这对高丽是一个至关重要的问题。如同高丽这一国号所显示，从高丽建国初起，太祖王建就自认为是高句丽王朝的继承者，不仅力争朝鲜半岛的统一，而且还以高句丽的后继者自居，把恢复高句丽旧地作为最重要的建国理念之一，制定了自主的外交路线。对此，《高丽史》评曰：“我太祖王建，规模德量，生于中国，当不减宋

月。参见《宋史》卷 487《高丽传》，点校本，第 14036 页。

¹⁹⁾ 郑麟趾：《高丽史》（上册）卷 2 世家，首尔亚细亚文化社 1990 年第 62-67 页，光宗十六年，景宗一至四年，成宗元年、二年。

²⁰⁾ 王昶：《金石萃编》卷 135《韩国华神道碑铭序》，中国书店 1985 年第 756 页。

²¹⁾ 郑麟趾：《高丽史》（上册）卷 2 世家，首尔亚细亚文化社 1990 年第 64 页，景宗六年。

²²⁾ 脱脱：《辽史》卷 115 高丽传，中华书局 1983 年第 1519 页。

²³⁾ 郑麟趾：《高丽史》（上册）卷 3 世家，首尔亚细亚文化社 1990 年第 72-76 页，成宗七年至十一年。

²⁴⁾ 郑麟趾：《高丽史》（上册）卷 3 世家，首尔亚细亚文化社 1990 年第 70 页，成宗五年。

太祖……，我太祖即位之后，金傅未宾，甄首未虏，而屡幸西都，亲巡北鄙，其意，亦以东明旧壤(高句丽旧土)，为吾家青毡，必席卷而有之，岂止操鸡林搏鸭(鸭绿江)而已哉……”²⁵⁾

为实现复兴高句丽的宏伟蓝图，王建在进行统一战争的同时，便大胆地在外交军事上采取了“北进政策”，乘中国大陆群雄割据，战乱纷起之机，致力于北方疆界的开拓。其第一步就是重新修复高句丽旧都平壤，改置大都护府，并筑城防守，作为北进的前哨阵地。王建还经常巡行西京(平壤)视察北疆情势，甚至想将首都开京迁至平壤，直至临终前，“博观经史、鉴古戒今”，用以教导其子孙的《龟鉴十训》，犹念念不忘向后人暗示西京的重要性。²⁶⁾

高丽一面积极经营西京，一面于清川江以北筑德川、长青、安朔等城，将高丽与辽国之边界由大同江推至清川江；同时积极讨伐居住于鸭绿江沿岸的女真人，蚕食女真故地。为了防备辽国，高丽建立光军司，编成光军三十万。

与此同时，王建采取了移民实边的策略，将大量的人口从半岛的南部迁往北部。王建的这些措施增强了高丽北部的边防力量，大大拓展了国土面积。王建经略北边的步伐一刻也未停止，到他统治的末期，高丽的北境已经远及今咸镜南道的永兴和清川江的南岸，疆域大大超过了新罗。

到930年，高丽王朝修建了通德镇(今平安南道平原郡)、兴德镇(今平安南道殷山郡)、永清镇(今永柔)、朝阳镇(今平安南道价川)、安北府(今平安南道安州)等城寨，西北方领土扩张到现在的清川江一带。

此后，高丽又修筑了安朔镇(今平安北道云山郡)、朔宁镇(今平安北道泰川)、清塞镇(今慈江道熙川)、平虏镇(今平安北道宁边)等城镇。

就在辽宋进行战争的同时，高丽却乘机北进，不断地对鸭绿江沿岸的女真人进行征伐，建城筑寨，加强边防。至992年，高丽已将鸭绿江下游南岸的女真人基本驱逐到长白山以北地区。²⁷⁾高丽不断扩张的态势引起了辽朝的不满，并成为了后来辽朝讨伐丽的口实。

II. 战争的经过：辽来势凶猛求速决速战，高丽一触即溃却有惊无险

辽与高丽之间的第一次战争，就其整个事件的过程而言只有短短的时间，但也可以清晰地划分为四个阶段

第一阶段为战争的准备阶段，发生在战争爆发之前。其实在发动这次战争之前，还有两次未遂的战争，也就是说辽与高丽之间的战争已经是箭在弦上，不得不发了。

第一次未遂的战争发生在公元983年。这一年正好是辽圣宗即位的当年，辽王朝为了防止宋丽可能达成的军事同盟，就开始对高丽采取强硬政策。辽圣宗亲自检阅了东京留守所的兵马，摆出欲亲征高丽的姿态。²⁸⁾

第二次未遂的战争发生在公元985年。这一年辽朝准备大举进攻高丽，但由于辽泽水溢，道路不通而没有成功。²⁹⁾其实，辽圣宗以辽河泥泞不通“罢征高丽”，只不过是借口。真正的原因却是因为但是宋朝正想利用辽圣宗幼小继位、其母萧太后控制朝政之时的所谓“主少国疑”之机，大举北伐，以图收复燕云十六州等地。辽圣宗完全是为了避免发动征伐高丽战争之后所形成的两面作战的不利局面，才下诏“罢征高丽”。据《高丽史》记载，高丽成宗五年(辽统和四年，986年)，契丹遣厥烈来请和，也说明这一问题。正是由于辽圣宗主动派遣使者赴高丽请和，宋朝遣使请求高丽出兵联合进攻契丹的愿望才没有最后实现。

第二阶段为战争正式爆发阶段，这是辽朝大举进攻取得节节胜利的阶段。统和十年(992年)12月，辽圣宗以东京留守萧恒德(字遯宁)为主帅，大举征伐高丽。萧恒德率领大军从鸭

²⁵⁾ 郑麟趾：《高丽史》(上册)卷12世家，首尔亚细亚文化社1990年第55页，太祖二十六年。

²⁶⁾ 郑麟趾：《高丽史》(上册)卷12世家，首尔亚细亚文化社1990年第55页，太祖二十六年四月。

²⁷⁾ 朝鲜科学院历史研究所：《朝鲜通史》上卷，吉林人民出版社1959年第87-88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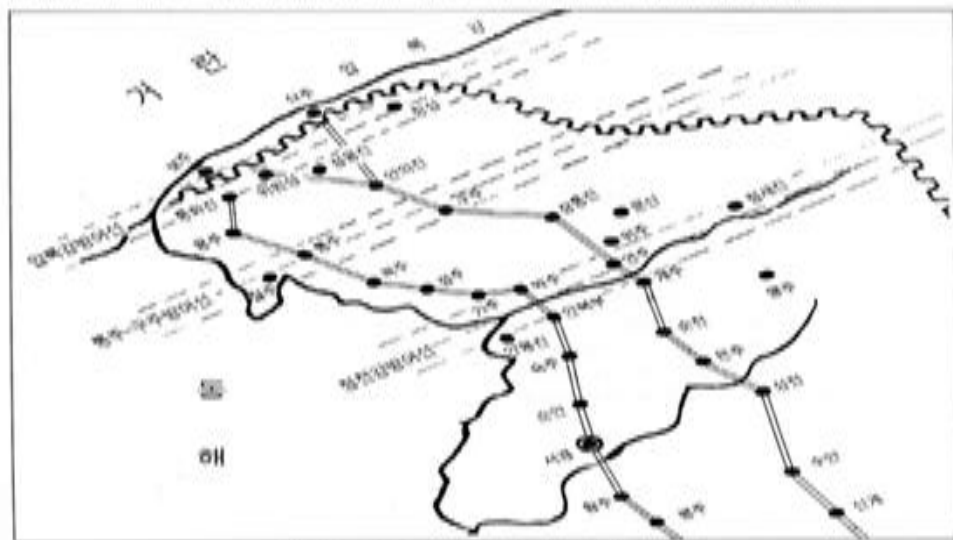
²⁸⁾ 脱脱：《辽史》卷10圣宗一986，中华书局1983年第112页，圣宗统和元年冬十月。

²⁹⁾ 脱脱：《辽史》卷115高丽传，中华书局1983年第1519页。

绿江中游地方渡江以后，通过女真所居之地，再经西南（今龟城附近）而南下，直取高丽的蓬山郡（今朝鲜龟城西）。声称“大朝（指辽国）既已奄有高勾（句）丽旧地，今尔国侵夺疆界，是以来讨。”这说明，那时的辽国已经将原渤海占有的高句丽领土视为自己的领土，认为高丽北进收取原高句丽的部分领土是对辽国领土的侵犯，因此率兵来攻。

高丽的先锋部队在龟城西南约三十里的地方——当时的蓬山郡迎击辽军，但辽军很坏就攻占了蓬山郡，俘获了高丽的先锋军使给事中尹庶顔等人。³⁰⁾

第三阶段为战略相持阶段。在高丽军队的顽强反击下，辽军的大举进攻受阻。高丽君臣对辽的征讨非常的震惊，除于诸边城军镇部署兵力抵御外，还特遣侍中朴良柔为上军使，内史侍郎徐熙为中军使，门下侍郎崔亮为下军使，帅三军出战，成宗王治亲征督战。



清川江以北防御体系结构图³¹⁾

其实早在此年五月，高丽西北界的女真人就曾探知契丹即将兴师，并报与高丽，高丽群臣朝议却不以为然，未做任何准备，以致契丹的铁骑横扫高丽，连破其边城。

辽军攻占蓬山郡后，继续南下，直取清川江南岸的安戎镇，但遭到大道秀、庚方率领之高丽军队的有力抗击。萧遂不敢冒险深入，遣人促丽速降。高丽遂派徐熙为使，赴辽营议和。徐熙在谈判中，据理力争。辽圣宗因高丽求和通交，遂令萧恒德班师回朝。

第四阶段为双方和谈阶段，以高丽的徐熙与辽朝的萧恒德之间进行谈判。其实最早提出和谈的反而是辽朝方面。在辽军取得节节胜利，攻占了蓬山郡后，辽军的主帅萧恒德就提出了威胁性的议和条件：割让高句丽故土，与宋绝交，尊奉契丹为上国。而高丽在辽国大举来攻后，曾经有人主张“割西京（今朝鲜平壤）以北与之，自黄州（今朝鲜黄海北道黄州，位于大同江下游）至岭（即慈悲岭，在今朝鲜黄海北道黄州的风山至瑞兴之间）画为封疆。”³²⁾意欲将黄州至岭以北领土全部遗弃契丹。但高丽中军使徐熙不同意，他说：“自契丹东京（今辽宁辽阳）至我安北府（治所在今朝鲜平安南道安州，位于大同江中游）数百里之地，皆为生女真所据。光宗取之，筑嘉州（今朝鲜平安北道博川一带）、松城（不详，当在嘉州附近）等城，今契丹之来，其志不过取北（此）二城，其声言取高勾丽旧地者，实恐我也。”³³⁾认为契丹此次进攻高丽主要是为了收复被高丽攻占的女真之地，并不是要全面收复高句丽旧地。因此，徐熙反对割地逃跑，建议出兵迎战，并亲至辽营与萧恒德谈判。萧恒德说：“汝国与新罗地、高句丽

³⁰⁾ 郑麟趾：《高丽史》（下册）卷 90 徐熙传，首尔亚细亚文化社 1990 年第 96 页。

³¹⁾ 高句丽研究会编：《徐熙与高丽的高句丽继承意识》，首尔学渊文化社 1999 年第 171 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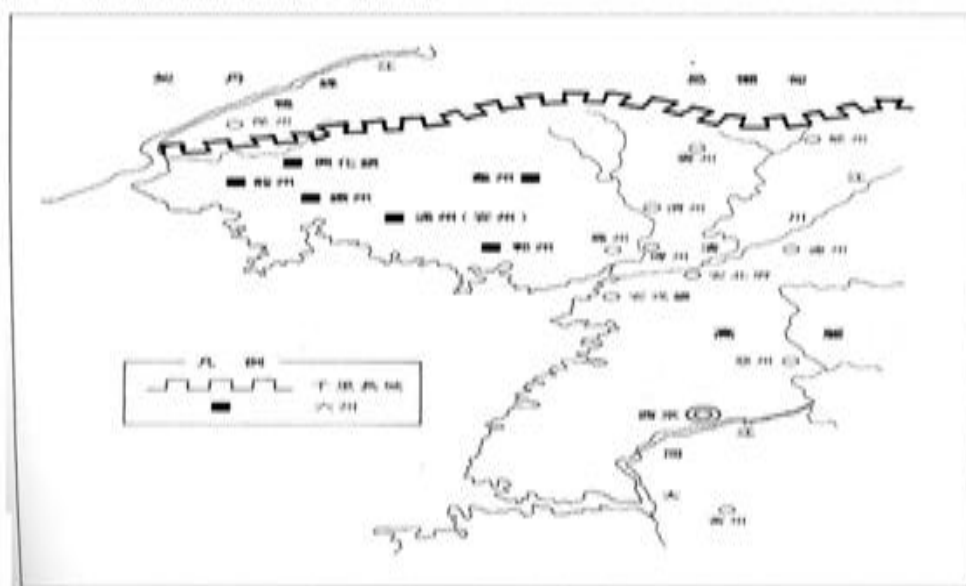
³²⁾ 郑麟趾：《高丽史》（下册）卷 90 徐熙传，首尔亚细亚文化社 1990 年第 96 页。

³³⁾ 郑麟趾：《高丽史》（下册）卷 90 徐熙传，首尔亚细亚文化社 1990 年第 96-97 页。

之地，我所有也。而汝侵蚀之，又与我连壤而越海事宋，故有今日之师。若割地以献而修朝聘，可无事矣。”³⁴⁾萧恒德在这里明确指出：第一，高丽是新罗的继承者，不是高句丽的继承者，只能占有新罗之地，原高句丽之地为渤海所继承，辽国灭亡渤海，理应从渤海手中接管原来的高句丽之地。第二，高丽既然与契丹接壤，就应该和契丹建立友好关系，可高丽不但不与契丹建立友好关系，相反越海事宋，意欲与宋联合夹攻契丹，是对契丹不友好的表现。因此，契丹特发大兵来攻。萧恒德表示，如果高丽退出所“侵蚀”的原高句丽之地，与宋朝断交，遣使向契丹“朝聘”，契丹即可退兵。徐熙听了萧恒德的话，回答说：“非也。我国即高句丽之旧也，故号高丽，都平壤，若论地界，上国之东京(今辽宁辽阳)皆在我境，何得谓之侵蚀乎？且鸭绿江内外亦我境内，今女真盗据其间，顽黠变诈，道途梗涩甚于涉海。朝聘之不通，女真之故也。若令逐女真还我旧地，筑城堡通道路，则敢不修聘。”³⁵⁾高丽虽然兴起于新罗之地，但其并不以继承新罗之地为满足，还想继承原高句丽之地。因此自己是高句丽的继承者，其意不外是为进取原高句丽之地寻找借口。徐熙正是按照这样一种继承理论进行推论，认为不仅朝鲜半岛北部原高句丽之地应该归属于高丽，就是包括东京(今辽宁辽阳)在内的鸭绿江以北地区原高句丽之地也应该归属于高丽。徐熙这样说，不过是打着高句丽继承者的旗号，为本国争取利益而漫天要价。实际上，他并没有索取包括东京在内的鸭绿江以北地区原高句丽之地的打算，只是说女真人生活的“鸭绿江内外”都是高丽“旧地”，并说，高丽没有及时向契丹“修聘”，就是由于女真的阻隔，如果能够驱逐女真，将鸭绿江东之地交给高丽，高丽就会向契丹称臣纳贡。显然，这是徐熙在和萧恒德谈判时所提出的最高要价。

由于这时契丹正在经营中原，与宋朝争夺燕云十六州的斗争还没有结束，急欲拆散宋朝与高丽的联盟。于是，萧恒德便在高丽愿意向辽国称臣纳贡并与宋朝断交的前提下，答应将“鸭绿江东数百里地”赐给高丽，与高丽达成了和议，撤兵北返。

统和十一年(993)2月，高丽成宗“遣朴良柔奉表请罪”，辽圣宗按照盟约规定，“诏取女直鸭绿江东数百里地赐之。”随后，辽圣宗派遣使者，正式册封高丽成宗王治为“高丽国王”，高丽开始使用契丹统和年号，正式向契丹称臣纳贡，同时断绝了同北宋的宗藩关系，高丽由“事宋”改为“事辽”。其西北地区的势力也推进至清川江流域及其以北地区。高丽通过这次战争，得到了其在战场上得不到的东西。



³⁴⁾ 郑麟趾：《高丽史》(下册)卷90 徐熙传，首尔亚细亚文化社1990年第97-98页。

³⁵⁾ 郑麟趾：《高丽史》(下册)卷90 徐熙传，首尔亚细亚文化社1990年第97-98页。

III. 战争的规模：辽与高丽军事制度、军事实力、兵力部署及战略战术

契丹族建立的辽王朝是“用武立国”³⁷⁾的。契丹的本意是“鎡铁”，也就是坚固的意思，这是一个彪悍勇猛、好战凶狠的民族。辽国疆域“东接高丽，南与梁、唐、晋、汉、周、宋六代为劲敌，北邻阻卜、术不姑，几友国以十数；西制西夏、党项、吐浑、回鹘等，强国以百数。居四战之区，虎距其间。”³⁸⁾一代辽王朝的兴衰与其军事有着直接的、密切的关系。仅据《辽史》的不完全记载，二百多年中发生过 188 次军事行动(不包括镇压境内人民起义和统治阶级内部斗争所发生的武装冲突)。就连与他国进行的各种政治活动，诸如出使、结盟、朝贡、赏赐等，也大都与军事有密切的关系。军事活动是辽代社会生活的一项重要内容，以至于形成了一些与军事有关的传统节日，诸如“烧甲节”、“战时节”，等等。³⁹⁾

辽朝的军事制度经历了由无定制到定制的过程，其间各种军事机构、设施，或置或废，或分或合，或相互承袭，或转换隶属，二百余年，变化频仍。辽朝军事制度本身复杂、特殊，有关的文献及其它史料又极其有限，加上《辽史》编撰质量又十分低劣，使辽朝军事制度的研究面临重重困难。有许多问题，甚至是军事制度的重要内容，至今仍“殆不可考”。

辽朝的军队，平时约在二十万至三十万左右。契丹是游牧民族，善于骑射，平时放牧渔猎，既是生产经济活动，也是军事练习，有战争很快即可集合成军。由于全民皆兵，辽朝所能动员的兵力在总人口当中比例很高，为 164 万 2800 人。⁴⁰⁾由于契丹族保留着原始部族的痕迹，并处于由奴隶制向封建制迅速转化的历史阶段，军事制度初期多与本民族社会制度合为一体，进入长城以南地区后，既保有本民族特色，又逐步接受汉族影响，具有民族融合的特点。辽朝皇帝亲掌最高兵权，下设北南枢密院。北枢密院为最高军事行政机构，一般由契丹人主管；南枢密院亦称汉人枢密院，掌汉人兵马之政，因而出现一个朝廷两种军事体制并存的局面。

辽朝兵制分为宫帐军、部族军、京州军和属国军。宫帐军，即皮室军，征集直属皇帝的着帐户壮丁组成，是契丹族亲军，供宿卫和征战，“以行营为宫，选诸部豪健千人，置腹心部。”部族军，主要由契丹以外的部族壮丁组成，供守卫四边。以上两种部队是辽军的主力。京州军，亦称五州乡军，征集五京道各州县的汉族、渤海族等的壮丁组成。属国军，由臣属国壮丁组成。后两种部队为辅助兵力。辽初，贵族男子人人服兵役，年龄在 15—50 岁之间的列籍正军，兵器、战马自备。并且时常派遣掠夺周边物资，时称打草谷。辽军以骑兵为主，主要武器是弓箭和刀枪。后期从宋朝传入抛石机，编有炮手军。

辽朝统治者重视军队建设，军事力量十分强大，因而，从中央到地方的各级军事机构的建置也比较完备齐全，形成了一整套自上而下，隶属关系明确，逐级统辖，职掌清楚，运转灵活的军事管理和指挥系统。⁴¹⁾正如《辽史》所言：“辽宫帐、部族、京州、属国，各自为军，体统相承，分数秩然。”⁴²⁾

而高丽王朝在统一半岛之后，王建即面临着两大难题的考验：对内如何巩固高丽王朝的统治，对外如何面对新近崛起的强邻——契丹。王建参照泰封、新罗和中原王朝的典章制度，为新兴的高丽王朝初步确立了中央政府的架构。高丽置三省：内议、广评和内奉省，其中又以广评省的地位最为重要。广评省下辖选、兵、民、刑、礼、工六官，分管国家的各种事务，可以说是高丽王朝的中枢所在。高丽的最高军事机关为循军部，军队由从自耕农当中征发的

³⁶⁾ 高句丽研究会编：《徐熙与高丽的高句丽继承意识》，首尔学渊文化社 1999 年序言第 3 页。

³⁷⁾ 脱脱：《辽史》卷 61 刑法志上，中华书局 1983 年第 935 页。

³⁸⁾ 脱脱：《辽史》卷 46 百官志上，中华书局 1983 年第 742 页。

³⁹⁾ 脱脱：《辽史》卷 53 礼志上，中华书局 1983 年第 877-880 页。

⁴⁰⁾ 杨若薇：《契丹王朝政治军事制度研究》，天津出版社 1992 年第 201 页。

⁴¹⁾ 张念棠、张国庆：《略论辽朝军事机构及军事制度的特色》，《辽宁大学学报》1996 年第 2 期第 75 页。

⁴²⁾ 脱脱：《辽史》卷 46 百官志上，中华书局 1983 年第 735 页。

府兵组成。此外，驻扎在都城开京的六军，是具有近卫军地位的直接由国王掌握的武装力量。从高丽王朝中央政府的结构来看，它在表面上完全承袭了中原隋、唐帝国的中央集权利制度。然而表面上的类似无法掩盖高丽王朝与中原帝国社会基础上的巨大差异。王建所建立的高丽王朝归根到底在地方豪族支持下建立的（其实王建的家族也是众多豪族中的一员），高丽王国的统一程度是无法与中原王朝相比的。

对于高丽的军事制度，《高丽史》卷 85《兵志》是这么记载的：“高丽太祖统一三韩，始置六卫，卫有三十八领。领各千人，上下相维，体统相属，庶几乎唐府卫之制矣。逮至肃宗，东女真构衅，于是锐意捍御，日事练兵，遂置别武班。自散官、吏胥以至商贾、贱隶，徂流，莫不隶焉。是虽不合古制，然亦用之一时而收效有足称者。毅明以后，权臣执命，兵柄下移，悍将劲卒皆属私家，国有方张之寇而公无一旅之师，卒至仓皇不振，然後始多方调发，或括京，无间贵贱，或阅文武散职、白丁杂色，或金四品以上家僮，或以屋闲多少为差。国势至此，虽欲不危，得乎？国之大事在戎，其制固宜详备，惜前史之不悉也。今特记其可考者：曰兵制，曰宿卫，曰镇戍，曰看守军，曰围宿军，曰检点军，曰州县军，曰船军，曰工役军，其他站驿、马政、屯田、城堡，亦兵之类也，故并附焉，作兵志。”也就是说，在高丽太祖时期就制定了六卫三十八领的军事制度，这种军事制度与唐朝时期的府兵制类似，但又有所区别。



徐熙建立的新州的城郭分布图⁴³⁾

高丽全国有常备军 15 万人左右，分为中央军和地方军两部分：中央军由二军六卫组成，

⁴³⁾ 高句丽研究会编：《徐熙与高丽的高句丽继承意识》，首尔学渊文化社 1999 年第 157 页。

约 5 万人，由大将军、上将军指挥；地方军队由各道节度使统辖。

李元淳在《韩国史》里对高丽时期的军事制度是这样描述的：高丽有严密的军事组织，其中包括带有政治性的中央军与国防性的州县军之二元组织。中央军的代表是以太祖直属部队编成的 2 军 6 卫。成宗 14 年（995 年）左右创设的 6 卫为左右、神虎、兴威、金吾、千牛、监门 6 师团，担当首都与宫城及警察部队等任务；有时轮调至边疆。比 6 卫晚成立的鹰扬、龙虎 2 军为国王的亲卫军，比 6 卫地位高；2 军 6 卫合为 45 领，1 领有 1000 名军人，因此中央军共有 45000 名。2 军 6 卫各有上、大将军为正副指挥官，这些上、大将军们组成“重房”，此重房是与文臣的都堂相对照，但是高丽时代由文人当政，所以其权利无法与都堂相比。领的指挥官为将军，其下有郎将、校尉，各拥有将军房、校尉房等。

2 军 6 卫的军人属于职业军人，另设军户军籍，拥有军人田，每人将此军人田分配给两名百姓耕种，从中取得军人的装备与生活费。军队缺员有所谓“选军”，以补充名额，同时编入军户，授与军人田；选军一般在农民之中挑选年轻力壮者，但有时亦从贱民中选拔。这也成为贱民身份上升、军人社会地位低落的原因。

高丽初军队改编成州县军。道与界各不相同，在“两界”的各镇设有州镇军，以抄军、左军、右军为正规军，是一旦有事即随时可以动员的电田兵方式的常备军。相反地，设置于“道”的州县军，分为保胜、精勇、一品军，保胜与精勇担任防戍与治安，一品军为劳动部队。

至于辽丽第一次战争的兵力部署，由于文献材料没有明确的记载，所以无法予以进行明确的评价和分析。但奇怪的是，可以在朱晓乐 2004 年的硕士论文《高丽与我国辽金外交关系论略》和金龙善 2004 年的硕士论文《徐熙与十世纪丽辽外交关系》中可以明确知道当时辽军的兵力规模有 80 万大军，⁴⁴⁾由于文章没有注明这些数字的出处，所以很难评价其真实性。而 1998 年出版的傅海波等编史卫民等译《剑桥中国辽西夏金元史》中只是说萧恒德“率领一支号称 80 万的大军越过边界。”⁴⁵⁾因此，估计这次辽军的规模是不可能 80 万之众的。另外她们在文章中只是强调高丽的防御部署工作，并没有高丽对抗辽朝的军队规模。

在辽丽第一次战争中，双方的战略战术方面是这样的，辽王朝的战略目标是迫使高丽脱离北宋臣服辽朝，以解除后顾之忧。因为北宋一直是辽朝的劲敌，心腹之患，而高丽在辽边境的侵扰只是癣疥之忧。当时辽王朝在战术上还是非常重视这次战争的。早在 983 年，辽圣宗就开始对高丽采取强硬政策，先检阅东京留守所总兵马，摆出欲亲征高丽的姿态。⁴⁶⁾公元 985 年，辽朝准备大举进攻高丽，结果由于辽泽水溢，道路不通而没有成功。⁴⁷⁾也就是说，辽朝为这次战争准备了 10 年的时间。为什么要拖如此之久呢？因为时机不成熟，劲敌宋朝一直对辽朝采取咄咄逼人的姿态，高丽由于宋朝有结盟的关系，辽朝担心自己腹背受敌，所以一直在等待时机。

而高丽一直推行北进扩张的战略，对辽的征讨一直抱有幻想，希望宋朝能够出手援救。所以，在这次战争之前，尽管其实早在 992 年的 5 月，高丽西北界的女真人就曾探知契丹即将兴师征讨高丽的消息，并报与高丽，高丽群臣朝议却不以为然，未做任何准备。⁴⁸⁾当然，高丽在战术上还是进行了积极的防御部署的。面对强敌辽军的入侵，高丽君臣对辽的征讨非常的震惊，除于诸边城军镇部署军力抵御外，特遣侍中朴良柔为上军使，内史侍郎徐熙为中军使，门下侍郎崔亮为下军使，帅三军出战，成宗王治亲征督战。

IV. 战争的性质：辽王朝对蚕食侵扰之敌进行惩罚是捍卫疆土的正义手段

⁴⁴⁾ 朱晓乐：2004 年硕士论文《高丽与我国辽金外交关系论略》第 8 页。金龙善：2004 年硕士论文《徐熙与十世纪丽辽外交关系》第 12 页。

⁴⁵⁾ 傅海波等编，史卫民等译：《剑桥中国辽西夏金元史》，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98 年第 116 页。

⁴⁶⁾ 脱脱：《辽史》卷 10 圣宗，中华书局 1983 年第 112 页，圣宗统和元年冬十月。

⁴⁷⁾ 脱脱：《辽史》卷 115 高丽传，中华书局 1983 年第 1319 页。

⁴⁸⁾ 郑麟趾：《高丽史》（上册）卷 3 世家，首尔亚细亚文化社 1990 年第 76 页，成宗十二年五月。

对于两个国家之间的战争,确切地说应该是两个政权之间的战争,如果涉及到双方领土疆域问题,那这个官司就无法理清楚了。因为它至少与两个问题密切相关:第一是历史的问题。双方都可以从历史问题上找到对自己有利的证据,以致使自己的侵略行为或者征服行动披上华丽的外衣,即所谓“出师有名”。历史问题在这里就成为了一个冠冕堂皇的借口。如果抛开所谓的民族意识,理性地区看待这个历史问题时,就可以发现,这个所谓的历史问题也就是一个借口而已,难道说你父辈甚至祖辈们拥有的东西,你就一定应该也拥有吗?从个人感情而言,是应该如此。但仅仅是应该如此而已,无数的历史事实证明并不是如此。所以,借口所谓的历史问题,简直是扯淡。第二是当时双方两个政权在经济实力、军事实力以及政治形势上的强弱,这应该是问题的关键所在。历史上的疆域在很大程度上都是用武力占领的,也就是说两个政权在谈及疆域领土时都是靠实力说话,从来就没有所谓的正义和非正义的说法,也可以说在涉及疆域领土的战争中,任何一方都可以认为自己是正义的。

对于这次辽与高丽之间的第一次战争,首先也碰到了一个历史问题。对于双方领土的归属,早在唐朝时期就有一个明确的边界协议,开元三十三年,唐玄宗诏旨以大同江为界,南属新罗,北属大唐,是为“开元乙亥界约文书”。根据这个边界协议,鸭绿江应该中国的内河。所以辽朝就以这个协议为借口,出师有名了。

辽王朝建立后不久的公元926年,辽王朝就灭亡了位于其东部的渤海国,“地方五千里,兵数十万…尽抚其众,契丹益大”,⁴⁹⁾并将其地改名为东丹(东契丹之意)。928年,辽太宗耶律德光将渤海遗民(东丹国民)大量内迁辽东,一时间广袤的渤海故地变得地广人稀。

接着就是高丽王朝的强大和不断的北扩引起了辽的不满,并且辽王朝的经济实力和军事实力远在高丽之上。由于中原的强敌北宋是辽朝的心腹大患,所以辽朝一直在等待时机。

高丽王朝一向以高句丽的继承者自居,不断推向北进扩张政策。而这时的辽王朝正在为争夺中原与劲敌宋王朝连年进行征战,从而放松了对其东部女真人的控制。高丽乘机北进,不断地对鸭绿江沿岸的女真人进行征伐,建城筑寨,加强边防。到王建统治的末期,高丽的北境已经远及今咸镜南道的永兴和清川江的南岸,疆域大大超过了新罗。

到930年,高丽王朝修建了通德镇(今平安南道平原郡)、兴德镇(今平安南道殷山郡)、永清镇(今永柔)、朝阳镇(今平安南道价川)、安北府(今平安南道安州)等城寨,西北方领土扩张到现在的清川江一带。

此后,高丽又修筑了安朔镇(今平安北道云山郡)、朔宁镇(今平安北道泰川)、清寨镇(今慈江道熙川)、平虏镇(今平安北道宁边)等城镇。

至992年,高丽已将鸭绿江下游南岸的女真人基本驱逐到长白山以北地区。⁵⁰⁾高丽不断扩张的态势引起了辽朝的不满,并成为了后来辽朝伐丽的口实。

高丽王朝的北进扩张的结果永远超出了“开元乙亥界约文书”所规定的疆域的范围。因此,辽王朝对高丽的不断侵扰肯定是不满意的,992年底终于爆发了双方之间的第一次征战。《辽史》文献记载为,辽圣宗“以东京留守萧恒德等伐高丽。”⁵¹⁾同时,《高丽史》也记载了萧恒德声言“今尔国夺侵疆界,是以来讨。”⁵²⁾一个“伐”字、一个“讨”字,这些就明确地表示了辽王朝捍卫领土主权的正义性。而对于被动挨打的高丽王朝来说,由于其对辽的东部边境不断的蚕食侵扰,受到应有的惩罚是理所当然的。

V. 战争的影响:辽先小胜而后大败用土地换和平,高丽先小败而后大赢用称臣

⁴⁹⁾ 脱脱:《辽史》卷34兵卫志上,中华书局1983年第396页。

⁵⁰⁾ 朝鲜科学院历史研究所:《朝鲜通史》上卷,吉林人民出版社1959年第87-88页。

⁵¹⁾ 脱脱:《辽史》卷13圣宗四,中华书局1983年第143页。

⁵²⁾ 郑麟趾:《高丽史》(下册)卷90徐熙传,首尔亚细亚文化社1990年第96页。

换土地，终于拆散了宋丽联盟

这次战争所带来的影响，至少可以从辽朝、高丽以及宋朝这三个方面来进行探讨。

一、战争对辽朝的影响

首先，辽丽谈判后，辽主动把“女真鸭绿江东数百里地”赐予高丽，使辽朝失去了鸭绿江以东的大片土地。在战争中，契丹的铁骑横扫高丽，连破其边城，使高丽朝廷一片惶恐，甚至高丽成宗王治差点割地求和。可以说，辽在这次战争中是取得胜利的。但由于这时契丹正在经营中原，与北宋争夺燕云十六州的战争还没结束，急着想拆散北宋与高丽的联盟，停止与高丽的战争，于是辽放弃了鸭绿江以东的大片土地，把“鸭绿江东数百里地”赐予高丽，以换取高丽的称臣纳贡。从这方面来说，辽在这场战争中是失败的。

其次，辽用土地来换取高丽的臣服，让高丽与北宋断交，改“事宋”为“事辽”，从而解除了其全力南下攻宋的后顾之忧。

辽朝挫败了宋朝企图收复燕云十六州的军事行动，以及瓦解宋丽联盟后，接着便连年不断地南下进攻宋，使北宋处于围于应付的境地。从辽统和四年到统和二十二年（从公元986年到公元1004年）这些年里，辽不是大规模地出兵攻宋，就是小规模地对北宋进行骚扰，不是辽圣宗和萧太后亲自率兵南下，就是派遣大臣南伐⁵³⁾。其中，最重要的一次是统和二十二年（1004年），辽圣宗和萧太后率军南下伐宋。这一年闰九月，“南伐，癸亥，次固安。”十月，“攻瀛洲，不克。甲午，下祁州。”十一月，“马军都指挥使耶律课里遇宋兵于洺州，击退之。甲子，东京留守萧排押获宋魏府官吏田逢吉、郭守荣、常颢、刘焯等以献。丁卯，南院大王善补奏宋遣人遣王继忠弓矢，密请求和。诏继忠与使会，讲和。甲午，攻破清军。壬申，次澶渊。萧挹凛中伏弩死。乙亥，攻破通利军。丁丑，宋遣崇仪副使曹利用请和”。十二月，“宋遣李继昌请和，以太后为叔母，原岁输银十万两，绢二十万匹。诏诸军解严。是月，班师。皇太后赐丞相齐王韩德昌姓耶律，徙王晋”。统和二十三年（公元1005年）正月，“还次南京，爵赏有差”。十月，“宋岁币始至，后为常。”⁵⁴⁾。就是说，辽与宋订立澶渊之盟后，辽退兵北返。辽不仅从孤军深入的军事险境中安然脱身，而且获取了战场上没能得到的酬报，每年得到数额可观的岁币。辽王朝这一胜利无疑是辽丽第一次战争后，辽得以全力攻宋的结果。

最后，辽丽第一次战争后，辽确立了对高丽的宗主国的地位，这与之前对高丽实施军事强硬政策形成了鲜明的对比，加强了辽与高丽两国之间的经济文化交流。

辽与高丽王朝相邻，在两国还没有开战前，辽太祖和辽太宗时期与高丽礼尚往来，互不侵犯，建国不久的高丽在公元922年与契丹开始了正式的接触。同年2月，契丹遣使高丽并赠送骆驼和马等⁵⁵⁾。此后，高丽亦遣使报聘，丽辽两国开始建立起平等的睦邻关系。但是，辽太祖天赞五年（926年），辽出兵灭掉渤海，将渤海控制地区纳入了辽政权直接管辖范围，并将其地名改为东丹（即东契丹）。这对于正在推行北进政策的高丽来说，大为不利。在942年10月，契丹遣使到高丽，赠送骆驼五十四时，高丽太祖王建则以“契丹与渤海连合，忽生疑贰，背盟珍灭，此甚无道，不足为邻”为由，遂与辽绝交，并把辽派遣来的三十人流放到海岛，把辽赠送的五十四匹骆驼系在万夫桥下，将其饿死。从此辽丽两国关系恶化，渤海政权的灭亡为两国交恶的主要原因⁵⁶⁾。同时，高丽与北宋交往频繁，试图与北宋结成军事同盟共同制辽。为防止宋丽可能达成的军事同盟，983年，辽圣宗开始对高丽采取强硬政策，先检阅东京留守所总兵马，摆出一副欲亲征高丽的姿态。

然而，辽丽第一次战争后，高丽被迫臣服于辽，两国由原来的敌对关系转为宗属关系。

⁵³⁾ 舒焚：《辽史稿》，湖北人民出版社，1984年第404页。

⁵⁴⁾ 脱脱：《辽史》卷14 圣宗五，中华书局1983年第161页。

⁵⁵⁾ 郑麟趾：《高丽史》（上册）卷1 世家，首尔亚细亚文化社1990年第41页。

⁵⁶⁾ 张莹莹：论辽丽战争与辽丽宋三国的政治关系，硕士学位论文2010年5月。

高丽成宗十三年(994年)二月,开始使用契丹统和年号,之后又数次遣使向辽献方物、纳币。辽也于统和十三年(995年)十一月,“遣使册王治为高丽国王”⁵⁷⁾。两国初步确立了朝贡关系。此后,高丽不但行用辽的统和年号,而且多次派遣使节入辽朝贡。据《高丽史》记载:“成宗十三年四月,遣侍中朴良柔逢表如契丹告行正朔,同年遣使契丹进妓乐。”“成宗十四年,遣李周祜如契丹献方物进鹰,同年遣李知白如契丹献方物,遣童子十人于契丹一习其语。”“成宗十五年,遣朝彦卿如契丹纳币”。关于这方面的内容,《辽史》中也有记载:“统和十三年正月,……高丽遣李周祜来贡。”“统和十三年冬十月,……高丽遣李知白来贡。”“统和十四年二月,……高丽复遣童子十人来学本国语。”⁵⁸⁾高丽多次遣使入辽朝贡,一方面体现了辽丽的宗属关系,另一方面也促进了两国的经济文化交流,有利于促进两国的经济文化发展。

二、战争对高丽王朝的影响

首先,辽与高丽王朝第一次战争中,高丽虽然在军事上取得失败,被迫向辽称臣纳贡,但高丽则利用外交手段,以称臣获得了“女真鸭绿江东数百里地”,得到了在战场上得不到的东西。这无疑也是高丽在外交方面的胜利。

公元992年12月,辽圣宗“以东京留守萧恒德等伐高丽”⁵⁹⁾,发动了第一次辽王朝征讨高丽王朝的战争。其实,早在此年五月,西北界女真曾探知契丹即将兴师,报与高丽,高丽全臣朝议却不以为然,未做任何准备,以致于首战失败。当辽突破彭山郡防线,直抵清川江北岸时,引起了高丽朝廷的一片恐慌。群臣纷纷劝说成宗割地求和,但徐熙则反对群臣的建议,他认为:“自契丹东京至我安北府,数百里之地,皆为女真所据,光宗取之,筑嘉州、松城等城。今契丹兵之来,其志不过取二城,其声言取高句丽旧地者,实恐我也。今见兵势大盛,遂割西京以北与之,非记也。……况割地与敌,万世之耻也”。于是成宗放弃了割地的计划。在成宗对和战与否时,辽军越过清川江,向清川江南岸的安戎镇进攻,经安戎镇的顽强抵抗,辽军被迫退兵至江北。萧恒德因此催促高丽投降。从萧恒德的催降书中,徐熙进一步肯定了辽的意图并非要灭亡高丽,而是“有可议之状”,便主动请缨去和辽军交涉。

在契丹军营中,萧恒德对徐熙列出了辽军出师的理由:“汝国与新罗、高句丽之地,我所有也,而汝国侵蚀之,又与我接壤而越海事宋,故有今日之师。若割地以献而修朝聘,可无事矣。”面对萧恒德的指责,徐熙不卑不亢,以机智的外交辞令反驳:“非也。我国即高句丽之旧地,故号高丽,都平壤。若论地界,上国之东京,皆在我境,何得为之侵蚀乎?且鸭绿江内外亦我境内,今女真盗据其间。顽黠变作,道途梗塞,甚于涉海。朝聘不通,女真之故也。若令女真,还我旧地,筑城堡,通道路,则敢不修聘?”徐熙的请和,不仅换来了辽圣宗的罢兵,而且高丽随后向辽“奉表请罪”的外交态度,更使辽看到了高丽王朝臣服于己后宋丽联盟将分崩离析的可能成为现实。为实现这一战略意图,辽同意了徐熙的要求,把女真做成了这场交易的牺牲品,“诏取女真鸭绿江东数百里地”赐予高丽。得到辽的首肯后,高丽“荡平”鸭绿江东岸的女真(东女真),在江东修筑了6座城池,分别为兴化、龙州、通州、铁州、郭州、龟州,不仅将西北边界扩展到鸭绿江南岸,还获得了进一步北进的重要据点。可以说,这是高丽利用两强争霸之间的利害冲突而取得实利主义外交的一大成果。

高丽虽然在军事上失败了,但是在外交上却取得了奇迹般的胜利,以“臣服”于辽为代价,换得了大片疆土,使高丽版图得以扩充孰轻孰重,可谓一目了然。

其次,辽与高丽王朝第一次战争后,高丽虽然以称臣纳贡换得了“女真鸭绿江东数百里地”,但是,高丽的这一胜利也为辽后来的两次大规模入侵埋下了伏笔。

高丽虽然对辽称臣,但是高丽对辽的臣属关系是建立在武力的基础之上的,所以两国的关系是紧张的和不稳定的。高丽太祖王建在《十训要》中就曾明确指出:“唯我东方,旧慕

⁵⁷⁾ 脱脱:《辽史》卷13 圣宗四,中华书局1983年第147页。

⁵⁸⁾ 脱脱:《辽史》卷13 圣宗四,中华书局1983年第147页。

⁵⁹⁾ 脱脱:《辽史》卷13 圣宗四,中华书局1983年第143页。

唐风，文物礼乐，悉遵其志。殊方异土，人格各异，不必苟同。契丹是禽兽国，风俗不同，言语亦异，衣冠制度，慎勿效焉。……以强恶之国为邻，安不可忘危，兵卒宜加护。”由此可见，高丽臣服于辽是被迫无奈的。因此，高丽穆宗二年，曾遣使至宋，意图联合宋的势力报复契丹的入侵。“遣吏部侍郎朱仁绍如宋，帝召见，仁绍自陈国人思慕华风，为契丹劫制之状”。1003年，高丽又遣户部侍郎李宣古来北宋商谈联合抗辽事宜，以“晋割燕蓟”为借口，意图激起宋真宗恢复旧疆的雄心。并“乞王师屯境上，为之牵制。”⁶⁰高丽所采取的联宋行动，为辽所察觉，辽对此非常恼火，耿耿于怀，毕竟辽为了让高丽与北宋断绝关系，付出了出让鸭绿江以东女真旧地的代价，为此，辽圣宗在致高丽问罪书中指责高丽“东结构与女真，西往于宋国，是欲何为？”因此，辽王朝一直寻找机会发动第二次入侵高丽的战争。

三、战争对北宋的影响

辽与高丽王朝第一次战争后，辽迫使高丽王朝臣服，断绝与北宋的宗藩关系，由原来的“事宋”转为“事辽”。这就使宋丽联盟分崩离析，宋在辽入侵时，则处于孤立无助的局面。

在“雍熙北伐”前一年（公元985年），宋曾遣监察御史韩国华致诏高丽，期望与其结成军事同盟，张倚角之势，联合抗辽，“申戎师徒，迭相骑角，协比邻国，同力荡平”契丹这个“垂亡之虏”。然而高丽对此甚为慎重，终究未履行协同宋军与契丹交战的诺言。辽与高丽王朝第一次战争后，辽要求高丽与北宋断绝关系，北宋企图与高丽王朝结成军事同盟，联合制辽的策略破灭。这使得北宋在公元986年到公元1004年这些年里，面对辽的大规模入侵时，处于孤立无助的局面。尤其是公元1004—1005年，北宋在面对辽的大规模入侵时，最终被迫与辽订下了“澶渊之盟”，宋以每年向辽输送银十万两，绢二十万匹为代价，换来了辽的退兵和两国和平的局面。

总之，辽与高丽王朝之间的第一次战争，由于文献的缺失，很多问题都无法考证。但是这场战争对十世纪的东北亚地区依然产生了深远的影响。辽王朝用土地换来了高丽的臣服，不败而败，但达到了分离宋丽联盟的目的。高丽则用称臣来获得土地，不胜而胜。而北宋则在此次战争中陷入了孤立无助的局面。但总的来说，这场战争在一定程度上奠定了十世纪宋辽丽三国关系的基础。

VI. 辽以土地换高丽臣服的原因：宗主国的代价

辽之所以同意用土地换取高丽的暂时臣服，这是有非常深层次的原因的。

第一，中原有劲敌北宋的存在。在十世纪末，契丹辽王朝正在经营中原，与中原的劲敌北宋争夺燕云十六州的斗争还没有结束。虽然辽通过一系列的征战，特别是在公元986年北宋“雍熙北伐”的溃败后，北宋改变了对辽的强硬政策，改战为和，“守内虚外”，宋辽关系逐渐形成南北对峙的局面。尽管这样，北宋还是辽在中原扩张的劲敌。

第二，原渤海国领地上女真的独立和安定国的崛起。由于契丹人对渤海的征服，以及随之而来的在辽阳周围对众多渤海人口的重新安置，这使得辽的东部边境的局势发生了微妙的改变。在926年，并不是所有的前渤海领土都并入辽国版图，也并不是所有的渤海人都承认辽朝的统治。原渤海王室的许多成员都逃到高丽避难。因为原渤海国自身就是由残留的高句丽统治精英建立起来的，因此他们把东北高丽王朝看作是远亲和潜在的同盟。⁶¹再者，在辽朝边界之外，有三支渤海人仍然保持着独立：生活在今黑龙江省松花江流域的西北渤海人，生活在今辽宁省鸭绿江以西的一支渤海人，以及三者中最强大的一支渤海人，他们在926年在牡丹江流域建立起独立国家定安国（朝鲜语 Chông'an），其都城兀惹（Wo-jo）在前渤海国的上京（今吉林省东京城）。⁶²

975年，定安国与辽发生了军事冲突。一支契丹讨伐军被派去进攻定安国，但失败了。

⁶⁰ 脱脱：《宋史》卷487外国传3高丽，中华书局1977年第14042页。

⁶¹ 傅海波等编，史卫民等译：《剑桥中国辽西夏金元史》，中国社会科学出版社1998年第116页。

⁶² 傅海波等编，史卫民等译：《剑桥中国辽西夏金元史》，中国社会科学出版社1998年第115页。

985—986年，辽再次派兵讨伐这一地区，结果却没有记载，很可能也是失败的结局。

其实早在10世纪80年代起，契丹辽王朝就与生活在鸭绿江流域的各个女真部落之间产生了许多麻烦，北宋也曾试图与这些女真部落建立起某种反契丹的同盟。面对这种局势，991年，辽在鸭绿江流域下游建立起三个带有驻军和军事殖民地的堡垒，以阻挡女真和宋之间通过海上进行联络。

第三，高丽的北进扩张和对鸭绿江东岸女真领地的覬覦。辽与高丽虽然是近邻，但直到10世纪80年代，契丹和高丽还不是直接的邻居，因为辽东部的的女真诸部和定安国为高丽北部边界与辽边界提供了一个缓冲地带。契丹辽对女真和定安国的进攻加剧了紧张局势。契丹人也许还担心高丽会鼓励辽朝统治下庞大的渤海居民的地方性分离，这种分离最终导致了1029—1030年的大规模叛乱。⁶³⁾

为实现复兴高句丽的宏伟蓝图，王建在进行统一战争的同时，便大胆地在外交军事上采取了“北进政策”，乘中国大陆群雄割据，战乱纷起之机，致力于北方疆界的开拓。到他统治的末期，高丽的北境已经远及今咸镜南道的永兴和清川江的南岸，疆域大大超过了新罗。

到930年，高丽王朝修建了通德镇（今平安南道平原郡）、兴德镇（今平安南道殷山郡）、永清镇（今永柔）、朝阳镇（今平安南道价川）、安北府（今平安南道安州）等城寨，西北方领土扩张到现在的清川江一带。

此后，高丽又修筑了安朔镇（今平安北道云山郡）、朔宁镇（今平安北道泰川）、清塞镇（今慈江道熙川）、平虏镇（今平安北道宁边）等城镇。

就在辽宋进行战争的同时，高丽却乘机北进，不断地对鸭绿江沿岸的女真人进行征伐，建城筑寨，加强边防。至992年，高丽已将鸭绿江下游南岸的女真人基本驱逐到长白山以北地区。⁶⁴⁾高丽不断扩张的态势引起了辽朝的不满，并成为了后来辽朝讨伐丽的口实。

⁶³⁾ 傅海波等编，史卫民等译：《剑桥中国辽西夏金元史》，中国社会科学出版社1998年第116页。

⁶⁴⁾ 朝鲜科学院历史研究所：《朝鲜通史》上卷，吉林人民出版社1959年第87-88页。



包括铁岭以北在内的高丽疆域图⁶⁵⁾

第四，也是最关键的原因在与辽朝方面试图取代宋朝成为中原政权的所谓正统地位。高丽在这次战争之前一直与宋朝保持着密切的联系，也承认宋朝为中原政权的正统地位，接受宋朝的封赐，也就是说，高丽王朝一直视中原地区的宋朝为宗主国，唯宋朝的马首是瞻。因此，高丽王朝才敢于同辽朝进行对抗和边境侵扰。而这时的辽朝的心腹大患也正是宋朝，所以对高丽的行为和挑衅一直采取视而不见的态度，甚至听之任之。等到辽朝在争夺中原的战争中越来越取得主动地位之后，高丽问题就提升到了议事日程，非解决不可了。唯一的办法就是用武力迫使高丽屈服，辽朝正式册封高丽成宗王治为“高丽国王”，高丽开始使用契丹统和年号，正式向契丹称臣纳贡，同时断绝了同北宋的宗藩关系，高丽由“事宋”改为“事辽”。从而使辽朝取得了所谓中原政权的宗主国的地位。这可能是辽朝对高丽战争的终极目标所在。

VII. 结论

总之，辽高丽之间的第一次战争，由于文献材料的缺失，特别是中文材料记载的稀少，使得很多具体的问题都无法得到文献史料的证实。对于辽王朝而言，圣宗时期国力的强盛是其中一个重要的方面，同时宋丽同盟的名存实亡以及对宋战争的节节胜利，又是一个成熟的机遇，从而展开对高丽的战争以解决后顾之忧。这从后来的两次对高丽战争中也可以反映出来。这次战争在一定程度上奠定了十世纪宋辽高丽关系的基础。

⁶⁵⁾ 高句丽研究会编：《徐熙与高丽的高句丽继承意识》，首尔学渊文化社1999年第25页。

3

토론

第一次 遼麗戰爭에 관한 研究 토론문

이재범

(경기대학교 교수)

第一次 遼麗戰爭에 관한 研究 토론문

이제범(경기대)

본 연구는 1992년 12월에 발발하여 그 이듬해 2월까지 계속된 기관의 제12차 침입에 관한 연구이다.

본고는 중국인에 의하여 연구된 것으로 제목에서부터 우리와는 다른 정서를 갖는다. 한국 사에서는 기관의 침입, 혹은 요여전쟁이라고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요여전쟁이라 하여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 의하여 서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한편으로는 전쟁의 발단이 무엇이었는가에 전쟁의 침략 주체가 누구였는가에 따르면 요여전쟁이 합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한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자국 중심의 역사 술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중국인에 의하여 요여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보인다.

본 연구는 원자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문헌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중국측 사료가 적어서 구체적으로 새로운 사실들이 발굴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전쟁의 전체적인 성격이나 결과 등에 관해서도 한국 사학계의 역사적 평가와 크게 다른 내용이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제를 중국의 시각에서 해석한 내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은 것만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遼의 고려 침공은 최초부터 계획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요는 天贊3年(924)부터 遼太祖를 統帥, 副帥는 天下兵馬大元帥인 次子 耶律德光으로 하여 주로 북방 초원지대의 유목민족이 정벌 대상이었으며, 요의 군대는 西로 중앙아시아와 북으로는 그 세력이 바이칼湖 이북까지 확대하여 전체 몽고초원을 통일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제2자는 天顯元年(926)부터인데 遼太祖는 세력을 동으로 뻗어 海東盛國 渤海를 멸망시키고 전체 東北지역을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제3자는 會同元年(938)에 있었는데, 이때 요는 中原의 五代왕조인 後晉으로부터 北京·大同을 중심으로 한 지역인 소위 燕雲16州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고려의 공개적인 국교단절, 기관사신의 유배와 다수의 발해유민을 받아들임으로 야기된 적대감의 표현, 그리고 北宋과의 '友好' 동맹, 이를 통한 북진정책의 추진과 영토확장 등으로 遼는 크게 진노하게 된다. 그러나 당시 遼太宗 耶律德光是 중원 정략에 바빴으며, 이어서 즉위한 世宗·穆宗·景宗의 시대를 지나면서 遼 내부에 내란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燕雲16州를 차지하기 위한 後周와 北宋의 북벌에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고려의 북진정책에 대해선 방관하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데, 따라서 고려에 대한 군사동원을 자제하며 후방이 고려의 공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경계하게 되었다고 하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거시적 안목으로 조망하고 있다.

그 뒤 요가 고려에 집중하게 되는 시기는 宋遼 간에 停戰이 이루어지면서 遼는 한반도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데, 즉 고려를 압박하여 '稱藩納貢'하게 하고 여송 간의 동맹을 와해시켜 북송을 정복할 때 발생할 지도 모를 후방의 불안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遼麗간의 제1차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전쟁을 뒷받침할 요의 민성이 배경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요의 강성함과 관계없이 고려가 요를 공격하였기 때문에 요의 제1차 전쟁

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즉, 고려의 북진정책은 이웃한 강대국인 遼의 영토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했으므로 마치 '引火自焚(스스로 무덤을 파다, 역자)'과도 같았다'고 하여 작은 고려가 큰나라 대륙을 공격하였다는 데서 1차 침입의 원인을 찾고 있다.

또한 遼宋 양국이 서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을 때, '고려는 이 기회를 이용해 북진정책을 추진하여 압록강 연안의 여진인들을 부단히 정벌하였으며, 그곳에 城寨를 구축하여 변경방어를 강화했던 것이다. 992년에 이르러 고려는 이미 압록강 하류 남안에 거주하고 있던 女眞人들을 백두산 이북으로 驅逐하게 되어 고려가 부단히 영토를 확장하자, 요의 불만을 샀으며, 이는 이후 遼가 고려를 정벌하는 구실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여 제1차 침입의 원인을 고려에 넘기고 있다.

또한 결과에 있어서도 고려의 강동6주 획득을 요의 종속관계에 의한 신속국이 된 대가로서 얻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강동6주를 고려가 획득하게 된 이유도 정통성을 내세워 명분으로 맞선 서희의 뛰어난 외교의 결과가 아니라 양국의 실력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거란의 1차 침입의 결과는 강대국인 요의 실력에 밀린 고려가 신속을 함으로써 얻어진 결과이며, 서희의 외교담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강동6주만을 내어준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희의 활약에 의한 외교담판의 서술은 그다지 많이 보이지 않으며 강조하지도 않는다. 양국간의 부력의 차이로 종속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가장 큰 변화로 주장하고 있으며, 거란의 공격은 침략전쟁이 아니라 고려의 북진에 맞선 당연한 정의로운 전쟁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중국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명분이나 정통 보다 현재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요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연구하고 있어서 한국사에서의 통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토론자의 견해를 말하면서 소임에 대신하고자 한다.

한국사에서는 제1차 거란의 침입(제1차 요여전쟁)의 결과를 서희라는 인물의 담판에 의하여 강동6주를 획득하는 대신 송과 단교하고 요와 교류를 한다는 조건으로 물러갔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는 부력의 차이에서 발생한 중주국간의 행위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희의 담판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하여야 할까? 서희의 담판은 전쟁의 종료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다.

다음으로 동북공정의 시기가 고구려, 말해에서 고려 초기까지 하한선이 내려온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한국사에서는 서희의 담판으로 강동6주를 획득함으로써 신라때보다 북쪽으로 영토가 더 개척되었고, 그 명분도 고구려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러나 발표자의 견해에서 본다면 요의 정의로운 전쟁에 의하여 고려와 실력대결을 하였고, 그 결과는 부력의 차이로 말미암아 고려가 요의 종속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중심의 세계가 더욱 확대되었다는 의미가 된다. 고려가 요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자립성을 가졌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요의 종속국으로 고려까지를 중국의 변방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의도인지가 궁금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의 고려의 대거란정책은 태조의 훈요십조에 근거하여 금수의 나라라

는 점이 강조되어 왔다. 그리하여 고려는 건국하자마자 거란과는 단교를 하고 외교관계를 지속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신교수의 당시 동아시아 국제적 관계에 의해서 934년 발해유민을 받아 들인 시점을 계기로 고려와 요의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신교수는 934년 이전의 고려와 요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해주시기 바란다.

본 연구는 실증적인 연구물인 동시에 요를 주제로 한 동아시아 전체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하는 거시사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 * 고려의 군제인 '2군6위설'은 이원순교수 보다 이기백교수 인용이 바람직 함.
- * 918년 이전의 고려는 궁예의 태봉국이다.

4

고려에 대한 서희의 공헌 연구 - 고려와 고구려의 관계를 함께 논함 (论徐熙对于高丽国家的贡献-兼论高丽与高句丽的关系)

방천우(庞天佑)

(담강사범대학 교수)

高麗왕조에 대한 徐熙의 貢獻

—高麗와 高句麗의 관계를 함께論함

著: 龐天佑 譯: 李椿浩

한국인들 사이에서 널리 회자되고 있는 徐熙는 한국역사상 매우 중요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 高麗 太祖25年(942)에 태어난 그는 惠宗·定宗·光宗·景宗·成宗朝를 지나 穆宗元年(998)에 이르러 향년 57세로 세상을 떠났다. 이때는 고려가 건국된 후 비교적 안정적인 발전을 이룩한 시기로, 주지하듯 서희는 일평생 고상한 품성을 유지하며 誠私奉公의 정신으로 나라와 민족에 충성하고 마을을 바꿨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遼의 대규모 군사적 침략을 당해 존망이 위태로웠던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 그는 戰勢를 냉철하고도 정확하게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중한 지혜와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국가이익을 保持하고 비범한 공적을 남겼으니 위대한 애국자, 그리고 뛰어난 외교가로서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상과 같은 인식에 기초하여 10세기 후반 고려왕조의 역사를 서희의 역사적인 공헌과 함께 고찰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中韓 양국 간에 이어져 온 우호관계를 보다 새롭게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동북아 정세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하는데도 현실적이면서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I

인류역사상 어떤 偉人들 모두 그 시대, 그리고 그 민족이 낳은 인물임에 틀림없다. 10세기 후반 고려왕조의 전략가이며 외교가였던 서희 역시 韓民族이 낳은 인물임에 틀림없으며, 그가 생활한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 서희의 고려왕조에 대한 공헌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는 그가 생활하고 활동했던 사회·역사적인 배경과 그 시대에 대하여 고찰할 필요성을 느낀다. 국경을 접하고 있던 契丹族의 遼와 王氏高麗는 대체로 비슷한 시기에 건국되었는데, 10세기에서 12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동북아 지역의 중요한 국가로 존재할 수 있었다. 복잡·다변했던 정치형세 속에서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들 두 왕조는 문화전통과 국가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차이를 드러내며 충돌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10세기 遼麗 양국 간에 충돌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고, 그리고 고려가 당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전략적인 조치 등을 살펴봄으로써 하여 서희가 고려왕조를 위해 어떠한 공헌을 했는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遼는 契丹族이 세운 封建王朝이다. 고대 東夷族系의 후손으로 오랫동안 潢河(지금의 西拉木倫河)以南, 土河(지금의 老哈河)以北에서 활동한 거란족은 水草를 따라 이동하는 유목생활을 영유하며 中原지역과 비교적 광범위한 왕래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 이후 唐의 세력이 쇠퇴하면서 점차 강성해지기 시작한 거란은 後梁 貞明2年(916)에 이르러 그들의 首領 耶律阿保機가 龍化州(지금의 內蒙古 赤峰)에서 帝位에 오르게 된다. 그는 스스로 '天皇王'을 칭하고, 국호를 '契丹'으로, 그리고 연호를 '神冊'으로 정하고, '百官'을 두었다. 이어서 神冊3年(918) 아물야보기는 潢水 이북에 도성을 쌓고, 皇都(훗날 上京이라 칭함)라 칭하였다. 그리고 天贊4年(925)에는 대운을 이끌고 발해국으로 공격하여, 그 이듬해(天顯元年: 926) 正月 발해의 王都 忽汗城을 함락한 후 '海東盛國'으로 일컬어왔던 발해를 멸망시

키기에 이른다. 『遼史』에서 거란은 그 부유함과 강함이 軍馬와 兵士에 있다고 한 것처럼, 말들은 들만에 널리 있고 인민들 사이에서 병사를 구한다고 기재하였다.¹⁾ 태조 아홉아보기에 의해 건국된 遼는 이후 太宗·世宗·景宗 때를 지나면서 비교적 순탄한 발전을 하게 되는데, 특히 聖宗이 즉위한 후 한층 번영·창성한 시기로 접어들어 동북아 지역의 강국으로 당당히 웅거할 수 있었다. 史書에서는 “遼가 松漠에 근거하고 가장 强盛했으며, 天命이 그들에게로 돌아와 나라를 세우고 改元하였다. 號令法度는 모두 漢制를 따랐으며, 諸將에게 출정을 命하여 諸國을 臣服시켰다. 人民들은 모두 版籍에 등재되고, 貢賦는 모두 國庫에 쌓이게 되었다”²⁾고 기재하고 있다. 필자는 蒙古고원과 東北지역에 城寨를 쌓고 官制를 두어 그곳을 관리한 遼가 長城남북 간의 교통과 교류에 힘쓰고, 중원지역의 사상과 문화의 전파에 노력했으며, 그리고 동북아 지역 내 각 민족 간의 활발한 교류에 역사적인 공헌을 했다고 생각한다.

한편 고려는 한반도의 중남부에 위치한 신라왕조가 쇠퇴한 후, 그를 이어 흥기한 통일왕조이다. 신라후기 정권이 쇠락하면서 群盜가 앞 다퉈 일어났으며,³⁾ 정치는 부패하고 국가의 기강이 문란해지자, 지방 호족세력들은 이를 틈타 일어나게 되니 통일왕조는 와해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甄萱은 完山州에 근거하여 백제 義慈王의 원한을 갚겠다는 기치 하에 眞聖女王6年(892) 後百濟를 건국하였으며, 弓裔는 松嶽(훗날 鐵圓으로 옮김)을 근거로 고구려 부흥을 기치로 내걸고 孝恭王5年(901년) 後高句麗를 건국하게 되는데, 사서에서는 효공왕9年(905) “궁예가 鐵圓(지금의 鐵原)을 근거로 後高麗王을 자칭했다”⁴⁾고 하였다. 건원은 南州에서 반란을 도모하고 後百濟를 칭했으며, 궁예는 高句麗之地에 근거하고 철원에 도읍을 정한 후 나라 이름을 泰封이라 하였다.⁵⁾ 이렇게 하여 한민족의 역사는 건원의 후백제, 궁예의 태봉국, 그리고 신라가 정립하는 후삼국시대로 진입하게 된다. 그런데 궁예가 비록 起兵하여 고구려의 舊地를 되찾겠다는 야심을 품기도 했으나, 훗날 宮室을 대대적으로 보수하는 등 사치가 극에 이르러⁶⁾ 그의 왕조는 잠시 왔다가 사라져 버리는 운명을 맞았다. 後梁 貞明4年(918) 權知國事이며 송악 지역의 豪族이었던 王建은 정변을 일으켜 궁예의 태봉정권을 무너뜨리고, 天授라 개원하고 송악(지금의 개성, 이후 開京이라 칭함, 필자)에 定都하여 고려왕조를 건국한다.⁷⁾ 고려를 세운 왕건은 약 20여 년의 시간을 들여 신라와 후백제를 차례로 멸하고 한반도를 재차 통일하였는데, 사서에는 그가 “賞罰을 명확히 하고 節儉을 중시했으며, 또한 賢良을 등용하고 儒道를 중시했다”⁸⁾고 적고 있다. 이후 惠宗·定宗·光宗·景宗 때에 지방 호족세력을 약화시키면서 고려의 국력은 더욱 증강될 수 있었다. 특히 왕종은 노비의 해방에 힘쓰고 과거제를 통해 우수한 관리들을 등용함에 따라 지방관리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임명하는 등 중앙집권제를 확립하게 되면서 중앙정부의 힘은 더욱 강화되었다. 성

1) 『遼史』 卷59上 食貨志, “其富以馬, 其強以兵, 縱馬於野, 弛兵於民.”

2) 『遼史』 卷70 屢國表, “遼居松漠, 最爲强盛, 天命有歸, 建國改元, 號令法度, 皆遵漢制, 命將出師, 臣服諸國, 人民皆入版籍, 貢賦悉輸內帑.”

3) 『高麗史』 卷2 太祖世家2.

4) 『高麗史』 卷58 地理志3.

5) 『高麗史』 卷1 太祖世家1.

6) 『高麗史』 卷58 地理志3.

7) 『高麗史』 卷1 太祖世家1.

8) 『高麗史』 卷2 太祖世家2.

종이 즉위한 후 유학자 崔承老는 태조 왕건 이래의 治國施政을 종합하여 “禮樂·詩書의 가르침과 君臣·父子의 道를 배우는 것에 게으르지 않고 中華를 모범으로 삼아 鄙陋한 것들을 개혁해야한다”⁹⁾고 上書하였는데, 이로써 유가사상은 고려왕조의 통치사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이렇듯 고려는 한반도의 고대문명을 계승하고, 동시에 외래문화를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소화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중요한 국가로 성장해 간 것이다.

文化傳統의 차이는 遼麗 간의 충돌을 가져온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거란족이 건국한 遼王朝와 왕건이 건국한 고려왕조는 비록 모두 華夏文化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각자 거주한 지역적인 위치의 차이와 서로 다른 민족적인 전통 때문에, 화하문화를 수용한 후 나타난 영향에 있어서 비교적 커다란 차이점을 드러냈다. 즉 거란은 중원으로부터 비교적 먼 거리에 떨어져 있던 長城 이북에서 오랫동안 유목생활을 영유하며 북방초원의 유목민족적인 문화적 특징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화하문화의 영향이 비교적 적어 고려로부터 禽獸의 나라로 야만시되었다.¹⁰⁾ 반면 한반도가 실사 중원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었다지만,箕子의 종속을 익혔다고 했듯,¹¹⁾ 화하문화의 커다란 영향을 받아왔다. 이를 흑자는 唐朝 이래 신라는 중국의 정치체제를 받아들인 후, 본국의 실제상황을 참작하여 적절한 제도를 만들어냈던 것이라고 하였다.¹²⁾ 고려는 예로부터 唐風을 양모하여 文物과 禮樂이 모두 그 제도를 따랐다고 하듯,¹³⁾ 실로 중국문화를 모방하여 스스로 군자의 나라, 혹은 文明禮儀之國이라 일컬었으니, 화하문화에 대한 강한 동질감을 갖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흑자의 통계에 의하면, 고려는 五代왕조에 26차례에 걸쳐 사신을 파견했으며, 반대로 오대왕조는 고려에 10차례의 사신을 보냈다.¹⁴⁾ '宗藩朝貢'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하였다. 황종은 後周의 雙翼을 중용하여 과거를 통해 관리를 선발하고 이로써 文風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대략 그 규범은 唐制를 채용한 것이며, 비로소 동방의 문물이 성하여 거의 中華에 비견될 만 했다고 한다.¹⁵⁾ 고려의 士人들이 화하문화를 숭상하게 되면서 詩·書·易·禮·春秋·論語·孝經 등 유가경전은 고려왕조가 자제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규정한 교과서가 되기도 하였다.¹⁶⁾ 따라서 고려가 유가사상을 齊家治國의 이념으로 삼게 되면서 자연히 거란의 야만적이고 나후한 문화에 대하여 극도로 멸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태조25년(942) 거란은 사신과 함께 낙타 50필을 보내왔다. 왕건은 거란이 일찍이 말해와 천하게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의심을 품어 맹약을 깨고 그 나라를 멸망시켰으니, 이는 심히 무도한 것으로 원선관계를 맺을 나위가 못된다고 생각하여 드디어 交聘을 끊고, 그 사신 30명을 海島로 유배시켰으며, 낙타는 萬夫橋 아래에 매어 굶어죽게 하였다.¹⁷⁾ 이는 바로 고려가 거란을 얼마나 멸시하고 있었는지의 심적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태조 왕건은 말년에 그의 자손들에게

9) 『高麗史節要』卷2 成宗壬午元年條, “其禮樂詩書之教, 君臣父子之道, 宜法中華, 以革卑陋.”

10) 『高麗史』卷2 太祖世家3.

11) 『宋史』卷487 高麗傳.

12) 徐連達, 1995, 「10世紀中葉到11世紀初北宋與高麗王朝的友好關係」, 『韓國研究論叢』1.

13) 『高麗史節要』卷1 太祖癸卯二十六年條.

14) 張春海, 2008-1, 「高麗王朝的‘華化’與‘土俗’之爭」, 『安徽史學』.

15) 『高麗史』卷73 選舉志1.

16) 중국고대 유가사상이 고려의 교육에 끼친 영향을 高明士, 1984, 「唐代東亞教育圈的形成」 下篇 「韓國古代的學校教育」, 臺北國立編譯館中華叢書를 참고.

17) 『高麗史』卷2 太祖世家2.

「訓要十條」를 남기며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마땅히 經史를 두루 섭렵하고 옛 것으로 현재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으며, 또한 거란은 우리와 풍속·언어, 그리고 의관·제도 역시 다르기 때문에 절대 모방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 強惡之國(遼를 가리킨다, 필자)과 이웃하게 되었으니 이제 나라의 안위를 잇을 수 있겠다면 兵卒을 더욱 보호하고 돌봐주어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¹⁸⁾ 한편 고려는 압록강 유역의 여진인들에 대해서도 문명화되지 못한 야만스런 민족으로 여기고 있었다. 태조14년(931) 詔書를 내려 '北蕃之人'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禽獸의 마음을 가졌으니 배가 고프면 歸依하고 배가 부르면 되돌아가 버린다. 실로 이익만을 쫓고 염치를 알지 못한다. 지금 그들이 비록 우리를 섬기고 있으나, 언제 배반할지 모르니 마땅히 그들이 지나는 州縣에 명하여 館城을 쌓아 그들을 대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¹⁹⁾ 이렇듯 고려는 거란의 낙후한 문화와 야만스러움에 시종 멀리서 일관하였고, 동시에 늘 그들의 행동에 경계를 늦추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과의 교류에 냉담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낙후한 여진인들에 대해서도 역시 대단히 멀리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고려는 중원의 문화전통에 대해 강한 동질감을 드러내며 양모하여 전후로 흥기한 漢人 왕조와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하였다. 이렇듯 고려인의 눈에 거란은 우매하고 낙후한 오랑캐의 나라였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원의 문화를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북송이 건국된 지 3년(宋太祖 建隆3年; 962)만에 고려 왕종은 사신을 보내 교류했던 것이다. 북송이 존속한 160여 년의 시간 속에서 宋 麗 간에는 빈번한 사신의 왕래가 있었는데, 송은 고려에 32차례 사신을, 고려는 송에 53차례의 사신을 파견했다고 한다.²⁰⁾ 이러한 밀접한 외교적인 왕래 속에 내포되어 있는 문화적인 동질감은 고려가 사상·감정, 그리고 문화·전통적으로 중원지역과의 관계를 보다 긴밀히 유지해 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國家利益의 충돌은 遼麗 간의 대결국면을 일으킨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거란과 왕건은 각각 916년에 遼國과 918년에 고려를 건국하였으니, 이들 두 왕조의 건국시기가 비슷하다고 하지만, 초기에 영토를 넓히고 있지 않았으므로 직접적인 이해 충돌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발해가 天顯元年(926) 遼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자 상황은 급변하였다. 발해를 멸한 遼는 그 강역을 차지하게 되었으니, 5千리에 이르는 강역, 10萬의 병사, 5京·15府·62州에 이르는 모든 인민들을 그들의 통치하에 두면서 거란은 더욱 강성해졌다고 한다.²¹⁾ 역사적으로 발해는 건국 이후 원고구려 땅을 차지하고 한반도 중남부에 위치한 신라와 泥河를 경계로 구분되었으며, 그리고 발해는 요와 고려의 중간에 위치하여 고려를 지키는 屏障의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요가 발해를 멸한 이후 그곳에 東京道를 설치하고 唐의 동북지역과 발해의 옛 땅을 통치하에 두면서 고려는 자신을 지켰던 屏障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당시 原 발해의 대부분 땅을 차지한 遼는 동부 변경지역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다. 한편 고려는 요에 대하여 대단한 경계심과 두려움을 갖고 있었지만, 고구려의 계승자임을 자처하며 통치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북진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태조 왕건은 고구려 舊地의 회복을 건국이념으로 삼았는데, 즉 즉위 元年9月 丙申日에 신하들에게 평

18) 『高麗史』 卷2 太祖世家2.

19) 『高麗史』 卷2 太祖世家2.

20) 北宋과 고려 사이에 있었던 使臣往來의 통계는 중한관계사를 연구한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숫자는 한국학자 김위현이 『高麗史』에 근거하여 얻은 통계인데, 보다 자세한 것은 金潤淵, 1981, 『契丹의東北政策-契丹與高麗女眞關係之研究』, 臺北, 華世出版社, 50쪽을 참고.

21) 『遼史』 卷34上 兵衛志, "地方五千里, 兵數十萬, 五京·十五府·六十二州, 盡有其衆, 契丹益大."

양은 古都로 황폐한지 오래되었으나 그 基址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가시가 무성하고 蕃人들이 그곳에서 노략질을 일삼으니 그 폐해가 대단하다. 백성들을 이주시켜 蕃屏을 공고히 하여 百世之利로 삼고자 한다. 이에 그곳을 大都護府로 삼고 堂弟 王式廉과 廣評侍郎 列評을 보내 그곳을 지키게 하였다.²²⁾ 왕건은 여진을 방어한다는 이유로 平壤을 西京으로 改稱하고 다수의 인구를 그곳으로 이주시켰는데, 즉 태조5년(922) 大丞 賈榮, 行波 등 일가의 父兄子弟들과 여러 문현의 良家子弟들을 이주시켜 그곳을 충실하게 한 것이다. 게다가 왕건은 서경으로 순행하여 官府의 員吏를 새롭게 배치시키고 처음으로 在城을 쌓았으며, 또한 진히 牙善城 인민들의 거주지역을 정하도록 하기도 하였다.²³⁾ 그리고 태조14년(931) 安北府를 설치하고 북부지역에 대한 관리와 통치를 강화하였다. 이어서 고려는 대동강 이북에서 청천강 연안까지를 정벌하여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여진인들과 기타 민족 및 말해유민들의 옛 땅을 侵蝕 혹은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청천강 이북에 계속해서 威化·寧朔·長平·安朔 등의 성을 수축하였으며, 동시에 말해유민을 받아들인 후 우대하였다. 즉 天顯9年(934) 말해의 세자 大光顯 등이 수만의 말해유민을 이끌고 고려에 투항하자, 왕건은 그들을 특히 우대하였는데, 즉 그에게 王繼란 이름을 내려 宗籍에 등재할 수 있게 하고, 元甫를 주어 白州를 지키게 하고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였으며, 동시에 그의 僚佐들에게는 관작을 내리고 軍士들에게는 田宅을 차등 있게 하사했던 것이다.²⁴⁾ 왕건의 통치말기에 이르러 고려의 북부 변경은 이미 지금의 咸鏡南道 永興과 청천강 남안에까지 다다를 수 있었다. 이렇듯 고려가 말해유민들을 이용해 북쪽으로 세력을 확장하자, 遼의 강한 불만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에 요는 고려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고 동부 변경지역의 안정을 도모하여 이후 중원을 차지하기 위해 송과 전쟁을 할 때, 고려와 역시 동시에 양면에서 전쟁을 하는 상황을 피해하기 위해 예쓰게 된다. 『宋史』에는 고려 성종이 사람을 시켜 송의 사신 韓國華에게 이르는 말 중에 고려가 압록강 변에 성을 쌓았다는 대목이 있는데, 즉 “예상외로 女眞人들은 병사를 몰래 보내 우리의 관리와 백성들을 죽이고 丁壯들을 잡아 노예로 삼거나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다. 우리는 그들이 매년 中朝에 조공을 하는지라 병사를 일으켜 원한을 갚지 못했다”²⁵⁾고 한다. 한편 『高麗史』에는 성종3년(984) “刑官御事 李謙宜에게 명하여 압록강 변에 성을 쌓아 關城으로 삼고자 했는데, 여진인들은 병사를 일으켜 이를 막고 그를 잡아갔다. 그러자 군대는 흩어져 성을 쌓지 못하고 되돌아온 자가 삼분의 일에 이르렀다”²⁶⁾고 기재하고 있다. 이상의 기록들은 고려가 북진정책을 통해 原고구려 땅을 차지하려 했기 때문에, 遼의 동부 변경지역에 거주했던 여진인들과 충돌이 일어났으며, 더불어 遼麗 간의 국가 이익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한 사실을 설명한다고 하겠다.

이상을 종합하면 遼와 高麗는 모두 10세기 초반에 건국된 왕조들로 수십 년의 발전을 통해 동북아의 중요한 국가로 성장해 갔다. 遼는 동으로 大海에서부터 서로 流沙에 이르고, 그리고 남으로 長城을 넘고 북으로 大漠에 이르는 장성 이북의 몽고고원과 중국 동북지역의 광활한 강역을 용유하였으며, 동시에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압록강 이남

22) 『高麗史』 卷1 太祖世家1.

23) 『高麗史』 卷1 太祖世家1.

24) 『高麗史』 卷2 太祖世家2.

25) 『宋史』 卷487 高麗傳, “不意女眞潛師奄至, 殺略吏民, 驅掠丁壯, 沒爲奴隸, 轉徙他方, 以其歲貢中朝, 不敢發兵報恩.”

26) 『高麗史』 卷3 成宗世家3.

의 한반도를 통치했던 고려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다른 한 면이 대륙과 연결되어 있어²⁷⁾ 遼보다 강역이 작고 군사력 또한 약했다. 당시 遼 양국의 전략적인 態勢를 비교하면, 遼는 비록 광활한 강역과 강한 군사력을 용유하여 상대적으로 고려를 압도했으나, 그들의 전략적인 목표는 중원을 차지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遼太宗은 이에 전력할 수밖에 없었으며, 게다가 世宗·穆宗·景宗 때에는 국내의 안정에 힘쓰고 나아가 중원지역에 대응해야만 했기 때문에, 혹시 고려와 전쟁을 하게 되면 양면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고려에 대하여 소극적인 수비에 전력했던 것이다. 반면 고려는 비록 한반도의 중남부에 치우쳐 있어 협소한 강역과 약소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만, 북진정책을 그들의 전략적인 목표로 삼아 발해의 잔여세력을 받아들여 이용하는 등 요와 여진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압록강 유역의 통치권을 두고 다투었으므로, 요와 대치하고 있던 중원의 漢人왕조, 특히 北宋에 대하여 적극적인 交聘을 추진하여 심지어 宗藩關係를 맺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고려가 기란의 사신들을 유배시키고 발해의 유민들을 받아들였으며, 동시에 중원의 한인왕조와 宗藩關係를 맺으며 압록강 유역의 여진인들이 거주한 지역으로 무단히 세력을 확장하자, 요의 강한 불만을 샀는데, 이로써 遼 간의 모순이 격화되면서 양국의 관계는 극히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고려의 전략적인 선택은 우선 군사적으로 계속 북진정책을 추진하여 발해의 옛 땅을 두고 遼와 다투는 것이었으며, 그리고 외교적으로 중원의 한인왕조와 적극적으로 연합하여 遼의 力量을 분산 혹은 견제하는데 있었다. 당시 동북아의 복잡한 정치형세 속에서 고려는 군사적인 수단과 외교적인 방법을 적절히 결합시켜 나라의 안전을 도모하고 강역을 확장시켜 국가이익을 최대화하고자 하였다. 서희가 생존했던 10세기 후반 고려가 직면했던 이상과 같은 대내외의 환경은 그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무대였으며, 동시에 나라에 충정을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할 수 있는데, 요가 대대적으로 침략하여 국가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자, 자신의 충성과 지혜를 발휘하여 국가이익을 지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겠다.

II

10세기 고려왕조의 걸출한 전략가이며 탁월한 외교가인 서희는 문화적 소양이 깊고 도덕적 품격이 높은 利川 徐氏 집안에서 태어났다. 徐氏의 족보에 의하면, 이원 서씨의 시조 徐神逸은 80세에 아들 徐弼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가 바로 서희의 부친이다. 『高麗史』에는 “일찍이 서필의 父 서선일이 시골에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사슴 한 마리가 그에게로 도망하였다. 그가 본즉 사슴의 몸에 화살이 쏘여 있었으므로 그것을 뽑아주고 또 숨겨 주었는데, 얼마 후 사냥꾼이 쫓아와 찾다가 잡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그날 밤 꿈에 神人이 나타나 감사하기를, ‘사슴은 내 아들인데 그대 덕분에 목숨을 건졌으니 공의 자손들로 이후에 대대로 卿相로 오르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서선일의 나이 80에 주 서필을 낳았다. 서필·서희·徐訥 등이 모두 과연 대대로 재상이 되었다”²⁸⁾고 기재하고 있다. 서필은 군주에 충직하고 나라를 사랑했던 인물로, 정림질백하고 사리사욕을 도모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시에는 “그는 성품이 환달하고 민첩했는데, 처음에 관직을 하급 사무원으로 시작하였으나, 누차 승진하여 벼슬이 大匡內議令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며, 또한 “光宗이 宰臣 王成敏·皇甫光謙 및 徐弼에게 급으로 된 잔을 주었는데, 서필만 이를 받지 않고 말하기를 ‘臣은 과분하게 宰輔의 자리

27) 『高麗史』 卷56 地理志1.

28) 『高麗史』 卷94 徐熙傳.

에 앉았으니 이미 받은 종에만 하여도 과분한데, 또 금 그릇을 주시니 분수에 넘치는 것입니다. 또한 의복은 등급을 밝히야 하며 사치와 김박은 '靡亂'과 관계된 것입니다. 신이 금 그릇을 사용하면 임금은 무슨 그릇을 사용하겠습니까!' 이에 왕종은 '卿은 보물을 보물로 여기지 않으나 나는 경의 말을 보물로 여길 것'이라고 하였다. 서평이 일찍이 왕을 배알하고 '원컨대 上께서는 功이 없는 자에게 상을 주지 말며, 功이 있는 자는 잊지 마십시오'라고 한 적이 있다. 이에 왕종은 아무 말 없이 默然하였는데, 이른 날 近臣을 보내 '功이 있고 없는 자란 누구를 가리키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공이 있는 자란 元甫 式을 가리키는 것이며, 공이 없는 자란 우리와 같은 자들이다'고 하여, 그 近臣으로 하여금 그대로 주청하도록 하였다.²⁹⁾ 이상의 기록은 서평이 얼마만큼 국가이익을 우선시하고 개인의 이익에 얽매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때문에 그는 사후 왕종의 廟庭에 配享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또한 이는 고려조정에서 서평의 숭고한 품성과 일생의 업적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父 서평이 국가이익을 가장 중요시했는데, 이런 뛰어난 성품은 아들 서희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서희의 小字는 廉允이며, 그는 嚴格한 성품을 소지했다고 한다.³⁰⁾ 이는 주지하듯 그가 좋은 家風의 영향 속에서 內柔外剛인 성품을 지닐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국가이익을 가장 높은 가치로 여긴 서희는 이를 保持함으로 나라에 보답하고자 했으며, 또한 이를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갖추고자 하였다. 官界에 진출한 서희는 고려조정의 깊은 신임을 얻어 여러 중요한 관직들을 역임하게 되는데, 어떤 벼슬에 있었던지 간에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임금의 바램에 무응하였다. 왕종11년(963) 나이 18세에 甲科에 발탁된 서희는 政務적으로 廣評員 外郎에 임명될 수 있었으며, 이후 승진하여 內議侍郎에 오르게 된다. 왕종23년(972) 그의 나이 31세 때에 고려조정의 명을 받고 송에 出使하였는데, 이는 당시 고려가 송과 10여 년 간 왕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때 서희의 容儀가 출중하여 宋太祖로부터 檢校兵部尙書란 관직을 제수받기도 했다고 한다.³¹⁾ 환연하면 십여 년간 여송 간에 자신의 왕래가 없었던 것을 서희의 出使를 통해 일단락되었으며, 당시 서희의 容儀가 출중하고 말재주가 뛰어나 송대조로부터 칭찬 외에 관직까지도 수여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그가 박학한 학식과 탁월한 외교적 재능을 갖추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성종2년(983) 서희는 43세의 나이에 "佐丞을 거쳐 兵官御事에 임명되었는데, 당시 왕을 수행하여 西京으로 순행한 적이 있었다. 당시 성종은 미행으로 永明寺에 놀러가려는 것을 그가 간언하여 그 만두게 하였다. 이에 왕이 鞍馬를 상으로 주었으며, 후에 內史侍郎으로 승진하게 된다." 이어서 일찍이 그가 왕을 수행하여 海州로 간 적이 있는데, "성종이 친히 서희의 幕으로 들어가려 하자, 이에 서희는 '臣의 幕은 至尊께서 들어오실 만한 장소가 되지 못합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성종은 술을 가지오게 하자 '臣의 술은 감히 올릴만한 것이 못 됩니다'라고 하였다. 성종이 하는 수없이 幕의 밖에 앉아 御酒를 가지오게 하여 함께 마시고 돌아간 일이 있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供賓令 鄭又玄이 당시 時政에 관한 7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논평한 글을 제출한 적이 있는데, 왕의 뜻을 거스르는 바가 있었다. 성종은 재상들을 모아 상의하고 '정우현이 감히 직분을 넘어 시정을 논박하였으니 그의 죄를 논하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자리에 모인 자들이 모두 '명에 따르겠다'고 하였지만, 서희만은 '옛날 諫言에는 관직의 구분이 없었는데 직분을 넘었다고 무슨 죄이겠습니까? 신은 출열한 재

29) 『高麗史』 卷93 徐熙傳.

30) 『高麗史』 卷94 徐熙傳.

31) 『高麗史』 卷94 徐熙傳.

주로 제상의 지위에까지 올랐는데, 직책을 다하지 못했으므로 관직이 낮은 사람들로 하여금 政敎의 득실에 대하여 논하게 하였으니 모두 臣의 죄입니다. 하물며 정우현의 論事는 심히 적절하니 마땅히 褒獎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성종은 깨달은바가 있어 정우현을 監察御史로 발탁하고 서희에게는 繼統과 廐馬, 그리고 술과 과일 등을 하사하여 위로하였으며, 太保內史수에 임명하였다고 한다.³²⁾ 이상의 기재들을 통해 우리는 서희가 임금의 뜻을 받들고 벼슬아치로서 말은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자신의 뜻을 굽히며 임금에게 아부하지도, 그리고 임금의 뜻에 영합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임금에게 과감히 직언하여 과오를 깨닫고 바꿀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바로 서희가 어떤 벼슬에 있었어도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국가이익을 최우선에 두면서 정의와 책임감에 투철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서희는 당시 고려가 직면한 국내의 정세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先見之明을 갖춘 전략가라고 할 수 있다. 즉 외적의 침입으로 국가가 危難에 봉착하자, 그는 자신의 모든 지혜와 재능을 발휘해 국난극복을 위해 전력했던 것이다. 983년 遼聖宗이 즉위하고 蕭太后가 섭정하면서 漢人들을 대거 등용하고 科擧를 통해 관리를 선발하는 등 정치개혁에 힘쓰고 농업생산에 주위를 기울이면서 遼의 국력은 더욱 강성해질 수 있었다. 당시 遼의 통치자는 고려정벌을 통해 한반도를 수중에 넣어 이후 중원을 차지할 때 야기될지도 모를 후방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遼聖宗은 統和元年(983) 冬10月 고려정벌을 위해 東京留守 耶律朮只가 통솔하고 있던 兵馬를 친히 검열하고자 했으며,³³⁾ 그리고 統和3년(985) 秋7月 諸道에 병기를 수리하도록 하여 고려정벌에 준비하도록 詔書를 내렸는데, 8월에 이르러 遼 경내의 강과 호수가 넘치는 바람에 정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³⁴⁾ 이번 정벌이 비록 도로가 끊겨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하지만, 요는 전쟁을 통해 고려를 '臣服'시키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統和10년(992) 12월 요성종은 고려가 內附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동경유수 蕭恒德에게 명하여 고려를 정벌토록 한다. 소항덕이 80만이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하여 그 邊城을 함락하자,³⁵⁾ 당시 요의 대규모 침략에 크게 놀란 고려 성종은 侍中 朴良柔·內史侍郎 徐熙 그리고 門下侍郎 崔亮을 각각 上軍使·中軍使, 그리고 下軍使에 임명하여 군대를 이끌고 방어토록 하는 한편, 친히 전쟁을 독려하기 위해 출정하여 西京에 이르렀다가 安北府로 나아가려 하였다. 그런데 遼軍이 蓬山郡을 차지하고 先鋒軍使 給事中 尹庶顔 등을 생포했다는 소식에 성종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당시 고려조정이 마다트린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어떤 자들은 임금은 도성으로 돌아가고 重臣들로 군사를 이끌고 乞降해야 한다거나, 또한 어떤 자들은 西京 이북을 떼어 遼에게 주어 黃州에서 崑崙을 경계로 邊疆을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⁶⁾ 이는 당시 고려왕조가 흥망의 갈림길에 놓여있었음을 나타내는 데, 이성과 지혜에 기초하여 어떻게 위기에서 벗어나야 할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상황을 분석하여 정확한 책략을 제출할 수 있다면, 轉禍爲福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반대로 만약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몰라

32) 『高麗史』 卷94 徐熙傳.

33) 『遼史』 卷10— 聖宗紀.

34) 『遼史』 卷115 高麗傳.

35) 『遼史』 卷88 蕭恒德傳.

36) 『高麗史』 卷94 徐熙傳.

당황하여 전열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나라는 순식간에 재난의 깊은 수렁으로 빠질 것임은 불 보듯 뻔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서희는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命을 받아 중임을 맡게 되었는데,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하게 된다. 그는 냉정하게 전세를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성종에게 계책을 간언했으며 전심전력으로 국가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주지하듯 당시 서희는 遼麗 관계에 깊은 조예가 있었다. 뛰어난 전략적인 안목을 갖춘 그였기에, 당시 遼麗 간에 상존해 있던 여러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쌍방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이를 냉정하게 관찰하여 요가 침략을 단행한 목적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다. 봉산군을 함락한 遼의 소항덕은 계속해서 진격하지 않고 고려에 항복할 것을 거듭 강요하고 있다. 소항덕은 "요가 사망을 통일하고 위속하지 않은 나라들을 掃蕩할 것인데, 속히 투항할 것이며 머뭇거리지 말라." 또 고려에 서신을 보내 "80만 대군을 이끌고 왔으니, 강가로 나와 항복하지 않으면 모든 君臣들을 섬멸할 것이니, 속히 軍 앞으로 나와 항복하라. 또 만약 和議를 청하려거든 속히 항복하라"³⁷⁾고 했던 것이다. 서희는 소항덕의 이상과 같은 言辭 속에서 거란이 비록 봉산군을 함락한 후 80만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 왔다고 辭言하고 있지만, 이는 虛張聲勢일 뿐 겁을 주어 고려를 항복시키려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환인하면 요가 고려를 침략한 직접적인 목적은 고려를 멸망시켜 영토를 확장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고려와 송 간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한 것이었다. 서희는 바로 요의 이러한 의도, 즉 고려를 압박하여 그들의 '宗藩'으로 삼아 이후 중원으로 진출할 때 양면에서 전쟁을 수행할 지도 모르는 상황을 피하고, 동시에 동부 변경의 후환을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성종에게 화의를 추진할 기회가 엿보인다고 상주한다.³⁸⁾ 이 上奏는 요의 고려침략에 대한 서희의 이성적인 판단이었으며, 그리고 고려조정에도 화의를 통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 건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건의는 철대로 우연히 제출된 것이 아니며, 서희의 냉정하고 실용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성종은 화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서희의 건의를 받아들인 후, 監察司憲借禮賓少卿 李蒙徽을 기탄 군영에 보내 화의를 청하게 된다.³⁹⁾ 이렇듯 遼麗 간에 존재한 현격한 국력의 차이를 실감한 서희는 요가 전쟁을 일으킨 직접적인 목적에 맞춰 화의담판을 통해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으로, 이는 실로 현실을 직시하고 탁월한 식견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당시 서희는 內史侍郞의 신분으로 中軍使에 임명되어 遼軍의 침략을 막는 책무를 맡고 있었다. 전쟁터에서 군사를 통솔하고 있던 지휘관으로서, 그는 군대를 이끌고 목숨을 건 싸움을 하지 않고 화의담판을 통해 국가의 위기를 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서기계에 의하면, 遼軍의 대기 침략으로 성종은 '割地之議'에 따르기 위해 西京의 창고를 열어 백성들로 하여금 양식을 마음껏 가져가게 하였는데, 남은 것이 여전히 적지 않았다. 이에 성종은 양식이 적에게 넘어갈 것을 염려하여 대동강에 모두 버리도록 명하였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성종이 割地之議에 따르려 하여 양식을 대동강에 버리게 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얼마나 적을 두려워하고, 또한 선견지명을 갖추지 못한 행위였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서희는 전체적인 국면을 정확히 간파하여 성종에게 양식을 대동강에 버리시는 안 된다고 간언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영토를 빼어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임을 역설하고 있다. 즉 그는 上奏하여 "양식이 충분하면 城을 지킬 수도 있으며 전

37) 『高麗史』卷94 徐熙傳.

38) 『高麗史』卷94 徐熙傳.

39) 『高麗史』卷94 徐熙傳.

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의 승부는 군대의 강약에 있지 않으며 적의 허물을 보고 행동하는 것에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급히 양식을 버릴 수 있습니까! 하물며 먹는 것은 백성의 생명인데 차라리 적에게 이용되는 한이 있어도 강에 버릴 수 없는 것이며 이는 天意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성종은 그의 말을 듣고 양식을 버리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어서 서희는 형세를 분석하여 성종에게 자신의 책략을 아뢰고 있다. 그는 "거란의 東京으로부터 우리나라 安北府에 이르는 수 백리 땅이 일찍이 모두 生女眞의 자지가 되었었는데, 이를 光宗 때에 도로 찾고 嘉州·松城 등의 城을 쌓았습니다. 지금 거란이 군대를 동원한 의도는 이 두 城을 차지하려는 것에 불과하며, 고구려의 舊地를 찾겠다고 聲言하여 실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兵勢가 대단한 것만을 보고 西京 이북의 땅을 빼어 주는 것은 옳은 계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三角山 이북의 땅도 역시 고구려의 舊地인데, 그들이 踞蹙之欲으로 끝없이 이를 요구해 오면 다 주시겠습니까? 하물며 땅을 빼어 敵에게 주는 것은 萬世之恥입니다. 바라옵건대 主上께서는 都城으로 돌아가시고 臣 등으로 한 번 그들과 싸워 보게 한 후 다시 割地에 대해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⁴⁰⁾라고 상주하였다. 서희는 외적의 침략과 협박 속에서 割地는 '萬世之恥'라고 하여 오직 적과 싸워 본 후 화의를 논해도 좋다고 한 것인데, 이는 바로 '應戰'과 '和議'를 적절히 결합시킨 정확한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 우리는 서희의 '應敵之策'이 바로 적의 예봉을 잠시 피했다가 상황을 적시해가면서 변화를 기다려 결전을 통해 화의를 모의하려 했던 것임을 알게 된다. 그가 주장한 화의담판은 소극적인 '乞和', 또는 할지를 통한 '求和', 더욱이 '賣國'을 통한 무항도 아닌 우선 결전을 통해 적을 제압하고, 그리고 화의를 통해 적을 퇴각시키려 한 것이었다. 이런 책략은 바로 遼麗 쌍방의 전체적인 형세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던 서희가 時勢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임기응변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제출했던 것으로, 실로 일보 후퇴를 통한 일보 전진, 그리고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겨낼 수 있는 고도의 지혜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현실적인 戰勢를 꿰뚫어 보고 있던 서희는 책략에 뛰어났으며 의지가 굳고 용감무쌍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결전과 화의를 결합한 계책은 바로 '知彼知己, 百戰不殆'적인 상태에서 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성종은 李知白이 제기한 '金銀寶器'로 소항덕을 매수해 그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건의와, 동시에 서희의 '一與之戰, 然後議之'를 제남한다. 따라서 이봉전을 遼의 軍營으로 보내 화의를 요청하면서 적의 동향을 살펴보고 하고, 또한 그가 어떤 정보를 가져 올지에 상관없이 시간을 벌며 고려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보려 하였다. 당시 소항덕은 자신의 요구에 고려가 응하지 않자 安戎鎧를 공격하게 되는데, 中郎將 大道秀와 郎將 庾方에게 패하면서 제자 침공을 감행할 수 없게 된다.⁴¹⁾ 요가 고려에 패하자, 소항덕의 거만스런 횡포는 한풀 꺾이게 되었을 것인데, 이를 통해 고려는 화의담판으로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사서에서는 遼軍의 진공이 방해를 받은 상황에서 성종은 和通使로 閭門舍人 張瑩을 보내 화의담판을 시도했다고 한다. 이에 소항덕은 上國의 장군이라는 교만함을 벗어던지고 장영의 관위가 낮다하여 大臣을 다시 보내 화의를 제차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의 운명이 걸린 상황에서 성종은 群臣에게 누가 거란의 군영에 나아가 연변으로 그들을 퇴각시켜 萬世之功을 세우겠냐고 묻고 있는데, 이에 응대한 자들이 없었다.⁴²⁾ 群臣들이 응대하지 못한 것은 쉽게 이해되는

40) 『高麗史』卷94 徐熙傳.

41) 『高麗史』卷94 徐熙傳.

42) 『高麗史』卷94 徐熙傳.

부분이다. 강적이 국경을 넘어 침략하여 나라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적의 군영에 나아가 그들과 화의담판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극도의 생명의 위협과 정치적인 모험을 동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희는 개인의安危를 돌보지 않고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국가이익을 위해 요의 군영에 나아가 자신에게 맡겨진 화의담판이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는 성종에게 깊이 비록 明敏하지 못하나 어찌 명을 받을 수 없겠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는 신성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나아가고자 하였다. 이에 성종은 강 언저리에까지 그를 배웅하며 위로하고 보냈던 것이다.⁴³⁾ 이는 실로 성종이 서희에 대해 깊은 신임을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요의 담판에 거는 기대감이 대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서희는 민첩하고 노련한 사고에 임기응변에 능했던 외교가였다. 그는 국가에 대한 존엄과 국가이익을 지키야 함을 자신에게 부여된 절대적인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高麗史』에는 기록하길, "서희가 國書를 가지고 소손령의 軍營에 이르러 譯者에게 相見禮에 대하여 물은즉, 소손령은 '나는 大朝의 貴人으로 서희가 나에게 군영의 뜰에서 절해야한다'고 하였다. 이에 서희는 '신하가 君主에게 堂下에서 절하는 禮는 있으나, 양국의 대선이 대면하는데 어찌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여 반대하였다. 양측 사이에 상견례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두고 再三 교섭하였으나, 소손령이 서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자, 서희는 怒하여 숙소로 들어가 움직이지 않으니, 소손령은 내심 서희를 기이하게 여겨 堂에 올라 대등하게 상견례하는 절차를 승낙하였다. 이에 서희는 군영의 문 앞에서 말을 내린 후, 들어가 소손령과 뜰에서 마주서서 揖하고 堂에 올라 東·西로 마주 대면하고 앉았다"⁴⁴⁾고 한다. 소향덕이 서희에게 군영의 뜰에서 절해야 한다며 강압적인 방법으로 모욕을 주려 했는데, 서희는 군주의 명을 받고 소향덕과 화의담판을 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이는 두 나라 사이의 대등한 담판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요의 군영에 이르기 전 이미 소향덕의 오만방자한 자태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던 서희는 고려의 담판대표로서 상대방의 이러한 악의적인 배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외교적인 예의를 고집하려 한 것도, 개인의 명예를 따지려고 한 것도 아닌 나라의 존엄과 그 지위와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서희의 말은 당당하고 그 안에 힘이 있었으므로, 소향덕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부당한 요구를 철회한 채 서로 堂에 올라 상견례를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쌍방은 같이 揖하고 堂에 올라 東·西로 마주앉을 수 있었다. 담판이 끝난 후 소향덕은 서희를 위해 연회를 열고자 하였는데, 이에 서희는 "이번 本國에 비록 도리에 어긋난 것이 없다 해도 上國에서 군대를 동원해 왔으므로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상하 구분 없이 모두가 황급히 무기를 들고 나선지 여러 날이 되었는데, 어찌 이를 참고 宴樂할 수 있겠는가?"⁴⁵⁾라며 사양하였다. 서희의 이와 같은 간결한 말 속에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나라를 걱정하고 국왕에 충직하며 백성들의 고통을 어루만지려 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고려의 담판대표로서 서희는 소향덕과 화의담판을 진행할 때,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뛰어난 외교적인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소위 인류역사상 약소국에는 외교가 없다고들 한다. 요의 국력이 고려를 훨씬 능가했고, 고려가 상대적으로 약한 처지에 있었다고 하지만, 서희는 요의 군사동원 목적과 동기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으므로 화의담판에서 문제의 핵심을 장악한 후 어떻게든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소향덕은 서희에게 고려는 原신라 땅에서 일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고구려의 땅은 당연히 요가 차지해야 한다

43) 『高麗史』 卷94 徐熙傳.

44) 『高麗史』 卷94 徐熙傳.

45) 『高麗史』 卷94 徐熙傳.

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고려가 무단히 북진정책을 추진하여 거란과 영토를 침하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바다를 건너 송과 交聘하고 있으니, 오늘날처럼 군사를 동원하게 된 것인데, 만약 땅을 빼어 마치고 조병을 하게 되면 무사할 것이라고 하였다.⁴⁶⁾ 이에 서희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요가 허장성세로 고려를 압박하여 '藩屬'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소항덕의 말 속에서 그는 요가 고려를 침공하게 된 두 가지의 원인을 알게 되는데, 즉 ① 고구려 땅이 요의 소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라 땅에서 일어난 고려가 도리어 원래 고구려에 속했던 땅을 침식했다는 사실이며, ② 고려는遼와 국경을 맞닿은 이후에도 요를 宗主國으로 섬기지 않고 바다 건너 송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환언하면 만약 고려가 영토를 빼어 마치고 조병을 닦아 요를 종주국으로 인정하며, 게다가 송과의 관계를 끊는다면 무사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서희는 요의 침략이 단지 고려의 북진을 막고 원래 고구려에 속했던 땅을 빼앗아 동부 변경지역의 안정을 꾀하려 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소항덕의 의견에 반박하며 "만약 地界를 가지고 논하면, 上國의 東京도 우리의 境내에 있는데, 어찌 侵蝕했다고 할 수 있는가! 게다가 압록강 내의 역시 우리의 境내에 있는데, 지금 여진이 그곳을 監據하여 교활하게 속여 길이 막혀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더 힘들어 조병이 통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여진 때문이다." 이렇게 서희는 요의 동경과 압록강 내외가 모두 고려에 속한 땅이며, 또한 조병을 통할 수 없었던 것은 여진이 그 사이를 監據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는 고려가 요와 조병을 행할 수 없는 책임을 여진의 방해 때문이라고 한 것인데, 더 나아가 이에 근거하여 서희는 소항덕에게 "만약 여진을 내쫓고 그 땅을 고려에게 돌려주고 그곳에 城堡를 쌓아 도로가 통할 수 있게 된다면 조병을 닦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장군이 나의 말을 契丹主에게 전달하면 어찌 받아들여지지 않겠는가!"⁴⁷⁾라고 하였으며, 또한 여진을 소탕하여 옛 땅을 수복한 후, 그곳에 城堡를 쌓고 길을 통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렇다면 '朝覲可通'⁴⁸⁾은 여요 간의 조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임에 틀림없다. 이상과 같은 연결을 통해 서희는 遼가 신속히 고려를 압박하여 그들의 正朔을 만들게 하고, 또한 遼에 '稱臣納貢'하게 하여 전쟁을 끝내고, 이후 중원을 차지하려 한 계획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다. 그리고 요가 영토를 양보할 수 있다면, 즉 압록강 유역의 땅을 고려에게 양보한다면, 고려는 요에 대하여 조병을 닦을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서희는 바로 이 기회를 이용해 쌍방의 시선을 여진에게로 돌려 요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하여 화의담판에서 적절한 이득을 얻으려 했던 것인데, 바로 더 많은 국가이익을 쟁기기 위해 그는 그렇게 한 것이라 하겠다.

소항덕과의 화의담판에서 서희는 戰勢를 정확하게 간파한 후, 입지응변을 통해 피동적인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전환시켜 국가이익을 최대화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 대단한 외교적인 승리라 할 수 있겠다. 고려는 건국 이후 문화적인 동질감과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중원의 後唐·後晉·後漢·後周 그리고 北宋과 자발적인 '朝貢'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 즉 고려는 天授16年(933) 후당의 책봉을 받아 天授란 연호를 버리고 그들의 연호를 사용했으며,⁴⁹⁾ 天福3年(938) 후진의 연호를 사용하였고, 그리고 乾祐元年(948) 다시 후한의 연호를 사용했으며, 廣順元年(951) 후주의 연호를 사용하였고, 乾德元年(963)에는 송의 연호를 사용했

46) 『高麗史』 卷94 徐熙傳.

47) 『高麗史』 卷94 徐熙傳.

48) 『高麗史』 卷94 徐熙傳.

49) 『高麗史』 卷2 太祖世家2.

다고 한다. 서희는 요의 고려침략은 그들이 동부 변경지역의 안정을 꾀하고 이후 중원을 정복할 때 있을지 모를 후방의 안정을 해치는 요소를 제거하려는 필박한 심리를 꿰뚫어 본 상태에서 고려의 국가이익을 지키고, 동시에 위기에 처한 국가를 구하기 위해 遼에 자원하여 모종의 선의를 베풀어 결국 쌍방의 타협을 도출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요는 고려가 압록강 이북 280리에 이르는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동의했으며, 고려는 遼의 正朔을 받들고 '稱臣納貢'하여 송과 왕래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전쟁을 통해 고려를 압박하여 臣服할 수 있게 한 遼는 고려에 대한 宗主權을 확립하였고, 그들의 동부 변경지역을 안정적으로 확보했으며, 또한 여송 간의 관계를 깊어놓아 이후 중원정벌에 나설 때 있을지 모를 후환을 없앨 수 있었다. 한편 고려는 외교담판을 통해 遼의 80만 대군을 무찌르고 압록강 유역 6州의 땅을 얻을 수 있었다. 요가 얻은 것은 고려가 그들에게 宗主國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이는 名義上의 이득이라 할 수 있다. 고려가 비록 요의 무력에 압도되어 契丹의 統和 年號를 사용하게 되고, 侍中 朴良柔를 보내 거란의 정사를 행한다고 알리면서⁵⁰⁾ 송에 대한 조빙은 요로 바뀌게 되었다. 이를 통해 고려는 넓은 땅을 얻게 되었으니, 이는 바로 실질적인 이득이라 할 수 있겠다. 宋人 徐兢은 淳化6年(995) 거란이 고려를 공격하자, 고려 국왕 王治는 두려워하며 나라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여 거란에 '臣事'하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朝貢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⁵¹⁾ 따라서 서희가 화의담판을 끌내고 되돌아오자, 실종은 크게 기뻐하며 강 언저리까지 마중 나갔던 것이다.⁵²⁾ 이렇듯 고려는 10세기 90년대 동북아 국제환경 속에서 중원지역의 한인왕조와 맺은 '조공'관계를 중국북방의 소수민족왕조로 바꾸게 되었다. 이런 '宗藩朝貢'관계의 변화가 비록 고려의 화하문화에 대한 통절감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인 국제환경의 변화에 맞춰 국가의 생존을 도모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쩔 수 없었던 행위였다고 한다면, 실로 관측한 현실적인 상황에 쫓겨 취할 수밖에 없었던 최선의 선택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바로 '文化傳統'이 '現實狀況'에 굴복한 것이며, 동시에 '思想意識'이 '國家利益'과 타협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서희는 바로 이러한 고려외교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로 이상과 같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겠다.

서희는 물론 의지의 외교담판을 통해 '굴욕적인 적(屈人之兵)'들과 싸우지 않고 국가를 위한 실질적인 이익을 획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요가 군사를 돌린 후의 유리한 상황을 심분 활용하여 담판에서 얻은 결과를 곧 실행에 옮기고 있다. 성종13년(994) 春2月 소항덕은 서신을 보내 "만약 사전에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사신이 충도에 방해를 받을 수 있을 것이요, 따라서 당신의 나라와 상의하여 도로의 요충이 되는 곳에 城池를 쌓도록 합시다. 이에 황제의 명에 따라 그곳 실정에 따라 압록강 西里에 다섯 성을 쌓고 3월초에 성을 쌓을 곳에 가서 공사를 시작할 것이요, 정권대 大王도 미리 지시를 하여 안북부에서 압록강 이북 280리 구간에 적당한 지점을 답사하고 거리의 원근을 참작하여 우리와 함께 축성하되 役夫들을 동원하여 동시에 착수하도록 할 것이며, 그 축성할 지점의 수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통보해 주시오. 우리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목적은 당신 나라의 교통이 편리하도록 '貢觀之途'를 열어 영구히 거란의 조정을 받들어 자국의 '安康之計'가 되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요"⁵³⁾라고 하였다. 이상의 言論은 요가 군대를 돌린 후 고려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로 조빙을 담을 수 있도록 하여 '貢觀之途'가 막히지 않게 하는 것이며, 이로써 거란 조정에 대한

50) 『高麗史』卷3 成宗世家3.

51) [宋]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卷2 世次, "[王]治畏懼無守, 臣事北虜, 遂歸朝貢."

52) 『高麗史』卷94 徐熙傳.

'永牽'이 이루어지게 하고 동부 변경지역의 안정을 가져오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겠다. 고려는 한편으로 요의 이러한 급박한 심리를 이용하고, 다른 한편으로 遼聖宗이 여진의 압록강 이동 수 백리 땅을 사어한다는 약속⁵⁴⁾을 믿고 그곳의 여진인들을 驅逐하고 城池를 쌓아 도로를 닦았던 것인데, 이를 통해 그 지역을 보다 확실히 장악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성종13년(994) 서희는 병사를 이끌고 여진을 몰아낸 후, 長興·歸化 2鎮과 郭州·龜州 2州를 쌓았으며, 다음 해 또다시 병사를 이끌고 나아가 安義·興化 2鎮, 그 다음해 宣州·孟州의 2州를 쌓았다고 한다.⁵⁵⁾ 고려는 바로 전쟁이 끝난 후 양국 간에 있었던 느슨한 상황을 이용해 압록강 이동에 6개의 성을 쌓은 것인데, 이를 각각 興州·鐵州·通州·龍州·龜州·郭州라고 부른다.⁵⁶⁾ 이들 城池는 압록강 以西의 來遠城과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데, 고려의 압록강 以東에 대한 통치를 가능하게 했으며, 바로 서희가 고려왕조에 행한 공헌을 응집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徐氏 가문은 토착적인 소양과 깊은 문화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서희와 같은 위대한 애국자를 탄생시킬 수 있었다. 서희는 열렬한 애국심과 報國精神으로 무장했으므로 “千里山河輕儒子, 兩朝冠劍恨誰周”⁵⁷⁾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국왕에 대한 책무에 충실하고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史家 徐居正是 “만약 서희의 책략이 없었다면 기회를 잃어버려 岳嶺 이북의 땅을 어찌 다시 차지할 수 있었겠는가”⁵⁸⁾라고 평하였으며, 그리고 清朝의 사가 厲鶚은 “소손령이 고려를 침략했을 때 큰 기세로 항복하도록 꾀하였는데, 고려의 군신들은 논의하길 어떤 이는 乞降하자고, 그리고 어떤 이는 割地하자고 했다. 오직 서희만이 전력으로 不可함을 내세워 一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기란에 사신으로 나아가 禮로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화의담판을 이룰 수 있었다”⁵⁹⁾고 평하였다. 이들 사가들의 서희에 대한 평가는 실로 역사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상을 개괄하면 서희의 고려왕조에 대한 공헌은 주로 2가지 방면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즉 ① 위대한 포부와 선견지명을 갖춘 전략가로서 서희는 요의 대규모 침략으로 위기에 봉착한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 전세를 정확히 간파한 후, 놀라운 정치적인 지혜를 발휘하여 전란을 이겨낸 고려의 棟梁이 될 수 있었다. 상대방의 군사동원 목적을 정확히 간파하고, 경솔하게 割地할 수 없음을 역설하였으며, 동시에 화의담판을 통해 피동적인 국면을 유리하게 바꿀 수 있었으니, 결국 대제난에 빠져있던 나라를 구해낸 것이다. ② 침착하고 叡智로운 실용적인 외교가로서 서희는 고려를 대표해 요와 화의담판을 진행할 때, 상대방에 압도되지

53) 『高麗史』卷3 成宗世家3.

54) 『遼史』卷134 聖宗紀.

55) 『高麗史』卷94 徐熙傳.

56) 『宋史』487 高麗傳.

57) 『高麗史』卷94 徐熙傳. 이는 唐代의 시인 羅隱(833~909)이 지은 『籌筆驛』에 나오는 詩로, 諸葛亮은 죽고 이후 曹魏가 蜀漢을 공격해 오자, 譙周는 後主 劉禪에게 무항할 것을 권했는데, 유선은 그의 말을 듣고 촉한의 강역을 들어 마치고 말했다. 즉 촉한의 千里山河를 諸子 劉禪이 가볍게 적에게 넘겨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이에 劉備와 劉禪 兩朝의 문무백관들이 분명 모두 조주를 원망했을 것이다. 前民官諫事 李知白은 바로 유선이 촉한을 가볍게 조위에 넘긴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그럴 수 없음을 이 시를 가지고 역설한 것이라 할 수 있다.(실명은 익자)

58) 徐居正, 『東國通鑑』卷14 成宗十二年條, “若無徐熙之策, 一失機會, 則岳嶺以北, 能復保乎?”

59) 厲鶚, 『遼史拾遺』卷7 四庫全書本, “方遼寧之入寇也, 大振聲勢, 恐喝脅降, 羣臣獻議, 或乞降, 或割地, 徐熙獨力陳不可, 欲與一戰 …… 及使契丹, 抗體不屈, 終講和親, 其事使得體.”

않고 입기응변을 통해 정확히 응대할 수 있었다. 국가의 실질적인 이익을 답판의 최우선적인 목표에 두었기 때문에, 그는 국가이익을 위해 민첩하고 융통성이 있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결국 탁월한 외교적인 재능을 발휘한 후 중대한 외교적인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필자는 고려왕조의 전략가이며 외교가인 서희에게서 전략가로서의 '大智大勇'과 '遠見卓識', 그리고 외교가로서의 '深沈務實'과 '臨機應變' 등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멸사봉공의 고상한 품격과 말은바 직분에 충실한 책임의식, 나아가 一心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숭고한 정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며, 또한 '廉潔奉公'하고 '誠實正直'한 인간적인 매력도 발산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서희는 '忠誠勇敢'·'品德高尚'·'正氣凜然' 그리고 '業績輝煌'했기 때문에 위대한 정치가로서의 책임감과 역사적인 사명감으로 자신의 일생을 나라를 위해 헌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그는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成宗의 廟庭에 配享되는 영광을 얻게 된다.⁶⁰⁾ 이는 역시 穆宗이 서희의 생전에 이룩한 업적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追崇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III

고려와 고구려의 상관관계, 즉 정확히 말해 王氏高麗가 고구려를 계승했느냐와 관련된 문제는 고려건국 초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문제는 당시 동북아 각계 왕조의 정치적인 이익, 그리고 상호 역사적인 인식과 관계되어 있다. 궁예의 후고구려와 왕건의 고려는 모두 고구려의 계승자를 자임했다. 왕씨고려는 북진정책을 추진하여 강역을 대동강 이북에서 압록강 이남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요는 건국 이래 발해를 멸한 후 일찍이 그 지배하에 있던 原高麗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고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고려가 原高麗 땅을 차지했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遼麗 양국 간에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느냐를 두고 격렬한 논쟁과 첨예한 대립국면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와 반대로 10세기 60년대에 건국된 北宋은 문헌사료상의 한계로 인해 고려와 고구려의 관계에 대하여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없었지만, 자신들의 필요한 이익에 따라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자임을 인정하고 있다. 필자는 宋·遼·高麗 사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은 바로 각계 왕조 사이에 심각한 정치적인 이익의 충돌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고려와 고구려의 관계를 살펴봄으로, 서희의 역사적인 공헌을 확인하는데 보다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고려의 역사적인 지위를 정확히 이해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고려의 통치자들은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標榜한 자들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신라의 쇠락으로부터 후고구려의 건국에 이르는 시기, 즉 왕씨고려의 흥기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궁예는 9세기 말 신라의 쇠퇴를 이용해 고구려의 부흥을 기치로 후고구려(泰封國)를 건국하였으며, 이후 왕건은 지방호족들의 지지를 얻어 무력을 동원해 궁예의 후고구려 국통을 빼앗고 고려왕조를 건국한다. 이상의 왕조 흥망성쇠를 통해 궁예의 후고구려에서 왕건의 고려에 이르기까지 이들 두 왕조는 고구려에 대한 계승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동시에 고대 고구려왕조의 흥망성쇠·계승여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바로 그 안에 정치적인 이익과 사회적인 思潮가 함께 혼재되어 있음을 뜻한다. 혹자는 왕건이 고려를 건국했을 즈음 전력으로 고구려의 계승자임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신라와 고구려 사이에 있었던 원한을 최대한 이용하고, 동시에 옛 고구려의 威望을 빌려 原신라 땅에 근거하고 있

60) 『高麗史』卷94 徐熙傳.

는 현실에 만족하고 않고 의도적으로 역사의 최고점에 올라서기 위하여 고구려의 舊地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하였다.⁶¹⁾ 5세기 초반 고구려는 평양에 수도를 두었기 때문에, 왕건은 적지 않은 백성들을 대동강 이북으로 이주시켜 평양을 고려왕조의 서경으로 건설하여, 이를 고구려에 대한 계승임을 보여주려 하였다. 새 왕조를 창립한 개국군주가 이러한 고구려 계승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일반 백성들과 호족들이 강성한 왕조에 대한 그리움을 갖도록 하고, 더 나아가 발해의 잔여세력을 회유하려는 의도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⁶²⁾ 필자는 왕건이 왕위에 오르기 전 소위 '先操雞後搏鵬'이란 참언⁶³⁾이 근본적으로 고구려를 부흥시키려는 사고를 반영한 것이며, 또한 고려사회 내부에 고구려 舊地에 대한 회복이란 정치적인 희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왕건이 고구려의 계승자임을 강조한 것은 여러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우선 자신의 통치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을 것인데, 그의 정권은 무력으로 후고구려의 국통을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고구려의 계승자임을 강조하여 그 유구한 淵源을 표방하고자 하였으며, 그리고 고구려 구지를 차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줌으로서 요의 동남 변경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역사적인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서희는 소항덕과의 답판에서 "우리나라(고려)는 고구려의 구지이므로 국호를 고려라 하고 평양에 도읍을 둔 것이라고 하였다."⁶⁴⁾ 서희는 고구려와 고려란 수백 년 간의 시간적인 차이를 갖고 있는 이들을 함께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다분히 고의적으로 다른 개념의 것을 마치 같은 것인양 사용한 것에 불과하며, 바로 당시 고려 통치자들의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국호를 고려라 했으며, 평양에 도읍을 정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계승의식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서희는 遼로부터 압록강 이북의 땅을 얻어낼 수도 그렇게 할 수도 없었음에도 요의 東京을 포함한 原고구려 땅을 고려 경내에 있는 '舊地'처럼 역설하고 있는데, 바로 매우 중명한 답판책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듯 그 목적은 화의답판에서 遼와 타협하며 흥정을 벌여('討價還價') 고려가 더 많은 실질적인 이득을 챙기게 하기 위함이었다.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던 요의 통치자들은 原고구려 땅이 발해에 의해 통치되었고, 요가 발해를 멸망시키고 그 땅을 통치하게 되었으니, 바로 자신들이 원고구려 땅의 계승자라고 여기고 있었다. 사실 唐과 新羅는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고구려의 大同江과 龍興江 이남지역은 신라의 차지가 되었고, 그 외의 지역은 唐의 州郡이 되었다가, 후에 발해의 영토가 되었다. 발해를 멸망시킨 遼는 북진정책을 통해 자신들과 국경을 접하게 된 고려가 발해유민을 받아들이고 우대하면서 원래 고구려에 속했던 땅, 즉 요가 이미 차지한 땅을 침식하자 고려와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기에 이른다. 소항덕이 군사를 동원해 고려를 침략했을 때, 명확하게 遼가 이미 고구려 舊地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고려가 疆界를 침식하였으니, 이에 대적하기 위해 군사를 동원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고려는 신라 땅에서 흥기하였고, 고구려의 땅은 遼의 소유가 되었으니 고려가 침식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하였다.⁶⁵⁾ 이러한 발언은 요가 군사를 동원하여 고려를 침략한 이유는 바로 고려의 부단한 북진정책으로 인하여 강역을 대동강 이북, 즉 압록강 남안으로까지 확대하여 요의

61) 史長樂, 2006-6, 「王建為何定國號爲高麗」, 『東北史地』.

62) 馬大正 等, 2003, 「再論高句麗歷史研究中的相關問題」, 『古代中國高句麗歷史概論(代前言)』, 中國社會科學出版社.

63) 『高麗史』 卷1 太祖世家1.

64) 『高麗史』 卷94 徐熙傳.

변경지역의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해왔고 요의 이익을 훼손했기 때문이며, 동시에 당시 요의 통치자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즉 原고구려 땅은 후에 대부분 발해의 통치하에 들어갔으며, 발해는 이미 요의 일부분이 되었으므로 고구려의 땅은 마땅히 요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고려는 신라 땅에서 흥기하였으니 신라의 계승자가 되는 것으로 마땅히 차지해야 할 땅은 원래 신라에 속했던 땅이며, 따라서 이미 요의 소유가 된 고구려 舊地를 고려가 '侵蝕'했으므로, 요는 고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요의 통치자가 고려가 신라 땅에서 흥기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비록 그 안에 고려가 고구려 땅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반대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내포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는 대체로 역사적인 사실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환연하면 이상의 사료는 요의 통치자가 고구려 땅의 계승자임을 자임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원래 고구려에 속했던 땅에 대한 합리적인 계승성을 주장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요가 고려의 통치자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의식을 부정 혹은 반대하는 것이며, 원고구려 땅을 차지하고 있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필요성과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遼史』에 의하면 遼의 통치자는 '鴨綠江女直大王府'란 행정기구⁶⁶⁾를 두어 압록강 유역의 여진인들을 관리했다고 한다.

한편 宋人들은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자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송대에 편찬된 歷史典籍 중에서 이러한 인식은 시종일관 관철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인식이 형성된 원인은 매우 복잡한데, 고려의 통치자가 표방했던 사실과도 관계되어 있으며, 또한 南北朝 이래 고구려를 고려라 약칭했던 사실, 그리고 사료가 부족하여 심도 있게 연구를 진행하지 못한 사실과도 관계된다. 우리는 이를 주·객관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인 필요와 인식의 착오라는 점을 통해 분석하기도 한다.

주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역사적인 인식에는 宋人이 遼를 멸시하는 심적 상태, 그리고 고려와 함께 요에 대적하려는 정치적인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宋遼의 대립국면은 요의 전략적인 중심을 중원에 두게 하여 상대적으로 동부 변경지역에 대한 주의력을 분산시키게 하였는데, 이에 고려는 이를 역이용해 북진하게 된다. 또한 고려는 문화적으로 오래전부터 '唐風'을 양모하고,⁶⁷⁾ '華夏之制'를 따르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라 한 것처럼,⁶⁸⁾ 게다가 요와 原고구려 땅을 두고 다투야 할 현실적인 필요도 있었기 때문에, 건국 이후 중원의 각 왕조 혹은 송과 자원하여 交聘관계를 수립하게 된다. 당시 宋遼 양국은 燕雲 16州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는데, 설사 澶淵의盟이 성립된 후 양국이 평화의 시기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하지만, 宋은 그 실지를 회복할 힘이 없었으므로 요에 대한 멸시와 적대적인 시선만큼은 여전했을 것이며 요를 계속해서 '心腹之患'으로 생각하였다. 발해멸망 이후 원고구려 땅의 대부분을 요가 차지하게 되었고, 송은 石敬瑭이 요에 매어준 연운 16주를 수복할 수 없게 되면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는 자신들이 原고구려 땅을 계승할 수 없게 했으며, 또한 자신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악몽과도 같았다. 고려왕조의 '慕華思想', 송요 간의 첨예한 대립, 宋遼의 문화적인 교류, 그리고 함께 요에 대적해야만 하는 정치적인 필요가 바로 송으로 하여금 遼의 고구려 舊地에 대한 계승권

65) 『高麗史』卷94 徐熙傳.

66) 『遼史』卷46二 百官志.

67) 『高麗史節要』卷1 太祖英祖二十六年條.

68) 『高麗史節要』卷2 成宗壬午元年條.

을 인정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송이 대립관계에 있던 요에 대하여 고구려 계승권을 인정하여 그들의 국력을 강화시켜준다면, 반대로 송 자신에게는 어떠한 이득도 없게 될 것이다.遼麗 간의 원고구려 땅을 둘러싼 쟁탈전에서 송이 요의 입장을 지지할 수 없다면, 자연히 고려를 지지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왕조라는 사실에 관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송이 고려를 지지함으로써 쌍방의 관계는 더욱 긴밀하게 되었을 것이고, 더욱이 고려의 이해와 지지도 얻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요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그 영향력을 약화시키는데 유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상과 같은 역사적 인식은 南北朝 이래 이어져 온 전통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여기에 문헌사료의 부족이란 요소가 첨가되면서 고려가 스스로 고구려의 계승자임을 표방하게 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 혹자는 남북조 이후 '高麗'는 '高句麗'의 약칭으로 쓰여져 왔는데, 이로써 '高麗'와 '高句麗'가 사서에서 뒤섞여 출현하게 되고 말았다고 하였다.⁶⁹⁾ 예를 들면, 『宋書』에서는 少帝 景平元年 3월 高麗國이 사신을 보내 조공했다고 하며, 景平二年 春2月 高麗國에서 사신을 보내 공헌했다고 한다.⁷⁰⁾ 그리고 『魏書』에서는 太延二年 5月 馮文通이 高麗로 도망했다고 하고, 世祖는 散騎常侍 封巒을 高麗에 보내 풍문 풍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太延3年 春正月 高麗는 사신을 보내 朝獻했다고 한다.⁷¹⁾ 우리는 『魏書』, 『北齊書』, 『周書』, 『隋書』, 『宋書』, 『南齊書』 등의 정사에서 고려가 사신을 중원 왕조에 보냈다는 다량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남북조시기 고려왕조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상의 사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고려'는 '고구려'의 약칭으로, 이로 인해 형성된 전통적인 습관으로 인하여 고구려와 고려를 서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사용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으며, 이후 고려의 역사형성을 연구하는데도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이렇듯 宋人의 한반도 역사에 대한 인식은 남북조 이래 고구려를 고려라고 불렀던 영향을 받았으며, 또한 길이 막히고 사료가 부족하여 고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는데 주로 풍문에 근거하여 깊이 있는 고찰을 할 수 없게 되었다. 『舊唐書』에 高麗는 扶餘의 別種으로, 그 國都는 平壤城으로 漢 樂浪郡의 옛 땅이라고 하였다.⁷²⁾ 『舊唐書』는 後晉 때 劉昫가 開運2年(945)에 완성한 것으로, 이때는 고려가 건국된 지 이미 27년이 지난 때로 宋朝는 아직 건국되지 않았으나, 이 기록은 宋人이 고려와 고구려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舊五代史』, 『新唐書』, 『新五代史』 등의 정사에서도 고구려와 고려를 구분하지 않고 기재하고 있다. 즉 『舊五代史』에서 高麗는 扶餘의 別種으로 그 國都는 평양성이며, 漢 낙랑군의 옛 땅이라고 하였고, 前王의 姓은 高氏라고 하였다.⁷³⁾ 『新唐書』에는 고려는 본래 扶餘의 별종이며, 그 君主가 평양성에 근거했는데, 이를 長安城이라고도 부르고, 漢의 낙랑군이라고 하였다.⁷⁴⁾ 그리고 『新五代史』에서 고려는 唐末에 그 王의 姓은 高氏이며, 또 왕건은 高麗의 大族이라고 했던 것이다.⁷⁵⁾ 이러한 기록들은 오대와 북송시대의 사람들이 唐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王建이 고려를 건국하기까지 한반도의 250여년의 역사

69) 馬大正·楊保隆 等, 2001, 『古代中國高句麗歷史叢論』, 黑龍江教育出版社.

70) 『宋書』卷4 少帝紀.

71) 『魏書』卷4上 世祖紀.

72) 『舊唐書』卷199上 東夷列傳.

73) 『舊五代史』卷138二 外國列傳.

74) 『新唐書』卷220 東夷列傳.

75) 『新五代史』卷74三 四夷附錄.

적인 사건 혹은 정권의 흥망성쇠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던 상태에서 단지 풍문 혹은 와전된 이야기에 근거하여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宋史』에는 “高麗, 本曰高句麗”라 하여 고려와 고구리를 동일시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權知國事 王建有 高氏의 지위를 계승했다고 강조하게 되었고, 더욱이 宋太祖의 詔書에 적힌 내용을 인용하여 고려는 朱蒙의 舊俗을 이었다고 하면서⁷⁶⁾ 고려가 고구리를 계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宋史』는 비록 元人에 의해 완성되었지만, 그 내용은 바로 宋人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사서들은 주로 宋代 歷朝 『國史·高麗傳』, 『新舊五代史·高麗傳』 그리고 『五代會要』, 『宣和奉使高麗圖經』 등 宋人의 문헌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들 사료의 적지 않은 訛誤를 계승했다고 할 수 있다.⁷⁷⁾ 이처럼 宋人이 고려와 고구리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므로 후세의 사서에서는 고려와 고구리를 함께 부르게 되었고, 고려가 고구리의 계승자라고 인정하게 되었다. 『遼史』·『金史』·『元史』·『明史』 등에 모두 高麗傳 혹은 朝鮮傳을 두어 고구리와 고려를 같은 傳에 기록하고 고구리의 역사를 맨 앞에 약술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런 상황 하에서 고려가 고구리의 계승자라는 인식은 시간을 지나면서 통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고 하겠다.

앞에서 상술했듯 宋·遼·高麗 삼국이 정립한 시대에 이들 왕조들은 서로의 이익에 얽매어 있었으며, 또한 각종 모순과 충돌로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고려와 고구리의 관계에 대한 문제, 혹은 고려가 고구리를 계승한 왕조인지의 여부 문제는 바로 단순한 역사적인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宋·遼·高麗 세 왕조의 국가이익과 관련된 정치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고려는 스스로 고구리의 계승자임을 표방하였으나, 요는 이를 부정하고 반대하였으며, 송은 고려의 입장을 인정하고 지지하였는데, 모두 각기 왕조가 처해있던 서로 다른 정치적인 입장, 그리고 각국의 서로 다른 정치적인 이익을 대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고려가 고구리를 계승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북진정책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이 내포되어 있으며, 한편 遼가 고려의 이런 인식을 부정한 것은 또한 그들 나름의 국가적인 이익을 지켜야만 했기 때문이며, 그런데 宋人은 고려의 이런 인식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또한 요의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정치적인 필요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서희와 소함덕의 화의담판 이후, 고려는 遼의 무력적인 위협에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宋에 대한 朝聘에서 그 대상을 遼로 바꾸게 되었는데, 이는 다만 강력한 위협에 눌려 宗藩관계를 바꾼 것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고구리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고려가 고구리의 계승자라는 기치를 들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 했던 정책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며, 다만 현실적인 상황에서 요와 잠시 타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고구리를 계승했다는 인식을 잠시 보유해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송은 여요 간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요소라 할 수 있는데, 이후 遼宋 간에 전연의 맹이 성립된 후에도 여전히 고려가 고구리를 계승했다는 인식에 변화가 없었으며, 고려 역시 華夏文明에 대한 憧憬에 변화가 없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서희가 고려 왕조에 기록될 만한赫赫한 공적을 남겼으며, 더욱이 그가 화의담판에서 ‘高句麗之舊’를 통해 스스로 고구리의 계승자임을 표방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려했다고 하더라도, 新羅人인 王建이 10세기 세운 고려와 扶餘人인 朱蒙이 기원전 1세기에 건국하여 7세기 唐에게 의해 멸망한 高句麗를 아무 구분 없이 같이 연결시켜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宋人이 고려를 고구리의 계승자라고 인정했으므로 그런 관점에 완성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 생각

76) 『宋史』 卷487 高麗傳.

77) 顧宏義, 2007-4, 「『宋史·高麗傳』史源考」, 『中國邊疆史地研究』.

하므로, 따라서 양자를 구체적인 역사적인 시간과 공간에 두고 고찰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 바이다. 중국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고구려와 고려 사이에는 전후 계승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다. 血緣·疆域 내지 正統意識이란 측면에서 보아도 고려는 고대 고구려왕조와 직접적인 계승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⁷⁸⁾ 필자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면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첫째, 왕조교체가 연속해서 일어났었는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두 왕조가 계승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고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고구려와 고려, 이들 두 왕조 사이에는 수백 년이라는 시간이 가로 놓여있다. 部族의 명칭으로 고구려는 漢初에 이미 존재했었는데, 西漢中期 漢武帝가 朝鮮을 멸망시킨 후 고구려를 縣名으로 하여, 처음으로 西漢의 玄菟郡에 예속시켰다. 『漢書』에는 현토군 밑으로 3개의 縣이 있는데, 그 으뜸이 '高句麗縣'이라고 한다.⁷⁹⁾ 高句麗族의 수령은 中央朝廷에서 임명한 관직 및 현토군으로부터 지방관으로서 가지야 하는 官員의 품급에 맞는 官服을 수여받았는데, 즉 『三國志』에 이르기를, 高句麗令은 그 名籍을 주관하고, 현토군으로부터 朝服과 表幘을 수여 받았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⁸⁰⁾ 『後漢書』에 이르기를, 漢武帝는 朝鮮을 멸하고 고구려를 현으로 삼고 현토군에 예속시켰다고 한다.⁸¹⁾ 한편 漢元帝 建昭2年(B.C.37) 고구려족은 朱蒙의 통솔 하에 고구려국을 건국하여 紇升骨에 國都를 정하였는데, 이로써 고구려는 고대 동북아 지역에서 첫 번째로 성숙한 국가가 될 수 있었다. 고구려 건국 이후 비록 중원왕조에 대해 귀항과 배반을 수시로 일삼았으나, 그 관계를 완전히 단절했던 것은 아니었다. 隋唐왕조의 고구려에 대한 전쟁은 중앙정부가 독립을 시도한 지방정권에 대한 토벌이라 할 수 있다. 고구려는 427년 평양에 수도를 두었으며, 668년 唐朝에 멸망당하고 말았다. 唐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250여년이 지난 후 왕건은 918년에 고려를 건국한다. 고려는 935년 신라를 멸하고, 다음 해 후백제를 멸한 후 한반도의 중남부 지역을 통일하는데, 이후 1392년 朝鮮왕조에 의해 교체되기까지 존속하였다. 이렇듯 고구려의 멸망으로부터 王氏高麗의 건국에 이르기까지 4세기가 넘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데, 이는 후자가 전자를 대체한 그런 관계로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전후 계승관계가 있는 두 왕조는 시간적으로 연속성을 갖게 되는데, 즉 전대 왕조가 멸망한 후 후대 왕조가 이를 이어 일어나는 것이 그것으로, 高句麗와 王氏高麗란 두 왕조 사이에는 전자의 멸망과 후자의 흥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떠한 연속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후자는 전자의 멸망 후 이를 대신해 흥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구려와 고려는 전후 계승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둘째, 통치강역이 중복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두 왕조가 전후 계승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량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고구려와 고려, 이들 두 왕조의 대부분 통치강역은 일치하지 않는다. 고구려는 압록강 지류인 渾江유역과 그 주변지역에서 건국되어 후에 압록강 이동·이남과 圖門江 부근으로 발전하였다. 고구려의 통치중심은 처음에 압록강 중류인 지금의 遼寧省 桓仁和 吉林省 集安 일대였지만, 427년 평양으로 천도하게 된다. 그 전성기 때의 강역은 동으로 東海에 이르고 서로는 遼東반도를 포함하며, 북으로 백두산에 이르며, 그리고 남으로 한반도의 대동강 유역을 넘어 龍興江 유역과 漢江의 北岸에까지 다

78) 이 문제는 馬大正 等, 2003, 앞의 책 참고.

79) 『漢書』卷28下 地理志.

80) 『三國志』卷30 魏書 高句麗傳, "高句麗令主其名籍……常從玄菟郡受朝服衣幘."

81) 『後漢書』卷85 東夷列傳, "武帝滅朝鮮, 以高句麗爲縣, 使屬玄菟."

다왔다.⁸²⁾ 말해국은 당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粟末靺鞨이 주체가 되어 건국된 唐王朝에 속한 '地方封建政權'으로, 비록 그 통치세력 중에 고구려의 후예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결코 고구려의 계승국이라고 할 수 없다.⁸³⁾ 요가 말해를 멸망시킨 후 원래 고구려에 속했던 대부분의 땅을 점유하게 된다. 반면 고려는 原신라 경내에서 건국되어 原신라 땅을 계승하고, 비록 훗날 점차 그 영토를 대동강 이북에서 압록강 南岸으로까지 확장하였으나, 그 통치지역의 극히 일부만이 原고구려의 관할지역과 중복되고 있는 것인데, 다만 그 지역 역시 요가 말해를 멸망시킨 전후의 시기에 기회를 틈타 탈취한 원래 고구려에 속했던 舊地라 할 수 있다. 고구려의 통치범위는 주로 平壤 이북, 즉 한반도의 북부와 압록강 이북·이남, 그리고 도문강 부근이며, 반면 고려는 비록 그 강역을 한반도의 북부지역으로 북전하였지만, 原고구려 땅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주로 한반도의 중남부 지역만을 통치하고 있었다. 계승관계가 있는 두 왕조는 일반적으로 공간적인 범위에서 대체로 중복되는 것인데, 고구려와 고려, 이들 두 왕조의 통치범위는 대부분 중복되고 있지 않고 두 왕조의 국토강역의 주체 역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연히 전후 계승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셋째, 主體民族이 일치하느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또한 두 왕조가 서로 계승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고구려와 고려의 경내에 있었던 주요 민족은 서로 같지 않다. 혹자는 고구려 경내의 민족은 高句麗族이 주체가 되어 고구려족으로 점차 발전한 것이라고 하였으며,⁸⁴⁾ 또 다른 혹자는 고구려족은 중원에서 온 靺鞨의 遺民, 戰國시대부터 秦末의 華夏族 遺民, 그리고 蒙古초원에서 온 貉系의 민족, 東胡族系의 扶餘人이 오랜 시간 왕래를 통해 융합된 민족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 민족의 기원은 대체적으로 5가지의 支流를 포함하고 있는데, 화하족계·동이족계·맥계·숙신족계 그리고 동호족계가 그것이다. 지역적으로 보면 동이족계와 숙신족계는 고구려족이 후에 흥기한 지역의 토착민족이라고 할 수 있고, 화하족계와 맥계, 그리고 동호족계는 각각 중원과 몽고초원지역에서 이주한 移民들이라고 할 수 있다.⁸⁵⁾ 그리고 중국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고구려가 멸망한 후 고구려족이 중원의 각지로 천사된 숫자는 대략 총 인구의 1/4 혹은 1/3에 이르며, 신라로 도망한 자들은 약 10만 정도라고 하는데, 이는 중원으로 천사한 자들의 반 혹은 1/3에 미치지 않는 숫자이며, 靺鞨(渤海)로 들어간 자들은 대략 10만 이상을 이루고, 突厥로 흘러 들어간 자들은 1만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구려인들이 각 민족으로 융합되어 하나의 민족적인 '整體'로 다시는 존재할 수 없었다고 한다.⁸⁶⁾ 한편 王氏高麗는 弓裔의 泰封정권을 계승한 것인데, 태봉정권은 고구려 유민에 의해 고구려의 부흥을 목표로 건국된 것이 아니고, 신라왕조의 母體에서 분화된 것이다. 궁에는 신라왕실의 庶子로 그 경내 주민의 대부분

82) 楊軍, 2006, 「高句麗民族與國家的形成和演變」, 中國社會科學出版社, 3쪽.

83) 盧偉, 2008-5, 「高句麗·'小高句麗國'和'高麗國王'考辨」, 『牡丹江師範學院學報』.

84) 楊保隆은 처음으로 高句麗란 칭호를 사용한 자들은 高夷人이며, 高句麗族을 구성하는 주체는 扶餘人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그는 고구려족을 발전과정 속에서 沃沮·小水貊·濊 등을 계속해서 겸병하여 하나의 '族'으로 융합되었다. 한편 고구려족은 漢武帝 때 하나의 縣내에 존재했던 부족집단이었는데, 西漢末 朱蒙이 高句麗를 건국한 후 큰 발전을 이루어 三國시대(중국의 魏蜀吳 三國시대, 역자)에 戶口數 3만을 넘어섰고, 南北朝시기에는 民戶가 曹魏(필자는 前魏라 하였는데, 이는 曹魏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역자) 때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나 중국 동북지역의 큰 민족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楊保隆, 1998-4, 「高句麗族族源與高句麗人流向」, 『民族研究』)

85) 楊軍, 2006, 앞의 책, 147쪽.

86) 楊保隆, 1999-1, 「論高句麗與王氏高麗無前後相承關係」, 『社會科學戰線』.

은 新羅人과 百濟人이었다. 신라인은 한반도 남부지역에 있었던 辰韓人과 弁韓人의 후예이며, 백제인은 바로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馬韓人의 후예라고 할 수 있다. 『後漢書』에는 韓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마한이고, 둘은 진한이며, 셋은 弁辰이라고 하였다. 마한은 西에, 진한은 東에, 그리고 변진은 진한의 남쪽에 위치했으며, 삼한 중 마한이 가장 컸는데, 모두 옛 辰國이라고 하였다. 朝鮮王 準이 衛滿에게 패한 후 그 나머지 무리 수 원인을 이끌고 바다로 도주하였는데, 마한을 공격하여 차지하고 이후 자립하여 韓王이라 하였다. 準의 후예가 끊어진 후, 馬韓人이 다시 자립하여 辰王을 세웠다고 한다.⁸⁷⁾ 고려경내의 주체 민족은 '三韓'이 융합되어 이루어진 高麗族이다. 태조 왕건 15년에 스스로 삼한을 평정하였다고 했으며, 16년에는 또 삼한의 영토를 다스렸다고 하였는데, 즉 '三韓之樂土'를 통치하게 되었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⁸⁸⁾ 왕건은 만년에 『訓要十條』에서 '三韓山川險佑'에 의존하여 삼한을 통일하고 '大寶'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하였다.⁸⁹⁾ 이렇듯 마한·진한·변한을 통일하였으며, 고려 왕족의 후예들은 대부분 '三韓'을 용유한 것이라고 자처하고 있다. 사서에서는 왕건이 신라·태봉의 제도를 參用하여 관직을 두었으며, 庶務를 관장케 하였다고 하며,⁹⁰⁾ 三韓은 '一家'라고 했던 기록도 보인다.⁹¹⁾ 따라서 전후 계승관계를 가지는 두 왕조는 일반적으로 그 경내의 주체민족이 대체로 일치하는데, 고구려와 고려, 이들 두 왕조의 주체민족은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전후 계승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넷째, 君主王族의 일치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두 왕조의 계승관계를 따질 수 있는 또 다른 시각이 될 수 있다. 고구려의 개국군주는 扶餘人 朱蒙이며, 그 왕족은 高氏를 姓으로 했으므로 이를 '高氏高麗'라 일컫기도 한다. 『舊唐書』에 고구려가 멸망한 후 高氏의 君長은 멸절되었다고 적고 있다.⁹²⁾ 혹자는 주몽이 건국한 고구려국은 唐代에 이르러 멸망하였는데, 그 국왕은 모두 주몽의 후예들이었으며, 그 왕위를 '父死子繼' 혹은 '兄終弟及'을 통해 이어왔다고 하였다.⁹³⁾ 한편 고려의 건국자는 新羅人 王建으로 그 왕족은 바로 王氏이며, 그의 후예들이 왕위를 계승했으므로, 이를 '王氏高麗'라 칭하기도 한다. 宋人은 고구려와 고려의 군주 왕족의 성이 다르다는 사실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게다가 고려태조 왕건의 家世 淵源에 대해서도 사료의 부족으로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歐陽修는 왕건이 高麗의 大族이라고 했지만,⁹⁴⁾ 그 가세의 연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록도 남기고 있지 않다. 曾鞏도 "옛 역사를 고찰함에 있어 고구려는 주몽이 紇升骨城에 근거하고 高句驪라 일컬었는데, 高氏를 姓으로 하여 漢으로부터 唐에 이르렀고, 특히 唐高宗시기 그 국왕 高藏이 나라를 잃고 중국 내지로 천사되었다. 聖曆 때 고장의 子 德武가 安東都督이 되어 후에 스스로 나라를 일으켰다. 元和 말에 樂工을 선사한 적이 있으나, 그 후로 그들은 중국사서에서 보이지 않는다. 五代 同光·天成 때 高麗主 高氏가 다시 來貢하였는데, 그 이름을 잃어 버려 기록하지 못했다. 長興3年 權知國事 王建이 사신을 보내 奉貢하였는데, 왕

87)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88) 『高麗史』 卷2 太祖世家.

89) 『高麗史』 卷2 太祖世家.

90) 『高麗史』 卷76 百官志1.

91) 『高麗史』 卷首 進高麗史疏.

92) 『舊唐書』 卷199上 高麗傳.

93) 楊保隆, 1998-4, 앞의 글.

94) 『新五代史』 卷74三 四夷附錄.

건을 王으로 삼았다. 建의 子 武, 武의 子 昭, 昭의 子 仙, 仙의 弟 治, 治의 弟 誦, 誦의 弟 詢이 차례로 왕위를 이었다. 대략 주몽에서 고창에까지 하나의 姓으로 900년과 21대의 군주에까지 이어져 내려오다 나라를 잃었다. 그 후 다시 나라를 세웠으나, 그 이름과 '世次興廢'의 本末, 그리고 대략 왕건에 의해 시작된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고찰할 수 없다"⁹⁵⁾고 하였다. 이렇듯 북송중기의 사관인 증공은 고구려의 멸망에서 고려의 건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태조 왕건의 가족 연원 등에 대하여 모두 고찰할 수 없다고 고백한 것이다. 이밖에 고려의 사료에서도 그 군주왕족의 연원에 대하여 그 어떠한 기록도 남기고 있지 않은데, 『高麗史』에서 "高麗之先, 史闕未詳"⁹⁶⁾이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다만 왕건은 松嶽郡人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그 家世 淵源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록도 남기고 있지 않다.⁹⁷⁾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즉 만약 高麗王族이 高句麗王族과 일정한 淵源關係를 가지고 있었다면, 왕건은 반드시 이를 더욱 과장하여 그것으로 자신의 정통성을 표방하였을 것인데, 그러나 한 마디 말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반대로 이들 두 왕조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고구려와 고려, 이들 두 왕조의 君主王族의 연원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전후 계승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상에서 우리는 송·요·고려가 정립했던 시대에 고려와 고구려 두 왕조의 상관관계, 혹은 왕씨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왕조인지의 여부는 직접적으로 이들 세 왕조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깊이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고려는 고구려의 계승국임을 표방하며 북진정책을 통해 고구려의 舊地를 차지하려는 정치적인 의도를 드러냈으며, 요는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그들 나름의 이득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宋人은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국임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요의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정치적인 필요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일찍이 한반도에서 존속했던 고구려와 王氏高麗란 이들 두 왕조가 수백여 년에 걸친 시간적인 간격을 갖고 있었으며, 통치의 공간적인 범위도 대부분 일치하지 않았고, 境內의 주체민족 또한 서로 달랐고, 그리고 君主王族 역시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 두 왕조는 전후 계승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이들 두 왕조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논하여 마치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것처럼 보는 건해는 역사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에 틀림없다고 할 것이다.⁹⁸⁾ 이와 관련하여 楊保隆의 건해는 대단히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데, 즉 그는 왕씨고려이건, 송과 거란이건 이들 왕조들은 모두 왕씨고려를 高句麗'之舊'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三韓'으

95) 李鼎, 『續資治通鑑長編』 卷323 元豐五年二月條, "竊考高麗, 高句麗自朱蒙得乾升骨城居焉, 號曰高句麗, 因以高爲氏. 歷漢至唐高宗時, 其王高藏失國內徙, 聖曆中, 藏子德武, 安東都督, 其後稱自爲國. 元之末, 嘗獻樂工, 自此不復見於中國. 五代同光·天成之際, 高麗主高氏復來貢, 而失其名. 長興三年, 乃稱權知國事王建, 遣使率貢, 因以建爲王. 建子武, 武子昭, 昭子仙, 仙弟治, 治弟誦, 誦弟詢, 相繼而立. 蓋自朱蒙至藏, 可考者一姓九百年, 傳二十一人而失國. 其後復自爲國, 而名及世次興廢之本末與夫王建之所始, 皆不可考."

96) 『高麗史』 卷首 高麗世系.

97) 중국학자들은 王建의 家族 淵源에 대하여 考證하고 研究를 진행하여 놀랄만한 연구 성과를 남겼다. 그중 楊保隆은 『古代中國高句麗歷史叢論』에서 왕건의 遠祖는 아마도 樂浪郡의 漢人일 것이라고 하였으며, 史長樂은 유관사료를 분석한 후, 왕건은 한반도이 토착신라인의 후예가 아니라, 중국의 淮河유역에서 이주한 漢人의 후예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史長樂, 2007-3, 『唐明宗披露了高麗太祖王建的族籍』, 『東北史地』)

98) 金富軾은 『三國史記』 首列新羅에서 신라왕조의 國統은 고려에게로 이어졌다고 하였다.

로 고려를 대신 불렀다. 따라서 왕씨고려 대부분 지역이 삼한의 故地에 있었으며, 그 주체 인민들이 대대로 그곳에서 생활해 왔던 민중들이었기 때문에 통치집단의 주요 구성원은 新羅人이었다. 왕씨고려가 그 발전과정 중 점차 대동강 이북의 일부 지역을 차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 지역은 고구려의 故地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⁹⁹⁾ 우리는 고려와 고구려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런 견해는 사회가 고려왕조를 위해 했던 貢獻과 결코 서로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遼의 침략으로 고려가 존망의 위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을 때, 사회는 용감히 나서 나라의 이익을 지켜냈기 때문이다. 그는 고려 통치자의 역사적인 의식을 강조하며,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 국임을 주장하였는데, 그 목적은 遼와의 담판에서 더 많은 국가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사회가 얼마나 탁월한 지혜와 절충한 모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설사 그것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결코 비난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99) 楊保隆, 1999-1, 앞의 글.

论徐熙对于高丽国家的贡献

——兼论高丽与高句丽的关系

在韩国古代历史上，徐熙是一位值得尊敬铭记、应该隆重纪念的重要人物。他出生于高丽太祖二十五年（公元942年），历惠宗、定宗、光宗、景宗、成宗，死于穆宗元年（公元998年），终年五十七岁。这是高丽王朝建立以后，经过巩固与稳定发展，走向兴盛的时期。徐熙忠于国家，一心为国，克己奉公，品德高尚。在辽大举进攻高丽，国家陷于危难的紧要时刻，他综观全局，力挽狂澜，处变不惊，冷静应对，显示出超群的智慧，表现出卓越的才能，维护了国家的利益，建树了非凡的业绩，作为杰出的爱国者、卓越的外交家而载入史册。我们考察十世纪后半期高丽王朝的历史，肯定与总结徐熙对于高丽国家的历史贡献，对于构建中韩世代睦邻友好关系，维护与促进东北亚地区的和平稳定，具有重要的现实意义和深远的历史意义。

一

在人类的历史上，任何杰出的人物既是其时代的儿子，也是其民族的儿子。徐熙作为十世纪后半期高丽王朝的战略家与外交家，既属于自己的民族，也反映了其生活的时代。我们探讨徐熙对高丽国家的贡献，必须考察他生活的社会环境，认识其活动的历史时代。契丹族的辽与王氏高丽，统治的国土疆域邻近，崛起的时间大体相同，是十世纪到十二世纪前期东北亚地区的两个重要国家。在复杂动荡的政治形势之下求生存与发展，文化传统的差异与国家利益的不同，使辽与高丽之间不可避免地出现冲突。我们反思十世纪辽与高丽冲突的由来，体察高丽王朝在这一时期的战略选择，有助于了解与认识徐熙对高丽国家的贡献。

辽是由契丹族建立的封建王朝。契丹族是古代东夷族系的后代，长期活动于潢河（今西拉木伦河）以南，土河（今老哈河）以北，过着逐水草而居的游牧生活，与中原地区有着广泛的交往与密切的联系。唐朝后期国势衰落，契丹逐渐强大起来，后梁贞明二年（公元916年），契丹首领耶律阿保机在龙化州（今内蒙赤峰境内）筑坛即位称帝，自号“天皇王”，国号“契丹”，建元“神册”，设置“百官”。神册三年（公元918年），耶律阿保机在潢水以北建都城，称为皇都（后该称上京）。天赞四年（公元925年），耶律阿保机率领大军进攻渤海国。天显元年（公元926年）正月，契丹军队攻入渤海王都忽汗城，灭“海东盛国”渤海国。据《辽史》记载：契丹“其富以马，其强以兵”。“纵马于野，弛兵于民”。¹在太祖耶律阿保机建国以后，经过太宗、世宗、景宗几代君主，逐渐走上稳定与发展的道路。圣宗即位以后，辽进入其繁荣昌盛的时期，成为雄据东北亚地区的强国。史称：“辽居松漠，天命有归。建国改元，皆遵汉制。命将出师，臣服诸国。人民皆入版籍，贡赋悉输内帑。”²我认为，辽在蒙古高原及东北地区筑城置寨，设官建制，统一管理，这对于沟通长城南北的交通与联系，传播中原地区的思想文化，促进东北亚地区的各民族交流，作出了历史性的贡献。

高丽是朝鲜半岛中南部的新罗衰落之后，继之兴起而统一的封建王朝。新罗后期“政衰”，“群盗竞起”，³政治腐败，国家动荡，地方势力趁机而起，统一国家崩溃瓦解。甄萱据完山州，在为百济义慈王申冤的口号下，于真圣女王六年（公元892年）建立后百济。弓裔以松岳（后转移到铁圆）为根据地，在复兴高句丽的旗号下，于孝恭王五年（公元901年）建立

¹ 脱脱：《辽史》卷五十九，《食货志上》，中华书局1974年版。

² 脱脱：《辽史》卷七十，《属国表》。

³ 郑麟趾：《高丽史》卷二，《太祖世家二》，亚细亚文化社1990年版。

后高句丽。史称孝恭王九年（公元 905 年），“弓裔据铁圆（今铁原），自称后高丽王”。⁴甄萱“叛据南州，称后百济”。弓裔“据高句丽之地，都铁圆，国号泰封”。⁵朝鲜半岛中南部形成甄萱的后百济、弓裔的泰封国、新罗三国鼎立的局面。然而弓裔虽然“起兵略取高句丽旧地”，但“修葺宫室，穷奢极侈”，⁶因贪图享受而缺乏远见，故其昙花一现。后梁贞明四年（公元 918 年），权知国事、松岳豪族王建发动政变，推翻弓裔的泰封政权，改元天授，定都松岳（今开城），称为开京，建立高丽王朝。⁷王建建立高丽政权以后，经过近二十年时间，先后灭新罗、后百济，实现了朝鲜半岛的统一。史称太祖“明赏罚，崇节俭，用贤良，重儒道”。⁸在惠宗、定宗、光宗、景宗时期，削弱地方势力，国力逐渐增强。光宗着手解放奴婢，实行科举选士，择优选拔官吏，地方官吏由中央政府任命，确立中央集权制度，加强了中央政府。在成宗即位以后，儒学家崔承老总结太祖王建国以来的治国施政，上书强调“诗书礼乐之教，君臣父子之道，宜法中华，以革卑陋”，⁹以儒家思想为高丽王朝的统治思想。高丽传承朝鲜半岛古代文明，兼收并蓄外来文化，成为东北亚地区的重要国家。

文化传统的差异是导致辽与高丽产生冲突的重要因素。契丹族建立的辽王朝与王建建立的高丽王朝，虽然都受到中原地区的华夏文化的影响，但区域位置不同与民族传统相异，所受华夏文化影响的程度存在较大差别；契丹长期游牧于长城以北，距离中原路途遥远，有着北方草原游牧民族的文化特点，受到华夏文化影响较少，被高丽视为野蛮化外的“禽兽之国”。¹⁰朝鲜半岛虽然与中原地区隔海相望，但“习箕子之余风”，¹¹受到华夏文化的巨大影响。从唐朝以来，新罗王朝“即吸收中国政治体制，并根据本国的实际情况，参酌结合制订其立国规模”。¹²高丽强调“旧慕唐风，文物礼乐，悉遵其制”，¹³与中国书同文，车同轨，自视为君子之国，文明礼义之邦，对华夏文化有着强烈的认同。据统计高丽出使五代达二十六次，而五代出使高丽也有十次之多，¹⁴建立宗藩朝贡关系。光宗在位时期，重用后周士人双冀，“以科举取士，自此文风始兴，大抵其法颇用唐制”，“东方文物之盛，拟诸中华”。¹⁵高丽士人对华夏文化仰慕之至，《诗》、《书》、《易》、《礼》、《春秋》、《论语》、《孝经》等儒家经典，成为高丽王朝规定的教育子弟的教科书。¹⁶高丽以儒家思想作为齐家治国的理念，而对契丹的野蛮落后则极端蔑视。太祖二十五年（公元 942 年），“契丹遣使来，进藏驼五十匹，王以契丹尝与渤海通和，忽生疑贰，背盟殄灭，此甚无道，不足远结为邻。遂绝交聘，流其使三十人于海岛，系囊驼万夫桥下，皆饿死。”¹⁷这种方式反映出高丽对契丹的鄙夷心态。太祖末年对后世子孙的《十训要》中说：治理国家应该“博观经史，鉴古戒今”。契丹“风俗不同，言语亦异，衣冠制度，慎勿效焉。”“以强恶之国（指辽）为邻，安不可忘危，兵卒宜加护恤。”¹⁸高丽把鸭绿江流域的女真人，也视为野蛮落后的化外之人。太祖十四年（公元 931 年）下诏：“北蕃之人，人面兽心。饥来饱去，见利忘耻。今虽服事，向背无常。宜

⁴ 郑麟趾：《高丽史》卷五十八，《地理志三》。

⁵ 郑麟趾：《高丽史》卷一，《太祖世家一》。

⁶ 郑麟趾：《高丽史》卷五十八，《地理志三》。

⁷ 郑麟趾：《高丽史》卷一，《太祖世家一》。

⁸ 郑麟趾：《高丽史》卷二，《太祖世家二》。

⁹ 金宗瑞：《高丽史节要》卷二，成宗壬午元年，亚细亚文化社 1972 年版。

¹⁰ 郑麟趾：《高丽史》卷二，《太祖世家二》。

¹¹ 脱脱：《宋史》卷四百八十七，《高丽传》，中华书局 1977 年版。

¹² 徐连达：《10 世纪中叶到 11 世纪初北宋与高丽王朝的友好关系》，《韩国研究论丛》第一辑，1995。

¹³ 金宗瑞：《高丽史节要》卷一，太祖癸卯二十六年。

¹⁴ 参见张春海：《高丽王朝的“华化”与“土俗”之争》，《安徽史学》2008 年第 1 期。

¹⁵ 郑麟趾：《高丽史》卷七十三，《选举志一》。

¹⁶ 关于中国古代儒家思想对高丽教育的影响，可以参阅高明士著《唐代东亚教育圈的形成》下篇《韩国古代的学校教育》，台北国立编译馆中华丛书 1984 年版。

¹⁷ 郑麟趾：《高丽史》卷二，《太祖世家二》。

¹⁸ 郑麟趾：《高丽史》卷二，《太祖世家二》。

令所过州镇，筑馆城外待之。”¹⁹高丽一方面极为鄙视契丹的野蛮落后，密切关注并时时警惕辽的动向，对与辽的交往采取冷漠的态度，对于女真人的落后也非常蔑视；一方面仰慕与认同中原地区的文化传统，主动加强与先后兴起的各王朝的交往。在高丽人的眼中，契丹为愚昧落后的夷狄之邦，治国兴邦应该效法中原，在北宋建立以后的第三年（宋太祖建隆三年，即公元962年），高丽光宗王昭派遣使者前往朝贡。在北宋一百六十多年里，宋与高丽之间使者频繁，宋向高丽遣使三十二次，而高丽向宋遣使达五十三次。²⁰这种密切的外交往来隐含深刻的文化认同，反映出高丽在思想感情、文化传统上与中原地区的关系。

国家利益的冲突是引发辽与高丽出现对抗的主要原因。契丹在公元916年建立辽国，王建在公元918年建立高丽，这两个国家虽然建国时间相近，但其初国土并不相邻，没有直接的利益冲突。然而辽天显元年（公元926年），进攻渤海，围忽汗城，渤海百官出城投降。辽灭渤海国，控制原渤海国的土地，“地方五千里，兵数十万，五京、十五府、六十二州，尽有其众，契丹益大。”²¹从历史沿革来说，渤海建国以后占有原高句丽的大部分土地，与半岛中南部的新罗以泥河为界。渤海国处在辽与高丽之间，成为拱卫高丽的屏障。辽灭渤海国以后置东京道，辖及唐时东北与渤海旧地，使高丽失去了拱卫自己的屏障。辽占据原渤海国的大部分土地，需要巩固东部边境地区。高丽则对辽有着极大的戒备心理与恐慌情绪，以高句丽的继承者自居，极力拓展统治的范围，大力推行北进的战略。王建把占有高句丽旧地作为建国理念，即位元年九月丙申，“谕群臣曰：‘平壤古都，荒废虽久，基址尚存，而荆棘滋茂，蕃人游猎于其间，因而侵掠边邑，为害大矣！宜徙民实之，以固藩屏，为百世之利。’遂为大都护，遣堂弟式康，广评侍部列评守之。”²²王建以防御女真为由，将平壤改称西京，将大量人口从迁移到朝鲜半岛北部。太祖五年，“徙大丞质荣、行波等父兄子弟及诸郡县良家子弟，以实西京。幸西京，新置官府员吏，始筑在城，亲定牙善城民居。”²³太祖十四年（公元931年）又置安北府，加强对北部地区的控制与统治。高丽征伐大同江以北至清川江沿岸，不仅蚕食与占领这一地区的女真人和其它民族及渤海遗民的旧地，而且在清川江以北陆续修筑了威化、宁朔、长平、安朔等城，还接纳与优待渤海遗民。辽天显九年（公元934年），渤海世子大光显等率领数万渤海遗民投奔高丽，王建待之甚厚，“赐姓名王继，附之宗籍，特授元甫，守白州以奉其祀，赐僚佐爵，军士田宅有差。”²⁴在王建统治的末期，高丽北部边境已推进到今咸镜南道的永兴与清川江的南岸。高丽向北扩张，利用渤海遗民扩展土地，引起辽的严重不满；辽力图遏制高丽的扩张，稳定东部边境地区，避免在争夺中原时出现两面作战的局面。《宋史》引成宗王治令人言于宋太宗使者韩国华之语，称高丽筑城于鸭绿江边，“不意女真潜师奄至，杀略吏民，驱掠丁壮，没为奴隶，转徙他方。以其岁贡中朝，不敢发兵抱怨。”²⁵《高丽史》称成宗三年（公元984年）时，“命刑官御史李谦宜，城鸭绿江岸，以为关城，女真以兵逼之，虏谦宜而去，军溃不克城，还者三之一。”²⁶这些史料反映出高丽向北推进，力图占领原高句丽人的土地，与辽东部边境的女真人发生冲突，说明辽与高丽两个国家，因为国家利益而形成深刻对立。

总之，辽与高丽都是在公元十世纪二十年代之前立国，经过几十年时间的发展，同时崛起为东亚地区的两个重要国家。辽疆域辽阔，东自大海，西至流沙，南越长城，北绝大漠，

¹⁹ 郑麟趾：《高丽史》卷二，《太祖世家二》。

²⁰ 关于北宋与高丽之间使者往来的次数，中韩有关研究者统计的数字有所不同。这里为韩国学者金智显根据《高丽史》统计的数字，参见其著《契丹的东北政策—契丹与高丽女真关系之研究》，台北华世出版社1981年版，第50页。

²¹ 脱脱：《辽史》卷三十四，《兵卫志上》。

²² 郑麟趾：《高丽史》卷一，《太祖世家一》。

²³ 郑麟趾：《高丽史》卷一，《太祖世家一》。

²⁴ 郑麟趾：《高丽史》卷二，《太祖世家二》。

²⁵ 脱脱：《宋史》卷四百八十七，《高丽传》。

²⁶ 郑麟趾：《高丽史》卷三，《成宗世家》。

雄据于长城以北的蒙古高原及中国东北的广大地区,拥有浩瀚的国土与战略纵深,还有地缘优势与强大的军事力量;高丽则控制与统治鸭绿江以南的朝鲜半岛,因为“三面阻海,一隅连陆”,²⁷国土疆域比辽小,军事力量比辽弱。从辽与高丽两个国家的战略态势来说,辽虽然疆域辽阔而军事力量相对强大,但其战略重点是争夺中原地区,太宗忙于经略中原地区,而世宗、穆宗、景宗则既要安定内部,又要应对中原地区,为着避免陷入两面作战的被动局面,故只能对朝鲜半岛中南部的高丽取守势;高丽虽然偏居于朝鲜半岛中南部,疆域狭窄而军事力量弱小,但其战略重点则是向北推进,接纳与利用渤海国的残余势力,在鸭绿江流域与辽争夺女真人居住地区的统治权,故对与辽南北对峙的中原各王朝,尤其是主动与北宋王朝交聘,甚至主动建立宗藩关系。高丽流放契丹使者,招诱接纳渤海遗民,与中原地区建立宗藩关系,不断向鸭绿江流域女真人故地扩张,这些行动招致辽的严重不满,辽与高丽之间的矛盾激化,两国的关系迅速恶化。高丽王朝的战略选择是:在军事上,向北逐步扩张土地,与辽争夺渤海旧地;在外交上,向西主动联合中原,分散与牵制辽的力量。在东北亚地区复杂的政治格局中,高丽将军事手段与外交途径结合起来,巩固与加强国家的安全,扩展占有的土地,追求利益的最大化。徐熙生活的十世纪后期高丽面临的内外环境,既为其施展才能提供了舞台,又为其报效祖国提供了机遇,在辽军大举进攻、国家面临危难的紧要关头,以自己的忠诚与智慧,为维护国家的利益作出重要贡献。

二

徐熙是十世纪高丽王朝杰出的战略家与卓越的外交家,出生于利川徐氏这一有着深厚文化积淀与良好道德传承的官宦之家。据徐氏族谱记载,利川徐氏始祖徐神逸,八十岁时生下儿子徐弼,徐弼即为徐熙的父亲。《高丽史》称:“初,弼父神逸郊居。有鹿奔投,神逸拔其箭而匿之。猎者至,未获而返。梦有神人谢曰:‘鹿,吾子也,赖君不死,当令公之子孙,世为卿相。’神逸年八十,生弼。弼、熙,讷果相继为宰相。”²⁸徐弼忠于君主,热爱国家,清正廉洁,不谋私利。史称徐弼“性通敏,始以刀笔进,累官至大国内议令。”²⁹又称:“光宗赐宰臣王咸敏、皇甫光谦及弼金酒器,弼独不受。曰:‘臣谬居宰辅,已叨宠恩。又赐金器,愈惧踰分。且服用明等衰,奢侈关理乱,臣用金器,君将何用!’光宗曰:‘卿能不以宝为宝,予当以卿言为宝。’弼尝进见曰:‘愿上莫赏无功,无忘有功。’光宗嘿然,翼日遣近臣问:‘有功无功者为谁?’对曰:‘有功者,元甫、式会也;无功者,若辈是也。’其以此奏。”²⁹这些记载说明,徐弼以国家利益为重,不计较个人得失,故在其死后获得配享于光宗庙庭的殊荣,表明朝廷对于徐弼的崇高品质及生平业绩,给予高度的肯定与评价。徐弼视国家利益高于一切的优秀品质,对于儿子徐熙有着深刻的影响。

徐熙“小字廉允”,“性严格”,³⁰受到良好家风的影响,形成儒雅坚毅的品格。他视国家利益为至高无上,以报效国家为己任,有着真诚为国的坚定志向。在进入仕途以后,徐熙深受高丽朝廷信任,担任许多重要职务,都能竭尽所能,不负君主之命。光宗十一年(公元963年),徐熙十八岁,即被“擢甲科,超授广评员外郎,累迁内议侍郎。”光宗二十三年(公元972年),徐熙三十一岁,受高丽朝廷派遣,“奉使如宋。时不朝宋十数年,熙至,容仪中度。宋太祖嘉之,授检校兵部尚书。”³¹在宋与高丽十多年时间没有通使的情况下,徐熙代表高丽出使宋朝,因为容仪中度,言谈得体,受宋太祖嘉奖而被授予官职,说明其有着渊博的学识与卓越的外交才能。成宗二年(公元983年),徐熙四十三岁,“由佐丞兵官御事,从幸西京,成宗欲微行游永明寺。熙上疏谏,乃止。赐鞍马以赏之,后改内史侍郎。”史称徐熙尝扈驾海州,“成宗幸熙幕。欲入,熙曰:‘臣之幕,非至尊所当临。’命进酒曰:‘臣之酒,

²⁷ 郑麟趾:《高丽史》卷五十六,《地理志一》。

²⁸ 郑麟趾:《高丽史》卷九十四,《徐熙传》。

²⁹ 郑麟趾:《高丽史》卷九十三,《徐弼传》。

³⁰ 郑麟趾:《高丽史》卷九十四,《徐熙传》。

³¹ 郑麟趾:《高丽史》卷九十四,《徐熙传》。

不堪献也。’成宗乃坐幕外，进御酒，共饮而罢。”又载：“供宾令郑又玄上封事，论时政七事，忤旨。成宗会宰相议曰：‘又玄敢越职论事，罪之何如？’皆曰：‘惟命。’昭曰：‘古者谏无官，越职何罪？臣以不才，谬居宰相，窃位素餐，使官卑者论政教得失，是臣之罪也。况又玄论事甚切，宜加褒奖。’成宗感悟，擢又玄监察御史，赐熙绣鞍、厩马、酒果以慰之，拜太保内史令。”³²徐熙奉侍君主，为官任事，恪尽职守，勇于负责。他不是曲意奉迎君主，不是看君主脸色行事，而是敢于直谏君主，大胆匡正君主的过失，无论担任何种官职，都能兢兢业业，以国家利益为重，一身正气，不谋私利。

徐熙是一位高瞻远瞩，视野开阔，纵观大局，着眼长远的战略家。在国家遭到强敌入侵的危难时刻，他以自己的智慧与才能，竭尽全力挽救时艰。公元983年，辽圣宗即位，萧太后摄政，重用汉人参政，实行科举取士，注意整顿吏治，发展农业生产，国力渐趋强大。辽统治者决定征伐高丽，控制朝鲜半岛，解决争夺中原时可能出现后顾之忧。统和元年（公元983年）冬十月，辽圣宗“将征高丽，亲阅东京留守耶律末只所总兵马。”³³统和三年（公元985年）秋七月，辽圣宗“诏诸道各完戎器，以备东征高丽。八月，以辽泽沮洳，罢师。”³⁴这次征伐虽因道阻而罢，但说明辽力图以战争迫使高丽臣服。统和十年（公元992年）十二月，辽圣宗宣称“高丽未附”，下诏东京留守萧恒德征讨高丽。萧恒德统领数十万大军，号称八十万，大举进攻高丽，“率兵拔其边城”。³⁵辽国大军的进攻使高丽举国震惊，朝廷特遣侍中朴良柔为上军使，内史侍郎徐熙为中军使，门下侍郎崔亮为下军使，统领军队进行抵抗，成宗亲自出征督战，“欲自将御之，幸西京，进次安北府。”然而辽军“攻城蓬山郡，获先锋军使给事中尹庶顔等。成宗闻之，不得进，乃还”。高丽朝廷面对急迫危险的局面惊慌失措，“或言车驾还京，令重臣率军乞降；或言西京以北与之，自黄州至岳岭划为封疆。”³⁶这是高丽国家生死存亡的紧要关头，特别需要理性与智慧，寻求应对与化解之策。如果冷静分析形势，沉着面对现实，运用正确策略，就能化危机为转机；如果惊慌失措而自乱阵脚，就可能因为误判，使国家陷于深渊之中。徐熙临危受命，勇担大任，处变不惊，务实稳健。他冷静地判断形势，积极向成宗建言献策，全力投入应对国家的危机。

徐熙对于辽与高丽的关系有着深刻的认识。他以超乎常人的战略眼光，透过纷繁复杂的各种表象，冷静观察辽与高丽之间的冲突，对于辽发动战争的目的作出准确判断。徐熙看到在辽军攻破蓬山郡以后，萧恒德不是统兵继续推进，而是接二连三地敦促高丽投降。萧恒德称：“大朝统一四方，其未归附，期于扫荡，速致降款，毋涉淹留。”又向高丽致书说：“八十万兵至矣，若不出江而降，当须殄灭君臣，宜速降军前。”又言：“若欲求和，宜速来降。”³⁷徐熙从这些言辞中意识到，萧恒德虽然攻破蓬山郡，高调声称辽八十万大军前来攻打，但其实质只是虚张声势，通过恫吓促使高丽尽快投降。辽发动战争攻打高丽的直接目的，不是灭亡高丽以扩张领土，而是切断高丽与宋的关系。徐熙洞察辽的动向与意图，只是迫使高丽投降而成为其宗藩，避免争夺中原时陷入两面作战的困境，解除东部边境的后顾之忧。据此他向成宗上奏，宣称“有可和之状”。³⁸这一上奏不仅反映出徐熙对辽军攻打高丽目的的理性判断，而且表达了向朝廷提出以和谈化解危机的建议。这一建议的提出绝非偶然，说明徐熙沉着冷静，清醒务实。成宗接受了徐熙提出的议和的建议，派遣监察司宪借礼宾少卿李蒙戡“如契丹营，请和。”³⁹徐熙从辽与高丽国力悬殊的实际出发，针对辽发动战争的目的，提出运用和平谈判的方式，沉着稳妥地化解战争危机，这是立足现实而富有远见的。

³² 郑麟趾：《高丽史》卷九十四，《徐熙传》。

³³ 脱脱：《辽史》卷十，《圣宗纪一》。

³⁴ 脱脱：《辽史》卷一百一十五，《高丽传》。

³⁵ 脱脱：《辽史》卷八十八，《萧恒德传》。

³⁶ 郑麟趾：《高丽史》卷九十四，《徐熙传》。

³⁷ 郑麟趾：《高丽史》卷九十四，《徐熙传》。

³⁸ 郑麟趾：《高丽史》卷九十四，《徐熙传》。

³⁹ 郑麟趾：《高丽史》卷九十四，《徐熙传》。

徐熙以内史侍郎身份被成宗委任为中军使,担负抵御辽军的指挥之责。他作为战场的军事指挥,不是统领军队死拼硬打,而是谋求以和谈方式化解,进而提出了具体的应对策略。史称在辽军大举进攻之下,“成宗将从割地之议,开西京仓米任百姓所取,余者尚多。成宗恐为敌所资,令投大同江。”成宗“将从割地之议”,令投粮于大同江,说明其惊慌失措与缺乏远见。徐熙从全局出发,不仅谏阻成宗弃粮于大同江的轻率做法,而且更反对其采纳割让土地之议。他上奏曰:“食足则城可守,战可胜也。兵之胜负不在强弱,但能观衅而动耳,何可遽令弃之乎!况食者民之命也,宁为敌所资,虚弃江中,又恐不合天意。成宗然而止之。”徐熙向成宗分析形势,说明自己的策略。他指出:“自契丹东京至我安北府,数百里之地,皆为生女真所据。光宗取之,筑嘉州、松城等城。今契丹之来,其志不过取此二城。其声言取高句丽旧地者,实恐我也。今见其兵势大盛,遽割西京以北与之,非计也。且三角山以北,亦高句丽旧地,彼以溪壑之欲,责之无厌,可尽与乎!况割地与敌,万世之耻也。愿驾还都城,使臣等一与之战,然后议之,未晚也。”⁴⁰在徐熙看来,面对外敌入侵与恐吓,割地与敌乃“万世之耻”,唯有“一与之战,然后议之”,将应战与言和结合起来,方为正确之策。我们概括徐熙应敌之策,是暂避锋芒,以拖待变,敢于一战,以战谋和。他所主张的议和,不是消极乞和,也不是割地求和,更不是卖国投降,而是以战挫敌在先,以议和退敌为后。这种策略建立在对辽与高丽双方整体态势深刻认识的基础上,包含着与时俯仰、因势应变的深沉谋略,反映出以退为进、以柔克刚的高超智慧。

徐熙胸怀韬略,勇敢坚毅,精于谋划,沉着务实。他审时度势,提出“战之与和”,将迎战与议和结合起来,这出自于对敌我双方力量的深刻了解。成宗既接受了李知白提出的以“金银宝器”贿赂萧恒德“以观其意”的建议,又采纳了徐熙提出的“一与之战,然后议之”的策略:一方面派遣李蒙戡前往辽营请和,从中了解辽军的情况与动向;一方面又对其所传达的辽的要求不置可否,延緩时间以拖待变。一方面对辽军统帅萧恒德采取暂不理睬、避免接触的态度,致使辽军“遂攻安戎镇”;一方面则以中郎将大道秀、郎将庾方“与战,克之”,使萧恒德统领的辽军遭遇损失,挫败其冒险企图,不敢再冒然“复进”。⁴¹高丽军队在战场上挫败辽军以后,萧恒德的骄横气焰遭到打击,这为谈判议和、化解战争危机提供了契机。史称在辽军的进攻遭到阻遏的情况下,成宗委派和通使、閤门舍人张堂前往议和,萧恒德摆出上国的架势,认为张堂官卑位低,要求高丽“更以大臣送军前”。在这攸关国家命运的时刻,成宗会群臣问曰:“‘谁能往契丹营,以口舌却兵,立万世之功乎!’群臣无有应者。”⁴²群臣无有应者,这是可以理解的。因为在强敌压境,国家危难之际,前往敌营与强敌议和,有着极大的生命危险与政治风险。徐熙自告奋勇,挺身而出,为了国家的利益,将个人安危置之度外,勇敢承担赴辽营议和的任务。他向成宗果断提出,“臣虽不敏,敢不惟命”,表现出献身国家的神圣责任感与使命感。成宗“出钱江头,执手慰籍而送之”,⁴³对徐熙给予充分信任,对其与辽的谈判寄予极大期待。

徐熙是一位思维敏捷,老成持重,灵活务实,通达权变的外交家。他把维护国家尊严,捍卫国家利益,作为义不容辞的责任。《高丽史》称:“熙奉国书如遼宁营,使译者问相见礼。遼宁曰:‘我大朝贵人,宜拜于庭。’熙曰:‘臣之于君,拜下礼也。两国大臣相见,何得如是!’往复再三,遼宁不许。熙怒,还卧所,馆不起。遼宁心异之,乃许升堂行礼。于是熙至营门,下马而入,与遼宁分庭,揖升行礼,东西对坐。”⁴⁴萧恒德要求徐熙“宜拜于庭”,表明其依仗强大的武力,欲置对手于屈辱的地位,骄横跋扈,盛气凌人;徐熙认为受君主之命与萧恒德谈判议和,这是两个国家之间的对等谈判。他到辽营议和之前对萧恒德的骄横气

⁴⁰ 郑麟趾:《高丽史》卷九十四,《徐熙传》。

⁴¹ 郑麟趾:《高丽史》卷九十四,《徐熙传》。

⁴² 郑麟趾:《高丽史》卷九十四,《徐熙传》。

⁴³ 郑麟趾:《高丽史》卷九十四,《徐熙传》。

⁴⁴ 郑麟趾:《高丽史》卷九十四,《徐熙传》。

焰,已经有充分认识和足够估计,作为高丽国家谈判议和的代表,不能接受对方刻意贬低自己的“宣拜于庭”的安排。这不是拘泥外交礼仪,不是计较个人名份,而是关系国家的尊严,更是涉及国家的地位。徐熙义正辞严,大义凛然,迫使萧恒德放弃无理要求,“乃许升堂行礼”,双方“揖升行礼,东西对坐”。在谈判结束以后,萧恒德欲宴慰徐熙。徐熙宣称:“本国虽无失道,而致上国劳师远来,故上下皇皇,操戈执锐,暴露有日,何忍宴乐!”⁴⁵这些言简意赅的语言,反映出其忧心天下,勤劳国家,忠于君主,体恤百姓的崇高品质。

徐熙代表高丽与萧恒德谈判议和,面对强大的对手毫不畏惧,表现出卓越的外交才能。在人类历史上,历来弱国无外交。辽的国力虽然远比高丽强大,高丽相对辽处于弱势的地位,但徐熙深切洞察辽的目的与动机,坚韧不拔地捍卫国家的利益。萧恒德对徐熙强调:高丽兴于原新罗的土地之上,而高句丽的土地应为我大辽所有。高丽不断向北推进,进而在“与我连壤”以后,却反而“越海事宋”,“故有今日之师”。如果“割地以献而修朝聘,可无事矣。”⁴⁶徐熙意识到辽以虚声恫吓为手段,力图迫使高丽成为藩属,因而提出以和化解的主张。他从萧恒德的言论中,看到辽进攻高丽有两个原因:一是高句丽的土地为辽所有,而高丽则兴起于新罗的土地之上,却侵蚀了原属于高句丽的土地;二是高丽与辽的土地接壤以后,却不以辽为宗而“越海事宋”。如果高丽“割地以献”,与辽“修朝聘”,承认辽的宗主地位,切割与宋的关系,就“可无事矣”。在徐熙看来,辽攻打高丽,只是为了阻止高丽向北推进,夺取原来属于高句丽的土地,确保辽的东部边境的安定。他驳斥萧恒德说:“若论地界,上国之东京皆在我境,何得谓之侵蚀乎!且鸭绿江内外亦我境内,今女真盗据其间,顽黠变诈,道途梗涩,甚于涉海,朝聘之不通,女真之故也。”徐熙一方面将辽的东京及鸭绿江内外,说成属于高丽的土地;一方面则又将“朝聘之不通”,说成是因为“女真盗据其间”所致。他既将高丽未能与辽修聘,归咎于女真的阻挠破坏,进而以此为据向萧恒德提出,“若令逐女真,还我旧地,筑城堡,通道路,则敢不修聘!将军如以臣言,达之天聪,岂不哀纳!”⁴⁷又提出“荡平女真,收复旧地”,建筑城堡,开通道路,那么“朝觐可通”,⁴⁸作为实现高丽与辽修聘的条件。这些言论说明,徐熙看准辽急于迫使高丽奉其正朔,向其称臣纳贡,以便结束战争,进而争夺中原的心理,要求辽在领土方面能够让步,把鸭绿江流域的土地让给高丽,就可以实现高丽对于辽的修聘。他趁机把视线转到女真,顺势向辽提出要求,以便在谈判时待价而沽,从而谋求更多的国家利益。

徐熙在与萧恒德谈判议和过程中,审时度势,随机应变,根据客观形势,变被动为主动,实现国家利益的最大化,取得了巨大的外交胜利。高丽在建国以后因为文化认同与政治需要,曾主动与中原地区的后唐、后晋、后汉、后周、北宋建立朝贡关系:如太祖天授十六年(公元933年),王建受后唐册封,“除天授年号,行后唐年号”。⁴⁹后晋天福三年(公元938年),高丽行后晋年号。后汉乾祐元年(公元948年),高丽行后汉年号。后周广顺元年(公元951年),高丽行后周年号。宋乾德元年(公元963年),高丽行宋年号。徐熙针对辽以大军攻打高丽,力图稳定其东部边境,解除争夺中原的后顾之忧的急切心理,在坚持高丽国家根本利益的前提下,为了挽救国家的严重危机,主动向辽方释出某些善意,最后双方达成妥协:辽同意高丽占据鸭绿江东二百八十里土地;高丽则奉辽正朔,向辽称臣纳贡,不再与宋来往。辽通过战争迫使高丽臣服,确立了对高丽的宗主权,稳定了其东部边境地区,破坏了宋与高丽之间的关系,解除了争夺中原的后顾之忧;高丽则通过外交谈判,使辽撤退了八十万大军,得到鸭绿江流域六州的土地。辽得到的是高丽对于其宗主国地位的承认,这主要的是名义上的好处;而高丽虽然迫于辽的武力威胁,“始行契丹统和年号”,“遣侍中朴良柔奉表如契丹,

⁴⁵ 郑麟趾:《高丽史》卷九十四,《徐熙传》。

⁴⁶ 郑麟趾:《高丽史》卷九十四,《徐熙传》。

⁴⁷ 郑麟趾:《高丽史》卷九十四,《徐熙传》。

⁴⁸ 郑麟趾:《高丽史》卷九十四,《徐熙传》。

⁴⁹ 郑麟趾:《高丽史》卷二,《太祖世家二》。

告行正朔”，⁵⁰将“事宋”转变为“事辽”，但却得到大片土地，这是实实在在的利益。宋人徐兢言：淳化六年（公元995年），契丹攻打高丽，君主王治“畏懦无守，臣事北虏，遂阙朝贡。”⁵¹故徐熙议和结束以后，“成宗大喜，出迎江头”。⁵²高丽从十世纪九十年代的东北亚地区的国际环境出发，将对中原地区汉族王朝的朝贡关系，转变为对中国北方少数民族王朝的朝贡关系。这种以小事大的宗藩朝贡关系的转变，虽然有悖于高丽认同华夏文化的历史传统，却是从实际出发因应国际环境的变化，谋求国家生存与摆脱危机的无奈之举，实为迫于残酷的现实环境的最佳选择，其本质是文化传统对现实环境的屈从，思想意识对国家利益的妥协。徐熙作为这一时期高丽外交的主导者，对实现这种转变发挥了关键性作用。

徐熙不仅通过坚韧不拔的外交谈判，不战而屈人之兵，为国家谋得了实实在在的利益；而且利用辽退兵以后的有利时机，抓紧落实谈判取得的成果。成宗十三年春二月，萧恒德致书高丽称：“若不设于预备，虑中阻于使人。遂与彼国相议，便手要冲路陌，创筑城池者，寻准宣命，自准斟酌。拟于鸭江西里创筑五城，取三月初拟到筑城处下手修筑。伏请大王预先指挥，从安北府到鸭江东计二百八十里，踏行稳便田地，酌量地里远近，并令筑城，发遣役夫，同时下手。其合筑城数，早与回报。所贵交通车马，长开贡观之途。永奉朝廷，自协安康之计。”⁵³这些言论说明，辽在撤兵回师以后，急于迫使高丽前来修聘，要求“长开贡观之途”，实现“永奉朝廷”，稳定东部边境地区。高丽则利用辽的急切心理，利用辽圣宗“诏取女直鸭绿江东数百里地赐之”的承诺，⁵⁴驱逐鸭绿江东岸的女真人，修筑城池并开通道路，牢固控制这一地区，强化对江东数百里地的占领。在成宗十三年，徐熙“率兵逐女真，城长兴、归化二镇，郭、龟二州。明年，又率兵城安义、兴化二镇。又明年，城宣、孟二州。”⁵⁵高丽紧紧抓住战后形势缓和的有利时机，在鸭绿江东岸修建了六座城池，“曰兴州，曰铁州，曰通州，曰龙州，曰龟州，曰郭州。”⁵⁶这些城池与鸭绿江西岸的来远城隔江相望，确立了高丽对鸭绿江东岸的统治，凝聚着徐熙对于高丽国家的贡献。

总之，徐氏家族良好的道德传承与深厚的文化积淀，培育了徐熙这位卓越的爱国者。他满怀爱国热忱与报国志向，铭记“千里山河轻儒子，两朝冠剑恨谗周”，⁵⁷勇敢担负对君主的责任，坚定维护国家的利益。高丽史家徐居正说：“若无徐熙之一策，失机会，则圯岭以北，能复保乎？”⁵⁸清朝史家厉鹗说：“方遼宁之入寇也，大振声势，恐喝胁降，群臣献议，或乞降，或割地，徐熙独力陈不可，欲与一战”，“及使契丹，抗礼不屈，终讲和亲，其率使得礼”。⁵⁹这些史家对徐熙的评价是符合历史事实的。概括起来，徐熙对于高丽国家的贡献主要在两个方面：其一是作为胸怀大局，着眼长远的战略家，在辽军大举进攻，举国动荡不安，面临严重危机的紧要关头，统筹全局，运筹谋划，处变不惊，临危不乱，表现出高超的政治智慧，成为朝廷应对乱局的中流砥柱。他根据对方目的，反对轻率割让土地，力主和平谈判，变被动为主动，挽狂澜于既倒，使国家避免陷入巨大灾难。其二是作为从容睿智，稳健务实的外交家，在代表高丽与辽谈判，谋求和平的过程中，面对强敌，不卑不亢，随机应变，沉着应对。他以国家现实利益为根本出发点，据理力争，以小博大，刚柔相济，灵活巧妙，维护捍卫国家的利益，显示出卓越的外交才能，取得了重大的外交胜利。我认为在徐熙这个高丽王朝的战略家与外交家的身上，既不乏战略家的大智大勇与远见卓识，又有着外交家的深

⁵⁰ 郑麟趾：《高丽史》卷三，《成宗世家》。

⁵¹ 徐兢：《宣和奉使高丽图经》卷二，《世次》。大象出版社2008年版。

⁵² 郑麟趾：《高丽史》卷九十四，《徐熙传》。

⁵³ 郑麟趾：《高丽史》卷三，《成宗世家》。

⁵⁴ 脱脱：《辽史》卷十三，《圣宗纪四》。

⁵⁵ 郑麟趾：《高丽史》卷九十四，《徐熙传》。

⁵⁶ 脱脱：《宋史》卷四百八十七，《高丽传》。

⁵⁷ 郑麟趾：《高丽史》卷九十四，《徐熙传》。

⁵⁸ 徐居正：《东国通鉴》卷十四，成宗十二年，景仁文化社1994年版。

⁵⁹ 厉鹗：《辽史拾遗》卷七，《四库全书》本。

沉务实与随机应变,凝聚着忠于国家、不谋私利的优良品质,反映出恪尽职守、兢兢业业的责任意识,展现出敢于担当、一心为国的敬业精神,表现出廉洁奉公、诚实正直的人格魅力。徐熙忠诚勇敢,品德高尚,正气凛然,业绩辉煌,有着高度的政治责任感与历史使命感,把自己的一生都贡献给国家的事业,故在其因病去世以后,获得“配享成宗庙庭”的殊荣。⁶⁰这表明穆宗对于徐熙生前建树的业绩,给予了高度的推崇与充分的肯定。

三

关于高丽与高句丽的关系问题,确切地说王氏高丽是否继承高句丽的问题,可以追溯到高丽建国之初。这一问题既涉及到各方的政治利益,也关系到彼此的历史认识。从弓裔的后高句丽到王建建立高丽政权,都是以高句丽国家继承者自居。王氏高丽推行向北扩张的政策,将疆域扩张到大同江以北至鸭绿江以南。辽则在立国以后不久灭亡了渤海,占据了渤海国控制的原高句丽的大部分土地,不承认高丽继承高句丽的地位,更不承认高丽可以占有原高句丽的土地。辽与高丽之间围绕高丽继承高句丽,形成激烈的争论与深刻的对立;十世纪六十年代建立的北宋一方面因为史料的局限,不能对于高丽与高句丽的关系作出正确分析;一方面则出于自身利益的需要,认同高丽为高句丽的继承者的观点。宋、辽、高丽之间对于这一问题的态度,折射出各方深刻的政治利益的冲突。我们考察高丽与高句丽的关系,不仅为审视徐熙的贡献提供了新的视角,而且有助于正确认识高丽的历史地位。

高丽统治者是高丽继承高句丽观点的标榜者。我们考察从新罗衰落到后高句丽建立,再到王氏高丽兴起这一政权递嬗过程:弓裔利用九世纪末新罗衰落的时机,打着复兴高句丽的旗号,建立后高句丽政权(即泰封国);而王建则在地方豪族支持下,以武力夺取弓裔的后高句丽,建立高丽王朝。这一政权更替的过程表明,从弓裔的后高句丽到王建的高丽,强调对高句丽的继承,张扬为古代高句丽王朝兴废继绝,政治利益与社会思潮纠集在一起。有学者指出,王建建立高丽之始,极力标榜为高句丽王朝的继承者,既利用新罗与高句丽的旧怨,又借昔日高句丽之威望为号召,并不满足于据有原新罗的土地,而是有意站在历史的制高点,力图占据高句丽旧疆。⁶¹因为公元五世纪前期的高句丽曾以平壤为首都,所以王建大量移民大同江以北,并重建平壤作为高丽王朝的西京,以显示其对于高句丽的继承。这种高句丽继承意识是民间与豪族对强盛王朝的怀旧心态,新的王朝创建者对这种心态的利用,也有借此笼络渤海残余势力的意图。⁶²我认为王建篡位之前所谓“先操鸡后搏鸭”的谶语,⁶³本质是复兴高句丽思潮的反映,表达了高丽社会占据高句丽土地的政治愿望。王建强调继承高句丽,具有多重目的:一方面是为了突出统治的正统性,因为其政权是夺取后高句丽而来,所以强调继承高句丽,旨在标榜其政权的悠久渊源;另一方面则为了争夺原高句丽的土地,为向辽的东南边境扩张而寻找历史依据。徐熙在与萧恒德谈判时称:“我国即高句丽之旧也,故号高丽,都平壤。”⁶⁴徐熙将高句丽与高丽这两个相隔数百年的政权混为一谈,当然是故意偷换概念;但也反映出高丽统治者的观点:高丽即由继承高句丽而来,其称为高丽,建都平壤,就是这种继承的体现。徐熙尽管没有也不可能从辽那里得到鸭绿江以北的土地,但把包括辽的东京在内的原高句丽土地,说成是属于高丽境内的“旧地”,这是一种精明的谈判策略,目的是在与辽的议和谈判中讨价还价,以便为本国谋取更多的实际利益。

辽统治者反对高丽继承高句丽的观点,强调原高句丽的土地后来并入渤海,辽灭亡渤海以后已经占有原高句丽的土地,故辽应该是原高句丽的土地的继承者。唐与新罗在公元668年灭亡高句丽以后,高句丽在大同江和龙兴江以南之地为新罗占有,其余的土地则为唐的州

⁶⁰ 郑麟趾:《高丽史》卷九十四,《徐熙传》。

⁶¹ 参见史长乐:《王建为何定国号为高丽》,《东北史地》2006年第6期。

⁶² 参见马大正等:《再论高句丽历史研究中的相关问题》,《古代中国高句丽历史续论(代前言)》,中国社会科学出版社2003年版。

⁶³ 郑麟趾:《高丽史》卷一,《太祖世家一》。

⁶⁴ 郑麟趾:《高丽史》卷九十四,《徐熙传》。

县而后来成为渤海之地。因为辽在渤海灭亡以后，高丽北进而形成与辽连壤的局面，接纳并优待渤海遗民，侵蚀原属于高句丽而辽视之应为己有的土地，所以导致高丽与辽的关系迅速恶化。萧恒德率兵进攻高丽，明确地指出：“大朝既已奄有高句丽旧地，今尔国侵夺疆界，是以来讨。”又言：“汝国兴新罗地，高句丽之地我所有也，而汝侵蚀之。”⁶⁵这些言论不仅说明了辽出兵攻打高丽，是因为高丽向北扩张土地，将疆域推进到大同江以北鸭绿江南岸，影响到辽的边境的稳定，损害了辽的利益；而且强调了辽统治者的一个重要观点：原高句丽国的土地后来大部分并入渤海，而渤海已经成为辽的一部分，故高句丽的土地应该属于辽所有。高丽则兴起于新罗土地之上，其作为新罗的继承者，占有的是原属于新罗的土地，对于已经为辽所有的高句丽旧地的“侵蚀”，则是辽所不能够接受的。辽统治者强调高丽兴于新罗之地，虽然包含反对高丽继承高句丽土地的政治目的，但大体上是符合历史事实的。这些史料反映出辽统治者以高句丽土地的继承者自居，突出其继承原属于高句丽的土地的合理性；说明辽否定与反对高丽统治者标榜的继承高句丽的观点，与维护对于占据原高句丽土地的政治需要密切联系在一起。据《辽史》记载，辽统治者还设立了“鸭绿江女直大王府”的行政机构，⁶⁶对于鸭绿江流域的女真人进行管理。

宋人认同高丽为高句丽继承者的观点。在宋代修撰的历史典籍中，关于高丽继承高句丽的观点，成为贯穿其中的历史认识。这种历史认识的形成原因是极为复杂的，既与高丽统治者的标榜相关，又与南北朝以来将高句丽简称为高丽的影响有关，也与因史料缺陷不能深入探究联系在一起。我概括为主观与客观两个方面，从政治需要与认知错误作一点分析：

从主观方面来说，这种历史认识反映出宋人对辽鄙视的心态，以及高丽共同应对辽的政治需要。宋与辽的对立迫使辽把战略重点置于中原，分散了对于东部边境地区的注意力，使高丽得以趁机北进；高丽既在文化上“旧慕唐风”，⁶⁷强调“华夏之制，不可不遵”，⁶⁸又有着与辽争夺原高句丽土地的现实需要，故其建立以后主动与中原各朝及宋交聘；宋、辽之间则因为对燕、云十六州的争夺，成为彼此尖锐对立的仇敌之国。即使在“澶渊之盟”以后，宋、辽双方维持着和平的局面，宋虽然没有能力收复失地，但对辽仍持鄙夷与仇视的心态，将其视为心腹之患。渤海灭亡以后原高句丽土地大部分已为辽所占有，而宋则连石敬瑭割让给辽的燕、云十六州也无法收回，现实迫使宋不敢声称原高句丽土地应该由自己继承，这些成为萦绕于宋人心头的难以释怀的梦魇。高丽王朝的慕华思想，宋与辽之间的深刻矛盾，宋与高丽在文化方面的联系，以及共同应对辽的政治需要，决定宋不可能承认辽对高句丽土地的继承，因为这将壮大与其处于战略对立态势的辽的力量，而对宋自身的国家利益则没有任何好处。宋既然在辽与高丽对于原高句丽土地的争夺中，不可能认同与支持辽一方，那就必然倾向与支持高丽一方，赞同高丽继承高句丽的观点。宋对高丽的支持可以加深与高丽的关系，进而得到高丽的理解与支持；有利于否定辽的正统性，削弱辽的影响与力量。

从客观方面来说，这种历史认识反映出南北朝以来传统的影响，以及文献缺少与史料不足的局限，高丽自我标榜而导致的认知的错误。有学者指出，中国从南北朝以后，以“高丽”作为“高句丽”简称开始流行，“高丽”与“高句丽”交替出现于史书。⁶⁹如《宋书》称少帝景平元年三月，“高丽国遣使朝贡”；景平二年春二月，“高丽国遣使贡献”。⁷⁰《魏书》称太延二年五月，“冯文通奔高丽”，世祖诏散骑常侍封拔“使高丽，征遣文通”。太延三年春正月，高丽“遣使朝献”。⁷¹我们考察《魏书》《北齐书》《周书》《隋书》《宋书》《南齐书》

⁶⁵ 郑麟趾：《高丽史》卷九十四，《徐熙传》。

⁶⁶ 脱脱：《辽史》卷四十六，《百官志二》。

⁶⁷ 金宗瑞：《高丽史节要》卷一，太祖癸卯二十六年。

⁶⁸ 金宗瑞：《高丽史节要》卷二，成宗壬午元年。

⁶⁹ 参见马大正、杨保隆等：《古代中国高句丽历史从论》，黑龙江教育出版社2001年版。

⁷⁰ 沈约：《宋书》卷四，《少帝纪》。中华书局1974年版。

⁷¹ 魏收：《魏书》卷四上，《世祖纪》上。中华书局1974年版。

等正史,可以看到大量的高丽遣使朝贡的记载。因为南北朝时期高丽王朝尚不存在,所以这些典籍所言高丽即为高句丽的简称,由此因而形成约定俗成的传统习惯,使人们将高句丽与高丽混为一谈,对后来探讨高丽的历史形成误导。宋人对朝鲜半岛历史的认识,既受到南北朝以来将高句丽称为高丽的影响,又因为道路阻隔与史料缺乏,所以了解其政权更替,往往根据道听途说,难以深入考察。《旧唐书》宣称:“高丽者,出自扶余之别种也。其国都平壤城,即汉乐浪郡之故地”。⁷²《旧唐书》为后晋刘昫在开运二年(公元945年)主持修成,其时高丽建国已经二十七年,而宋朝虽然尚未建立,但其记载对宋人认识高丽与高句丽关系有着直接的影响。《旧五代史》《新唐书》《新五代史》等正史,都将高句丽与高丽混淆起来。《旧五代史》称高丽“本扶余之别种,其国都平壤城,即汉乐浪郡之故地”,其“前王姓高氏”。⁷³《新唐书》曰:“高丽,本扶余别种也。”“其君居平壤城,亦谓长安城,汉乐浪郡故地也。”⁷⁴《新五代史》说:高丽“当唐之末,其王姓高氏”。又言王建乃“高丽大族也”。⁷⁵这些说明在五代与北宋那个时代,人们不了解从唐朝灭亡高句丽到王建建立高丽之前,朝鲜半岛在这二百五十年多年时间里,经历过那些历史事件与政权更替,因而根据传闻而以讹传讹导致认知的错误。《宋史》不仅称“高丽,本曰高句丽”,把高丽与高句丽混为一谈;而且强调“权知国事王建承高氏之位”,又引宋太祖诏书之语,称高丽“抚朱蒙之旧俗”,⁷⁶认定高丽对高句丽的继承。《宋史》虽然为元人所修,但所反映的则是宋人的观点。其所依据的史料主要是宋代历朝《国史·高丽传》,新、旧《五代史·高丽传》,以及《五代会要》、《宣和奉使高丽图经》等宋人文献,因而沿袭了这些史料中的不少讹误。⁷⁷宋人对高丽与高句丽关系的认知有着广泛影响,后世史书几乎众口一词,都将高丽说成是高句丽的继承者。《辽史》《金史》《元史》《明史》等,都立有《高丽传》或《朝鲜传》,都把高句丽与高丽写成一传,而将高句丽历史略述于前。高丽为高句丽继承者的观点,因而历代沿袭下来。

我们从上述考察中可以看到,在宋、辽、高丽三国鼎立的时代,彼此之间利益纠葛,各方矛盾纷繁复杂。关于高丽与高句丽的关系问题,或者说关于高丽是否继承高句丽的问题,不是简单的历史的认识问题,而是涉及三方利益的政治问题。高丽标榜为高句丽的继承者,辽却否定与反对高丽的自我标榜,宋则对高丽的观点表示认同与肯定,折射出各方不同的政治考量,反映出各国不同的政治利益。高丽称其继承高句丽,包含向北拓展土地的政治目的;辽否认高丽继承高句丽,则是出于维护自己的国家利益的需要;宋人认同高丽继承高句丽的观点,也与否定辽的正统性的政治需要紧密联系在一起。在徐熙与萧恒德谈判议和以后,高丽虽然面对强邻的武力威胁,出于应对现实环境谋求生存的需要,被迫从“事宋”转而“事辽”,但仅仅是在强力胁迫之下改变了宗藩关系,并没有改变其对高丽与高句丽关系这一问题的认识,更没有改变高丽打着高句丽继承者的旗号谋求政治利益,只不过迫于现实环境而对于辽暂时作出妥协,将其关于继承高句丽的观点搁置起来。宋则是影响辽与高丽关系的重要因素,宋、辽之间订立“澶渊之盟”以后,宋也不可能改变对高丽继承高句丽的认同,高丽也不可能改变对华夏文明的向往。我们既不能因为徐熙对高丽国家建树了辉煌的业绩,进而根据他在外交谈判中所说“高句丽之旧”,自我标榜为高句丽继承者以谋取实际利益的言论,就不加区分地将新罗人王建在十世纪建立的高丽,与扶余人朱蒙在公元前一世纪建立的、而在公元七世纪为唐所灭的高句丽联系起来;也没有必要因为宋人认同高丽继承高句丽,就赞成与支持高丽继承高句丽的观点,而应该将两者置于具体的历史时空中考察。中国学者普遍认为,高句丽与高丽之间,不构成前后继承的关系。无论是血缘、疆域乃至正统意识方面,

⁷² 刘昫:《旧唐书》卷一百九十九上,《东夷列传》。中华书局1975年版。

⁷³ 薛居正:《旧五代史》卷一百三十八,《外国列传第二》。中华书局1976年版。

⁷⁴ 欧阳修、宋祁:《新唐书》卷二百二十,《东夷列传》。中华书局1975年版。

⁷⁵ 欧阳修:《新五代史》卷七十四,《四夷附录第三》。中华书局1974年版。

⁷⁶ 脱脱:《宋史》卷四百八十七,《高丽传》。

⁷⁷ 参见顾宏义:《〈宋史高丽传〉史源考》,《中国边疆史地研究》2007年第4期。

高丽都不是古代高句丽王朝的直接继承。⁷⁸我在前人研究的基础上,从四个方面对此简要论述如下:

政权更替是否连续是考察两代政权有无继承关系的首要条件。高句丽与高丽两代政权之间相距长达数百年;高句丽作为部族名称在汉初即已存在,西汉中期汉武帝灭朝鲜后以其为县名,最初隶属于西汉玄菟郡境内。《汉书》载玄菟郡下辖三县,其首即为高句丽县。⁷⁹高句丽族首领接受中央朝廷任命的官职,从玄菟郡接受地方官按照官员品级应有的官服。《三国志》称:“高句丽令主其名籍”,“长从玄菟郡受朝服衣帻”。⁸⁰《后汉书》言:“武帝灭朝鲜,以高句丽为县,使属玄菟。”⁸¹汉元帝建昭二年(公元前37年),高句丽族在朱蒙率领下建立高句丽国,国都为纥升骨,成为古代东北亚地区第一个成熟国家。高句丽建国以后,虽然对于中原朝廷时降时叛,但并未断绝与中原王朝的关系。隋唐王朝对高句丽的战争,是中央政府对试图独立的地方政权的征讨。高句丽于公元427年曾以平壤为首都,公元668年为唐朝所灭。在唐朝灭亡高句丽二百五十多年以后,王建于公元918年建立高丽。高丽于公元935年灭新罗,翌年又灭后百济,统一了朝鲜半岛中南部,直到公元1392年为李氏朝鲜取代。从高句丽灭亡到王氏高丽建立,其时间间隔跨越四个世纪,不构成取代前者的关系。前后继承的两代政权在时间上应该是连续的,即前代政权灭亡以后由后代政权继之而起,而高句丽与王氏高丽两代政权之间,前者之亡与后者之兴在时间上没有连续性,后者并非是在前者灭亡以后代之而兴,故不存在前后继承的关系。

辖境区域是否重合是衡量两代政权有无继承关系的主要标准。高句丽与高丽两代政权统治的空间范围,大部分地区并不一致:高句丽立国于鸭绿江支流浑江流域及其附近地区,后来扩展到鸭绿江以东以南及图们江附近。高句丽的统治中心最初在鸭绿江的中游,即今辽宁的桓仁与吉林的集安一带,公元427年迁都平壤。其最强盛时期的疆域,东至日本海,西包辽东半岛,北到长白山,向南越过朝鲜半岛的大同江流域,达到龙兴江流域与汉江北岸。⁸²渤海国是唐朝灭亡高句丽以后,“以粟末靺鞨族为主体建立的从属于唐王朝的地方封建政权”,虽然其统治势力中包括部分高句丽后裔,但并非“非高句丽的继承国”。⁸³辽灭亡渤海以后,占有原属于高句丽的大部分土地。高丽则立国于原新罗的国境之内,继承原属于新罗的土地,虽然后来逐渐扩展到大同江以北至鸭绿江南岸,但其统治区域仅有极少的一部分与原高句丽的辖境重合,然这些仅仅是辽灭渤海前后,趁机夺取的原属高句丽的旧地。高句丽的统治范围主要在于平壤以北,朝鲜半岛北部及鸭绿江以东以南及图们江附近;高丽的国土疆域虽然曾推进到朝鲜半岛的北部,但没有完全控制原高句丽的土地,主要统治朝鲜半岛中南部地区。前后继承的两代政权在空间范围上应该是大体重合的,而高句丽与高丽两代政权统治范围的大部分不相重合,两者国土疆域的主体并不相同,故不存在前后继承的关系。

主体民族是否一致是评价两代政权有无继承关系的重要尺度。高句丽与高丽境内的主要民族并不相同;有学者认为,高句丽国境内的民族,以高句丽族为主体,而高句丽族则是逐渐发展起来的。⁸⁴有学者指出,高句丽族是由来自中原的殷遗民,战国至秦末的华夏族遗民,与来自蒙古草原的貉系民族,出自东胡族系的夫余人,在长期交往过程中融合而成。其族源

⁷⁸ 参见马大正等:《再论高句丽历史研究中的相关问题》,《古代中国高句丽历史续论(代前言)》,中国社会科学出版社2003年版。

⁷⁹ 班固:《汉书》卷二十八下,《地理志下》。中华书局1962年版。

⁸⁰ 陈寿:《三国志》卷三十,《高句丽传》。中华书局1982年版。

⁸¹ 范曄:《后汉书》卷八十五,《东夷传》。中华书局1965年版。

⁸² 杨军:《高句丽民族与国家的形成和演变》,中国社会科学出版社2006年版,第3页。

⁸³ 参见卢伟:《高句丽“小高句丽国”和“高丽国王”考辨》,《牡丹江师院学报》2008年第5期。

⁸⁴ 杨保隆认为,首先使用高句丽称号的是高夷人,构成高句丽族主体的是夫余人;在高句丽族发展壮大过程中,沃沮、小水貊、濊等先后被兼并,与高句丽凝聚为一族。高句丽族在汉武帝时还只是一县之内的一个部族集团,西汉末朱蒙建高句丽过后迅速发展壮大,三国时有户三万,南北朝时民户三倍于前魏时,成为中国东北地区的大民族。参见:《高句丽族族源与高句丽流向》,《民族研究》1998年第4期。

大体包括五支：“华夏族系、东夷族系、骆系、肃慎族系与东胡族系。从地域上看，东夷族系与肃慎族系是高句丽族后来兴起的区域里的土著民族，华夏族系与骆系、东胡族系分别是来自中原和蒙古草原的移民。”⁸⁵据中国学者研究，在高句丽国灭亡以后，高句丽族迁居中原各地者，约占总人口的四分之一或三分之一；投奔新罗者约为十万人，不到迁居中原的一半或仅三分之一；归入靺鞨（渤海）者约在十万人以上；散入突厥者约在万人以上。高句丽人融入到各族之中，作为一个民族整体已不复存在。⁸⁶王氏高丽是传承弓裔的泰封政权而来，泰封政权不是高句丽遗民为恢复高句丽而建立的，而是从新罗王朝这个母体中分化出来。弓裔本人即为新罗王室的庶子，其境内的居民主要是新罗人与百济人。新罗人源于朝鲜半岛南部地区的辰韩人与弁韩人，百济人则源于朝鲜半岛南部的马韩人。《后汉书》言：“韩有三种：一曰马韩，二曰辰韩，三曰弁辰。”马韩在西，辰韩在东，弁辰在辰韩之南，三韩之中，马韩最大，“皆古之辰国也。”朝鲜王准为卫满所破，“乃将其余众数千人走入海，攻马韩，破之，自立为韩王。准后灭绝，马韩人复自立为辰王。”⁸⁷高丽境内的主体民族，是由“三韩”融合而成的高丽族。太祖王建十五年自称“平定三韩”，十六年又称“控三韩之奥壤”，“领三韩之乐土”，⁸⁸其晚年的《十训要》强调：“赖三韩山川阴佑”，“统一三韩，叨居大宝”，⁸⁹统一马韩、辰韩和弁韩，高丽王族后代多以拥有“三韩”自居。史称王建“参用新罗、泰封之制，设官分职，以循庶务”，⁹⁰“合三韩为一家”。⁹¹前后继承的两代政权境内的主体民族应该是相同的，而高句丽与高丽境内的主体民族并不相同，故不存在前后继承的关系。

君主王族是否相同是审视两代政权有无继承关系的另一视角。高句丽建立者为扶余人朱蒙，其王族以高氏为姓，故称“高氏高丽”。《旧唐书》称高句丽灭亡以后，“高氏君长遂绝矣”。⁹²有学者指出：“从朱蒙建高句丽国后直到唐代国亡，国王均是朱蒙的后裔担任，或父死子继，或兄终弟及。”⁹³高丽建立者为新罗人王建，其王族则为王氏，家族后裔传承王位，故称“王氏高丽”。宋人对高句丽与高丽君主王族的不同，并未进行认真考察与深入探究；而对高丽太祖王建的家族渊源，更是因为史料缺乏而无从了解。欧阳修称：“王建，高丽大族也”，⁹⁴对其家世渊源则没有任何记载。曾巩有言：“窃考旧史，高句丽自朱蒙得纥升骨城居焉，号曰高句丽，因以高为氏，历汉至唐，高宗时其王高藏失国内徙。圣历中，藏子德武安都督，其后稍自为国。元和之末尝献乐工，自此不见于中国。五代同光、天成之际，高丽王高氏复来贡而失其名。长兴三年，乃称权知国事王建遣使奉贡，因以建为王。建子武，武子昭，昭子仙，仙弟治，治弟诵，诵弟询，相继而立。盖自朱蒙至藏，可考者一姓九百余年，传二十一君而失国。其后，复自为国，而名及世次兴废之本末，与夫王建之所始，皆不可考。”⁹⁵曾巩为北宋中期朝廷的史官，对于高句丽灭亡到高丽的建立，以及太祖王建的家族渊源等，坦承“皆不可考”。高丽史料对于其君主王族的渊源也没有任何记载，《高丽史》称“高丽之先，史阙未详”，⁹⁶仅称王建为松岳郡人，对其家世渊源则没有任何说明。⁹⁷我们

⁸⁵ 杨军：《高句丽民族与国家的形成和演变》，第147页。

⁸⁶ 参见杨保隆：《论高句丽与王氏高丽无前后相承关系》，《社会科学战线》1999年第1期。

⁸⁷ 范曄：《后汉书》卷八十五，《东夷列传》。

⁸⁸ 郑麟趾：《高丽史》卷二，《太祖世家二》。

⁸⁹ 郑麟趾：《高丽史》卷二，《太祖世家二》。

⁹⁰ 郑麟趾：《高丽史》卷七十六，《百官志一》。

⁹¹ 郑麟趾：《进〈高丽史〉劄》，《高丽史》卷首。

⁹² 刘昫：《旧唐书》卷一百九十九上，《高丽传》。

⁹³ 杨保隆：《高句丽族族源与高句丽流向》，《民族研究》1998年第4期。

⁹⁴ 欧阳修：《新五代史》卷七十四，《四夷附录第三》。

⁹⁵ 李焘：《续资治通鉴长编》卷三百二十三，元丰五年二月。中华书局1979年版。

⁹⁶ 郑麟趾：《高丽史》卷首，《高丽世系》。

⁹⁷ 中国学者对王建的家族渊源，进行过考证与研究，其成果颇有见地。在《古代中国高句丽历史从论》中，杨保隆先生指出，王建的远祖极可能为乐浪郡的汉人。史长乐先生在《唐明宗披露了高丽太祖王建的族籍》一文中，通过对有关史料的分析，认定王建并非半岛土著新罗人的子孙，而是来自中国淮河流域的汉人的

可以推断的是,如果高丽王族与高句丽王族存在渊源关系,王建必然大加渲染,以此作为标榜正统地位的理由,其不置一言只能从反面说明,两者根本不存在任何关系。高句丽与高丽两代政权君主王族的渊源并不相同,不存在前后继承的关系。

总之,在宋、辽、高丽鼎立的时代,关于高丽与高句丽两代政权的关系问题,或者说关于王氏高丽是否继承高句丽的问题,直接涉及三方的利益。高丽标榜为高句丽的继承者,包含向北扩展土地以占据高句丽旧地的意图;辽否认高丽作为高句丽继承者的地位,则是出于维护自己的国家利益的目的;宋人认同高丽为高句丽继承者的观点,与否定辽的正统性有着密切的关系。我认为高句丽与王氏高丽作为朝鲜半岛曾经存在的两个政权,因为彼此之间的时间间隔长达数百年,统治空间范围大部分不一致,境内的主体民族也不相同,君主王族更没有任何关系,所以两者之间不构成前后继承的继承关系,不应该将这两个政权混为一谈,关于高丽继承高句丽的观点是不符合历史事实的。⁹⁸杨保隆先生说得好:“无论王氏高丽,还是宋与契丹王朝,他们都不把王氏高丽视为高句丽‘之旧’,而总是以‘三韩’代称之。所以这样,是因为王氏高丽的大部分区域在三韩故地,主体居民是世代生活在那里的民众,统治集团成员主要是新罗人。尽管王氏高丽在发展过程中,逐渐占有了大同江以北的一些地区,但这些地方并非高句丽的故地。”⁹⁹我们正确地揭示高丽与高句丽之间的关系,不认同高丽继承高句丽的观点,这与充分肯定徐熙对高丽国家的贡献并不矛盾。徐熙在辽军大举入侵、高丽面临严重危难的时刻,挺身而出捍卫国家的利益。他强调高丽统治者的观点,宣称高丽为高句丽的继承者,目的在于与辽的谈判中为国家谋求更多的利益。这反映出其高超智慧与杰出谋略,即使在今天看来也是无可厚非的。

主要参考文献:

- 郑麟趾:《高丽史》,亚细亚文化社 1990 年版。
金宗瑞:《高丽史节要》,亚细亚文化社 1972 年版。
金富轼:《三国史记》,吉林文史出版社 1992 年版。
徐居正:《东国通鉴》,景仁文化社 1994 年版。
《韩国文集丛刊》[1]、[2]、[3]: 景仁文化社 1996 年版。
李丙焘:《韩国史》,汉城,己酉文化社 1961 年版。
卢启铨:《高丽外交史》,紫荆译,延边大学出版社 2002 年版。
金渭显:《契丹的东北政策—契丹与女真关系之研究》,台北华世出版社 1981 年版。
范曄:《后汉书》,中华书局 1962 年版。
陈寿:《三国志》,中华书局 1959 年版。
沈约:《宋书》,中华书局 1974 年版。
萧子显:《南齐书》,中华书局 1972 年版。
魏收:《魏书》,中华书局 1974 年版。
刘昫:《旧唐书》,中华书局 1975 年版。
欧阳修、宋祁:《新唐书》,中华书局 1975 年版。
薛居正:《旧五代史》,中华书局 1976 年版。
欧阳修:《新五代史》,中华书局 1974 年版。
脱脱等:《宋史》,中华书局 1985 年版。
脱脱等:《辽史》,中华书局 1974 年版。

后裔。参见《东北史地》2007 年第 3 期。

⁹⁸ 金富轼的《三国史记》首列新罗,认为新罗王朝“归命”高丽。

⁹⁹ 杨保隆:《论高句丽与王氏高丽无前后相承关系》,《社会科学战线》1999 年第 1 期。

- 厉鹗：《辽史拾遗》，四库全书本。
- 叶隆礼：《契丹国志》，上海古籍出版社 1985 年版。
- 马端临：《文献通考》，中华书局 1986 年版。
- 徐兢：《宣和奉使高丽图经》，大象出版社 2008 年版。
- 李焘：《续资治通鉴长编》，上海古籍出版社 1986 年版。
- 洪迈：《容斋随笔》，江苏扬州广陵古籍刻印社 1984 年版。
- 魏志江：《辽金与高丽关系考》，香港天马图书有限公司 2001 年版。
- 全海宗：《中韩关系史论集》，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97 年版。
- 蒋非非、王小甫：《中韩关系史》（古代卷），社会科学文献出版社 1998 年版。
- 杨通方：《中韩古代关系史论》，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96 年版。
- 杨渭生：《宋丽关系史研究》，杭州大学出版社 1997 年版。
- 黄枝连：《东亚的礼义世界：中国封建王朝与朝鲜半岛关系形态论》，中国人民大学出版社 1994 年版。
- 马大正、杨保隆等：《古代中国高句丽历史丛论》，黑龙江教育出版社 2001 年版。
- 马大正等：《古代中国高句丽历史续论》，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3 年版。
- 李德山、栾凡：《中国东北古民族发展史》，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3 年版。
- 杨军：《高句丽民族与国家的形成和演变》，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6 年版。

作者：庞天佑，历史学博士，湛江师范学院法政学院历史系教授，北京师范大学史学理论与史学史研究中心兼职教授。

4
토론

[高麗왕조에 대한 徐熙의 貢獻]에 대한 토론문

김인호

(광운대학교 교수)

[高麗왕조에 대한 徐熙의 貢獻]에 대한 토론문

김인호(광운대)

발표문은 서희에 대한 평가와 함께, 고려의 고구려 계승 문제를 다루고 있다. 발표문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와 고려와의 전쟁이 벌어진 역사적 배경에 대해 논하였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문화전통의 차이가 있다. 그것은 거란의 유목민족적 특성과 고려의 유교문화의 차이, 고려에 의한 거란의 멸시 등이 작용했다. 또한 고려와 중국과의 문화적 동질성이 존재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국가 이익의 충돌 문제다. 고려의 북진 정책은 고구려의 계승자로 자처해 온 결과이고, 이것이 요를 자극하였다. 요는 송과 전쟁을 하면서 고려의 세력억제와 동부 변경지역의 안정을 꾀해야 했기에 충돌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토론자는 크게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

또한 발표문에서는 서희가 양국의 문제를 냉철하게 분석했고, 요의 침략 원인을 파악하였다. 요의 의도는 고려와 송과의 관계를 끊고 고려의 북진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이때 이전은 양국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었다. 특히 요는 서희와의 회담으로 종주국으로서의 지위를 얻었고, 고려와 송과의 관계를 끊어 후방 지역의 염려를 제거할 수 있었다. 이 점에 대해 발표자는 '文化傳統'이 '現實狀況'에 굴복한 것이며, 동시에 '思想意識'이 '國家利益'과 타협한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토론자의 입장에서 문화전통이 현실상황에 굴복했다는 것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문화전통이란 발표자의 '華夏文化' 즉 중국문화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요와의 타협'이라는 현실상황에 굴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국가 외교의 정책 결정은 대개 문화적 전통보다 현실적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 이것은 전근대 시대의 왕조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다. 즉 문화전통이 현실적 이익보다 외교정책 결정에서 앞설 수 없다는 뜻이다.

한편, 서희의 고려왕조에 대한 공헌은 2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는 원대한 포부와 선견지명을 갖춘 전략가로서 서희는 전세를 간파한 후, 놀라운 정치적인 지혜를 발휘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침착하고 叡智로운 실용적인 외교가로서 서희를 평가하였다.

그렇다면 서희는 실용적인 외교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발표문에서는 그의 가문이 지적되고 있지만, 정세 판단력과 아버지 서원 등이 지녔던 도덕성은 큰 관련이 없어 보인다.

아울러 마지막 부분에서는 고려의 고구려 계승과의 관련성을 발표문에서 논하고 있다. 이 논의는 한국학계와 견해의 차이가 큰 부분이다. 이 발표문에서는 결론적으로 고구려는 말해 및 고려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단지 고려의 고구려 계승의식은 현실적 필요, 즉 백성과 호족들이 강성한 왕조에 대한 그리움을 갖도록 하고, 더 나아가 말해의 관여세력을 회유하려는 의도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하였다.

고려와 고구려와의 상관성이 없다는 근거는 血緣·疆域 내지 正統意識 등의 세 측면에서 보았다. 그에 따라 고려는 고구려와 왕조 교체 상으로 연속선상에 없다는 점, 말해국은 唐 왕조에 속한 지방봉건정권으로 고구려의 계승국이 아니라는 점, 태봉의 경우는 민족이 신라와 백제계의 사람들이므로 고구려와 관련이 없다는 점, 고구려왕족이 국가 멸망 이후 없어져서 혈연상으로 고려와 관계가 없다는 점 등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정통계승 의식은 현재의 영토 문제와 관련된 정치적 의도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발표자가 그런 의도로 발표문을 작성했다는 뜻은 아니다. 둘째, 말해는 당왕조에 속한 지방정권이라고 한국학계는 보지 않는다. 말해는 고구려의 영역을 계승하였고, 왕족도 고구려 출신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해의 고려 歸附는 고려가 고구려의 정통성을 계승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려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모두 통합하는 정통의식을 지녔다. 후삼국의 통일이 이를 말해준다. 이 점은 혈연과는 관련이 없으며, 혈연은 민족 형성의 한 요인일 뿐이다. 고려는 비록 영역상으로 과거 고구려 지역을 많이 상실했지만, 한반도에 걸췌던 세 국가인 고구려, 백제, 신라를 모두 통합했다는 강렬한 의식이 있었다. 그로 인해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내세웠던 것이다.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City of Crafts and Folk Art

Member of the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since 2010

